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1강 시의 표현과 형식

본문 009~010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 01 (1) ○ (2) × (3) ○ (4) ○
 02 ㉔: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03 ㉔

■ 김광균, 「추일서정」

해제 이 작품은 회화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가을날의 쓸쓸한 풍경을 묘사하고 그로부터 느껴지는 화자의 고독감을 드러낸 시이다. 시의 앞부분에서는 감정의 직접적 제시 없이 근대의 도시 문명과 관련된 소재들을 통해 독특한 비유를 구사함으로써 화자의 눈에 비친 낯설고 황량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뒷부분에서 화자의 행동과 함께 그가 느끼는 애수와 고독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가을날의 황량한 풍경과 고독감

구성

- 1~3행: 쓸쓸한 낙엽의 모습
- 4~7행: 가을 햇살 속 길과 들판의 모습
- 8~11행: 나무, 공장, 구름의 쓸쓸한 풍경
- 12~16행: 황량한 풍경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

- 01 (1) [A]는 가을날 낙엽을 보고 떠올린 내용이다. 이는 ‘폴—란드 망명정부’, ‘도론 시’ 등 이국적인 정서를 환기하는 시어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폐허에 관해 연상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2) [B]에는 대비되는 색채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통해 계절적 배경인 가을날 자연의 변화상을 구체화한 부분도 없다.
 (3) [C]에서는 ‘포플라 나무’가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모습을 동물의 ‘근골’과 연관 짓고, ‘구름’을 ‘세로팡지’라는 이질적 재료와 연관 짓는 표현을 구사하였다.
 (4) [D]의 ‘폴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는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 또는 촉각적 심상으로 전이하는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된 것이고, ‘흙로’를 ‘호올로’라고 표현한 것은 시적 허용이다. 이를 통해 풀밭을 공연히 밟로 차거나 허공에 돌팔매를 띄우는 화자의 행위에 담긴 쓸쓸한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02 도시 문명과 관련된 ‘공장’이라는 소재를 활용하면서, 그 지붕이 마치 야수처럼 ‘흰 이빨을 드러내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근대 문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시각적 심상을 통해 드러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03 ㉔은 원관념 ‘길’을 보조 관념 ‘한 줄기’에 빗댄 은유가 아니다. 4행에는 원관념 ‘길’의 모습을, 그것과 형태적 유사성이 있는 보조 관념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에 빗댄 직유가 사용되었다. 또 이 시의 화자가 현 상황의 수용이 불가피한 처지에 있고 ‘한 줄기’의 ‘길’은 이를 빗댄 표현이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도 없다.

2강 시의 내용

본문 012~013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 01 ㉔: (가) × (나) × ㉔: (가) × (나) ○
 ㉔: (가) ○ (나) ○ ㉔: (가) ○ (나) ×
 02 ㉔
 03 ㉔

(가) 김천택, 「백구야 놀라지 마라 ~」

해제 이 작품은 임금에게 버림받은 한 신하가 강호로 들어가 백구(갈매기)와 더불어 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시조이다. 초장에서 백구를 불러들인 다음 중장에서는 자신의 사연을 드러내고, 중장에서는 백구와 더불어 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강호기도 계열의 작품으로서 작가가 표시되지 않은 채 수록된 가집도 있다.

주제 임금에게 버림받고 강호에서 노닐겠다는 의지

구성

- 초장: 백구에게 놀라지 말라고 당부함.
- 중장: 화자가 백구 곁에 오게 된 사연
- 종장: 백구와 더불어 놀겠다는 의지

(나) 작자 미상, 「백초를 다 심어도 ~」

해제 이 작품은 언어유희의 효과를 살려서 이별의 아픔을 그려 낸 시조이다. 대나무로 만드는 도구인 젓대와 살대, 붓대의 기능을 이별 상황에 연결하였다. 피리를 불면 소리가 나는 것을 운다고 하고, 화살을 쏘면 날아가는 것을 간다고 하였으며,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연결함으로써

이별 상황에서의 그리움을 은근히 표현하였다. 시적 발상 면에서 해학성을 품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임과의 이별에서 오는 아픔

구성

- 초장: 대나무를 심지 않겠다는 의지
- 중장: 울고 가고 그리는 대나무의 모습
- 종장: 대나무를 심지 않겠다는 의지와 그 이유

(다) 작자 미상,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

[해제] 이 작품은 미운 입을 반기고 고운 입을 박대하는 개 한 마리에 대한 태도를 통해 사랑하는 임과의 재회에 대한 염원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실시조이다. 개가 미운 입과 고운 입을 대하는 대조적 태도를 상세하게 묘사하여 사실시조 특유의 해학성을 보여 준다.

주제 미운 입을 반기고 고운 입을 내쫓는 개에 대한 원망

구성

- 초장: 알미운 개에 대한 원망
- 중장: 개가 알미운 이유
- 종장: 개의 알미운 짓에 대한 대응

01 ㉠은 (가)와 (나)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않는다. ㉡은 (가)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나)의 ‘대 심을 줄이 있으랴’에서 확인된다. ㉢은 (가)의 ‘아니로다’와 ‘왔노라’, (나)의 ‘붓대로다’에서 확인된다. 감탄형 어미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은 (가)의 ‘백구’라는 명시적 청자가 나타나 있고, ‘백구야’, ‘놀라지 마라’, ‘너’에서 대화적 어조를 확인할 수 있다. (나)에서는 명시적 청자도, 대화적 어조도 나타나지 않는다.

02 <보기>의 내용은 원래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개에 대한 응징에 해당한다. 그런데 개를 아예 팔아넘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밥을 굶겨서 고통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제거하겠다는 발상이다. 참고로 <보기>는 다른 가집에 실제로 수록되어 있는 이본의 종장이다.

03 (가)에서 화자가 이왕 버림받은 김에 강호에서 백구와 노는 것도 좋다고 한 것은 성상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은폐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을 속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화자는 성상에게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고 이를 백구와 더불어 노는 일에 비교하면서 가치의 우열을 밝히지도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신하가 임금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은 낭패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백구와 더불어 놀 수 있는 기

회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황의 합리화로 볼 수 있다.

③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 상황은 화자 자신이 감당해야 할 갈등 상황이다. 그런데 (나)는 마치 그 원인이 불문 소리 내어 오는 것대, 쏘면 날아가는 살대, 그림을 그리는 붓대를 만드는 대나무를 심었기 때문인 것처럼 간주하는 발상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나무를 심지 않으면 울고 가고 그리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 주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기대를 통해 이별에서 오는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④ (다)의 시적 정황상 화자가 미운 입일지언정 불가피하게 만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다)를 고운 입이 따로 있으면서도 미운 입을 부득이 만나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본다면, 이 시의 화자는 도덕적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화자는 이런 사태에 대해 개가 미운 입을 반겨서 맞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구실을 붙인 셈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자는 도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감쇄하여 그 갈등에 적응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화자가 고운 입을 만나지 못하는 사태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있거나 두 사람 중 하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다)가 고운 입이 자신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를 원망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 문제 사태가 임의 변심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고운 입을 쫓아낸 개의 방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임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동요될 수 있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강 소설의 서술상 특성

본문 015~017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⑤

02 (1) × (2) × (3) ○

03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 박완서, 「해산 바가지」

[해제] 이 작품은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태어난 손주들을 경건하게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생명 존중 사상을 환기하면서, 남아 선호 사상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 또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부양 문제로 갈등하던 ‘나’가 ‘해산 바가지’를 통해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 의식을 환기하며 자

신을 성찰하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가 겪는 노인 소외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주제 남아 선호 사상 비판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전체 줄거리 ‘나’는 딸만 낳은 며느리를 구박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나’의 남편은 외아들인데, 첫딸을 낳고 ‘나’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바랐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편해한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손주들을 맞이한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힘들게 시어머니를 모시던 ‘나’는 신경 안정제를 복용할 정도로 괴로워한다. 결국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남편과 함께 요양원을 보러 가던 중에 초가지붕의 박을 보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해산 바가지’를 떠올리며,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의 태도를 깨닫는다. ‘나’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자신을 반성하고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기로 결심한다. 이후 ‘나’는 3년 동안 시어머니를 더 모시고,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임종을 맞이한다.

01 [A]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증상과 그것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을 서술자인 ‘나’의 목소리로 직접 전달하고 있고, [B]의 경우 주로 등장인물인 ‘나’와 남편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02 (1) 시어머니는 ‘나’가 딸을 낳아서 더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나 딸에 관계없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 ‘희색이 만면하고도 경건한 의식’을 진행한 것이다.

(2)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며 ‘나’가 서서히 알게 된 것이지 시어머니의 조카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아니다.

(3) ‘나는 온종일 달달 볶고 있는 것처럼 신경이 피로했다. 차라리 똥오줌 치는 게 온종일 같은 말 대꾸하는 것보다 덜 지겨울 것 같았다.’라는 내용을 보면, ‘나’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수발에 육체적인 측면보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더 힘들어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3 ‘나’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수발에 피로함과 괴로움을 느끼고 그녀를 요양 시설에 맡기고자 한 것은 시어머니를 치매에 걸린 현재의 모습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느낀 것은 생명의 숭고함을 존중하시던 시어머니의 과거 행동과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나’의 각성은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의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강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본문 019~021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①

02 ㉠: 해진 짚신

㉡: 사랑, 애정

03 ㉠: 비난

㉡: 두려운, 두려워하는, 미안한

■ 임방, 「눈을 쓸며 옥소선을 엮는다」

【해제】 이 작품은 임방(1640~1724)이 엮은 『천예록(天倪錄)』에 실려 있다. 야담과 소설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작품은 사대부 남성과 기녀 간의 사랑을 다룬다. 남녀 주인공들은 빼어난 재주와 자태를 가진 인물로서, 부모에 대한 효성과 입신양명이라는 당대적 가치를 중시하며, 당시의 신분 질서 또한 존중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적 욕구인 사랑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무시하기도 한다. 사랑이 성취된 후에는 다시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남주인공은 입신양명을 이루고 여주인공은 사대부가의 정실이 되는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된다.

주제 신분을 뛰어넘는 남녀 간의 사랑

전체 줄거리 어느 평안도 관찰사가 자신의 생일날 아들과 어린 기녀인 자란(옥소선)을 짝지어 춤을 추게 한다. 이를 인연으로 두 사람은 6년간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관찰사가 임기를 마치고 대사헌에 임명되면서 둘은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들은 매정하게 자란을 버리고 떠난다.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 절에 가서 공부를 하던 중 그 아들(지문에서 ‘생’으로 지칭됨)은 자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여 밤길을 나서 자란의 집을 찾아간다. 그러나 자란은 이미 새로 부임한 관찰사 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만날 수가 없다. 아들은 자란이 거거하는 산정의 마당을 쓰는 인부로 들어가 눈을 치우는 척하면서 자란과 만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 후 두 사람은 마을에서 도망쳐서 깊은 골짜기에 가서 살림을 차리고 정착을 한다. 자란은 관찰사의 아들에게 공부에 전념할 것을 권하고,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서게 된다. 두 사람의 사연을 들은 왕은 혼인을 허락하고, 두 사람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산다.

01 아버지가 자란과의 인연을 이어 나가겠다고 하면 이를 허락하겠다고 했으므로 아들이 굳이 거짓으로 자란과의 인연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고 말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자란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난 것은 자란과 헤어진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의 일이므로 그 당시에도 자란을 사랑하는 마음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02 아들의 말에서 자란과의 인연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그녀를 ‘해진 짚신’에 빗대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충동적인 행동이긴 하나 안온할 수 있는 삶을 버리고 한밤중에 길을 나서 자란을 찾아가고 깊은 산중으로 도망쳐서 인연을 이어 가는 것을 보면 그는 애정 지상주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03 아무리 기녀라 하더라도 부모가 걱정할 정도로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면 생은 이별에 대해 최소한 아쉬움이라도 표현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쉽게 떠나는 인물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주변 인물들의 존재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인물들이 설정된다면 서사적 상황이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과장에 어가가 행차했으므로 신하들도 당연히 주변에 있었을 것이고, 생은 자신의 아버지도 그 어딘가에 있으리라 짐작하고 두리번거리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면, 모든 소식을 꿰고 3년간 잠적했던 과오를 가진 인물로서 두려운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으로 긴장하고 있는 장면도 그려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인물의 내면 심리에 대한 묘사를 통해 서사적 상황이 더욱 입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줄거리 곰치는 마을의 부자인 임제순에게 싹배를 빌려 만선의 꿈을 가지고 고기를 잡지만, 빚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느 날 부세 떼가 몰려오지만 곰치는 임제순의 빚 독촉으로 배를 묶이고 만다. 곰치는 만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계약서에 손도장을 찍고 바다로 나가지만 거센 풍랑을 만나 딸의 애인 연철과 아들 도삼을 잃고 혼자 돌아온다. 이로 인해 곰치의 아내 구포덕은 정신 이상자가 되고, 애인을 잃은 슬슬이도 큰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곰치는 만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 남은 어린 아들이 열 살만 되면 어부로 만들리라고 결심한다. 이 사실을 안 구포덕은 아들을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풍랑이 이는 바다에 배를 띄워 육지로 떠나보낸다. 곰치가 아들을 찾으러 나간 사이, 빚 때문에 아버지뻘 되는 범쇠에게 팔려 갈 처지에 이른 슬슬이는 스스로 목을 맨다.

01 앞서 도삼을 언제 건졌냐는 구포덕의 물음에 어부 A는 성삼과 어부 B의 눈치만 보고, 성삼은 질문에 대답을 하지 말라고 절규하는 것으로 보아, 도삼은 바다에 빠져 죽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포덕이 재차 도삼의 행방을 물었고, 그에 대해 어부 B가 말을 더듬어 못 봤다고 말하는 것은 난처한 질문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2 (1) 어부 A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놈 건지느라고……’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누구는 아들 잃고 춤춘다냐?’라는 곰치의 말을 보면 곰치 역시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도삼을 보지 못했다는 어부 B의 말에 ‘정신이 나가 기절할 듯’, ‘실성한 사람처럼’ 반응하는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03 ‘만선’은 어부로서의 곰치가 평생을 꿈꾸던 일이다. 이를 위해 곰치는 끊임없이 바다로 나가지만 정작 ‘만선’에 대한 짐작으로 인해 형제들과 아들까지 잃고, 아내는 정신마저 이상해지는 비극을 맞게 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 구조는 주인공의 욕망과 현실의 결과가 반대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적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제목 ‘만선’은 이와 같은 아이러니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강 극의 특성과 극 문학의 구성 요소

본문 023~025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③

02 (1) ○ (2) × (3) ○

03 ‘만선’은 어부 곰치의 소망과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짐작으로 인해 오히려 가족의 비극과 파멸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천승세, 「만선」**

【해제】 이 작품은 바다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며 만선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한 어부의 집념과 그로 인한 비극적 삶을 다룬 희곡이다. 작품의 제목인 ‘만선(滿船)은 우리의 삶의 욕망이며,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상징한다. 작품 속에서 곰치는 이러한 욕망 성취를 위해 행동하고 의지를 발하는 실존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주제】 한 어부의 만선에 대한 집념과 좌절

6강 교술 문학의 특성과 구성 요소

본문 027~030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1) × (2) ○ (3) ○ (4) ○ (5) ×

02 ③

03 비판 없이 남의 것만을 새롭고 곱게 보려는 풍조

■ 최순우, 「연경당에서」

[해제] 이 작품은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에 실려 있는 수필로, 문화재이자 전통 건축물인 연경당에 대한 글쓴이의 경험과 사색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글쓴이는 연경당에서 느껴지는 청초함과 자연스러움, 조화로우며, 수수함 등이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연경당에 대한 깊은 애착을 드러낸다. 또한 한국의 주택 문화를 성찰하면서 남의 것만을 새롭고 곱게 보려는 우리 사회의 풍조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연경당과 같은 한국 주택이 품고 있는 아름다움을 현대에도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주제] 연경당에서 느껴지는 한국적 아름다움과 그 문화적 가치

■ 구성

- 처음: 연경당의 자연스러움과 조화미(수록 부분)
- 중간 1: 가을 연경당의 수수한 아름다움과 연경당에 대한 애착(수록 부분)
- 중간 2: 한국 주택 문화에 대한 성찰과 연경당의 가치(수록 부분)
- 끝: 비원 깊숙한 숲속 연경당의 모습

01 (1) [A]의 ‘연보랏빛 필터를 낀 카메라의 눈처럼’에 색채 이미지와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건축물이 지어졌을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연경당 넓은 대청에 걸터앉아 세상을 바라보면’을 고려하면 글쓴이가 직접 건축물을 경험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2) [B]의 ‘팔작집’, ‘방주’, ‘덧문’, ‘미닫이’, ‘땃돌들’ 등에서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열거한 것을, ‘화강석 땃돌들의 부드러운 감각’에서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글쓴이는 촉각적 이미지와 열거를 통해 제시한 부분들이 ‘조화되어서 이 건물 전체의 통일된, 간결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고 하고 있다.

(3) [C]의 ‘가을 소리 빛소리에 낙엽이 축축이 젖는 하오’, ‘가을비’ 등에서 계절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뿐히 고개를 ~ 감싸안고 있다.’에서 의인화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글쓴이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묘사한 건축물에서 ‘장대나 화

미 따위는 발을 붙일 수도 없는 질소의 미덕’을 떠올리며 수수한 분위기가 환기됨을 드러내고 있다.

(4) [D]에서 ‘우리 민족이 쌓아 온 생활 문화의 기념탑’은 조선 시대 주택이 오래도록 기념하면서 후대에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임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어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고유한 ~ 보존되어야 마땅하다.’에서 당위적인 표현을 통해 한국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글쓴이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5) [E]에서 ‘자라나고’를 반복하여 한국 주택이 지닌 전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역설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02 글쓴이는 연경당이 자신의 것이었으면 하는 공상을 하거나 친구들에게 ‘연경당 같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 보고 싶다는 농담을 해 본다고 하였으나 연경당을 소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또한 ‘평생 잊을 수 없는 여인’은 글쓴이가 연경당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기 위해 연경당을 빗댄 대상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연경당을 소유하여 그곳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여인’과 함께 생활하겠다고 다짐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연경당이 ‘왕자의 금원 속에’ 있음을 언급하면서, ‘궁원다운 요염이 깃들일 성도 싶지만’ 연경당에는 그러한 티가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② 글쓴이는 ‘지금은 모두 빈방이 되었지만’ 방에 ‘세련된 문방 가구들이 있었음을 떠올리면 현재의 ‘연경당의 아름다움’이 ‘반실이 되어 버린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글쓴이는 ‘한국과 한국 사람이 낳은 조형 문화 중에’ 주택 문화가 ‘한국의 개성을’ 가장 실감 나게 드러내며, 주택 문화 중에서도 ‘가장 세련된 예의 하나가’ 연경당이라는 생각을 드러내면서, 그러한 연경당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결정체’라고 표현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동쪽 뜰 기슭’의 ‘선향재’와 ‘선향재의 뒤 언덕 위’의 ‘농수정’이 연경당의 담담한 분위기에 풍류를 더하기 위해 배치되었으리라고 짐작하면서, ‘설계자’가 ‘연경당 한 채가 주위의 자연 속에서 어떻게 멋지게 바라보일까를 먼저 계산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03 글쓴이는 19세기 말 이후 한국의 주택 문화를 돌아보고 ‘아름다운 조선의 주택 문화는 발육을 멈추었다고 하면서 전통 건축이 자취를 감추어 가는 상황을 조명한다. 그리고 ‘비판 없이 남의 것만을 새롭고 곱게 보려는 풍조’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7강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

본문 032~035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 01 ㉔
- 02 ㉔
- 03 위태로운 상황(상태)

■ 황순원, 「곡예사」

해제 「곡예사」는 1951년에 발표된 소설로, 6·25 전쟁으로 내려온 대구와 부산 등의 피난지에서 작가가 겪어야 했던 피난 체험을 1인칭 시점으로 형상화한 자전적 소설이다. 작가는 「곡예사」에 대해 “이것을 쓰면서 나는 나 개인의 반감, 증오심, 분노 같은 것을 억제하기에 저자기 노력해야만 했다.”라는 창작 소회를 달아 놓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피난 생활에서 겪었던, 가장으로서의 무력감과 좌절감 등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전쟁을 소재로 한 다른 소설들과 달리 전쟁의 참상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대신, 전쟁이 개인의 윤리와 인정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그리고 피난 생활을 하는 한 가족의 일상을 얼마만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 등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주제 피난지에서 경험하는 삶의 고달픔과 전쟁의 참상

전체 줄거리 전쟁이 일어나자 ‘나’는 먼저 가족을 대구로 피난 보낸 후 뒤따라 도착한다. ‘나’의 가족은 대구에서 지인의 도움으로 변호사택 헛간에서 피난살이를 시작한다. 그러나 주인집 노파의 엄격한 생활 규율에 고통을 당하고, 결국 ‘나’의 가족은 대구의 피난살이에서 쫓겨나 부산으로 가게 된다. 이후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부산의 변호사택에 방 한 칸을 얻어 피난살이를 이어 간다. 어린아이들까지 껌을 팔거나 담배를 파는 등의 경제적 행위에 내몰리며 어려운 피난살이를 이어 갔으나, 얼마 되지 않아 방을 빼 달라는 주인의 요구를 받게 된다. ‘나’와 아내는 백방으로 방을 구하려 노력하지만 방을 쉽게 얻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가족들과 함께 귀가하다가, 자신은 물론 어린 자녀들까지 곡예단의 곡예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디 자식들은 어른이 되어 자신처럼 슬픈 곡예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피난살이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01 ㉔는 ‘나’와 가족들이 거처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정원에 변소를 만든 것을 알게 된 후 야단법석을 하던 노파는 ㉔를 ㉔로 쓰겠다고 비위 달라는 요구를 한다. 노파의 이러한 요구가 생존에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내력 역시 ‘나’는 ‘그날로’ 식모에게서 들은 말을 전달한 아내로부터 알게 된다. 즉 대구를 떠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는 방, 사람이 살기 위해 벽 따위로 만든 칸, ㉔는 헛간, 물건을 쌓아 두는 공간이므로 표면적 의미는 다르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과 헛간이 가리키는 공간은 실제로는 동일하다.
- ② 노파가 방을 비위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나’와 가족들이 정원에다 뒷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㉔와 같이 방으로 쓰고 있는 공간을 ㉔와 같은 헛간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방을 비위 달라는 요구를 위한 구실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㉔는 현재 ‘나’와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노파의 말을 통해 실은 ‘구공탄이나 들일’ 공간, 즉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④ ‘나’와 가족은 자신들이 거처하는 공간이 실은 ‘헛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화장실도 없는 공간에 살면서도 방을 비위라는 말을 아내가 ‘근심스런 어조’로 ‘나’에게 전하는 것을 볼 때, ‘나’와 가족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02 ‘나’가 처녀들의 시선이 ‘멀시에 찬 눈초리였든 어쨌든’, ‘아무래도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녀들의 시선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던 간에 그녀들의 행위와 태도로 인해 따귀를 맞는 것보다도 더 심한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모멸감을 느끼며 방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방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노파는 ‘황순원 가족’이 정원에 뒷간을 만든 것을 알고 야단법석을 하며, ‘거지 폐란 할 수 없다’는 말을 한다. 이는 전쟁을 피해 온 피난민들인 ‘나’와 가족들이 거처 취급을 받은 것으로, 일종의 수모라고 볼 수 있다.
- ② ‘황순원 가족’이 거처하는 공간에는 화장실이 없었으며, 주인집의 화장실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주인집 정원에다 변소를 만들어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삶의 기본적인 조건도 충족되지 못한, 매우 처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겨우 마련한 거주지에서도 쫓겨날 것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나’의 아내에게 방을 빼 달라며 ‘금 손목시계’ 이야기를 언급하는 부인은 상대방의 곤란한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물질적인 욕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천박하고 경솔한 태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 ④ 이 작품의 작가는 ‘황순원’이며, 작품 속 ‘나’의 가족은 ‘황순원 가족’이다. 이는 작가의 이름을 인물의 이름으로 그대로 씌으로써 자전적인 서사임을 드러내는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작가는 역사적 현실을 작가 개인의 경험과 연결하는 서사 형식을 통해 사건의 진실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3 ‘곡예’라는 단어의 뜻이 ‘아슬아슬할 정도로 위태로운 동작이나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 ‘황순원 가족’이 처한 상황이 허름한 공간에서조차 갑작스럽게 쫓겨나가거나 방을 비워 줄 것을 요구받는다든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강 작품의 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

본문 037~040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1) ○ (2) ○ (3) ×

02 ②

03 ㉔: 온달과 공주의 아름답지만 슬픈 사랑
 ㉕: 공주가 궁에서 보낸 병사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장면

■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해제 이 작품은 온달 설화를 소재로 삼고 있지만, 설화에 나오지 않는 내용까지 개연성 있게 드러낸 희곡이다. 온달과 평강 공주의 만남, 온달의 죽음에 얽힌 음모, 궁중 암투 과정에서 희생되는 평강 공주의 최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재해석된 설화를 통해 정치의 냉혹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주제 신분을 초월한 순수한 사랑과 정치적 희생의 비극

전체 줄거리 미천한 신분의 온달은 꿈속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한다. 바로 그날 궁에서 쫓겨나 암자로 가던 공주는 어려서부터 들었던 온달을 만나 그의 아내가 되기를 청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고, 10년 후 온달은 장군이 되어 전쟁에 나간다. 어느 날 공주는 꿈속에서 온달이 피투성이가 되어 작별을 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실제로 온달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모든 것을 포기한 공주는 온달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결심하고 산으로 들어가지만 결국 권력의 암투 속에 희생된다.

01 (1) 공주가 죽은 남편에게 ‘평양성에 가서 반역자들을 모조리 도륙’하자고 달래는 말에서 온달이 평양성에 있는 반역자로 인해 죽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에 이어지는 부장과 장수들의 대화에서 그들이 온달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을 알 수 있다.

(2) 장수들은 공주가 죽은 온달에게 하는 말을 듣고 공주의 노여움이 자신들에게 미칠까 두려워하고, 공주가 자신들이 한

일을 눈치챈 것은 아닐지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장수들이 중요하자 부장은 ‘공주보다 더 높은 분이 우리 편이’라며 장수들을 달래고 있다.

(3) 대사는 장교가 공주를 궁으로 끌고 가려 하자 이를 막으려 하고, 장교는 부하들에게 대사를 끌고 가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 대사는 장교를 도와 공주에게 궁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지는 않았다.

02 ㉔의 앞에서 공주는 자신을 궁으로 모시러 왔다는 장교의 말을 듣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의아해한다. 그리고 ㉔의 뒤에서 공주는 궁에 가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을 거부하는 장교에게 화를 낸다. ㉔은 궁에 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체념하는 듯한 표정과 낮은 목소리가 아니라 결연한 표정과 강한 어조의 목소리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부장은 공주보다 높은 이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평양성으로 가자는 부장은 당당한 태도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③ ㉔ 다음에 이어지는 장교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온모는 온달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온달이 죽은 사실을 알게 된 온모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휘청거리는 동작으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④ 장교는 아직도 자신에게 권세가 있다고 여기는 공주를 한심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장교는 왕의 명령을 이행하러 온 자신의 요구를 순순히 따르지 않는 공주를 똑바로 보면서 비아냥대는 듯한 표정과 말투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⑤ 공주는 ‘네가 정녕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느냐?’며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만 장교가 공주를 데려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상대를 회유하는 방식으로 태도를 바꾼다. ㉔은 무례한 태도에 대한 추후의 처분을 위협적으로 얘기하던 공주가 태도를 바꾸어 어떤 허물도 묻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분을 삭이고 상대를 타이르는 듯한 목소리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㉔: 설화와 마찬가지로 희곡에서도 온달과 공주는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부부가 된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두 사람은 온달의 억울한 죽음으로 영원히 이별을 한다. 이러한 사건은 온달과 공주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는 설화의 주제를 희곡에서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㉕: 희곡에서는 설화와 달리 공주가 왕이 보낸 병사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를 통해 공주가 권력 투쟁으로 억울하게 죽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작품에 이 사건을 추가한

것은 현실의 권력에 맞서려다 희생당한 개인의 비극적 운명이 라는 새로운 주제를 드러내려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9강 작품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본문 042~044쪽

작품으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 01 (1) × (2) ○ (3) × (4) ○
 02 ②
 03 ㉔: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
 ㉕: 50원짜리 갈비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해제 이 작품은 힘 있는 자들의 부정과 부패에 저항할 용기를 내지 못하면서 힘없는 이들을 향해 사소한 일에만 분노를 표출하는 화자가 자신의 옹졸함을 성찰하는 시이다. 이 시에서 ‘고궁’이 권력을 상징한다면 ‘왕궁의 음탕’은 그 권력의 전횡과 부패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화자는 경험과 일화를 열거하고 자조적 물음을 반복함으로써 치열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주제 부당한 사회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소시민적 속물근성에 대한 반성

구성

- 1, 2연: 심각한 사회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나’
- 3연: 포로수용소 시절부터 몸에 밴 ‘나’의 옹졸함
- 4, 5연: 절정에서 비켜서 있는 ‘나’의 비겁함
- 6연: 옹졸하게 반항하는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
- 7연: ‘나’의 옹졸함에 대한 자조와 반성

01 (1) 이 시의 시상은 화자가 자신의 ‘분개’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순차적으로 깨달아 가는 과정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는 자신의 태도를 부끄럽게 여기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작품에서 ‘나’는 뒤에 열거되는 스스로의 행위들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3)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지금 고궁을 구경하고 나오는 중일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왕궁’과 그 ‘왕궁의 음탕’, 즉 권력자들의 무도한 전횡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런 맥

락에서 ‘조그마한 일’이 ‘왕궁의 음탕’과 대조되는 말인 것은 맞지만, 이는 화자가 ‘왕궁의 음탕’ 대신에 옹졸하게 분개하는 대상일 뿐 약자들의 소극적 저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조그마한 일에만’의 보조사 ‘만’은, 정작 크고 심각한 일 들에는 분개할 줄도 모르는 ‘나’가 사소한 일들에 한정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02 <보기>에 따르면 ‘월남 파병’은 권력층의 일방적인 의지에 따라 강행된 것이고, 맥락으로 볼 때 ‘자유를 이행’하는 것은 이 ‘월남 파병’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자신이 비겁하여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성한다. 따라서 화자가 용기를 내어 월남 파병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하는 것은 이 시의 화자가 자신에 대해 하는 설명과 어긋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맥락으로 볼 때 ‘붙잡혀 간 소설가’는 정의를 위한 실천의 대가로 감금된 사람에 해당할 것이다. 화자는 그를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비겁함을 부끄럽게 여긴다.

③ 화자는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서 ‘정보원’이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을 떠올리며 그와 다르지 않은 현재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전쟁 중에 포로수용소에서 들은 말을 화자에게 ‘옹졸한 나의 전통’을 자각하게 하는 심리적 상처로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화자는 자신이 ‘절정 위’가 아니라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고 그것이 ‘조금쯤 /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였다. ‘절정 위’가 불의와 대결하며 정의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삶을 의미한다면, 거기에서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는 것은 사회적 이슈에 침묵하는 소시민적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마지막 연에서 ‘바람아 먼지야 풀아’라고 대상을 호명하며 ‘나는 얼마큼 적으냐’라고 한 것은 사회적 이슈에는 침묵하면서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표현한 것이다.

03 ㉔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서로 다르다는 생각처럼 당시 사회에 팽배해 있던 인식이 드러난 시구를 적어야 하므로, 3연의 내용 중에서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㉕에는 오늘날의 가격과 비교하여 당시의 물가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시구를 적어야 하므로, 1연의 ‘50원짜리 갈비’라는 시구를 찾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2부 적용 학습

01 고전 시가

본문 046~048쪽

01 ④

02 ③

03 ⑤

(가) 충담사, 「찬기파랑가」

해제 이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 충담사가 지은 향가로 기파랑의 고매한 성품을 예찬하고 있다. 기파랑을 그리워하며 '이슬 밝힌 달'을 바라보던 화자는 '모래 가른 물가'에서 기파랑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남이 지나시던 마음의 갯'을 좇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젓나무 가지'와 '고깔'은 기파랑의 고매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시어로 활용되고 있다. 제시된 지문은 김완진의 향찰 해독을 현대어로 푼 것이다.

주제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과 기파랑의 고매한 성품에 대한 예찬

구성

- 기(1~5행): 기파랑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
- 서(6~8행):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뜻을 따르고자 함.
- 결(9, 10행): 기파랑의 고매한 성품을 예찬함.

(나) 이양연, 「반월」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중기에 이양연이 지은 한시로 칠언 절구에 해당한다. 푸른 밤하늘에 걸린 달과 옥거울의 형태적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늘에 반달이 뜨고, 물속에도 반달이 들어 있는 풍경을 두고 복비와 직녀 사이의 다툼 때문에 달이 나누어진 것이라고 연상한 것이 특징이다.

주제 벽공에 걸린 반월의 아름다운 풍경

구성

- 기(1행): 옥거울을 떠올리게 하는 푸른 밤하늘의 달
- 승(2행): 화장하기에 알맞게 밝은 달빛
- 전(3행): 달을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는 복비와 직녀의 모습을 떠올림.
- 결(4행): 구름 사이에 뜬 반달과 물속에 들어 있는 반달이 어우러진 아름다움.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는 '이슬 밝힌 달'을 바라보던 화자가 '기랑의 모습'을 떠올리는 상황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달'이라는 소재가 제시되어 있지만, '달'의 형태가 달라지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그와 관련지어 '달'의

심미적 가치를 드러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에 비해 (나)는 '반달'의 모습과 관련지어 '달'의 심미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가 도입 부분에서 '흐느끼며 바라보'는 것이 '달'이라면, (나)의 화자가 첫 행에서 언급한 '벽공에 걸'려 있는 '옥거울'은 '달'을 떠올리게 한다.

② (가)의 '달'은 '이슬'을 밝히고 있으며, (나)의 '달'은 '화장할 때' 도움이 될 만큼 '밝은 빛'으로 방 안을 비추고 있다. 둘 다 대상과 주위를 밝게 만드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기 부분에서 '달'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모래 가른 물가'로 시선을 떨구고 있다. (나)의 경우도 기구에서 '벽공'을 향해 있던 화자의 시선이 화장하는 이의 방 안이나 반월이 뜬 '물속'으로 향하고 있다.

⑤ (가)는 '달'에서 시작된 시상의 흐름이 '기랑의 모습'과 '젓나무 가지' 등으로 연결되어 '기랑'이라는 대상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반면, (나)는 도입부터 마무리 부분까지 '달'과 관련된 행위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①은 아름다운 반달이 하늘에 떠 있고, 그것이 물속에도 들어 있는 풍경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보기>에 따르면 '복비'는 수신으로 물속에 살고, '직녀'는 하느님의 손녀로 하늘에 산다. 화자는 '복비'와 '직녀'가 아름다운 달을 서로 가지겠다고 다투다가 달이 쪼개졌다고 상상하면서, 아름다운 반달이 만들어 내는 자연의 모습이 소유하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는 '반달'이 구름 사이에 떠 있는 상황과 물속에 들어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 '직녀의 사랑'이나 '복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② 화자는 두 여인이 서로 다투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지만, 그것이 '보름달의 충만함'이나 보름달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아쉬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④ 화자는 하늘에 뜬 달과 물속에 들어 있는 달이 합쳐져 완전한 보름달이 되는 순간이나, 두 대상의 합일 과정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⑤ 화자는 반달이 하늘에 떠 있고 물속에도 있는 상황에 주목

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완상하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북비와 직녀의 상실감을 활용하여 자연을 완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려는 것은 아니다.

03 문학 이론 및 비평의 이해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화장'은 단장하는 여인의 행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무언가를 '갈고 다듬'는 행위와 유사성이 있다. 하지만 (나)에서 '갈고 다듬'는 행위는 '옥거울'을 만들기 위한 행위이지, '옥거울'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나)의 독자가 '화장'과 '갈고 다듬'는 행위의 유사성을 발견했다고 해서, '화장'을 비유적 표현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화장'을 보조 관념, '옥거울'을 원관념으로 연결 짓지는 않을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독자가 '흰 구름'이라는 소재를 떠올리면서 '맑고 깨끗함', '옥심 없음', '유유자적함', '허망함' 등을 떠올렸다면, '흰 구름'이라는 보조 관념에 다양한 의미를 연결하여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의 독자가 높이 솟아 있는 '잣나무 가지'의 속성이 '기량'의 속성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면, '잣나무 가지'라는 보조 관념을 통해 '기량'이라는 원관념을 드러내려는 비유적 표현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의 독자가 '고깔'과 '기량' 사이에 뚜렷한 공통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량'을 예찬하는 작품의 맥락 안에서 '기량의 드높은 절개와 지조'를 떠올렸다면, '고깔'을 상징적 표현으로 인식하고 그 의미를 찾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나)의 독자가 '옥거울'과 '벽공'이라는 시어를 통해 '보름달'이나 '둥근달'을 떠올렸다면, '옥거울'은 '달'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옥거울'과 '달' 사이에 '둥그렇다'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02 고전 시가 본문 049~051쪽

01 ④ 02 ⑤ 03 ①

(가) 작자 미상, 「사모곡」

해제 작자 미상의 고려 가요로 『악장가사』, 『시용향악보』에 기록되어 전하며,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에 대한 예찬과 감사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각각 호미와 낫에 비유하여,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섬세하고 깊음을 나타낸 점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고려 가요의 특징인 3음보 율격과 후렴구가 나타나지만 고려 가요의 일반적 형태와 달리 한 개의 연으로 되어 있다. 후렴구를 제외하면 시조와 형태가 비슷하며, 마지막 행 첫머리의 '아소 남이시여'라는 감탄 어구는 10구체 향가의 낙구와 유사하다. 호미와 낫 같은 농경 사회의 일상적 소재가 작품의 소재로 사용된 점, 짧은 길이에 단순한 형식으로 구성된 점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한 농촌 민요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예찬과 감사의 마음

구성

- 1, 2행: 호미보다 예리한 낫
- 3~6행: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깊은 어머니의 사랑

(나) 문충, 「오관산」

해제 문충이 지은 「목계가」라는 노래를 고려 말의 문인인 이 제현이 한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그의 문집인 『익재난고』에 기록되어 전한다.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다음, 그 상황이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어머니가 늙으실 것이라고 말하며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오관산 밑에 살면서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던 문충이 어머니가 늙으시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지었다고 한다. 원 노래의 제목이 '목계가'인 이유는 노랫말에 나무로 깎아 만든 닭, 즉 목계(木鷄)가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제현이 「목계가」의 일부를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제목을 '오관산'으로 고친 것은, 과거 효자와 관련한 글이나 노래에 그 효자가 살던 곳의 지명을 사용해 제목을 붙이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제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바라는 자식의 간절한 소망

구성

- 1~3행: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조건으로 제시
- 4행: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다) 작자 미상, 「오륜가」

해제 조선 세종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경기체가로 『악장가사』에 기록되어 전한다. 궁중 음악으로 연행되었으며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사이고, 나머지 5개의 장은 오륜을 하나씩 다룬다(부자유친 → 군신유의 → 부부유별 → 장유유서 → 봉우유신). 이 글에 실린 부분은 제2장으로 효(孝)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주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효를 실천하는 모습에 대한 예찬

구성

- 1, 2행: 부모님에게 받은 큰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
- 3, 4행: 효행으로 이름난 인물들의 고사를 열거하고 그 효행을 예찬함.
- 5, 6행: 증삼과 민자의 효행을 예찬함.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다)는 모두 자연물이나 사물을 비유적 소재로 활용해 부모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가)는 어머니의 사랑을 '낮'에 빗대어, (나)는 어머니가 노쇠해지시는 것을 자연물인 '지는 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다)는 부모를 '하늘'과 '땅'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다)에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변해 가는 것에 대한 슬픔의 정서도 드러나 있지 않다. (나)의 화자는 세월의 흐름에 따른 어머니의 노쇠함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가 노쇠해지시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과 연결되므로, 변해 가는 것에 대한 슬픔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② (다)에서 화자는 효자로 이름난 중국의 맹종과 왕상, 증삼과 민자의 효행을 제시하면서, 효행의 실천을 기리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에는 인물의 도덕적 실천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다)에서는 효의 모범적 실천 사례가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가), (나)에는 유사한 성격의 소재가 대등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다.

⑤ (가)~(다) 모두 이상향에 대한 염원과 거리가 멀다. 특히 (가)와 (나)는 개인 서정의 차원에서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상향에 대한 염원과 무관하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에서 화자는 대상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예찬의 대상은 과거의 훌륭한 인물들이 보여주었던 효의 모범적 실천 사례이지, 화자 자신이 실천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이 실천한 일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화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호미'에, 어머니의 사랑을 '낮'에 빗대어,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좋다고 말하고 있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라는 추상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 '낮'과 '호미'의 날카로움이라는 사물의 구체적 속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② ㉠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에 담긴 화자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다. ㉡에서는 '어머님같이 괴실 이 없'다며 직설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예찬하고 있다.

③ ㉡에서 선행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나무로 만든 닭이 살아서 우는 것'으로 이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④ ㉡에서는 ㉠과 연결되어 실현 불가능한 일이 실제 일어날 때 비로소 어머니가 늙으실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은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 것이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보기 2>의 '아버이 자식 사이 하늘 삼긴 지친이라'를 통해 부모 자식의 관계가 하늘이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하늘'과 '땅'에 빗대어 부모님의 은혜를 예찬하고 있을 뿐, 부모 자식의 관계가 하늘이 정한 것이라는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다)와 <보기 2>는 유학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도리로서 '효'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효의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다)에서는 '나를 낳으시느라 애쓰셨도다', '젓으로 기르시고 의리로 가르치셨으니', <보기 2>에서는 '부모곤 아니면 이 몸이 있을쏘냐'라고 말하며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③ (다)는 '~ 광경 그 어떠합니까?'라는 의문형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효가 실현된 장면(맹종, 왕상, 증삼, 민자가 효를 실천한 장면)을 대하면서 일어나는 고양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 2>는 '부모곤 아니면 이 몸이 있을쏘냐'라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당위적 규범으로서 효도의 의미를 알려 주는 교화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다)의 화자는 '큰 은혜 갚으려네'라고 말하며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 <보기 2>의 화자는 교화적 태도로 '효도하여라'라고 말하며 부모의 은혜를 갚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⑤ (다)의 화자는 '~ 광경 그 어떠합니까?'라고 말하며 효가 실현된 장면을 예찬적 태도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보기 2>의 화자는 '오조도 반포를 하니'에서 자연물인 까마귀를 근거로 삼아 까마귀도 하는 효도를 사람 된 자라면 마땅히 실천해야 한다며 효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03 고전 시가

본문 052~053쪽

01 ②

02 ⑤

03 ④

(가) 이준오, 「구름이 무심탄 말이 ~」

[해제] 이 작품은 고려 말의 문신(文臣) 이준오가 간신 승려 신

돈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상황을 풍자한 평시조이다. 시조의 소재 중 '구름'은 신돈을, '날빛'은 왕의 선정을 비유한 것으로 왕이 베푸는 선정을 신돈이 방해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구름(간신)의 횡포에 대한 풍자

구성

- 초장: 구름이 무심하다는 말의 허위성을 폭로함.
- 중장: 제멋대로 움직이는 구름의 속성을 제시함.
- 종장: 날빛을 가리는 구름의 속성을 비판함.

(나) 성훈, 「말 없는 청산이오 ~」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중기의 학자인 성훈이 지은 평시조이다. 이 시조는 교훈이 될 만한 자연의 여러 가지 속성을 제시한 후 자연 속에서 근심 없이 살아가고 싶은 화자의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주제 자연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의 의지

구성

- 초장: 청산과 유수의 속성
- 중장: 청풍과 명월의 속성
- 종장: 자연 속에서 근심 없이 사는 삶을 다짐함.

(다) 작자 미상, 「대천 바다 한가운데 ~」

해제 이 작품은 세상에 허무맹랑한 거짓말들이 나돌고 있는 현실을 풍자하며, 그러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임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사실시조이다. 상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말의 허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점,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임이 짐작하소서'라는 관습적 표현을 사용한 점이 주요 특징이다.

주제 세상의 헛소문에 대한 올바른 판단 촉구

구성

- 초장: 큰 바다 한가운데에 바늘이 빠진 상황을 제시함.
- 중장: 십여 명의 사공이 바다에 빠진 바늘을 상앗대로 동시에 건져 냈다는 말이 있음.
- 종장: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임에게 요청함.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는 자연물인 '구름'이 '날빛'을 가리는 일반적인 특징을 부각하여 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말 없는 청산', '태 없는 유수'와 같이 자연물의 일반적인 특징을 부각하여 '이 중에 ~ 분별없이 늪으리라'와 같이 화자의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 (나) 모두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긍정적

인 모습을 부각하는 표현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구태여 ~ 뒛느냐'와 같은 물음을 통해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나, 대상의 행동이 우호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가)에서는 의문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으며, (나)에는 의문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름'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화자의 심경 변화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나)에는 대상이 이동하는 모습을 통해 화자의 심경 변화를 보여 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다)의 화자는 '대천 바다 한가운데 ~ 꿰어 내단 말'을 임이 믿어서는 안 되며 임이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 화자는 '임'에 대해, 화자 자신을 믿어 주기를 바라는 심정을 하소연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대천 바다 한가운데'는 사공들이 무딘 상앗대로 바늘을 건져 내는 상황이 설정된 곳이다. 따라서 화자가 '대천 바다 한가운데'를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 발생의 근원지로 간주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화자가 대천 바다에 빠진 '중침 세침'을 손쉽게 건져 내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강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화자는 바다에 빠진 바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공'들이 협력해서 동시에 바늘을 찾는 것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는커녕, 더욱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있다.

④ 화자는 '끝 무딘 상앗대'를 사용하여 난관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지 않으며, 바다에 빠진 중침, 세침의 바늘귀를 꿰어 내는 것은 허황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다)의 화자는 '귀 꿰어 내단 말'을 세속에 속한 사람들의 허황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므로 그 말에 세속의 언어에서 초월하고 싶은 화자의 인간적 욕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구름이 무심탄' 세상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화자는

‘허황하다’, 즉 허황된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세속에서의 언어가 지니는 허위성을 발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의 ‘청산’은 말이 없으며, 이에 화자는 ‘이 중에 ~ 분별 없이 늠으리라’라고 하며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침묵의 미덕을 지닌 청산은 화자가 추구하는 도덕적 표상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유수’는 화자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체감을 느끼는 대상이며, ‘이 중’은 현실의 반대 향으로서 자연을 가리킨다.

⑤ <보기>에 따르면 (다)에서 ‘온 말’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삶의 공간인 세속의 말이다. 세속의 말에는 허위성이 담겨 있으므로 화자는 입에게 ‘온 말’을 믿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나아가 (다)의 화자는 입이 그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며 ‘입이 짐작하소서’라고 요청하면서 시비를 따져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04 고전 시가

본문 054~056쪽

01 ④

02 ①

03 ③

(가) 서경덕, 「마음이 어린 후이니 ~」

〔해제〕 이 작품은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낸 평시조로, 화자는 바람이 불어 떨어지는 나뭇잎을 입이 오신 것으로 착각한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모습은 입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주제 입에 대한 그리움

구성

- 초장: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
- 중장: 입이 오기 힘들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
- 종장: 떨어지는 나뭇잎을 입이라고 생각한 화자의 착각

(나) 김영, 「연 심어 실을 뽑아 ~」

〔해제〕 이 작품은 입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평시조로, 화자는 연을 심어 실을 뽑고 그 실로 노끈을 비비어 걸었다가 입과의 사랑이 그쳐 갈 때 노끈으로 그 사랑을 감아 매겠다고 말하며 입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입과 자신은 마음으로 맺어졌기에 둘 사이의 사랑이 그칠 리가 없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화자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 입과의 사랑에 대한 굳건한 믿음

구성

- 초장: 연을 심고 실을 뽑아 노끈을 비비는 화자의 행위

- 중장: 사랑이 그쳐 갈 때 노끈으로 사랑을 감아 매겠다는 화자의 의지
- 종장: 입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

(다) 작자 미상, 「마음이 지척이면 ~」

〔해제〕 이 작품은 입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입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노래한 평시조이다. 화자는 마음이 가까우면 천리도 지척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가까운 거리도 먼 거리처럼 느껴진다고 말한 후, 비록 자신과 입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마음은 가까이 있으니 입과 멀리 떨어진 상황은 둘 사이의 사랑에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입과의 사랑에 대한 확신

구성

- 초장: 마음이 가까우면 먼 거리도 가깝게 느껴짐.
- 중장: 마음이 멀어지면 가까운 거리도 멀게 느껴짐.
- 종장: 입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음.

(라) 작자 미상, 「가슴에 구멍을 동시렇게 뚫고 ~」

〔해제〕 이 작품은 극단적인 육체적인 고통은 참고 견딜 수 있으나 입과 헤어지는 것만은 견딜 수 없다고 말하며 입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입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노래한 사설 시조이다. 가슴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새끼줄을 넣어 ‘홀근 홀적’ 하는 것은 화자에게 매우 심한 육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극단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이러한 극단적 상황은 누구나 이겨 낼 수 있지만, 입을 여의고 살아가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말하며 입과 철대로 헤어질 수 없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작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노래인 「불굴가(不屈歌)」가 『대은선생실기(大隱先生實記)』에 수록되어 있는데, ‘대은’은 고려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킨 무신이었던 변안열의 호이다.

주제 입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의지

구성

- 초장: 가슴에 구멍을 뚫고 새끼줄을 넣음.
- 중장: 육체적인 고통은 누구나 견딜 수 있음.
- 종장: 입을 여의고 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는 ‘연 심어 실을 뽑아 긴 노끈 비비어 걸었다가’와 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제시한 후 ‘사랑이 그쳐’ 가는 상황이 일어나면 긴 노끈으로 사랑을 감아 매겠다고 말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라)는 ‘가슴에 구멍을 동시렇게 뚫고 왼새끼를 눈 길게 너스너스 꼬아’와 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제시한 후 ‘두 놈이 두 끝 마주 잡아 이리로 홀근 저리로 홀적 홀근홀적’ 하는 상황은 참고 견딜 수 있지

만, 입을 여의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말하며 결코 입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나)와 (라)는 모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제시한 후, 부정적 상황에 대처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중장에서 ‘만중운산’에 어떤 입이 올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공간의 특성과 연관 지어 화자의 생각에 대한 근거를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는 특정 공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가)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서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라)는 ‘구멍을 동시렇게 뚫고’와 ‘원새끼를 눈 길게 너스너스 꼬아’에서 ‘목적어 + 부사어 + 서술어’의 구조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대구적 표현을 활용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③ (나)는 ‘그쳐갈 제’, ‘땀었으니’와 같이 대비되는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과거와 달라진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도감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다)는 ‘지척’과 ‘천리’라는 대비되는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과거와 달라진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도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라)는 가슴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새끼줄을 넣은 후 ‘두 놈’이 새끼줄의 끝을 마주 잡아 ‘홀근홀적’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 입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다)에는 대상이 유발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라)의 화자는 어떠한 시련을 겪더라도 입과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동그렇게 뚫린 ‘구멍’을 입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A]의 화자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결코 굽히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말만 한 구멍’을 고려에 대한 화자의 충절이 약해지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라)의 화자는 가슴에 뚫린 구멍을 ‘두 놈’이 새끼줄로 ‘홀근홀적’ 하는 상황을 가정한 후, 입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A]의 화자는 가슴에 뚫린 구멍을 ‘네’가 앞뒤로 끌고 당기는 상황을 가정한 후, 고려에 대한 충절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라)의 ‘두 놈’과 [A]의 ‘네’는 각각 입에 대한 사랑과 고려에 대한 충절을 보여 주기 위해 화자가 설정한 인물로 볼 수 있다.

③ (라)의 화자는 ‘두 놈’이 가슴에 뚫린 구멍에 넣은 새끼줄을 ‘홀근홀적’ 하는 것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A]의 화자는 ‘네’가 가슴에 넣은 새끼줄을 앞뒤로 끌고 당기는 것을 마다치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라)의 ‘홀근홀적 할 적’과 [A]의 ‘앞뒤로 끌고 당’기는 것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겪어야 할 시련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④ (라)의 화자와 [A]의 화자는 모두 가슴에 넣은 새끼줄을 당기는 상황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라)의 ‘아무쪼록’에서와 [A]의 ‘마다치 않겠으나’에서는 각각 입에 대한 사랑과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시련도 견딜 수 있다는 화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⑤ (라)의 화자는 입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A]의 화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고려에 대한 충절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라)의 ‘그리 못하리라’와 [A]의 ‘굽히지 않으리라’는 각각 입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와 상대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화자의 충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의 화자는 사랑이 그쳐 갈 때 노끈으로 감아 땀 것이라 말한 후, 자신과 입의 사랑은 마음으로 땀어졌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마음’이 땀어지기도 하고 그치지기도 한다는 것이 화자와 입의 ‘마음’이 지닌 차이점을 부각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잎이 떨어지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를 입이 오시는 것이라고 착각한 화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자책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추상적인 개념인 ‘사랑’을 ‘노끈’으로 ‘감아’ 땀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사랑’을 자신의 노력으로 지속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다)는 추상적인 개념인 ‘마음’을 ‘지척’과 ‘천리’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화자와 입의 ‘마음’을 구체적 대상으로 사물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⑤ (라)는 변형이 어려운 신체의 일부인 ‘가슴’을 ‘구멍’을 동시렇게 뚫은 후 ‘새끼줄’을 넣을 수 있는 대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변형이 어려운 화자의 ‘가슴’을 변형이 가능한 대상으로 사물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05

고전 시가

본문 057~059쪽

01 ④

02 ④

03 ②

■ 이신의, 「단가육장」

【해제】 이 작품은 귀양살이의 고달픔과 임금에 대한 충정을 형상화한 연시조이다. 작가는 인목 대비의 폐위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함경도로 유배를 떠난다. 이때의 고달픔을 제비나 명월 등의 자연물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변함없는 충정도 표현하고 있다.

【주제】 귀양살이의 고달픔과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구성】

- 제1장: 장부로서 할 일에 대한 천명
- 제2장: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인재 복귀에 대한 희망
- 제3장: 귀양살이의 처량한 신세 한탄
- 제4장: 귀양살이의 시름
- 제5장: 귀양살이의 외로움
- 제6장: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제4장>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종일 사설하는 듯한 소리를 내는 제비의 모습이 부각되고, <제6장>에서는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향이 짙은 매화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1장>에서 ‘~ 모르는가’, ‘~ 또 있는가’ 등의 물음의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신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제2장>에서 소나무가 난 이후에 사라진 상황을 언급하며, 우로 깊으면 다시 볼까 한다는 마음을 드러내 소나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다. 나라의 재목, 충신을 의미하는 소나무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제3장>에서는 제비를 보고 적객의 처지에 놓인 화자가 한숨짓는 상황이 독백적 어조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제5장>에서 명월을 벗으로 인식하고 반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화자의 행동을 묘사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제6장>에서 매화를 보고자 잔을 잡고 창문을 여는 행동을 하는 화자의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귀양지에 얽매어 있는 화자와는 달리 자유롭게 나는 대상이고, 화자에게 적객의 회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아 화자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는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적객의 신분으로 벗이 없는 상황에서 화자가 시름을 풀어내는 대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과 ㉡는 화자의 눈에 들어온 자연물일 뿐, 미래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모두 화자가 적객으로서 느끼는 쓸쓸함이 문제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 ㉠과 ㉡로 인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내면으로 인식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③, ⑤ 화자는 벗 없이 쓸쓸한 처지로 한숨만 짓고 있는데 반해, 제비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지저귀고 있다. 따라서 ㉠을 화자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는 대상으로 보거나 화자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는 빈 들보에 앉아서 벗 없는 화자의 벗의 역할을 하고, 화자는 제비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시름을 풀어내고 있다. 따라서 ㉡를 화자와 대비되는 상황에 놓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화자가 제비를 보며 자신의 시름을 풀어낸다는 점에 주목해 보면, 화자의 슬픈 정서를 자극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는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화자는 난 이후에 충신을 의미하는 ‘솔’들이 사라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임금의 은혜를 의미하는 ‘우로’가 깊으면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임진왜란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대장부가 할 일이 ‘효제충신’, 즉 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 사이의 우애, 임금에 대한 충성, 벗 사이의 신뢰라고 한 것은 사대부로서 강직한 자세로 유교적 덕목을 지키고 이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책임감 있는 사대부의 모습과 연결해서 감상할 수 있다.

③ 적객은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으로, 적객의 회포가 끝이 없어 한숨을 짓는 화자의 모습은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가 귀양지에서 삶을 성찰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정서와 연결해서 감상할 수 있다.

④ 유일한 벗인 명월만이 천리를 멀다 아니 여기고 따라온다는 표현은,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가 귀양지에서 느끼는 외로움의 정서와 연결해서 감상할 수 있다.

⑤ 매화는 모진 추위와 고통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맑은 향기를 퍼뜨리는 대상으로 이러한 속성은 군자가 지녀야 할 덕성의 하나로 평가된다. 화자는 이를 제대로 알아보며 매화의 향기에 집중하고 있다.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작가의 강직한 태도와 연결해서 감상할 수 있다.

06

고전 시가

본문 060~063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⑤

정훈, 「우활가」

해제 이 작품은 자신의 우활함을 한탄하며 자연에 은거하여 살아가는 자세를 노래한 가사이다. 화자는 스스로를 두고 ‘우활도 우활할사 그토록 우활할사’라고 탄식하는데, 이러한 한탄 속에는 시대를 제대로 타고나지 못하여 제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투영되어 있다. 유교적 이상향을 떠올리며 ‘태고에 뜻을 두’겠다고 다짐하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우활’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결국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우활’을 잊고 살아가고 싶은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우활한 자신에 대한 한탄과 우활을 잊고 싶은 마음

구성

- 서사(1~3행): 자신의 우활한 삶에 대해 토로하고 싶은 마음
- 본사 1(4~18행): 젊은 시절의 우활함에 대한 한탄
- 본사 2(19~24행): 말년의 우활함에 대한 한탄과 체념
- 본사 3(25~37행): 우활함으로 인한 갈등과 괴로움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 본사 4(38~42행): 우활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한탄
- 결사(43~46행): 솔로써 우활함을 달래고 싶은 마음

01 시적 상황의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화자는 [B]에서 ‘사시가경에 어찌할 줄 모르도다’라고 고백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즐기며 지내 왔다고 말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우활함을

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기 못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는 [A]에서 ‘아침이 부족’하고 ‘저녁을 근심’하며, ‘한 칸 초가집이 비 새는 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가난한 형편을 드러내면서 그러한 삶이 결국 자신의 우활함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는 [C]에서 자신의 염원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면서 ‘매우 심한 나의 삶을 슬퍼한들 어이하리’와 같이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우활함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④ 화자는 [A]~[C]에서 ‘젊었을 때’부터 ‘그지없었던 우활함이’ ‘날 따라 길어’ 가고 있으며, ‘사시가경’에도 계속되는 것이며 ‘하늘이 준’ 것이라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주공은 어디 가고 꿈에도 보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하고 있다. 화자는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자신의 우활함이 ‘슬퍼한들 어이’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⑤ 화자는 [A]에서 ‘평생 우활은 날 따라 길어 간다’, [B]에서 ‘이 몸의 처지에 백년을 근심할까’, [C]에서 ‘하늘이 준 우활을 내 설마 어이하리’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젊었을 때 우활함’이 계속되면서 ‘평생’토록 자신을 괴롭혀 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우활함이 결국 ‘하늘이 준’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2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화자는 ‘만리에 눈뜨고 태고에 뜻을 두니 / 우활한 마음이 가고 아니’ 온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후 상황에서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함’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만리에 눈뜨고 태고에 뜻을’ 둔다고 해서 자신이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 혹은 자신의 뜻을 펼칠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화자가 처한 상황은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는 ‘요순시대’를 이상적 시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몸이 늦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러한 시대에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

② 화자는 ‘일백 번 다시 죽어 옛사람 되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③ 화자는 자신의 ‘변잡한 정회를 누구에게 이르러는가’와 같이 한탄하고 있는데, 이는 ‘요순시대’의 순박한 풍속이 경박하게 되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④ 화자는 ‘다시 죽어 옛사람’이 된다면, ‘태평성대’, ‘요순시대’, ‘태산’, ‘성현 살던 세상’을 살펴보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다. 자신이 살펴보고 싶은 시대로 ‘요순시대’나 ‘성현 살던 세상’을 언급한 것은 성현들이 ‘학업 닦던 자취’를 보고 싶다는 바람과 관련이 깊다.

0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 ‘벗님네’와 ㉡ ‘아이’는 모두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설정한 청자이다. 화자는 ‘벗님네’에게 ‘우월한 말 들어 보소’라고 말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으며, ‘아이’에게 ‘잔 가득 부어라 취하여 내 우환 잊자’라고 말하며 우환을 잊어 보고 싶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은 서사 부분에서 시상 전개와 출발점이 되고 있다면, ㉡는 결사 부분에서 시상을 마무리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벗님네’는 화자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고 있다. ‘아이’는 화자가 명령을 내리는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숨겨진 욕망을 이뤄 달라고 간청하기 위해 떠올린 대상은 아니다. 또한 화자는 ‘취하여 내 우환’을 잊고 싶다는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있지 않다.

③ ‘벗님네’는 화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아이’ 또한 화자의 속내를 살피며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

④ ‘벗님네’가 화자의 말을 듣고 있는 청자로 설정된 것은 맞지만, 화자의 처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웃 주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전 문학 속에서 화자가 호명하는 ‘아이’는 화자의 시중을 드는 하인인 경우가 많지만, 이 작품의 맥락에서 ‘아이’를 이웃이 보낸 하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다.

⑤ ‘벗님네’가 화자가 부러워하는 삶의 양상을 드러내는 인물이 되거나, 화자의 삶을 대비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가 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아이’가 화자의 결심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거나 언급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화자는 ㉠을 통해 ‘축타의 말솜씨’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앞

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자신이 수양을 해도 이상을 실현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은 자신이 아무리 능력을 쌓는다고 해도 능력을 발휘할 기회, 즉 벼슬길에 나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애친경형’과 ‘충군제장’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라는 유교적 덕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을 통해 유교적 가치관을 자신이 평생 지켜야 할 덕목으로 생각해 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이 글의 화자가 제도권 주변부에 놓여 있던 작가를 대변한다고 할 때, ㉡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은 사계절 중 ‘겨울’의 경치와 아름다움을 즐기는 문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을 실현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족들의 불우한 처지를 자연에 대한 애착으로 치환하여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스스로를 두고 ㉠과 같이 ‘말로에 버린 몸’이라 말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고, 사회적 위상도 높지 않은 사족들의 안타까움을 집약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07 고전 시가

본문 064~067쪽

01 ①

02 ③

03 ⑤

■ 채득기, 「봉산곡」

[해제] 이 작품은 인조 16년(1638)에 창작된 가사로 병자호란 이후 봉림 대군과 소헌 세자를 호종하여 심양으로 가게 되자, 은거하던 경천대를 떠나며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자신이 은거했던 경천대(자천대) 부근의 풍경을 예찬하는 부분과 왕명을 받은 신하로서 도리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천대별곡’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주제] 임금의 명을 받아 떠나는 신하의 다짐과 은거하던 자연을 떠나는 아쉬움

■ 구성

- 서사: 옥주봉, 경천대에 인사를 전하며 처음 이곳에 은거하던 때를 떠올림.
- 본사 1: 버린 백성 되어 은거하며 살면서 경천대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완상함. (중략)
- 본사 2: 임금의 명을 받아 행장을 챙기며, 임금의 은혜를 갚

겠다는 다짐을 함.

• 결사: 심양으로 떠나며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함.

01 시적 상황의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A]에서 화자는 자연에 은거하며 금빛 절벽, 구암, 경호 등을 바라보며 경천대와 그 주변의 경치를 즐기고 있으며, 특히 경천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B]에서 화자는 나라의 명령을 받아 심양으로 떠나는 충직한 신하의 마음가짐을 드러내면서, 임금의 은혜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A]에서 화자가 경물들의 아름다움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경물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순위를 매기지는 않고 있다. 또한 [B]에서도 화자가 자신이 맡은 일 중 시급히 먼저 처리할 일을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A]에서 화자는 시선의 이동을 중심으로 ‘금빛 절벽’, ‘붉은 놀, 흰 구름’, ‘모래밭’ 등 다양한 경물을 드러내며 공간적 배경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지만, [B]에서 해당 공간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공간의 이동과 관련하여 달라지고 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A]에서 화자가 ‘높다란 금빛 절벽’, ‘붉은 놀, 흰 구름에 곳곳이 그늘이요 / 우리 같은 온갖 경치’라고 말하며,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요소를 소개하는 것은 맞지만, [B]에서 화자가 나라의 부름에 응하게 된 것이 자연이 지켜워진 상황이나 자연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은 아니다.

⑤ [A]에서 화자는 ‘여섯 자라 머리’, ‘여덟 폭 돌병풍’처럼 구체적인 수치나 ‘붉은 놀, 흰 구름’처럼 감각적 시어로 대상을 표현하고 있지만, [B]의 경우, 자연에 은거했던 신하가 임금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02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의 청자는 자연물에 해당하는 ‘옥주봉’과 ‘경천대’이지만, ㉡의 청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의 뒤에 화자의 말을 들은 청자가 화자에게 그대로 머물 것을 권하는 모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 뒤에 언급된 갈매기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화자의 다짐, 즉 ‘맹세 기약’을 듣고 웃고 있을 뿐, 화자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과 ㉡은 앞 절과 뒤 절이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모두 ‘상봉산 별천지’를 떠나야 하는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과 ㉡은, ‘있거라’와 ‘가노라’라는 시어로 대구를 만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두고 길을 떠나야 하는 화자의 상황과 남아서 화자를 기다릴 ‘옥주봉’, ‘경천대’ 등의 모습이 대비적으로 드러난다.

④ ㉠에서 화자는 ‘옥주봉’과 ‘경천대’와 같은 자연물을 구체적으로 호명하며, 자신이 머물렀던 ‘상봉산 별천지’라는 특정 공간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과 달리 ㉡에는 특정한 대상을 청자로 삼아 호명하는 방식이 활용되지 않았다.

⑤ ㉠과 ㉡에는 ‘가노라’, ‘있거라’라는 동일한 시어가 활용되고 있는데, ㉠의 경우, ‘가노라 옥주봉이 있거라 경천대야’의 순서로 제시되지만, ㉡의 경우, ‘있거라 가노라 가노라 있거라’의 순서로 제시되고 있다. ‘있거라 가노라’와 같이 서술어의 제시 순서에 변화를 주어 점차 멀리 떠나가는 화자의 상황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화자는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결 막’아 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어서 ‘재주 없는 약한 몸이 기운 집을 어찌할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함을 걱정하고 있다. 과거의 굴욕을 씻고 싶다는 바람은 나타나지만 그것을 자신감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는 ‘요양 만릿길’로 떠나며, 그 길을 두고 ‘떨어야 얼마 멀’겠냐고 말하고 있다. 왕명을 받아 청나라로 가는 길이 아무리 멀다고 해도 신하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며, 실제로 먼 길이라 할지라도 멀게 느껴지지 않는 길이라 말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것이다.

② 화자는 스스로를 두고 ‘밝은 세상 한 귀퉁이에 버린 백성’으로 ‘상봉산 별천지’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조선이 병자호란에서 패배하고 청나라에 항복한 이후 작가인 채득기가 지방에 은거하게 된 상황과 관련이 깊다.

③ 화자는 당시의 상황을 ‘조선에 사람 없어 오랑캐 신하’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때 ‘오랑캐’는 청나라를 의미한다. 이는 청나라 태종에게 군신의 관계를 선언한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소현 세자나 봉림 대군을 ‘우리 임’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들이 심양에서 겪었을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떠올리며, 임금의 명을 받고 ‘우리 임’을 모시러 가는 신하의 마음가짐을 밝히고 있다.

08

고전 시가

본문 068~070쪽

01 ⑤

02 ⑤

03 ④

■ 정학유, 「농가월령가」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응의 차남 정학유(丁學游)가 지은 월령체(月令體)의 장면 가사이다. 권농(勸農)을 주제로 하여 농가에서 일 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정월령에서부터 12월령까지 월별 순서대로 노래하고 있다. 1년 동안 이어지는 절기에 따른 농가의 행사와 풍속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서술이 뛰어나며 교훈적 속성이 강한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되었지만, 조선 후기 개인이 만들어 낸 농서로 보기도 한다. 실학 사상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실증성이 높아 당시 농촌의 삶을 보여 주는 사료로서도 의의가 큰 작품이다.

주제 월별로 농가에서 할 일을 안내하고 권농함.

구성

- 1행: 12월의 절기 소개
- 2, 3행: 12월의 정경과 시기적 특징 제시
- 4~8행: 세시의 의복과 여러 가지 천을 마련함.
- 9~17행: 세시의 음식을 준비함.
- 18~20행: 마을의 밤과 묵은세배를 하는 정경
- 21~26행: 농업이 삶의 근본임을 강조함.
- 27~41행: 농촌을 지키며 농업에 전심할 것을 권함.
- 42~44행: 농업에 힘쓰기를 권함.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어와 내 말 듣소’와 같이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화하는 듯한 장면이 나타나지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말을 주고받으며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장면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설중의 봉만들은 해 저문 빛’에서 새해를 바로 앞둔 특정 시기의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겨울의 계절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세시 의복 장만하고 ~ 자주 보라 송화색에 청화 갈매 옥색이다’에서 옷감 마련을 위해 일한 결과를 여러 가지 색상으로 나열하여 보여 주고 있다.
- ③ ‘떡쌀은 몇 말이며 ~ 타병성은 예도 나고 제도 나네’에서 다양한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방법과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감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④ ‘새 등잔 새밭심지 ~ 오락가락 묵은세배하는구나’에서 마을 사람들이 세시 풍속에 따라 ‘묵은세배’와 같은 의식을 이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동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농사 과정이 아니라, 장사를 비롯한 농사 외의 다른 일들에 대해 ‘한 번을 뒤뚱하면 / 파락호 빗꾸러기 살던 곳 터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쌓은 노력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중년 근고한다 하나’에서 노동을 고생스럽게 여기는 것을, ‘그중에 낙이 있네’에서 노동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수한 풍박 잠시 재앙 없어야 하라마는’에서 농사 중에 자연재해를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극진히 힘을 들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농사는 믿는 것이 내 몸에 달렸’다고 한 것과 ‘황천이 인자 하사 노하심도 일시로다’라고 한 것에서 하늘의 뜻이 인간에게 우호적이며 농사의 성패는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극진히 힘을 들여 가솔이 일심하면 / 아무리 살년에도 아사를 면하느니’에서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굶주려 죽지 않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다하여 농사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자네도 헤어 보아 십 년을 가량하면 / 칠분은 풍년이요 삼분은 흉년이라’는 화자가 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농민들에게 혼계를 위해 명령하는 말하기이다. 그러므로 이 말에 향촌 사족들까지 성실하게 노동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국가 봉용’ 즉 나라를 받드는 데 사용하거나, ‘혼상 대사 먹고 입’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가정사를 비롯하여 삶을 영위하는 것이 농업의 결실인 ‘토지 소출’에서 비롯된다고 노래한 것은 국가와 개인의 삶을 떠받치는 물질적 토대가 농업에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제 시골 제 지키어 소동할 뜻 두지 마소’라는 말은 농사짓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는 이농 현상으로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막기 위한 반동적 대응의 목소리라 할 수 있다.
- ③ ‘말 부러 장사하기 / 전당 잡고 빚 주기와 장판에 체계 놓기’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상업이나 금융업이 유

행한 사회적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로써 당시에 농업이 아닌 자본을 활용해 쉽게 돈을 벌어들이는 일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증대된 사회적 실상을 알 수 있다.

⑤ ‘농업이 근본이라’라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을 떠올리며 ‘천만 가지 생각 말고 농업을 진심하소’라고 요청하는 화자의 목소리에는 향촌민들이 도시로 가거나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그들을 농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여 향촌 사회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09

고전 시가

본문 071~074쪽

01 ⑤
02 ⑤
03 ③

(가)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해제 이 작품은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노래한 민요로, 사촌 동생과 사촌 언니의 대화 형식을 통해 당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가사 노동의 어려움과 심리적인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시집살이 속에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소외감과 힘든 노동으로 인한 억압된 심리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시집 식구들을 ‘새’에 비유하며 해학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통해 웃음으로 고통을 이겨 내려는 서민들의 삶의 의지와 낙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주제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체념

구성

- 1~3행: 사촌 동생의 반가움과 시집살이에 대한 호기심
- 4~23행: 시집살이의 어려움
- 24~26행: 해학적인 체념

(나) 작자 미상, 「우부가」

해제 이 작품은 『초당문답가』라는 가사집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 시대 후기의 가사로, 조선 후기 양반 사회가 당면했던 도덕적 타락과 경제적 몰락, 그리고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봉건적 가치관의 붕괴 양상을 풍자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인 ‘개똥이’와 ‘공생원’, ‘핑생원’은 무위도식하거나 분별없이 행동하고, 체통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작품은 이러한 인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나열함으로써 조선 시대 후기 양반층의 타락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제 타락한 양반에 대한 비판과 경계

구성

- 서사: 인물에 대한 화자의 평가
- 본사: 인물의 도덕적 타락상 열거
- 결사: 인물의 패기만신한 모습 제시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뜰도 보도 못헐레라’는 저녁을 굶고 나간 ‘핑생원’의 행위를 모르겠다는 말일 뿐, ‘핑생원’의 행실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자인 사촌 동생은 ‘사촌 형님’에게 ‘시집살이 어땠데까’라고 말을 건네며 시집살이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간을 나타내는 ‘삼 년’이라는 시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나의 시집살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부자나 후려 볼까 감언이설 꺾어 보세’는 ‘공생원’의 생각을 인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공생원’의 행위에 담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④ ‘핑생원’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평가를 ‘대장부의 결기’라는 반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당밭복 구산하기 피란곳 찾아가며 / 올 적 갈 적 행로상에 처자식을 훌어 놓고’와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들은 고생살이’를 통해 공생원이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부지거처 나가더니 소문이나 들어 볼까’를 통해 집 밖에 나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 부모에 몹쓸 행사’와 ‘제 처자는 몰라보고’, ‘며느리는 들볶으며 봉양 잘못 호령한다’를 통해 ‘핑생원’ 역시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도망산에 피를 썼나 저녁 굶고 또 나간다’를 통해 집 밖에 나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남을 속여 재물을 차지하려 해도 두 번째는 아니 속고’라는 구절을 통해 ‘공생원’이 말재주가 좋아 사람들을 속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핑생원’이 말재주가 좋아 사람들을 속이면서 재산을 갈취한다는 점은 (나)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② ‘제 아버의 덕분으로 / 돈천이나 가졌더니’라는 구절을 통해 ‘공생원’의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공생원’이 아버지의 재산을 믿고 동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다. ‘동네 존장 몰라보고 이소능장 욱하기’라는 구절을 통해 ‘핑생원’이 동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핑생원’의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는 점은 (나)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끼니조차 잊지 못한다’라는 구절을 통해 ‘공생원’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동냥을 통해 자신의 끼니를 해결한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핑생원’이 동냥을 통해 자신의 끼니를 해결한다는 점은 (나)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④ ‘공생원’과 ‘핑생원’이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아부하며 신분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점은 (나)에서 확인할 수 없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C]의 ‘호박꽃’과 ‘비사리춤’, ‘오리발’은 모두 시집살이로 변해 버린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화자는 이러한 사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며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C]에서는 이질적인 대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드러내는 열거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앞밭에는 당초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고’는 화자가 하는 농사일이며, ‘도리소반 수저 놓기’, ‘오 리 물을 길어다가 십 리 방아 찼다가 / 아홉 술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건’는 것은 화자가 하는 집안일이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화자가 겪는 시집살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A]에서는 화자가 하는 이질적인 행위들 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열거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호랑새와 꾸중새, 할림새, 뽕족새, 뽕중새, 미련새는 모두 화자의 시집 식구들을 비유한 것으로 부정적 속성을 지닌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B]에서는 화자에게 시집살이의 고통을 주는 인물들 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열거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끼니도 잊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사람들을 두 번은 속이지도 못하는 점, 재상가에 청질을 하다 봉변을 당하고, 남의 골에 검태 갔다 쫓겨나는 모습, 혼인 중매를 하다 뺨을 맞고 가대문서 구문 먹으려다 핀잔먹고 자빠지는 점 등은 모두 ‘공생원’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D]에서는 다른 공간에서 행해지는 이질적인 행위들 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열거를 확인할 수 있다.

⑤ ‘동네 존장 몰라보고 이소능장 욕하기’, ‘남의 과부 겁탈하기’, ‘친척 집의 소 끌기’와 ‘친한 사람 이간질’, ‘제 부모에 몹쓸 행사’는 모두 인류에 어긋나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E]에서는 다른 대상에게 행해지는 이질적인 행위들 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열거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고전 시가

본문 075~077쪽

01 ⑤

02 ④

03 ①

■ 작자 미상, 「제비가」

[해제] 이 작품은 경기 12잡가 중의 하나로 새를 제재로 삼아, 다양한 새의 모습을 감각적이며 흥미롭게 묘사한 노래이다. 사설은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 판소리 「흥부가」, 남도 잡가인 「새타령」에서 구절들을 빌려 와 재치 있게 연결하여 꾸며 놓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내용적 유기성이 떨어져 보이지만, 비유기성 속에서도 나름의 내적 논리를 찾을 수는 있는데, 이 역시 잡가의 한 특징이다. 「제비가」는 다른 잡가와 비교할 때 당시 대중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제 다양한 새들의 다채로운 모습과 정경

구성

- 1행: 높은 범이 암개를 물고 노닐.
- 2~4행: 하늘에 기러기가 울고 감.
- 5~12행: 제비를 후리러 나가자 제비가 달아남.
- 13~22행: 임의 부재로 인한 고독과 여러 가지 새들의 다양한 모습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우이여— 어허어 어이고’와 같은 여음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는 있다. 그런데 ‘어이고(아이고)’의 경우 제비가 달아나는 데에 대한 허탈감을 보여 주므로, 이것이 화자의 자족감과 흥취를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의 경우 동일한 시구가 반복해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상을 향한 동작 주체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② ‘일락’과 ‘해는 똑 떨어져’, ‘월출’과 ‘달이 솟네’는 한자어와 유사한 뜻을 가진 순우리말을 함께 사용하여 의미를 중첩시킨 것에 해당한다.

③ ‘-니다’와 같은 현재 시제의 평서형과 ‘-노’, ‘-느냐’와 같은 현재 시제의 의문형을 사용한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④ ‘백운’, ‘흑운’에서 흑과 백의 색채 어휘를 사용한 ‘구름’의 명암 대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와 관련된 소재인 제비의 역동성을 부각하고 있다.

02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와 [B]에서 모두 나타나는 새인 ‘공작’의 경우는 동일한 종류라도 [A]에는 ‘문채 좋은’으로, [B]에는 ‘깊은 밤 울고 남은’으로 그 특징이 다르게 묘사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B]에 나타난 새들 중 대붕, 봉황새 등은 [A]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B]에 나오는 새들을 [A]에 그대로 두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농춘화답에 짝을 지어 / 쌍거쌍래 날아든다’,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 두루미’는 [B]에 사용된 시구를 [A]에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A]와 [B]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새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지만, ‘기러기 훨훨’과 같은 새의 동작에 대한 표현은 [A]에만 나타나고 있다.

⑤ [A]와 [B] 모두 ‘말 잘하는 ~ 추는 학 두루미’와 같이 대부분 특정 새와 관련된 설명에 이어 새를 제시하는 순서로 나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A]의 ‘기러기 훨훨 ~ 다 날아들고’의 경우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만첩산중 늙은 범’은 ‘어르고 노’니고 있으므로 유희의 욕망을 추구하는 주체로 볼 수 있지만, ‘양류상에 앉은 피꼬리’는 욕망의 주체인 화자가 피꼬리를 욕망의 대상인 제비로 오인하여 잡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욕망의 주체라는 공통점으로 합성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만리장천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와 ‘슬픈 소리 두견성’은 구슬픈 울음소리가 처량함, 즉 마음이 구슬퍼질 정도로 외롭거나 쓸쓸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유사점을 통해 욕망이 좌절된 모습을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는 주체가 제비를 잡으러 간다는 점에서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제비 네 어디로 달아나노’는 잡으려는 제비를 놓쳤다는 점에서 주체가 욕망의 좌절을 느끼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낭군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나는 홀로 있지만 ‘농춘화답에 짝을 지어’ 날아든 ‘못 새들’은 함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나는 고독의 정서를 환기하며 짝을 욕망하는 주체로 볼 수 있다.

⑤ ‘기러기 훨훨 방울새 떨렁 다 날아들고’는 ‘제비만’ ‘달아

나’는 상황과 대조되어 원하는 ‘제비’는 달아나고, 원하지 않는 새들만 찾아오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주체의 욕망이 좌절되는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1 고전 시가

본문 078~081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⑤

(가) 허난설헌, 「기녀반」

〔해제〕 이 작품은 중국 한시의 한 종류인 오언 율시에 해당한다. 결혼한 여성 화자가 규방에 갇혀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다. 차갑고 쓸쓸한 자연적 배경이 화자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킨다. 화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친구들과 함께 놀며 즐거웠던 처녀 시절에 대한 짙은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처녀 시절에 대한 그리움

구성

- 수(1, 2행): 초가집을 짓고 강물을 바라봄.
- 함(3, 4행): 늙어 가는 난새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쓸쓸함을 느낌.
- 경(5, 6행): 자연 배경을 통해 더욱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낌.
- 미(7, 8행): 규방에서 처녀 시절에 대해 그리워함.

(나) 작자 미상, 「앞 못에 든 고기들아 ~」

〔해제〕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이다. 작가가 궁녀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화자는 연못 속의 물고기와 동병상련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갇혀 사는 이의 애처로운 한을 풀어 체념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주제 자유롭지 못한 삶에 대한 한탄

구성

- 초장: 연못에 갇힌 물고기들의 모습
- 중장: 넓고 맑은 곳으로 가지 못하는 물고기들
- 종장: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다) 작자 미상, 「발매는 소리」

〔해제〕 이 작품은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불리는 민요로, 주로 여인들이 발을 매면서 부른 서사 민요이다. 지역마다 가창 방식이나 곡조, 가사 등에 차이가 있다. 햇볕이 내리쬐는 날씨에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종일토록 넓은 발을 매는 일은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힘든 작업이다. 발매는 소리는 지겹고 고된 발일을 하면서 느낀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출한 노래이다.

주제 고된 노동의 애환과 시집살이의 슬픔

구성

- 불같이도 ~ 나왔구나: 고된 노동의 모습
- 행주치마 ~ 부고 왔다: 친정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들음.

• 아이고 ~ 가는구나: 친정어머니의 상여를 보내는 슬픔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다)는 고된 노동을 하는 ‘밭’에서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듣는 ‘집’으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밭을 가는 노동으로 인한 고된 처지와 평소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던 친정어머니를 잃고 주검이라도 보고 싶다고 토로하는 안타까운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꽃밭을 날아다니던 나비도 가을이 되어 힘이 빠지고 (혹은 사라지고) 기러기는 쓸쓸한 모래밭에 내려앉는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를 심화시키는 배경이지, 화자의 정서와 대조를 이룬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는 불같이도 더운 날이 계절적 배경으로 제시되었으나 이 역시 밭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이지 화자의 정서와 대조를 이룬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는 자유롭지 못한 화자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앞 못에 갇힌 고기들을 활용하여 동병상련의 처지를 드러내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에는 힘든 노동을 하고, 친정어머니의 부고 소식에 슬퍼하는 화자의 처지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자연물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③ (가)의 화자는 방 안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다. 쓸쓸한 이미지로 창밖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화자가 머문 공간적 배경을 색채 이미지의 대비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다)의 화자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가고, 이후에는 행상꾼이 있는 ‘길’로 공간을 이동한다. ‘밭’과 관련해서 뒬에 비유한 표현은 있으나 화자가 머문 공간적 배경을 색채 이미지의 대비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나)는 화자가 못에 든 고기들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화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상대의 말이 인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㉞은 땅이 어두워지고, 하늘도 별이 뜬 밤이라는 의미로, 밭에서 일을 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나 해가 저물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땅과 하늘의 이미지를 대조하여 노동이 시작되는 시간적 배경을 묘사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가 거울을 바라보며 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점점

늘어 가는 난세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현재와는 달리 처녀 적 친구들과 놀던 옛적의 상황을 그리워하며, 옛적과 다른 현재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화자와 고기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에서 그 처지가 다르지 않다는 탄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화자의 부름에도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상여를 메고 가는 상여꾼의 행동을 언급하며 어머니의 주검을 떠나보내는 자식의 서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3 시적 상황의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종장에서 앞 못에 갇힌 고기들의 처지가 자신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궁녀들의 욕구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사회 속에서 궁에 갇힌 생활을 해야 했던 궁녀의 고충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가 고기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외부와 차단되어 갇힌 삶을 산다는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나오는 한탄의 정서를 드러낸 것이지만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② 초장에서 고기를 몰아다가 넣은 대상이 누구인지 묻고 있는 부분은 있으나, 이를 신분 제도로 인해 궁녀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법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 지어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복해의 넓은 못에 있다가 좁은 못에 들어오게 된 고기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사회 규범에 대한 분노와 연관 지어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들어오기도 못 나가는 심정은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대한 한탄의 정서로 이해할 수 있다. (나)의 작가를 궁녀로 볼 경우, 궁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결심을 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고자 한 노력을 작품 속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노력을 한심하게 여기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다)에서 시어머니가 ‘무슨 일로 그렇게 늦게 했느냐’고 며느리에게 말하는 것은 부고 소식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밭 일을 하느라 늦게 들어온 며느리를 타박하는 상황 정도로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내외법으로 남성에게 비해 여성에게 더 엄격하게 규제가 적용되었던 상황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어찌 옛적 놀이를 생각이나 하랴.'라는 부분을 통해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던 때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꽃동산의 나비'가 봄을 맞아 생기를 띠는 것이 아니라 '가을 신세란다'라고 표현한 것은 창문이 닫힌 방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의 심정이 반영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③ (다)에서 '불같이도 더운 날'에 쉬지도 못하고, '피같이도 험한 발'을 벌이 뜰 때까지 매는 것은 가사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한 농사일까지 감당하는 여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다)에서 친정어머니의 모습을 '살아생전 못 본 얼굴'이라고 말하는 점으로 보아 결혼을 한 후에 친정어머니를 자유롭게 만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1 현대시 본문 082~084쪽

01 ④ 02 ④ 03 ⑤

(가) 김소월, 「초혼」

해제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상례의 한 절차인 '고복 의식(擧復儀式)'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드러낸 시이다. 제목인 '초혼(招魂)'은 '고복 의식'을 민간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직후에 북쪽을 향하여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 번 불러 죽은 사람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는 의식이다. 이 시의 1, 2, 5연에서도 죽은 사람을 부르는 고복 의식이 등장하고 있는데, 화자는 죽은 임을 애타게 부르며 임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그리움은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회한(悔恨)으로 인해 더욱 안타까운 심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린 해 질 무렵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서글픈 분위기를 고조하며, '떨어져 나가 앓은 산', '하늘과 땅 사이'라는 죽은 임과의 거리감과 단절감은 화자의 절망감을 심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화자는 '선 채'로 '돌'이 되는 것을 불사할 정도의 굳은 각오로 끝까지 임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함으로써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애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구성

- 1연: 임의 부재에 대한 확인과 절규
- 2연: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회한
- 3연: 임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 4연: 이승과 저승 간의 절망적 거리감
- 5연: 죽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나) 박목월, 「이별가」

해제 이 작품은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생사를 초월한 인연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이승의 세계에 있는 화자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공간인 강을 중심으로, 강기슭에서 '뭍 락카노'라는 말을 반복하며 저승의 세계에 있는 지인과 소통을 시도한다. 하지만 화자와 죽은 지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불리고 날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화자는 인연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화자는 '하직을 말자'라는 말을 통해 죽은 지인과의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한다. 바람에 불려 죽은 지인의 목소리가 화자에게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화자는 그의 목소리에 '오냐. 오냐. 오냐.'라고 답하며 삶과 죽음의 세계 사이에 인연이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화자는 생사를 초월하여 이승이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그들의 인연을 이어 가려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지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생사를 초월한 인연

구성

- 1, 2연: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느껴지는 거리감
- 3연: 점점 사라져 가는 인연을 확인함.
- 4연: 생사를 초월하여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소망
- 5, 6연: 이승과 저승 사이에 인연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함.
- 7연: 이승이 아닌 저승에서라도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소망
- 8, 9연: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초월한 인연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는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와 같은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며 죽은 그 사람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 (나)에서는 '뭍 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이승 아니면 저승', '하직',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오냐'와 같은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며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와 (나) 모두에서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비하고 있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가)에는 영탄적 표현이 반복되며 사별한 화자의 정서가 고조되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으며, (나)에도 일부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이러한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과거의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③ (가)와 (나)에 자연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특정한 계절감이 나타나는 시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 ⑤ (가)의 1연의 경우 유사한 문장 구조와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슬픔을 점층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또 (나)에서도 '뭍 락카노'가 점층적으로 반복된 것

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가), (나) 모두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은 찾아볼 수 없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 ‘산 위’는 화자가 존재하는 이승의 높은 장소로, ‘하늘’로 상징되는 저승에 가까운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이곳에서 망자의 이름을 부르며 저승에 있는 화자와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 ‘강기슭’은 이승에 있는 화자가 건너갈 수 없는 저편, 즉 저승에 위치한 곳으로, 잘 들리지는 않지만 망자가 이승에 있는 화자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 역시 저승에 있는 망자가 이승에 있는 화자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죽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인해 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화자가 스스로 올라가게 된 장소이며, 저승의 세계를 뜻하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수직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은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단절시키는 강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수평적 공간으로, 망자가 화자와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을 화자가 타의에 의해 도달하게 된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에서는 화자가 죽은 임과의 소통에 실패하며 죽은 임으로 인한 슬픔의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을 화자의 태도가 급격히 전환되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나)의 1연에서는, 망자가 ㉡에서 화자와의 소통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며, 8연에서는 화자가 ㉡에서 들려오는 망자의 희미한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화자의 태도가 일부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을 화자의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사별한 화자의 슬픔이 드러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은 망자가 화자와의 소통을 시도하는 공간일 뿐 화자가 자신의 추억을 환기하고 있는 공간은 아니다. 또 ㉡은 저승에 있는 장소로서 실제적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⑤ (가)의 화자는 ㉠에 올라 죽은 임의 이름을 부르며 슬퍼하고 있을 뿐, ㉡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지는 않다. 또 ㉡은 망자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이므로, 화자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장소로 볼 수 없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화자는 자신이 있는 이승에서는 지인과의 소통이 불가능하지만 이승이 아닌 저승에서라도 다시 만나 소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라는 시

구에는 죽은 지인과의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화자의 기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의 화자는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화자는 돌이 되어 버린다고 할지라도 임을 부르는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죽은 지인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라는 시구는 죽은 지인에 대한 화자의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한 것일 뿐 죽은 지인과의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기대를 드러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지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지인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간절한 부름은 ‘부르다가 내가 죽을’이라는 시구로 표현되고 있다. 아울러 죽은 지인의 이름을 부르며 ‘설움’에 겨워하고 있으므로, 이 두 시구는 모두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처절한 슬픔을 형상화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나)의 화자가 ‘뒤탈카노’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는 것은 저승의 세계에 있는 죽은 지인의 말을 확인하고 알아듣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이승에 있는 화자가 저승에 있는 지인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1연에서는, 저승의 강기슭에 있는 지인의 목소리가 이승에 있는 화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죽은 지인의 목소리가 ‘바람에 불려서’ 이승에 있는 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2연에서는 죽은 지인에게 화자가 말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 역시 ‘바람에 날려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결국 1, 2연의 ‘바람’은 화자와 죽은 지인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람에 불려서’와 ‘바람에 날려서’라는 시구는 이승에 있는 화자와 저승에 있는 지인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가)의 화자는 자신이 죽은 지인의 이름을 불렀으나 그 소리가 지인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비껴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나)의 화자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동아뱃줄’이 삭아 내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시구에는 모두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02 현대시

분문 085~087쪽

01 ⑤

02 ②

03 ③

(가) 이육사, 「노정기」

해제 이 작품은 고난 속에서 살아온 화자가 자신의 삶의 역정을 노래한 시로, 화자의 비극적인 자기 인식이 드러나 있다. 화자는 쫓기는 마음과 지친 몸을 이끌고 이상적 세계를 꿈꾸지만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며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반추하고 있다.

주제 지나온 삶의 고통과 비애

구성

- 1연: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아온 삶
- 2연: 젊은 날 경험했던 시련과 불안
- 3연: 희망 없이 살아온 치열한 삶
- 4연: 고난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단한 삶
- 5연: 고단한 삶을 회고하며 느끼는 비극적 자기 인식

(나)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해제 이 작품은 미래의 시점을 가정하여 화자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시이다.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감탄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젊은 날에 대한 탄식과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삶의 주체로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주제 젊은 날에 대한 반성적 성찰

구성

- 1, 2행: 현재를 기록한 메모를 보게 될 미래의 ‘나’
- 3~6행: 방향과 고뇌로 점철된 젊은 날에 대한 회상
- 7~11행: 질투뿐이었던 젊은 날의 모습
- 12~14행: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반성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㉔에 ‘그리하여’라는 접속어가 사용된 것은 맞지만 화자가 남기는 짧은 글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의 결과를 담고 있을 뿐 주체적 삶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에는 ‘암초’와 같은 자연물과 ‘흐릿한 밤’, ‘태풍’과 같은 자연 현상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고단했던 삶의 노정이 형상화되어 있다.
- ② ㉒의 ‘열대 식물처럼’, ‘시궁치는 ~ 발목을 에워쌌다.’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표현은 화자가 ‘시궁치’로 비유되어 있는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㉓에서 화자의 마음은 ‘많은 공장’을 세웠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㉔에 이어지는 시행에서는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라고 언급하고 있다. ‘공장’은 무언가를 생산하는 곳으로서 마음속에 있는 많은 공장으로 인해 화자가 생각하고 기록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장’은 화자의 생각거리나 고민거리를 생성하는 곳을 나타내는 상징적 시어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㉓은 상징적 시어를 통해 혼란스러운 화자의 내면 심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라고 언급하고 있다. ‘공장’은 무언가를 생산하는 곳으로서 마음속에 있는 많은 공장으로 인해 화자가 생각하고 기록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장’은 화자의 생각거리나 고민거리를 생성하는 곳을 나타내는 상징적 시어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㉓은 상징적 시어를 통해 혼란스러운 화자의 내면 심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㉔에서 추상적 대상인 ‘청춘’을 구체화하여 세워 두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 화자가 자신의 청춘을 저녁 거리마다 세워 두었으므로 이는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㉔의 의미와 이어지는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라는 시행의 의미를 고려할 때, 화자는 자신의 청춘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02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서 화자는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모습과 상태를 되돌아보기 위해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라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청춘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 특정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건에 대한 화자의 심리가 전환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A]에는 화자의 관념이 드러나 있을 뿐 화자의 공간 이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A]의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종이를 떨어뜨리는 상황을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 ⑤ [A]에는 화자의 내면 의식이 제시되어 있을 뿐 이러한 내면 의식이 외부 세계로 확장되고 있지는 않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의 화자는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타인의 삶을 꺾어내리고 시기하는 질투의 삶이었다는 것을 아프게 자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라는 시구를 통해 화자가 타인의 삶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음을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밀려온’이라는 시어는 화자가 자신의 의지나 뜻

이 아니라 외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밀려오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가)의 ‘소라 껍질에’ ‘붙어 왔다’라는 표현 역시 화자가 모진 풍파로 인해 다 살아 빠진 소라 껍질에 자신을 의탁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고단한 삶이 부조리한 현실에 의해 이끌려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는 화자가 자신의 지나온 삶을 성찰한 후 자각하게 된 것을 표현한 시구이다. 화자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삶 속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행동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질투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아프게 자각하고, 이러한 자각을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라는 시구로 나타내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자신의 목숨을 ‘깨어진 뱃조각’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으며, 이때 ‘깨어진 뱃조각’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고단한 삶을 살아온 화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나)의 화자는 고단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깨어진 뱃조각’과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는 모두 화자가 자신의 고단했던 삶을 회고하며 도달하게 된 부정적 자기 인식이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는 화자의 지나온 삶이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나)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는 화자의 청춘이 탄식으로 가득 찬 고통스러운 삶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도 없는 현실을 드러내며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주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구성

- 1연: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부두를 찾은 ‘나’
- 2연: 고달픈 현실에 의연히 대처하며 후회 없이 살아온 삶
- 3연: 우리지오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어린 시절의 밤
- 4연: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는 즐거움
- 5, 6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나) 정일근, 「흑백 사진 - 7월」

[해제] 이 작품은 화자가 유년 시절에 경험한 일을 다양한 감각적 심상과 비유적 표현으로 그려 내고 있다. 유년 시절 화자의 눈에 비친 여름날의 냇가 풍경, 그 속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천진난만한, 자연물(미루나무)에 동화되는 화자의 상태, 아이의 혼잣말, 오수에 빠져드는 과정 등이 어우러지면서 평화로운 유년의 기억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주제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

구성

- 내 유년의 ~ 흘러갔다.: 물놀이를 하던 시냇가의 풍경
- 냇물아 ~ 미루나무 한 그루.: ‘나’의 눈에 비친 미루나무의 모습
- 달아나지 마 ~ 잠이 들었다.: 물놀이에 지쳐 오수에 빠져드는 ‘나’의 모습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에서는 화자가 유년 시절 어머니로부터 우리지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므로 화자의 공간 이동의 양상을 확인할 수 없다. [B]에서는 화자가 학교에서 울리는 풍금 소리를 들으며 잠에 빠져드는 유년 시절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화자의 공간 이동의 양상을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의 ‘졸음졸음 귀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 등불이 깜박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에서 동일한 시구인 ‘때꺼정’의 반복을 통해 음악적 효과를 자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B]에서는 그러한 구절을 확인할 수 없다.

② [B]에서는 ‘7월’과 ‘더위’를 통해 여름의 계절이 드러나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A]에서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④ [A]에서는 음성 상징어 ‘깜박’을, [B]에서는 음성 상징어 ‘깜빡’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A]에서는 ‘등불’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B]에서는 ‘7월’이라는 시어가 나타내는 대상, 즉 화자가 잠이 드는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03

현대시

본문 088~090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⑤

(가) 이용악, 「우리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해제] 이 시는 시베리아의 이국땅을 떠돌며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하에 해체된 우리 민족의 슬픔과 한을 노래하고 있다. ‘우리지오’는 화자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말로만 들던 이국의 도시이다. 당시 그곳은 절박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해야 했던 탈출구의 하나였다. 그곳에도 추위와 외로움이 있지만 화자는 그러한 현실과 당당히 맞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도 화자는 우리지오 가까운 항구의 부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고향으로 날아가는 꿈을 꾸지만 바다가 두껍게 얼어붙어 드나드는 배가 하

⑤ [A]의 ‘등불이 깜박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에서 활유의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B]에서는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에서 활유의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때의 ‘7월’은 화자를 나타내므로 7월이 잠이 들었다는 것은 화자가 잠이 든 것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는 화자와 자연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뗏비둘기’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이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상반된 존재이자 화자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환기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등대’는 한곳에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처지가 투영된 존재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뗏비둘기’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된 존재일 뿐 화자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라고 볼 수 없으며, ‘등대’를 통해 화자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등대’를 화자의 성숙을 이끄는 존재라고 볼 수 없다.

③ ‘뗏비둘기’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로서 화자의 소망과 관련이 있을 뿐 화자의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볼 수 없으며, ‘등대’는 한곳에 구속되어 있는 존재이므로 화자의 현재 처지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과거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볼 수 없다.

④ ‘뗏비둘기’는 화자와 달리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이므로 화자와 상반된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등대’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를 투영하고 있으므로 화자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다고 볼 수 없다.

⑤ ‘뗏비둘기’를 보며 화자가 자신의 아픔을 해소하고 있지 않으며, ‘등대’는 화자가 고향에 갈 수 없는 처지를 투영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을 뿐 화자의 아픔을 심화시키는 존재라고 볼 수 없다.

03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화자는 삼살개 짖는 밤에 ‘부두’로 오게 되는데, 이를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불타는 소원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의미한다. (나)에서 화자는 유년 시절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미루나무 옆에서 누워 하늘을 바라보다가 낮잠을 자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냇가’는 화자가 평화로운 유년을 보낸 곳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삼살개 짖는 소리’는 단순히 현 공간의 배경이나 분위기를 제시해 주는 구절로 볼 수 있다. 만약 화자가 예전 고향에서 삼살개 짖는 소리를 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화자가 듣고 있는 ‘삼살개 짖는 소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매개체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나)의 ‘착한 노래’는 시냇물 소리인데 화자가 이 소리를 듣고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② (가)의 ‘알곡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드는 밤’은 화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느끼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의 ‘내 유년의 7월’은 화자가 자연과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살았던 어린 시절로, 이를 화자가 공동체적 연대감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화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는데, ‘하얀 눈’이 자신의 어깨에 쌓여도 무겁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하얀 눈’은 화자가 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반짝이는 햇살’은 유년 시절 화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풍경을 이루는 자연적 요소이므로 이를 이상을 실현한 화자의 밝은 미래를 표상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날고 싶어’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뗏비둘기처럼 화자도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을 담고 있는 구절이므로, 이를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달아나지 마’는 자연과 더 오래 있고 싶은 유년 시절의 순수한 마음이 표출된 구절로, 이를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담담하게 수용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오던 따뜻한 오수’는 유년 시절 화자가 냇가에서 헤엄을 치면서 놀다가 배고픔보다 즐림을 먼저 느꼈던 상황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를 화자가 혈연적 유대를 매개로 정서적 충만감을 얻은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눈보라에 얼어붙는 선달 그림’에 부두로 왔다고 말하고 있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는 현재 삶의 힘겨움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현재 힘겨운 삶을 살면서 이와는 반대로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기억에서 소환하여 떠올리고 있는데, 이

를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다.

③ (가)에서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화자의 간절함이 ‘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로 표현되고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유년 시절 자신의 눈동자 속으로 내려와 눈동자가 터져 나갈 듯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다. ‘파란 하늘’이라는 자연이 화자의 눈동자에 가득 차는 것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과 함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화자가 자연에 대해 가진 친밀감을 드러내 준다.

04 현대시

본문 091~093쪽

01 ②

02 ④

03 ④

(가) 오장환, 「성탄제」

해제 이 작품은 산속에서 벌어지는 살육의 현장을 통해 일제의 위력에 희생당하는 당대 우리 민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어두운 숲’과 ‘골짜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물어꾼’, ‘포수’, ‘사냥개’는 생명을 유린하는 폭력적 존재로, ‘사슴’은 연약한 생명체로 대비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비는 생명을 유린하는 세계의 폭력성을 부각한다. 한편 ‘쇠북 소리’는 사냥꾼이 사냥할 때 내는 종소리 또는 성탄을 알리는 종소리로 해석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쇠북 소리’는 순결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폭력적 세상에서 순결한 존재가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구성

- 1연: 피를 흘리며 쫓기는 사슴
- 2연: 사슴을 쫓는 인간의 집요한 추적
- 3연: 사냥꾼에게 희생되는 동물들을 목격하는 어린 사슴
- 4연: 어미 사슴을 살리고 싶은 어린 사슴
- 5연: 아슬한 곳에서 들리는 쇠북 소리
- 6연: 죽어 가는 어미 사슴이 흘리는 눈물과 피

(나) 박남수, 「새 1」

해제 이 작품은 자연물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생명의 순수성을 옹호하고 인간 문명이 지닌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다. ‘새’는 인위적이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은 순수한 자연을 표상하며, ‘포수’는 파괴적 속성을 지닌 비정한 인간을 표상한다. 화자는

대조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인간의 손에 파괴된 자연을 형상화하는 한편, 순수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강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자연의 순수성에 대한 옹호와 인간 문명의 폭력성 비판

구성

- 1: 새의 순수한 노래와 사랑
- 2: 가식 없는 순수성을 지닌 새
- 3: 새의 순수성을 파괴하려는 포수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는 ‘눈(흰색)’과 ‘핏방울(빨간색)’, ‘어두운 골짜기’와 ‘하얀 꽃’ 등의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는 비극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는 ‘새는 울어 ~ 만들지 않고, 지어서 ~ 가식하지 않는다’와 같은 대구적 표현을 통해 새의 긍정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가)에서는 대상의 긍정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나)에 ‘바람의 여울터’, ‘나무의 그늘’ 등의 공간이 나오기는 하지만 공간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와 (나) 모두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 어미 등을 이용하여 기쁨·슬픔·놀라움과 같은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영탄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대상의 부정적 처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가)만 ‘눈’처럼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을 뿐, (나)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 ㉔의 ‘노래’는 어떤 것을 의식하거나 의도하지 않고 행하는 순수한 ‘새’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되는 소재일 뿐,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에 대한 저항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의 밤새 꺼지지 않는 ‘햇불’은 포수의 사슴 사냥이 밤새 도록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② ㉒의 ‘표범과 늑대’는 포수가 사냥한 동물로, 포수가 연약한 사슴뿐 아니라 힘센 짐승들까지 사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포수가 산의 어떤 짐승이든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임을 드러낸다.

③ ㉓의 ‘샘’과 ‘약초’는 어린 사슴이 죽어 가는 어미 사슴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떠올리는 소재들로, 어미의 소생을 바라는 간절함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⑤ ㉔의 '체온'은 연약한 존재인 새가 다른 연약한 존재를 위해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서 서로를 배려하는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상징한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뜻을 만들지 않고'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위적인 태도를 지니지 않은 자연물의 모습, 즉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지닌 존재의 특성을 드러낸 것일 뿐, 순수한 자연물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어두운 숲'과 '어두운 골짜기'는 사슴과 같은 자연물이 인간에 의해 희생당하는 살육의 공간을 나타내고, (나)의 '바람의 여울터'와 '나무의 그늘'은 '새'와 같은 순수한 존재들이 노래를 부르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공간을 나타낸다.

② (가)의 산속의 짐승들을 사냥하는 '포수'는 조선 민중을 억압하고 유린하는 일제를 상징하고, (나)에서 '새'를 사냥하는 '포수'는 순수한 존재를 파괴하는 인간 문명을 상징한다.

③ (가)의 '죽은 이로 하여금 / 죽는 이를 묻게 하라'는 것은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의 생명이 종식되면서 죽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어미 사슴의 죽음은 어린 사슴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므로 어린 사슴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미, 즉 생명의 길을 찾기 바라는 소망을 전달한 것이다.

⑤ (나)에서 포수가 쏘는 것이 '순수'가 아니라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연물인 새가 물리적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 새가 지닌 본연의 순수성은 절대 파괴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서 겨울을 건디는 장수산처럼 자신도 슬픔이나 꿈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겨울밤을 보내며 시련을 견디어 내려는 의지를 다진다. 동양적 은일(隱逸) 정신에 대한 지향을 통해 일제 강점기 말의 고통을 인내하고자 했던 시인의 마음이 예스러운 말투의 산문적 진솔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에 담겨 있다.

주제 장수산의 절대 고요와 탈속적 지향

구성

- 별목정정이랬거니 ~ 돌아옴 직도 하이: 깊고 울창한 장수산의 고요
- 다람쥐도 ~ 걸음이란다?: 적막한 장수산의 눈 내린 겨울밤
- 윗절 종이 ~ 좁는다?: 탈속적 태도를 본받고자 하는 정신적 지향
- 시름은 ~ 흔들리우노니: 시름에 젖은 화자의 내면
- 오오 ~ 한밤내—: 장수산에서 겨울을 보내며 시름을 견뎌내겠다는 의지

(나) 김종길, 「고고」

해제 이 작품은 겨울 북한산의 특정한 모습을 통해 고고한 경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시이다.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는 여간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산이 전체적으로는 수목화 처럼 차갑게 젖어 있으면서 높은 봉우리 몇 개에만 살짝 눈이 덮여 있는 때가 되어야 회복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또 그 고고함은 햇살이 와 달기만 해도 변질해 버릴 만큼 고스란히 지키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섬세한 감각적 이미지를 구사한 점, '기다려야만 한다'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태도와 의지를 강조한 점이 특징적이다.

주제 고고한 삶의 경지에 대한 지향

구성

- 1연: 겨울 북한산에 대한 기다림
- 2, 3연: 눈이 조금 내린 겨울 아침 북한산의 모습에 대한 기다림
- 4~6연: 쉽게 드러나지 않고 지키기도 어려운 고고한 모습의 겨울 북한산에 대한 기다림

05 현대시 본문 094~096쪽

- 01 ② 02 ⑤ 03 ⑤ 04 ①

(가) 정지용, 「장수산 1」

해제 이 작품은 황해도에 있는 장수산의 눈 내린 겨울밤 풍경을 통해 절대 고요와 탈속적 경지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 시이다. 화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세속적인 욕심을 초월한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태도를 뒤따르고 싶어 한다. 고요한 산속 풍경과 달리 심하게 동요하는 내면의 고뇌를 지닌 화자는 차갑고 우뚝하게 서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 '~ 베어짐 직도 하이', '~ 돌아옴 직도 하이', '~ 종이보다 희고녀' 등은 현대 일상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어미의 사용을 통해 예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나 (나)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의 화자가 북한산의 고고함을 보려면 어느 겨울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거듭 말하는 것은 단정적 진술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시에서 연쇄법은 시구가 꼬리에 꼬리를 물 듯이 이어지는 표현법이다. (가)와 (나) 모두 연쇄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가)의 화자는 장수산의 고요 속에서 자기 내면의 심한 동요를 인내해 내려는 태도를 드러내면서 ‘오오’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감정의 고조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감탄사가 사용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⑤ (나)에서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화자가 현재 있는 곳은 눈이 내린 겨울밤의 고요한 장수산 속이다. 그는 고요한 산속 풍경과 달리 자기 내면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차고 올연하게, 그리고 슬픔도 꿈도 없이 그 겨울을 견뎌 내야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가 인내의 태도를 드러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는 것을 보려면 어느 겨울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는 화자가 몹시 기다리는 대상이 나타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를 화자가 향수(鄉愁)에 잠기는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나)의 화자는 ㉣와 같은 때에 북한산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 화자가 회상하는 대상 중 하나인 시간이라고 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에 화자가 회상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가)의 화자가 ㉠에 어떤 다짐을 되새길 수는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가 ㉡에 자괴감, 즉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느끼게 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③ ㉠은 (가)의 화자가 견뎌야 하는 시간이지 자신의 경험을 청자와 나누는 시간이 아니며, (가)의 청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다. ㉡는 북한산이 고고함을 드러내는 시간이지 (나)의 화자가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아니다.

④ (가)의 화자는 내면의 시름 때문에 ㉠에 무엇인가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후회의 대상이 되는 시간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또 (나)의 화자가 ㉡를 원망할 이유는 없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4연을 보면, ‘신록’, ‘단풍’, ‘안개’, 그리고 ‘적설’은

북한산의 고고함을 드러내 줄 수 없는 것들로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신록이나 단풍’ 또는 ‘안개’가 북한산이 고고함을 갖기 위해 필요한 소재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화자의 정신적 지향을 상징한다고 할 수도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화자는 ‘윗절 중’을 가리켜 ‘조찰히 늙은 사나이’라고 하고 있다. ‘윗절 중’은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것에서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나서도 ‘웃고 올라간’ 사람이므로 승패에 초연한 듯이 보이는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유와 무욕의 태도는 세속적인 것과 거리가 멀기에, 장수산의 탈속적 성격과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차고 올연히’는 홀로 우뚝 서 있는 겨울 장수산의 모습을 표현한 말인 동시에, 그것을 닮고자 하는 화자가 지향하는 태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화자는 ‘슬픔’ 같은 세속적 감정, ‘꿈’으로 표상되는 이상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에 구애됨이 없이 일제 강점기 말의 정신적 고통을 이겨 내려고 하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③ (나)에서 북한산의 고고함은 ‘그 높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성취 혹은 획득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으로 진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화자는 북한산이 이러한 고고함, 즉 세상일에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고상한 경지를 환기하는 모습을 이전에도 본 적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④ (나)의 화자는 북한산의 고고함이 ‘높은 봉우리만’ 눈이 살짝 덮이고 나머지 ‘원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상태 이어야 드러나기 때문에 ‘원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화자가 생각하는 고고함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발현하기 어렵다는 속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04 이미지의 특징과 효과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찌르렁’이라는 의성어를 활용하여 청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시구이다. 이는 화자가 실제로 듣고 있는 소리는 아니고, 이렇게 울창한 겨울 숲속에서 만약 ‘아랍드리 큰 솔’이 베어진다면 골짜기가 울리면서 커다란 메아리가 돌아올 것만 같다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즉, 실제로는 나지 않는 소리를 언급함으로써 장수산 속의 고요를 부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일제 강점기에 화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을 상징한 시구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 장수산의 고요가 마치 추위처럼 살을 파고들어 뼈를 저릴 만큼 강하다는 점을 표현한 시구이다. 그러므로 이는 축

각적 이미지를 통해 장수산의 절대 고요를 강조한 것이다.

③ ㉔은 ‘눈과 밤’, 즉 장수산에 눈이 내린 밤의 풍경이 종이보다도 희다고 표현한 시구이므로, 다른 대상인 종이와의 비교를 활용한 색채 이미지를 통해 세속적인 것과 거리를 둔 순수한 공간의 느낌을 장수산에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㉕은 직유법이 사용된 시구로, 이는 ‘높은 봉우리’ 몇 개만 ‘가볍게 눈을 쓰고’ 있는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여 북한산의 고고함을 이루는 한 요소를 표현한 것이다.

⑤ (나)에 묘사된 북한산의 고고함은 높은 봉우리에만 살짝 눈이 덮여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고고함은 햇살만 와서 닿아도 바로 변질한다고 했으므로, 고스란히 지키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열은 화장을 한 것처럼 얇게 덮인 눈이라서 햇살이 닿기만 해도 쉽게 녹아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㉔은 ‘장밋빛’이라는 색채어를 활용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북한산의 고고함을 훼손할 수도 있는 대상인 ‘햇살’을 형상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06

현대시

본문 097~100쪽

01 ⑤
02 ①
03 ④
04 ③

(가) 김영랑, 「거문고」

【해제】 이 작품은 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거문고(기린)’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자유가 억압당한 상황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제 곡조를 잃어버린 기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리떼’, ‘잔나비떼’로 상징되는 일제와 그들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득실거리는 현실에서 숨죽여 은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을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주제】 암담한 시대 상황에 대한 비극적 인식

【구성】

- 1연: 해가 스무 번 바뀌었음에도 울지 못하는 거문고
- 2연: 다시 올 날을 소망하는 거문고
- 3연: 일제 강점하의 부정적 현실
- 4연: 해가 또 바뀌어도 마음 놓고 울지 못하는 거문고

(나) 박재구, 「굴동리 일박」

【해제】 화자는 강진 부근을 지나면서 부정적인 지배층에 향ける 의적들의 창검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굴동리라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지명 수배자의 명단이 기록된 메모 내용에서 다산 정약용을 떠올린다. 화자가 위

치한 강진은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한 곳이기도 한데, 메모에 적은 내용은 주막을 지나쳐 갔던 어떤 사람이 적어 놓은 것으로 다산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백성들 편에 섰던 목민관이었지만 오히려 탄압을 받았던 그를 통해 양심적 지식인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주제】 다산의 삶을 통해 바라본 부정적 현실 인식

【구성】

- 1~8행: 강진장, 도암만을 지나면서 떠오르는 의적들의 행적
- 9~13행: 지나간 역사를 상상하며 주막을 향해 걷는 길
- 14~22행: 굴동리 주막에서 떠올리는 다산
- 23~28행: 다산에 관해 적은 어떤 사람의 메모
- 29~36행: 시대를 사랑하고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는 이가 탄압받는 현실에 대한 인식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에서는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실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겨울 바람은 차고’에서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산천에 찍힌 소금 빛갈의 / 허름한 불빛’, ‘벽 위에 빛 바랜 지명수배자 진단 하나’ 등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신음 소리가 문풍지에 부딪쳤다’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실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첫 연의 ‘벽에 기대선 채로 ~ 내 기린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와 마지막 연의 ‘벽에 기대선 채 ~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가 서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수미상관의 방식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에서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확인할 수 없다.
- ② (나)에는 ‘겨울 바람’, ‘툭날 같은 눈발’ 등에서 겨울의 계절감이 드러날 뿐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가)에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계절의 변화 역시 확인할 수 없다.
- ③ (가)의 ‘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에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 ④ (가)에서는 ‘기린(나/거문고)’을 위협하는 존재인 ‘이리떼’와 ‘잔나비떼’를 통해 대조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정약용에 대한 평가에 대조가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A]의 '검은 벽'과 [B]의 '이 밤도'는 모두 검은색의 색채적 이미지를 보여 주는 시구로 화자가 처한 암울한 현실을 나타낸다. 그런데 '검은 벽'은 방 안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모습인 반면 '이 밤'은 온 사방이 캄캄해진 모습이라는 점에서 암울한 현실이 심화되어 가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화자 내면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A]의 '벽에 기대선 채'에 비해 [B]의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는 구체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문 아주 굳이 닫고'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나타내므로, 화자가 부정적인 외부 세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A]의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는 [B]에서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로 연결되고 있다. 이는 20년간 지속되었던 상황이 해가 한 번 더 바뀌는 상황에서도 역시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A]에서 '기린'이 '울지를 못'하는 것과 [B]에서 '기린'이 '울들 못'하는 것은 화자가 처한 억압적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볼 수 있다. 이는 화자로 하여금 슬픔과 비애의 감정을 야기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⑤ [A]의 '영영'은 '영원히 언제까지나'라는 뜻으로, 20년이 지나도 울지 못하는 기린의 상황, 즉 부정적 상황이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암담함을 드러내고 있다. [B]의 '맘 놓고'는 거문고를 맘껏 울리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억압의 강도가 심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03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유연비어 날포로 민심을 흥흥케 한 / 자생적 공산주의자 및 천주학 수괴'는 지배 세력의 입장에서 다산의 행적을 부정적으로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를 다산의 죄목에 대한 현재의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황건 두른 의적 천만'은 지배층에 봉기를 일으켰던 과거의 의적들이고 '그날의 창검 부딪는 소리'는 의적들이 관군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의미한다. 화자는 현재 바다갈대의 소리를 듣고 바다오리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과거의 의적들이 일으킨 봉기를 떠올리는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 짓고 있다.

② 화자는 강진장을 지나 도암만을 걸으며 과거에 유배를 가

면서 그 길을 걸었던 역사적 인물인 다산 정약용을 떠올리고 '맨발로 살 찢기며 걸어왔을까'라고 말하며 정약용이 겪었을 고초를 짐작하고 있다.

③ '그래 한잔 들게나 다산'은 화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지만, 이는 다산이 겪었을 고통을 떠올린 뒤 한 말이므로, 힘겨운 삶을 살아온 다산을 위로하는 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를 살고 있는 화자가 과거의 역사적 인물인 다산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인물을 연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누군가의 신음 소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한 사람의 신음 소리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산이 고문받을 당시 다산이 낸 신음 소리가 양심을 지키며 살다가 지명 수배자가 된 사람들의 신음 소리로 볼 수 있다. 화자는 다산이 낸 신음 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다고 표현하여 화자가 살고 있는 현실이 다산이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초근목피'는 풀뿌리와 나무껍질처럼 곡식이 떨어졌을 때 먹는 험한 음식으로, 극심한 빈곤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릅뜬 눈'은 앞 시구인 '허름한 불빛', 뒤 시구인 '초근목피'와의 연결을 고려할 때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분노의 눈빛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탐관오리의 탐욕을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거문고의 울림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발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기린(거문고)의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은 민족 해방의 희망을 불러일으켰던 3·1 운동으로 볼 수 있다.

② '이리떼'와 '잔나비떼'는 모두 기린을 위협하는 존재이므로, 우리 민족을 억압한 일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협력한 친일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바람이 차고 톱날 같은 눈발이 섞여 치는 것은 화자가 처한 현실, 즉 다산과 같은 양심적인 지식인이 탄압받는 현실의 부정적 모습을 계절적 이미지를 통해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⑤ 사람과 시대와 양심과 지식을 사랑한 것은 다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는 이런 다산의 모습이 지금을 살고 있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갖춰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사람들이 탄압을 받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07 현대시 본문 101~104쪽

01 ① 02 ④ 03 ② 04 ②

(가) 백석, 「북방에서 - 정현웅에게」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현실에서 유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회한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아주 먼 옛날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 한반도에 정착하던 상황을 떠올리며, 그저 안일하게 현실에 순응하며 살았던 과거 역사를 성찰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북방에서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현실에 허무함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우리 민족의 대변자로서, 부끄러웠던 우리의 역사를 회상하며 비참한 처지에 놓인 우리 민족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민족의 역사에 대한 회상과 현실의 부끄러움

구성

- 1연: 북방을 떠난 '나'
- 2연: 떠나는 '나'를 아쉬워하는 북방의 민족들
- 3연: 새로운 터전에서의 삶에 순응하며 사는 '나'
- 4연: 시련을 피해 북방으로 돌아온 '나'
- 5연: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북방의 모습
- 6연: 자랑과 힘이 허무하게 사라진 '나'의 모습

(나) 박봉우, 「나비와 철조망」

【해제】 이 작품은 '나비'와 '철조망'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그리고 있다. '나비'는 분단의 현실로 고통받으면서도 통일과 평화의 꿈을 버리지 못한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 '철조망'은 분단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상징한다. 이 작품은 대립되는 성격의 시어들을 바탕으로 분단의 현실을 비판하고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민족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열망

구성

- 1연: 해 질 무렵 지친 날개로 날고 있는 나비
- 2연: 꽃밭을 바라며 날고 있는, 상처 입은 나비
- 3연: 적지를 고통스럽게 날고 있는 나비
- 4연: 벽을 느끼면서도 계속 날고 있는 나비
- 5연: 꽃밭을 그리며 날고 있는 나비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에서 '나'가 북방을 떠나려고 하자 '자작나무와 이갈나무'가 슬퍼하고, '갈대와 장풍'이 '붙드던 말'을 하였다. 이는 의인화한 자연물을 통해 북방을 떠나기 싫어하는 화자의 괴로운 심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나)는 나비의 여정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가)는 '부여를 속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 흥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의 나열을 통해 화자가 떠나온 곳이 북방임을 드러낼 뿐, 시적 공간의 낭만적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열거법이 쓰이지 않았고, 낭만적 분위기도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가)와 (나) 모두 시상의 처음과 마지막에 같거나 비슷한 내용과 형식이 배치되는 수미상관의 구성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 ⑤ (가)는 '아득한 옛날'과 '아득한 새 옛날'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현재의 비참함을 부각할 뿐,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의 깨어진 '돌비'와 긴 족보를 이룬 '가마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기 위해 활용한 소재로, 이는 '나'가 북방을 떠난 지 매우 오래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은 화자가 북방을 떠나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북방에 살던 존재들을 '배반하고' '속이고' 떠나왔다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 이들을 떠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낸 것이지, 다른 이 때문에 떠났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 ② ㉒은 화자가 북방을 떠날 때 주변의 반응을 표현한 것으로, '잔치'와 '울던 것'은 북방 사람들이 화자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 ③ ㉓은 북방을 떠난 삶을 표현한 것으로,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 샘을 마시고 낮잠을' 자는 것은 화자가 북방을 떠나 새로 정착한 곳에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음을 드러낸 것이다.
- ⑤ ㉔은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 나의 태반'으로 돌아온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한 아득한 새 옛날'은 과거에 떠났던 북방으로 다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는 현재의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㉔에 달라진 북방에서 느끼는 절망감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0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의 1연에는 '나비'의 시점에서 바라본 풍경이 형상화되어 있는데, 나비가 바라보는 '장밋빛 무늬'는 노을을 표현한 것으로 아직 원하는 공간에 도달하지 못한 채 하루가 저물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 과거에 겪었던 사건으로 인해 생긴 나비의 정신적 상처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푸런 강과 또 산’은 나비가 넘어야 하는 대상으로, 나비가 가고자 하는 세상에 도달하기 위해 넘어가야 할 장애물을 의미한다.
- ③ ‘뿔 ‘마일’은 나비가 더 날아야 할 거리로, 나비가 도달해야 할 아방의 철조망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 ④ ‘바람’은 나비가 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비가 이 바람이 자꾸 분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부정적이라는 나비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 ⑤ 나비는 자신의 비행을 가로막는 ‘벽’을 어설프다고 여기는데, 이는 굳은 의지를 지니면 얼마든지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는 나비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 ‘이미 해는 높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뉘 없이 떠’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북방을 떠나 유랑했던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왔지만 과거의 영화를 찾아볼 수 없는 북방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먼 개소리에 놀라’고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하며 사는 것은 불안과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삶을 표현한 것이고,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자책을 드러낸 것이다.
- ③ (가)에서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는 것은 찬란한 과거의 영화와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살아가던 우리 민족이 느꼈던 상실감을 표현한 것이다.
- ④ (나)에서 ‘생채기’를 입은 ‘나비 한 마리’는 분단의 상처를 입은 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상징한 것이고, ‘첫 고향의 꽃밭에 마즈까까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 ⑤ (나)에서 ‘모진 바람이’ 불고 ‘벽, 벽……’에 부딪치는 것은 분단과 대처로 인한 답답한 현실을 드러낸 것이고,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적 상황에서도 통일에 대한 염원만큼은 잃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08 현대시

본문 105~106쪽

01 ③

02 ⑤

03 ①

(가) 조지훈, 「화체개현」

【해제】 이 작품은 석류꽃 개화의 순간에 화자가 느끼는 감동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짧은 여름밤이 사라지는 순간 섬돌 위에 석류꽃이 터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방안’ 가득히 석류꽃이 물들어 오며 석류꽃 안에 화자 자신이 들어가 앓는다고 하면서 석류꽃이 개화하는 순간에 느끼는 감동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새벽 동이 트면서 햇살이 섬돌 위로 올라와 ‘방안’으로 물들어 오는 상황을 석류꽃의 개화를 빌려 나타낸 작품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주제 생명 탄생 순간의 감동

구성

- 1연: 무념무상과 몰아의 경지
- 2연: 섬돌 위에 터지는 석류꽃
- 3연: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것으로 인식하는 석류꽃의 개화
- 4연: 석류꽃의 개화에서 느끼는 감동

(나) 최승호, 「누에」

【해제】 이 작품은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와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기까지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누에는 스스로 고치로 들어가 번데기의 시간을 거치며 날개를 얻을 날을 꿈꾼다. 고치의 벽이 뚫리고 누에가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게 되는 것은 외부의 조력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얻고자 하는 누에의 꿈과 고치의 벽을 뚫고자 하는 누에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누에고치의 벽을 뚫고 나비가 되고자 하는 누에의 노력

구성

- 누에들은 ~ 가능했을까: 나비가 되려는 누에의 꿈
- 어느 날 ~ 날갯짓이 시작되는 것이다: 고통을 극복하며 얻은 날개
- 밖에서 ~ 잘 알고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비가 된 누에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가 1연과 4연에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석류꽃 개화에 대한 감동이 강조되고 있다. (나)에서는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 없이 가능했을까’에서 설의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누에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깨달은 바가 부각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짧은 여름밤’에서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가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나)에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 ② (가)에서는 ‘석류꽃’의 붉은색과 ‘바다’의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내면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나)에서는 ‘흰 동굴’에서 흰색의 이미지와 ‘밤’에서 흑색의 이미지가 대비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 내면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가)에서 석류꽃의 꽃망울이 터지면서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것은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누에가 동굴을 열고 나비가 되어 날갯짓을 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하강의 이미지가 아니라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가)의 2~4연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 이후,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외부 세계에서 내면으로의 시선 이동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나)의 경우 누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화자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시선을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의 화자는 ‘방안’ 가득 물들어 오는 석류꽃을 보며 화자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앓는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방안’은 화자가 석류꽃과 합일되는 충만감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나)에서 누에는 ‘동굴’로 들어가 변모의 시간을 거친 후 나비가 되어 나온다. 따라서 ‘동굴’은 누에가 고통 속에서 존재의 변모를 이루어 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화자는 ‘방안’에서 실눈을 뜨고 꽃이 피는 것을 관찰하고 있지만, (나)에서 화자는 밖에서 구멍을 뚫어 주는 누에의 왕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동굴’이 누에가 이런 존재를 기다리는 공간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가)의 화자는 벽에 기대어 석류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뿐,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나)에서 누에는 ‘은수자’가 되어 회저와 같은 고통을 감내하고 존재의 변모를 이루어 내게 된다. 따라서 ‘동굴’이 누에가 시련을 감내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공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가)의 화자는 초 한 자루도 태우지 못할 정도로 여름밤이 짧아 아침이 빨리 와서 석류꽃이 터졌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짧은 여름밤에 대해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에서 누에가 누에의 왕이 되려는 욕망을 보인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동굴’이 누에가 누에의 왕이 되려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가)에서 화자가 촛불 한 자루를 켜고 날이 밝아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나)에서 누에는 ‘동굴’로 들어가 존재의 변모를 이루어 내므로 ‘동굴’은 누에가 하늘 백성이 되려는 꿈을 꾸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가)의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앓는다’는 생명 탄생의 신비 속에 화자가 흠뻑 빠져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를 생명의 소멸과 탄생이라는 대자연의 법칙 속에서 화자를 포함한 인간이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나)의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은 누에들이 새로운 존재인 나비로 태어나기 위해 고통을 참으며 거쳐야만 하는 시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나)에서는 ‘회저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난 후에 ‘날갯짓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회저’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병이므로, ‘회저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은 소멸로 볼 수 있으며, ‘날갯짓이 시작’되는 것은 생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회저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날개가 생성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의 ‘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에서 ‘새로운 우주’는 석류꽃이라는 생명의 탄생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누에가 고치를 뚫고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생명의 탄생이 타자의 힘이 아닌 주체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가)에서 화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석류꽃이라는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화자가 느낀 신비와 감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이 신비로운 번모가 꿈의 힘 없이 가능했을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누에가 나비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 나비가 되고자 하는 꿈의 힘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9

현대시

본문 107~109쪽

01 ③

02 ③

03 ③

(가) 이형기, 「낙화」

해제 이 작품은 꽃이 지는 자연의 변화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인간사를 중첩하여 이별의 아픔을 이겨 내고 이루어지는 성숙에 관해 노래한 시이다. 꽃이 지고 나면 녹음이 무성해지고 열매도 맺히게 되는,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처럼 사랑이 끝났을 때 미련 없이 떠나는 이별 또한 영혼의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주제 이별을 인내하는 데에서 오는 성숙

구성

- 1연: 때를 아는 이별의 아름다움
- 2연: 자신에게 닥친 이별의 순간
- 3연: 결별이 주는 축복
- 4, 5연: 성숙을 위한 희생
- 6연: 아름다운 이별의 순간
- 7연: 영혼의 성숙

(나) 박성룡, 「과목」

해제 이 작품은 소멸과 조락의 계절인 가을에 과목을 보며 얻은 깨달음을 노래한 시이다. 화자는 과일나무에 과일이 열려 있는 평범한 모습을 일종의 '사태'로 표현하고, 그것을 본 자신이 '경악'한다고 함으로써 자연의 변화에 대한 경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섭리에 대해 자신이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얻게 된 상황을 '시력을 회복한다'는 표현으로 부각하고 있다.

주제 자연의 변화에 깃든 섭리에 대한 경이로움과 깨달음

구성

- 1연: 과물을 매단 과목으로부터 느끼는 경이로움
- 2연: 과목이 겪은 시련
- 3연: 가을에 과목이 누리는 은총
- 4연: 과물을 매단 과목으로부터 느끼는 경이로움
- 5연: 삶에 대해 얻는 새로운 깨달음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는 1연과 4연에서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라는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가 느끼는 경이로움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가)에서는 동일한 문장이 반복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의 2연에 있는 '붉은'이라는 색채어는 박질의 황토가

지닌 속성을 가리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가 자신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에는 '작고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서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하롱하롱'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나)에는 음성 상징어, 즉 의성어나 의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의 1연에서는 '~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㉔은 '슬픈'이라는 시어로 인해 이상적 분위기를 환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영혼'의 '성숙'이 이별처럼 깊은 고통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환기하는 것이다. '내 영혼'은 결국 성숙하게 될 것이므로, 비극적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 뒷모습'은 아름답다고 하였고, '지금'이야말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과도 같은 '분분한 낙화'에 싸여 '가야 할 때'라고 하였다. 이는 이별을 거부하지 않고 순리로 받아들여려는 태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샘터에 물 고이듯'은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성숙하는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구이다. 샘터의 물은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억지로 채워 넣지 않아도 조금씩 조금씩 끊임없이 솟아나서 저절로 채워진다. 따라서 영혼이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한다는 것은 그 성숙의 과정이 점진적이고 필연적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시를 잃'는다는 것, '가을'이 되어 '한 해'가 저문다는 것은 상실과 조락의 분위기를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을이 되어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것을 화자는 자신이 '경악'할 만한 '과목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그것 덕분에 자신이 잃었던 '시력을 회복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㉔은 과목에 대한 인식을 계기로, 화자 자신이 삶에 대해 가진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 과목의 과물들이 무르익은 모습은 내적인 성장과

결실에 대응되므로, ‘사태’와 ‘경악’을 사용한 해당 시구가 유추를 거쳐 인간 삶의 부정적 사건을 가리키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사태’로, 그에 대한 화자의 감회를 ‘경악’으로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된 느낌의 한자어를 사용하여 평범한 관찰 내용을 생경하게 드러냄으로써 자연의 섭리에 대한 새삼스러운 경탄을 부각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서도 설명했듯이 (가)는 낙화라는 자연의 변화와 이별이라는 인간사를 중첩함으로써 주제를 부각하고 있는 작품이다. 봄에 피었던 꽃이 결국엔 지는 자연의 변화처럼 ‘걱정을 인내’했던 ‘나의 사랑’도 끝나 버리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도 가지가 흔들리며 꽃잎이 떨어져 흩날리는 모습으로도, 또 이별하는 순간에 손을 흔드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 ② <보기>의 내용을 적용하면, ‘결별’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봄에 꽃이 진 뒤에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 열매를 맺는 가을이 온다는 자연의 순환적 리듬에 근거하여, 이별도 영혼의 성숙을 가져다주는 좋은 계기일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박고 가지가 비바람에 출렁인다는 것은 과목이 쭈는 시련, 과목에게 주어지는 부정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목은 결국 그 조건을 극복해 내는데, 이를 통해 화자는 허무와 절망을 이겨 내는 인간의 태도를 그리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과목은 ‘모든 것이 멀렬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 즉 무르익은 과물을 지니게 된다. 화자는 이러한 자연의 모습으로부터 인간 역시 어려움을 이겨 내고 내적인 성장과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하고 있는 것이다.

10 현대시 본문 110~113쪽

01 ⑤ 02 ① 03 ②

(가) 김광섭, 「산」

[해제] 이 작품은 ‘산’에 인격을 부여하여 산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에서 산은 배려심이 깊고, 포용력이 있으며, 너그럽고 신성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산을 경외의 대상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대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산을 통해 배우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

구성

- 1연: 늘 인간 세상과 함께하는 산의 모습
- 2연: 모든 생명을 배려하는 산의 모습
- 3연: 인간과 함께하려는 산의 모습
- 4연: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는 산의 모습
- 5연: 인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산의 모습
- 6, 7연: 인간적 감정과 속성을 지닌 산의 모습
- 8연: 포용력을 지니고 있는 산의 모습

(나) 이준관, 「가을 딱갈나무 숲」

[해제]

이 작품은 가을을 맞이한 딱갈나무 숲에서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며 위안을 받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화자가 관찰한 딱갈나무 숲은 숲의 생명체에게 안식처이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화자는 자신이 포용력 넘치는 숲의 모습에 동화되는 것을 느끼며, 숲이 외롭고 쓸쓸한 마음마저 감싸안아 주는 것 같아 위안을 받는다. 이처럼 딱갈나무 숲은 화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공간이다. 특히 이 작품은 ‘눈부신 날개짓 소리’, ‘뿌려 둔 노래’, ‘파릇한 산울림’ 등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제 위로와 평안을 주는 가을 딱갈나무 숲

구성

- 1연: 많은 생명체의 안식처가 되는 딱갈나무 숲
- 2, 3연: 가을 딱갈나무 숲의 풍경
- 4연: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는 ‘나’
- 5연: 배려심과 포용력이 넘치는 딱갈나무 숲
- 6연: 딱갈나무로부터 위로받는 ‘나’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는 화자가 혼자 말하는 방식으로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화자는 이를 통해 인간과 함께하는 산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B]는 화자와 딱갈나무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화자를 위로하는 딱갈나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화자는 이를 통해 딱갈나무의 포용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도 없고 애상적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B]는 ‘잎을 떨군다’라는 시구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공간의 따뜻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 ② [A]는 ‘학처럼’, ‘기러기처럼’ 등의 직유법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B]는 직유법이 쓰이지 않았다.
- ③ [A]와 [B]는 모두 현재형 시제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B]

는 화자가 부정적 처지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A]는 화자가 부정적 처지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④ [B]는 촉각적 심상의 시어로 고독한 처지의 화자가 위안받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A]는 시각적 심상의 시어는 쓰였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고독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에서는 산이 인간 세상을 경험하고 다시 봉우리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인간 세상의 부정적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 세속에서의 삶에 못지않게 자연의 삶도 힘들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의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은 산이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는 것으로, ‘나무를 기르는 법’은 생명을 기르는 인내심을,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은 욕심과 오만을 버려야 한다는 겸손함을 깨닫게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③ ㉢에서 산에 두 계절이 공존한다는 것은 산이 서로 다른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지녔음을 예찬하는 것이다.

④ ㉣에서 겨울을 대비하여 노루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것은 딱갈나무 숲에 겨울이 오면 노루가 살기 힘들게 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⑤ ㉤에서 하나 남은 열매를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두었다고 짐작하고 있는데, 이는 딱갈나무 숲에 사는 생명체들이 따뜻한 마음을 지녔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 산이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 높은 꼭대기에 신을 띄’시고 산다는 것은 산이 인간의 죽음마저 받아 주는 너그럽고 신성한 존재임을 드러낸 것이지, 인간이 세속의 지친 삶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이자 바람직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산이 ‘들썩거리지 않고’고 ‘부동의 자세로 떠’ 가는 것은 새, 벌레, 짐승들이 놀랄까 봐 이들을 배려하는 산의 덕성을 나타낸 것이고, (나)에서 ‘딱갈나무 잎’이 ‘뺨기 집이거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는 것은 숲이 다른 생명체의 거처가 되는 것으로 이들을 배려하는 덕성을 지녔음을 나타낸 것이다.

③ (가)에서 산이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는 것은 산이 인간처럼

감정과 욕망을 지니고 있음을 형상화한 것으로, 산이 신성한 경외의 대상일 뿐 아니라 인간에게 친근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④ (나)에서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뎡이들’이 있었던 시간은 모든 자연물의 생명력이 넘쳤던 여름을 이제 ‘텃새만 남아’ 노래를 ‘갈무리한다’는 것은 딱갈나무 숲이 가을을 맞이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⑤ (나)에서 하늘이 ‘나를 들이마’신다는 것은 대상인 ‘하늘’과 주체인 ‘나’가 전도된 표현으로, 화자가 자연과 교감한다는 의미이다. 또 ‘이 딱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벌이 될 것 같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11

현대시

본문 114~116쪽

01 ①

02 ④

03 ③

04 ③

(가) 신경림, 「장자를 빌려 - 원통에서」

[해제] 이 시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과 속초, 원통에서 바라본 모습을 대조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장자」의 「추수」 편에 나오는 ‘큰 지혜는 멀리서도 볼 줄 알고 가까이서도 볼 줄 아는 것이다.’라는 구절을 바탕으로, 삶은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 관점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깨달음

구성

- 1~8행: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
- 9~17행: 속초와 원통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
- 18~20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성찰

(나) 고재중,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해제] 이 시는 겨울 감나무를 관찰하고 깨달은 생명의 이치를 노래하는 작품이다. 1연에서는 겨울 감나무 가지를 보고 서로 다치지 않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자기 분수만큼 살아가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2연에서는 한 등치에서 뻗어 나간 여러 형태의 가지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3연에서는 땅속 깊이 닿아서 물을 빨아올려 꼭대기 끝까지 물을 공급하는 등치 밑뿌리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겨울나무가 보여 주는 생명력을 발견한 화자는 4연에서 감동을 느낌과 동시에 생명의 원리에 주목하지 않는 인간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겨울 감나무를 통한 인간 삶의 성찰

구성

- 1연: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감나무의 가지

- 2연: 하나의 동치에서 뻗어 나온 감나무의 가지
- 3연: 어떤 뗏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의 근원이 되는 힘
- 4연: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는 연결 어미 ‘-이며’, ‘-니’, ‘-고’의 반복과 종결 어미 ‘-크까’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는 1연에서 연결 어미 ‘-이나’, ‘-거나’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에서는 작고 큰 산들이 구부리고 엷드린다고 한 부분과 바다가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한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의인화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작고 큰 산이나 바다를 청자로 설정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바람 속에 흔들리는 감나무 가지들을 보며 휘방 놓는 법이 없이 허공을 끌어안고 있다고 한 부분에서 의인화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감나무 가지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나)는 ‘바르르’, ‘휙휙’ 등에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에는 음성 상징어 ‘바짝’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④ (나)에는 ‘젓은 바람 속의 겨울 감나무’에서 겨울의 계절감이 드러나 있지만, (가)에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표현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⑤ (가)는 ‘설악산 대청봉 → 속초 → 원통’이라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들이 제시되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나)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들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화자의 공간 이동을 확인할 수 없다.

02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에서 화자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경험과 속초 시장과 원통 뒷골목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경험을 통해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바라보거나 너무 가까이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고 이를 ‘우리’라는 말로 제시하여 인간 보편의 삶에 대한 성찰로 확장하고 있다. [B]에서 화자는 겨울 감나무의 흔들리는 가지를 보며 나뭇가지들이 서로를 휘방하지 않고 흔들리고 있으며, 나뭇가지에 얹은 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나무의 동치를 타고 나온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를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

니’라고 말하여 인간 보편의 삶에 대한 성찰로 확장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대청봉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과 속초, 원통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을 대비하여 형상화된 것이지, 자연물을 통해 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B]에서 화자가 느낀 감동은 자연물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깨달음에 기인한다. 하지만 [B]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자연물을 통해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A]와 [B] 모두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촉발된 내면의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A]와 [B]의 화자는 모두 세상이나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얻은 깨달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고 있을 뿐,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A]에서 화자는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거나 가까이에서만 보려 했던 과거의 삶을 반성하는 태도를 표출하고 있을 뿐, 타인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B]에서 화자는 감동을 모르고 살아온 인간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을 뿐, 타인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화자는 원통의 뒷골목에서 지린내, 땀내, 악다구니, 실랑이 등을 겪게 되는데, 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에서 화자가 편견에 휩싸여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설악산 대청봉’이 높은 곳에 있어 화자로 하여금 세상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속초로 내려와 중앙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들과 소주를 마시고 피난민의 신세타령도 듣게 된다. 따라서 ‘중앙시장 바다’은 평범한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삶의 터전으로 그들의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세속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나)의 화자는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가지를 보며 ‘서로를 휘방 놓는 법이 없이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찰랑한 허공’은

감나무의 가지들이 욕심내지 않고 다른 가지들과 서로 공존하며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나)의 화자는 실가지에 내려앉은 새의 무게를 견디는 힘이 칠혹 땅속에 있는 실뿌리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실뿌리가 가진 힘은 칠혹 땅속에서 나오므로, '칠혹 땅속'은 감나무의 실가지가 자신에게 생명을 기대고 있는 존재인 '조막만한 새'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얻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본 바다, 즉 세상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삶의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자 하는 성급함을 가진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흔들림이 없는 '주춧기둥 같은 동치'는 외부의 상황 변화에 동요됨이 없이 생명을 지탱하는 여유를 가진 존재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는 세상살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기 전 화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다'는 가까이에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본 후 얻은 깨달음을 나타낸 것이므로, 세상살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 후의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감나무의 실가지는 새가 내려앉았지만 꺾이지 않고 무게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감나무의 실가지가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가)의 화자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속초로 내려온 후 중앙시장 바닥에서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소주를 마시며 그들의 삶의 애환을 알게 된다. 따라서 속초로 내려오는 것은 타인의 삶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겨울의 잦은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를 보면서 생명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따라서 '잦은 바람'은 화자가 겨울 감나무의 모습에 주목하여 관찰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젊은 군인 부부 사랑싸움질'은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소리'를 통해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 '제 감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리는 감나무 가지들의 모습은 자기 능력껏 흔들거리는 모습으로, 저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흔들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냈으므로 시각화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01 고전 산문

본문 117~121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④

(가) 작자 미상, 「천자를 이긴 아이」

【해제】 이 작품은 이른바 '아이 지혜담'으로 분류되는 이야기이다. 아이 지혜담은 어른이 제기한 운당치 않은 주장이나 요구를 슬기로운 아이가 재치 있게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발견되는 이야기 유형이다. 아이 지혜담에서 아이와 어른의 대결은 주로 언어를 통한 지적 대결로 승부가 갈리는데, 아이는 특유의 논리적 대화법으로 승리를 거둔다. 아이 지혜담은 아이가 어른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사회 통념과 낡은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고, 민중이 지닌 생동하는 힘을 드러내 보여 준다는 점에서 문학사화학적 의미를 지닌다. 이 작품은 구연자와 청중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간주되어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물이나 구체적 시간, 장소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담의 성격을 띤다. 제시된 부분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1980년 9월 27일, 이순희가 구술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주제】 중국 천자의 무리한 요구로 초래된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한 아이의 지혜

【전체 줄거리】 중국의 천자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아울러 조선에 인재가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중국 땅 전체를 덮을 바람막이 포장과 두만강의 물을 담을 가마를 바치라'는 명을 내린다. 중국 천자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임금이 근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승의 아들인 열두 살배기 아이가 임금을 알현하여 자신을 중국에 사신으로 보내 줄 것을 청한다. 아이는 자와 주발 하나씩을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 천자를 만나는데, 논리적 대화법을 통해 천자 스스로 자기가 내렸던 명령이 모순됨을 깨닫게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아이의 지혜로움에 감탄한 천자는 아이에게 벼슬을 내린다.

(나) 작자 미상, 「중놈이 상전을 속이다」

【해제】 이 작품은 이른바 '트릭스터(trickster)'라는 인물형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작중 '득거리'라는 인물이 트릭스터에 해당한다. 트릭스터는 남다른 지적 상상력과 재치, 그에서 비롯한 대단한 말솜씨를 발휘해 거침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골탕 먹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인물 유형이다. 대립하는 대상이 지배층일 경우 트릭스터의 언행은 기득권과 지배 질서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띠지만, 그가 속이는 대상이 꼭 지배층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무고한 서민이 속임의 대상이 될 때도 있다. 그래서 트릭스터는 사회 체제가 지지하는 일체의 도덕적·윤리적 가치관에 구속되지 않는, 반사회적 인물 유형으로 간주된다. 이야기 속에서 득거리는 하인에 대한 인간적 배려가 없는 이기적인 주인을 재치와 말솜씨로 거둬 속여서 자신

의 욕구를 충족한다. 득거리의 유쾌한 장난을 통해 똑똑한 척 하면서 바보가 되는 주인과 어리석은 듯 행동하면서 잊속을 챙기는 하인의 대결이라는 해학적인 이야기 구도가 형성된다. 이 작품은 문자로 기록된 문헌 설화로서, 작자 미상의 야담집인 『거면록』에 ‘노만상전(奴瞞上典: 중놈이 상전을 속이다)’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주제 거짓말로 상전을 속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하인의 재치

전체 줄거리 ‘득거리’라는 이름의 하인이 주인인 김 진사를 수행해 길을 가는데, 하루는 김 진사가 허기진 득거리를 생각지 않고 혼자서 푸짐한 저녁밥을 다 먹어 버렸다. 이에 화가 난 득거리가 다음 날 피를 내어 김 진사를 속이고는 김 진사의 아침 밥을 뺏어 먹는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길을 가는데 갈증이 난 김 진사가 득거리를 시켜 술을 사 오게 하자, 득거리가 다시 재치 있게 김 진사를 속여 그의 술을 뺏어 먹는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정승의 아들이 중국의 천자를 만나러 간 것은 나라가 처한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즉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자를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이다. 반면 (나)의 하인은 피를 내어 주인을 거둬 속이는데 그러한 행동을 한 까닭은 밥 먹고 술 마시고 싶은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가)의 정승의 아들은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하인은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정승의 아들에게는 ‘그러면 가마를 얼마나 크게 귀주랴. 그러면 포장을 얼마나 크게 해 주랴?’라고 물으며 도움을 주려 하고, 자신의 요청에 따라 자와 주발을 마련해 주는 임금이 있다. 반면 (나)의 하인은 조력자의 도움 없이 자신의 꾀만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따라서 (가)의 정승의 아들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나)의 하인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정승의 아들이 처한 곤경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조선에 무리한 요구를 한 천자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정승의 아들이 자신의 실수로 곤경에 처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하인이 처한 곤경이라면 김 진사에게 추궁당한 일 정도를 들 수 있을 텐데, 이는 하인 자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하인이 타인의 실수로 곤경에 처했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정승의 아들은 자원하여 천자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다. 반면 (나)의 하인은 ‘하루는 김 진사가 어디 낚히 붙일

답 ③

이 있어 득거리에게 말고삐를 잡고 길을 떠나’에서 알 수 있듯이 김 진사가 시켜서 길을 떠나게 된 것이다.

⑤ (나)의 하인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김 진사 앞에서 거짓말로 어리석은 척했다. 그러나 (가)의 정승의 아들은 그리하지 않았다.

02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에 해당하는 발화가 제시되었다면 그 내용은 ‘중국 땅의 크기와 두만강 물의 양을 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중국 땅을 모두 덮을 포장과 두만강 물을 모두 담을 가마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당신은 불가능한 일을 남에게 요구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일 것이다. 하지만 ㉔에 해당하는 발화는 제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천자가 이미 ㉖에서 자신의 요구가 모순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천자는 자신의 요구가 지닌 모순을 인정했으므로 ㉔는 제시될 필요가 없었고, ㉔가 제시되지 않으니 ㉔로 반박할 이유도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㉔에 해당하는 발화를 유보하며 자신의 모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중국 땅 전체를 덮을 ‘포장’과 두만강 물 모두를 담을 ‘가마’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라는 것이 중국 천자의 요구인데, 중국 천자가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까닭은 그가 조선의 임금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요구는 ㉔(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한 비합리적인 주장이나 요구)에 해당한다.

② ㉖에서 정승의 아들은 천자의 요구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고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이로써 담화 주제를 ‘조선에서 포장과 가마를 만들어 왔는가?’에서 ‘포장과 가마를 만들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중국에서 중국 땅의 크기와 두만강 물의 양을 측량할 수 있는가?’로 전환하여 문제 해결의 책임을 조선에서 중국으로 돌려놓음으로써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있다.

③ 만약 ㉔에 해당하는 발화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은 ‘중국 땅의 크기와 두만강 물의 양을 어떻게 잴 수 있겠는가?(=중국 땅의 크기와 두만강 물의 양은 잴 수 없다.)’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㉔에 해당하는 천자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㉔에 해당하는 천자의 요구(중국 땅 전체를 덮고, 두만강 물 모두를 담을 포장과 가마를 만드는 것)는 ‘중국 땅 전체의 크기와 두만강 물 전체의 양을 측량하는 일’이 가능할 때 성립하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다만 ㉖에서 천자가 이미 자신의 요구가 지닌 모순을 깨달았으므로 ㉔에 해당하는 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⑤ 천자가 ‘아, 조선도 인재가 있구나!’라고 말한 것은 정승의 아들의 말이 옳고, 자신의 말(요구)이 틀렸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말은 ㉔(자신의 주장이나 요구가 비합리적인 것이었음을 인정)에 해당한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정승의 아들이 지닌 능력은 세속적 권력관계의 우위에 있는 인물(천자)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과 조건이지, 대결에서 승리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정승의 아들이 대결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것이고, 이로써 얻은 벼슬은 세속적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보기>에 따르면, 지혜로운 아이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민담과 신화를 비교할 때 신화에서 아이와 대결하는 신적 존재는 민담에서 세속적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인물과 대응할 때가 많다. 이 점을 참고할 때 (가)에서 정승의 아들과 대결하는 천자는 신화에서 어린 영웅과 대결하는 신적 존재와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천자가 무리한 요구를 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조선에 인재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욕구 때문이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따라서 정승의 아들에게 주어진 대결 상황은 천자의 사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다.
- ⑤ 정승의 아들은 민담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아이에 해당하며, 조정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남다른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영웅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의 어린 시절 모습과 유사성이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은 득거리가 김 진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나서 억지를 쓰느라 한 말이 아니다. 김 진사가 ㉔이 거짓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이 글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에는 김 진사의 행동에 화가 난 득거리의 내면 심리가 나타나 있다. 득거리가 화를 낸 까닭은, 자기만 진수성찬을 먹고 득거리에게는 ‘단 한 숟가락도 베풀어 주지 않’은 김 진사의 이기적이고 몰인정한 태도 때문이다. 따라서 득거리가 김 진사를 속여 음식을 뺏어 먹겠다고 다짐을 하는 데에 김 진사의 부적절한 행동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㉒은 득거리가 여점 아낙에게 한 거짓말이다. 김 진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여점 아낙에게 김 진사를 배려한 행동처럼 비치게 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낙은 득거리의 거짓말을 참말로 믿었는데, 이는 ‘날씨가 몹시 추워 수저에도 얼음이 붙어 있’는 상황이 수저가 찬 것을 싫어하는 주인을 위해 수저를 따뜻하게 데우려 한다는 득거리의 말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③ 김 진사는 뜨거운 숟가락에 손을 데어 ‘드거라(뜨겁다)!’라고 외친 것인데 득거리는 짐짓 그 소리를 ‘득거리’라는 자기 이름을 부른 것으로 오해한 척하고 ㉔처럼 대답한 다음 김 진사의 밥상을 가로채 음식을 먹었다. 김 진사가 손을 데어 소리를 친 것, 득거리가 이에 맞춰 그 소리를 잘못 들은 척하면서 음식을 뺏어 먹는 데 성공한 것은 모두 득거리가 김 진사가 사용할 ‘수저를 숟불에 문었다가 상에 올’릴 때 이미 계획했던 일이다. 득거리가 김 진사의 ‘드거라!’ 하는 외침을 잘못 들은 척할 수 있었던 까닭은 ‘드거라’라는 소리와 ‘득거리’라는 자신의 이름의 말소리가 서로 비슷했기 때문이다. 이는 <보기>에 언급된 트릭스터의 말하기 특징 가운데 두 번째 특징과 연관된다.

⑤ ㉕은 김 진사가 술 마시기를 포기하게 한 다음 그 술을 자기가 먹으려는 의도에서 득거리가 지어낸 거짓말이다. 술에 콧물을 떨어뜨렸다는 득거리의 거짓말에 구역질이 난 김 진사가 ‘네놈이나 실컷 처먹어라.’라고 말함으로써 그 술은 비로소 득거리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득거리가 ㉕의 거짓말을 통해 김 진사에게 기대했던 반응을 이끌어 내고, 결국 술을 뺏어 먹겠다는 목표를 성취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2 고전 산문

본문 122~126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⑤

(가) 천군 소설

[해제] 이 글은 천군 소설의 개념과 서사 구조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군 소설이란 ‘마음’이나 ‘감정’의 변화를 의인화한 소설로, 천군(天君)은 인간의 마음을, 신하는 사단(四端)과 관련된 마음씨나 칠정(七情)의 감정을 의미한다. 천군 소설은 사단과 칠정의 감정과 관련된 인물의 대립 구도를 중심으로 마음의 ‘화평 - 혼란 - 회복’의 서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천군 소설인 「수성지」에서도 이러한 서사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수성지」는 전례와 고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동일한 음이 있는 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구절이 많다. 따라서 각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고(典故)에 대한 배경지식뿐만 아니라 동일한 음이

있는 한자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주제 천군 소설의 개념과 서사 구조의 특징

구성

- 1문단: 천군 소설의 개념과 서사 구조의 특징
- 2문단: 「수성지」의 줄거리 및 작품에 대한 평가
- 3문단: 「수성지」 작품 감상 시 유의점

(나) 입제, 「수성지」

해제 이 작품은 입제가 지은 한문 단편 소설로, 작품의 제목인 ‘수성지’는 ‘근심의 성에 관한 기록’이란 뜻이다. 임금인 천군에게 근심이 생긴 과정과 그 귀결을 허구적으로 구성하여 서술한 작품으로, 전통적인 의인체 서사인 가전(假傳)의 양식을 계승했지만, ‘마음’을 의인화한 것이 특징이기에 ‘천군 소설’로 분류된다. 천군은 인간의 마음을, 신하는 인·의·예·지와 같은 사단과 관련된 마음씨나 기쁨·노여움·슬픔·즐거움·사랑·미움·욕심과 같은 칠정의 감정을 의미하며, 칠정과 같이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인물들과 사단과 관련된 마음씨와 같이 혼란한 마음을 회복시켜 화평하게 하는 인물들의 대립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주제 인간의 심적 조화의 필요성

전체 줄거리 천군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의 신하인 인(仁)·의(義)·예(禮)·지(智)·희(喜)·노(怒)·애(哀)·낙(樂)·시(視)·청(聽)·언(言)·동(動) 등이 제각기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여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충신, 의사로서 무고하게 죽은 이들이 찾아와 천군에게 허락을 받아 수성을 쌓고 항상 불안과 수심에 싸여 살게 되자, 그 세력이 천군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중대한 위기에 처한 천군에게 주인공은 수성을 뿌리째 없애 버릴 수 있는 방책을 제안하면서 국양(술)을 추천한다. 국양 장군이 천군의 명을 받고 군사를 거느려 수성을 쳐서 마침내 항복을 받으니 온 성안은 화기가 돌고 수심이 일시에 없어졌다. 이렇게 천군의 나라는 다시 평온을 되찾게 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공방은 국양이 자신을 백안으로 대하며 무시하자 ‘아침저녁으로 장군이 오기를 바라며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내리고자 하시오, 내가 장군과 대대로 교분이 있기에 특별히 보내 맞아 오게 하겠거늘, 어찌 이처럼 무례하오?’라고 말하며 국양의 무례함을 질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내가 비록 부덕하지만 간언에 대해서만은 물 흐르듯이 따르고자 한다. 국 장군을 영접하는 일을 모두 주인옹에게 일임하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천군은 자신이 부덕해도 간언에 대해서는 물 흐르듯이 따르고자 한다고 말하며 국양을

답 ③

영접하는 일을 주인옹에게 일임하고 있을 뿐, 자신의 부덕함을 감추기 위해 주인옹에게 국양을 영접하는 일을 맡기고 있지는 않다.

② ‘공방이 국 장군과 친분이 있으니 불러올 만합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인옹은 공방이 국양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공방을 천군에게 추천하고 있을 뿐, 자신과 국양의 친분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④ ‘옛날 이정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산이 험준해서 제갈공명의 팔진법을 쓸 수 없었으므로 육화진법을 대신 썼던 것인데’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국양이 육화진법을 쓴 것은 이정의 진법을 따라 한 것일 뿐,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성한 가득한 사람들이 모두 항복할 마음이 생겼지만, 오직 굴원만이 굴복하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달아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국양이 성을 공격하자 굴원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홀로 달아났을 뿐, 훗날을 위해 무리와 함께 달아난 것은 아니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에서 국양은 ‘현인을 등용하면 대적할 자가 없고, 근심을 공격하는 데에는 방책이 있습니다.’와 ‘가슴속에 일만 병사를 간직한 범종염의 위엄을 따르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며 ‘근심의 성’을 정벌하는 임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국양의 자신감은 ㉡에서 ‘초나라에서 홀로 취하지 않은 굴원쯤이야 개의할 게 무엇 있겠느냐? 격문을 받는 날로 어서 백기를 들라!’라고 하며 굴원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는 ‘제 행동이 예법에 맞지 않아 오랫동안 강호에 떠다니는 신세였거늘, 전하께서 저를 버리지 않고 정벌의 임무를 맡기실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 같은 광생이 어찌 큰 벼슬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을 통해 국양의 겸손함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겸손함이 ㉡에서 굴원의 행적을 비판하는 근거로 전환되고 있지는 않다.

③ ㉠에서는 ‘마침내 벼슬을 내리시는 은택을 입게 되었으니’라는 말을 통해 국양이 천군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고마움이 ㉡에서 천군의 명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지는 않다.

④ ㉠에서는 ‘왕탄지와 사안을 따라 노닐며 강동의 풍류를 뽐냈고, 혜강과 유령의 풍치를 함께 즐겨 한적한 정을 죽림에 깃들였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과거를 회고하는 국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㉞에서 국양이 자신의 삶에 대해 한탄하고 슬퍼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에서는 ‘저는 곡식을 먹지 않고 정기를 단련하며 병 속의 해와 달을 길이 보전하고, 어지러움을 평정할 성인을 기다리다’라는 말을 통해 정기 수행을 위한 국양의 방책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국양의 방책이 ㉞에서 병사를 통솔하고 장수를 등용하는 방책으로 확장되고 있지는 않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굴원은 천군의 마음에 근심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칠정을 의인화한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양은 ‘술’을 의인화한 인물로, (가)에서 언급한 ‘사단 이외에도 마음을 화평하게 하는 작가의 방안’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국양은 마음의 혼란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단을 의인화한 인물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국양과 굴원이 대치하는 상황이 사단의 마음과 칠정의 감정을 의인화한 인물이 대립하는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칠정을 의인화한 인물은 천군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며 천군은 굴원이 쌓은 ‘근심의 성’을 나라의 우환으로 지목했다고 하였으므로, 천군을 힘들게 하는 ‘근심의 성’에서 저항하는 굴원은 칠정의 감정과 관련된 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칠정을 의인화한 인물은 천군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사단과 관련된 마음씨를 의인화한 인물은 천군을 도와 천군이 겪는 마음의 혼란을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였으므로, ‘근심의 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천군을 위해 글을 올린 후 국양을 영접하는 일을 주도하여 천군이 겪는 마음의 혼란을 회복하게 하는 주인공은 사단과 관련된 마음씨를 의인화한 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수성지」의 천군은 굴원이 쌓은 ‘근심의 성’을 나라의 우환으로 지목한 후 국양을 보내 ‘근심의 성’을 평정하며, 이 과정에서 마음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작가의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양은 술을 의인화한 인물이며, 이러한 국양에 의해 천군의 마음이 회복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술을 마시는 것은 마음을 화평하게 하기 위한 작가의 방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천군 소설은 ‘마음의 ‘화평 - 혼란 - 회복’의 서사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국양이 ‘근심의 성’을 함락하자 슬퍼하던 자가 기뻐하고, 괴로워하던 자가 즐거워하는 것은 마음의 혼란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회복된 것이라 볼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에서 장자의 꿈에 나타난 ‘해골’은 죽은 자의 세계에는 신분의 고하나 수고로운 일이 없어 즐겁기만 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죽은 자의 세계가 산 자의 세계보다 낫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근심의 성’의 안이나 밖 모두 산 자의 세상이므로, ‘근심의 성’ 밖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골의 즐거움’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백안’이 ‘삶은 사람은 눈의 흰자위를 드러내고 맞이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은 국양이 공방의 방문을 꺼려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양의 말을 들은 공방이 국양을 꾸짖는 이유를 알 수 있다.

② ‘고주’를 ‘외로운 군주’, ‘병’을 ‘군인이나 군대’의 의미로 해석하면 ㉡은 천군이 병사를 이끌고 자신을 도우러 온 국양을 환대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고주’를 ‘시장에서 파는 술’, ‘병’을 ‘액체를 담는 데 쓰는 그릇’의 의미로 해석하면 ㉢은 병에 술을 담아 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③ ‘병’을 ‘군인이나 군대’의 의미로 해석하면 ㉣은 천군이 국양에게 ‘근심의 성’에 있는 세력들의 토벌을 맡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병’을 ‘액체를 담는 데 쓰는 그릇’의 의미로 해석하면 ㉤은 마음속의 근심은 술을 통해 없앨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유리종’과 ‘앵무잔’, ‘습가지’와 ‘고양의 술꾼’ 모두 술과 관련된 말들이므로, ㉥은 국양이 술을 마시며 세월을 보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양이 천군에게 등용되기 전까지 강호를 떠다니는 신세로 지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3 고전 산문

본문 127~130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①

■ 권필, 「위경천전」

[해제] 이 작품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청춘 남녀의 애절한 사랑과 비극을 그리고 있는 한문 소설이다. 비극적 애정 소설의 기본 구도를 충실히 따른 작품으로, 사랑만이 유일한 삶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별의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주인공들의 슬픈 운명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청춘 남녀의 비극적이고 애절한 사랑

전체 줄거리 위경천은 친구와 함께 동정호로 유람을 갔다가 재상의 딸 소숙방을 만나 은밀하게 인연을 맺는다. 그 후 위경천과 소숙방은 이별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움으로 인해 병이 드는데, 두 사람의 사연을 알게 된 양가 부모는 두 사람을 혼인시킨다.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위경천의 부친은 황제의 명에 따라 참전하고 위경천도 서기직을 맡아 부친과 함께 떠나게 된다. 위경천은 전쟁터에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만 죽게 되고, 위경천의 죽음을 안 소숙방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01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편지 한 통’은 소숙방 부친이 위생의 부친에게 보낸 것으로, 편지를 통해 소숙방 부친은 자신의 관직 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겸손하게 전달하며 자녀의 혼례를 추진할 것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소숙방 부친의 삶의 내력을 요약하여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편지에 위생과 소숙방의 만남에 대해 자신의 탓이라고 말하는 내용은 있지만, 위생과 소숙방의 이별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위생과 소숙방의 첫 만남 이후에 소숙방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위생과 소숙방의 첫 만남에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초나라와 진나라를 언급하며 고사의 내용을 활용하여 혼례를 올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을 뿐, 역사적 사실의 정당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소숙방의 집안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고, 위생과 소숙방의 인연에 관한 소숙방 부친의 생각이 담겨 있을 뿐, 양가 집안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위생의 부모는 위생에게 진실을 듣고 급히 소상국 집에 하인을 보내 혼인을 청하려고 하였으나, 하인이 대문을 나서기도 전에 소숙방의 부친이 보낸 편지가 먼저 도착했다. 따라서 위생의 부모가 소숙방의 부친이 보낸 편지를 받은 후 마음을 돌려 위생과 소숙방의 만남을 허락했다는 진실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위생이 부모님께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을 말하는 부분에서 부모님을 효성으로 봉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며 소상국의 집에 들어가 경박한 행동을 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

음을 알 수 있다.

- ② 심부름꾼의 말을 통해 소숙방은 위생과 이별한 후부터 매일 꽃밭에서 기다리다가 병들어 일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소숙방의 부친은 소숙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는데 소숙방이 잠든 사이에 소숙방의 비단 상자를 들춰 보다가 그리움을 노래한 시를 발견하고 사정을 캐물어 알게 된다. 소숙방으로부터 사정을 듣고 난 후, 심부름꾼에게 혼인을 청하고 오라는 명을 내린다.
- ⑤ 상국의 심부름꾼은 위생과 이별 후 그리움에 병든 소숙방의 상황, 소숙방의 부친이 소숙방이 쓴 시를 통해 그 병의 원인을 알게 된 상황 등을 위생의 부친에게 말하며, 청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심부름을 오게 되었음을 밝힌다.

03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는 피꼬리라는 자연물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B]는 자연물인 기러기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우는 모습을 제시하여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위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는 금슬의 줄이 끊어진 상황에 빗대어 소숙방이 위생과 이별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으나, 비밀이 알려질 것을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B]에는 괴로움과 그리움의 정서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별한 이후에 홀로 타지에서 소숙방을 그리는 마음인 것이지, 이별하던 당시에 느낀 비애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C]는 비극적 상황에 놓인 위생과는 달리 군인으로서 적군을 무찌르고자 하는 김생의 마음이 담긴 것이지, 위생과 대조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우울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C]는 격렬한 전투가 펼쳐지는 전쟁터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감으로 누란을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과 달리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감각적 표현으로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위생이 친구와 함께 배를 타고 남쪽으로 유람을 간 것은 인물의 의지적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㉔는 아름다운 경치를 따라 소상국 집에 우연히 들어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생과 소숙방의 첫 만남은 우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㉓는 양가 부모의 동의를 얻고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게 된 것으로, 유교적 윤리 규범의 수용을 통해 이루어진 만남이지 예기치

못한 운명을 수용하여 이루어진 결과로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⑥는 위생과 소속방이 첫 만남 이후에 마주한 개인적 차원의 이별이다. 이에 비해 ④에서 이별의 원인인 전쟁은, 개인의 의지로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비극이므로 남녀 주인공의 비극적 사랑을 현실적으로 보여 주는 효과가 있다.
- ③ ⑦는 혼례를 통해 위생과 소속방이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인데, 위생은 부친의 요청에 따라 함께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다시 소속방과 이별하는 ④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병을 얻는다.
- ④ 소속방의 부친이 위생의 부모에게 전한 편지에는 ⑥의 상황에 놓인 위생과 소속방을 다시 만나게 하여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해 주고자 하는 청혼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이 있었다.
- ⑤ 위생은 소속방과 이별한 상황에서 그리움에 몸져눕는다. 하지만 ④와 달리 ⑥의 상황에서는 부모가 혼례 날짜를 정하려 하고, 소속방의 부친도 청혼의 뜻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등 양가 부모의 도움으로 소속방과 혼인을 하게 된다.

04 고전 산문

본문 131~134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①

■ 윤계선, 「달천몽유록」

해제 이 작품은 임진왜란 직후 윤계선(1577~1604)이 지은 몽유록계 소설로서 ‘꿈’을 매개로 당대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는 우리나라 몽유록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몽유록의 전통은 임제의 「원생몽유록」에서 틀이 잡힌 이후에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해박한 역사 지식을 수준 높게 구사하고 있으며, 짜임새 있는 이야기 속에 임진왜란의 공과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보여 주고 있다. 아울러 작품 서두에 제시된 전쟁터에 대한 음산한 묘사, 전사한 유령들의 참혹한 모습을 형상화한 장면은 임진왜란의 비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작가는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조선 장수들을 하나씩 등장시켜 그들의 목소리로 전쟁의 공과에 대해 논하게 하는데 가장 높이 평가된 인물은 충무공 이순신이고, 가장 큰 과오를 범한 인물은 신립이다. 원균은 모두의 조롱거리가 되어 혼령들의 모임에 얼굴조차 내밀지 못한다. 그런데 작가는 신립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어 그의 목소리를 통해 전쟁 실패의 근본 원인이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자기 합리화는 17세기 조선의 지배층이 당면했던 문제, 곧 ‘실패한 전쟁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지배층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 지배층은 전쟁 실패의 책

임을 국가나 지배층 전체가 아니라 일부 개인이나 불가피한 운명에 돌리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진왜란 실패의 원인을 장수 개인의 전술 착오와 불가피한 운명에서 찾을 뿐 국가 제도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한 점은 이 작품의 한계로 지적된다.

주제 임진왜란의 참상 및 전쟁의 공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

전체 줄거리 선조 33년(1600) 봄에 파담자는 호서 지방을 암행하라는 어명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가 어느 날 충주 달천에 이른다. 달천은 임진왜란 때 탄금대 전투가 있었던 격전장이다. 그곳에서 파담자는 느끼는 바가 있어 전쟁 패배를 안타까워하고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시를 지은 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임진왜란 때 희생당한 병사와 장수들의 영혼을 만난다. 꿈속에서 파담자는 참혹한 형상을 한 병사들의 하소연과 전쟁 패배에 책임이 있는 신립 장군의 이야기를 듣는다. 아울러 왜적에 맞선 이순신 장군과 그 밖의 위대한 장수들을 만나 그들의 공을 기리고 원한을 위로하며, 전쟁의 공과에 대해 논한다. 꿈에서 깬 파담자는 정성껏 제문을 지어 올려 혼령을 위로한다.

01 서술자의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 글에 제시된 장면에서 파담자는 인물들(전쟁 희생자들의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으며, 직접 대화에 개입하여 대화 주제에 관한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논평하는 모습은 보여 주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파담자는 소극적 참여자로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에 제시된 장면에서 배경 묘사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죽은 병사들의 혼백들이 하는 말 가운데 전란 당시에 교전의 배경이 되었던 충주, 조령, 죽령 등의 장소에 관한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병법의 차원에서 해당 장소의 전술적 유효리를 분석한 것이지 장소를 묘사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암시한 것은 아니다.
- ② 파담자는 소극적 참여자로서 인물들의 말을 듣기만 할 뿐이다. 인물에 대한 논평을 가하지 않을뿐더러 문제의 원인을 밝히지도 않는다.
- ③ 이 글에 제시된 장면에 죽은 병사들의 혼백과 신 공의 혼백 사이에 의견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의견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파담자가 나서고 있지는 않다.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들어 발언하고 있지도 않다.
- ⑤ 파담자가 인물들의 말을 충실히 듣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인물들의 말이 파담자의 질문을 받아 나온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파담자가 적절한 질문을 통해 인물들의 대화를 유도하고, 그

로써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죽은 병사들의 혼백이 신 공과 관련해 ‘불세출의 재주’, ‘불세출의 공’을 언급한 이유는, 장수로서 신 공의 훌륭한 면을 짚어 내어 신 공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긍정적 판단으로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다. 문맥상 ‘그렇게 훌륭한 장수라고 불리었던 사람이 어째서 지휘를 잘못해 전쟁에서의 패배를 초래했는가?’라는 힐난을 하기 위해, 다시 말해 전쟁 실패에 대한 신 공의 책임을 부각하기 위해 ‘불세출의 재주’, ‘불세출의 공’을 언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파담자는 귀신들의 이야기를 엮고 있었는데 ㉠을 계기로 귀신들 앞에 나아가 인사를 하고, 대화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
- ② 죽은 병사들의 혼백은 ‘김 중사의 청’, ‘이 순변의 말’이 있었음에도 ‘신 공은 귀담아듣지 않고 감히 자기 억측만으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이 내용이 바로 ㉡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사실이며, 그러한 신 공의 고집과 억측이 전쟁 패배의 원인이라고 죽은 병사들의 혼백은 주장하고 있다.
- ④ ㉢은 장수로서 신 공의 역량을 입증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북방에서 쌓은 ㉣과 같은 공로 때문에 신 공은 임금에게 칭찬을 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훗날 신 공이 대장군의 권한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그의 간절한 마음에 임금이 감동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수로서 신 공이 지닌 능력에 대한 임금의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에서 말하는 옛사람의 가르침은 ‘내 의견만 고집하면 작아진다’는 교훈이다. 신 공은 전쟁 실패의 원인을 따지면서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고 적을 가벼이 여긴 자신의 책임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03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는 죽은 병사들의 혼백이 한 말이고, [B]는 신 공이 한 말이다. [A]와 [B]에서 발화의 소재가 되는 중심 사건은 전쟁에 실패한 일이다. [A]에서 죽은 병사들은 전쟁 실패의 책임이 장수인 신 공의 역량 부족과 전술 실패에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B]에서 신 공은 전쟁 실패에 자신의 책임도 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능력도 뛰어나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늘이 돕지 않아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전쟁 실패의 근원적 원인을 불운한 운명으로 돌리고 있다. 따라

서 [A]는 전쟁 실패의 책임자인 신 공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B]는 [A]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신 공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반성하고 해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와 [B]는 모두 파담자가 꿈속에서 듣는 말이다.
- ② [A]와 [B]는 모두 전쟁 실패의 원인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이다. [A], [B] 모두 전란이 발발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A]는 전란의 원인에 대해 하는 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전란이 야기한 전란 이후의 사회 변화뿐만 아니라 전란의 승패도 넓은 의미에서 전란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B]는 전란의 결과에 대해 하는 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B]에서 신 공은 전쟁이 패배로 귀결되었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④ [A]는 전쟁 실패의 책임자인 신 공에 대해 비판하는 말이지 의문점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질문하는 말은 아니다. [B] 역시 신 공의 자기 해명에 해당하는 말일 뿐, 누군가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한 말은 아니다.
- ⑤ [A]와 [B]의 발화자는 각각 전쟁에서 희생당한 병사들과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 공으로, 모두 전란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들이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우리의 목이 베인들 억울할 게 없’다는 ‘죽은 병사들’의 발언은 국가, 임금, 지휘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죽은 병사들’은 장수가 현명하지 못하여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목숨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병사는 장수 한 사람의 통제에 따르는 존재’라는 말도 여기서는 병사들이 지휘관인 장수에게 복종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장수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다. 결국 ‘병사는 장수 한 사람의 통제에 따르는 존재’라는 말과 ‘우리의 목이 베인들 억울할 게 없’다는 말은 전쟁 실패와 병사들의 죽음에 관한 책임을 장수에게 묻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러한 ‘죽은 병사들’의 발언이 국가주의적 전쟁 관념을 강조하는 17세기 소설의 특징을 보여 주는 사례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임진왜란처럼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전쟁이 실패로 귀결되었을 때 그 원인은 몇몇 개인에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체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글에서 ‘죽은 병사들’의 발언을 보면, 전쟁 실패의 책임을 오로

지 신 공과 같은 장수 개인에게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이러한 작품의 양상은 전쟁 실패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17세기 소설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핏덩이가 되고, 그 자식들이 고아가 되며 아내들이 과부가 되었던 것은 평범한 개인이 전쟁이라는 역사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겪게 된 불행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야기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에 관한 '죽은 병사들'과 '사내'의 발언은, 고통의 기억을 부각하여 전란의 경험을 문학적으로 수용하는 17세기 소설의 특징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이 글에서 '사내'는 임금을 '현명한 임금'이라 부르고, '임금께서 수레를 밀어 주시니 싸움터에서 죽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하면서 임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그리고 전쟁 실패의 책임을 자신의 잘못과 하늘에 돌리고 있다. 이는 전쟁 실패에 관한 군주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17세기 소설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이 글에서 '사내'는 '하늘이 그렇게 정한 일이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하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전쟁 실패의 근원적 원인이 인간의 잘못보다 하늘의 운명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전쟁 패배의 원인을 국가가 아니라 운명에서 찾는 17세기 소설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5 고전 산문

본문 135~138쪽

01 ③

02 ⑤

03 ②

04 ⑤

■ 작자 미상, 「조웅전」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쓰인 대표적인 영웅 소설로, 주인공의 영웅적인 활약을 그려 내고 있다. 중국 송(宋)나라를 배경으로 주인공 조웅이 간신 이두병 때문에 고난을 겪다가 이두병을 처치하고 황실을 바로잡는 과정을 담고 있는 창작 군담 소설이다. 전반부는 조웅의 고행담과 애정담, 후반부는 조웅의 영웅적 무용담으로 구성되며, 당대의 사회상과 민중의 심리를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주제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과 자유연애

전체 줄거리 중국 송나라 문제(文帝) 때 승상 조정인은 이두병의 참소를 받고 음독자살하고, 조 승상의 외아들 조웅은 어머니와 함께 이두병을 피해 도망 다닌다. 천자가 세상을 떠나자 이두병은 어린 태자를 계량도로 유배 보내고 스스로 천자가 된다. 이에 조웅 모자는 온갖 고생을 하며 유랑하다가 월경 대사를

를 만나 강선암에 들어가 살게 된다. 월경 대사로부터 술법과 글을 배운 조웅은 강선암을 떠나 강호의 화산 도사로부터 조웅검(삼척검)을 얻고, 철관 도사에게서 무술과 도술을 배운 뒤 용마를 얻는다. 조웅은 강선암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가던 중 장소저를 만나 혼인을 약속한다. 이때, 서번이 위국을 침공하므로 조웅은 위국으로 달려가서 위왕을 도와 서번군을 격파한다. 그런 다음 태자를 구출하고, 중국으로 와서 이두병 일파를 처단한다. 조웅은 위왕과 연합하여 수십만 대군으로 황성을 쳐서 이두병의 목을 베고, 태자를 천자의 자리에 등극시킨다. 황실은 다시 회복되고 조웅은 서번의 왕이 된다.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철관 도사가 웅에게 늙은 암말이 낡은 말의 행동을 말하며 '사람이 상할까 염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철관 도사는 동자를 시켜서 웅에게 석반을 재촉하여 주지만 그 먹는 양을 보고 비범한 인물임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철관 도사는 웅이 벽에 쓴 글을 보고 놀라며 동자를 보내 웅을 불러들여 자신의 모습을 보였다. 웅의 정성이 부족해서 몸을 숨겼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웅이 철관 도사에게 말의 값을 묻는 부분은 있으나 철관 도사가 '이는 그대의 말이라.'라고 하며 값을 받지 않고 웅에게 주었다. 따라서 웅이 예상보다 높은 말의 값에 좌절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말이 사람을 상하게 할까 걱정하는 사람은 웅이 아니라 철관 도사이다. 웅이 말의 목을 안고 굴레를 갖추어 마구간에 맨 것은 말이 자신을 보며 반기는 듯하여 기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웅이 말이 사람을 상하게 할 때를 대비하여 마구간에 감금하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웅은 ㉠을 배워서 의사 광활하고 눈앞의 일을 모를 것이 없게 되었고, ㉡을 배워서 일 년이 안 되어 신통 묘술을 달통하게 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노웅은 기다리고 있던 웅이 오자 별다른 시험 과정 없이 ㉠을 주며 그대의 것을 전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을 주기 전에 고난을 통해 웅의 영웅성을 시험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철관 도사는 동자를 시켜서 험한 산길에 고생한 웅을 위해 밥을 대접한다. 따라서 ㉠을 전수하기 위해 밥상을 차려 주었

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철관 도사는 ㉠으로 인해 사람이 상할까 염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을 응에게 주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므로, 응에게 주기 위해 ㉠을 아끼며 키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응에게 머리를 들고 굽을 치며 공순하게 행동한 것은 맞지만, 응이 ㉠을 통해 ㉠을 공순하게 길들인 것은 아니다.

03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응은 철관 도사를 찾아가 벽상에 남긴 글에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며 멀리서 찾아왔음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철관 도사를 '나그네'라고 지칭하며 낮추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노옹은 응에게 '조옹검'이라고 적혀 있는 보검을 전해 주기도 하고, '대명'을 이루어라고 하며 철관 도사를 만날 길을 알려 주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응이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은 영웅임을 노옹이 알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응이 자신을 '용'에 비유한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진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철관 도사가 응이 탈 말을 하늘이 낸 '용마'라고 하고, '보배'라고 하는 부분은 응의 능력과 비범함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철관 도사가 자신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응에게, 자신의 은혜가 아니라 모두 '그대의 운수'라고 한 부분을 통해 응의 운수, 즉 하늘이 정한 운명을 알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노옹과 철관 도사는 하늘의 명을 전하는 조력자의 역할로, 응에게 각각 보검과 말을 넘겨준 것이다. 따라서 이를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끝내겠다는 의미로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조옹의 행동을 초월적 존재와의 조옹과 연결 지어 감상할 수 있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노옹이 천기를 통해 응이 처한 어려움을 짐작한 것은 초월적인 대상이 응의 운명에 조옹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영웅 소설이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 성공에 이르는 과정을 그려 내는 이야기라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응이 크게 소리를 지르자 길들지 않던 말이 머리를 들고 굽을 치며 순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응의 비범한 능력의 하나로 이해

할 수 있다.

③ 응이 외부 환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해 나가는 인물이라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응이 철관 도사에게 적극적으로 배움을 청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응이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를 자결에 이르게 한 원수이자 국가적으로는 왕위를 찬탈한 이두병과 그 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능력을 갈고닦는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보검과 말을 얻은 것은 적을 처단하기 위한 무력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6 고전 산문

본문 139~142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③

■ 작자 미상, 「이대봉전」

【해제】 이 작품은 제목이 남성 주인공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여성 주인공인 장애황의 활약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성 영웅 소설로 평가받기도 한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제한되어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남장(男裝)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는데, 남장한 장애황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 길에 진출한 후, 외적이 난을 일으켰을 때 대원수로 출전하여 공을 세우는 모습은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 대한 여성 독자의 반발 심리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의 전개가 어려서 한 남녀의 혼인 약속과 헤어짐, 시련 뒤의 재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일생에서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사랑을 이루는 남녀 주인공의 활약상

【전체 줄거리】 명나라 때 이 시랑은 백운암에 시주하고 아들 대봉을 낳는다. 이 시랑의 죽마고우인 장 한림도 같은 시간에 딸 애황을 낳아 대봉과 정혼을 시킨다. 간신 왕희가 국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이 시랑은 직간하는 상소를 올리지만 왕희의 참소를 입어 백설도로 유배된다. 유배를 가던 중 왕희는 뱃사공을 매수하여 이 시랑과 대봉을 죽이려고 하지만 대봉 부자는 용왕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대봉 부자의 참변을 듣고 장 한림과 그의 부인은 탄식하다 병을 얻어 죽는다. 왕희는 애황의 미모가 출중하다는 말을 듣고 며느리로 맞이하려 하나, 애황은 남장을 하고 도주하여 이름을 계운으로 바꾸고 무예를 배운다.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제수받은 계운은 남선우가 중원을 침략하자 대원수로 출마해서 적을 크게 무찌른다. 한편 서해 용왕의 도움으로 살아난 대봉은 백운암에서 수련하면서 때를 기다린다. 마침 북흉노가 중원을 침범하여

황성을 점령하고 천자를 핍박하여 위급한 지경에 이르자, 이대봉은 필마단기로 흉노군을 격파하고 적군의 항복을 받아 낸다. 결국 이대봉은 왕희를 처단하고 장애황과 혼인한다. 이후 이대봉은 초왕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며 일생을 마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내 몸이 규중에서 자라 능히 문밖을 알지 못하거늘 어디로 갈 바를 알리오? 차라리 내 방에서 죽으리라.’라는 애황의 말을 통해, 애황이 자신의 성장 환경을 이유로 남자 옷으로 갈아 입고 후원을 넘어 피신하라는 난향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왕희는 애황의 행방을 추적하지도 않았으며, 만좌 빈객들의 만류로 자신을 속인 난향을 살려 보냈을 뿐이다.
- ② 난향은 하늘의 뜻이 아닌, 왕가 노복의 추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함께 도망가자는 애황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 ③ 석연은 애황이 자신과의 혼인을 거절하자 강제로 애황을 데려가기 위해 장미동을 찾아왔을 뿐, 애황이 매파의 청혼을 승낙한 것은 아니다.
- ⑤ 희 씨는 애황의 인물이 비범하고 풍채가 준수하기에 그녀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 것을 부탁했을 뿐, 자신의 딸을 돌봐 줄 것을 부탁하지는 않았다.

02 배경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난향은 애황을 대신하여 석연과의 혼인을 위해 장안에 있는 왕희의 집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장안’은 애황을 대신하여 난향이 향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난향의 도움으로 집을 나온 애황은 정치 없이 가다가 수일 만에 여람 땅에 도착하게 된다. 따라서 ‘여람 땅’이 난향의 권유로 인해 애황이 향하는 곳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애황은 난향에게 외당의 동정을 살피라고 한 후, 외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납치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애황의 ‘외당’은 애황을 향한 위협을 난향이 확인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난향은 왕희의 외당에서 만좌 빈객들에게 애황이 당한 억울한 일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왕희의 ‘외당’은 애황을 향했던 위협을 빈객들이 확인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② 애황과 혼인하기 위해 애황의 내정에 무단으로 들어와 애황을 데려가려 한 석연은 애황의 의복을 입은 난향이 애황인 줄 알고 데려간다. 따라서 애황의 ‘내정’은 애황에 대한 석연의 처분이 난향에 의해 좌절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왕희는 자신을 속인 난향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만좌 빈객들의 만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난향을 놓아주게 된다. 따라서 왕희의 ‘내당’은 난향에 대한 왕희의 처분이 빈객들에 의해 좌절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④ 집에서 나온 애황은 정치 없이 떠돌다가 여람 땅에 이른 후 밥을 빌어먹기 위해 최 어사 집을 찾게 된다. 따라서 ‘최 어사 집’은 ‘승상의 집’과 대비되어 고난을 피하기 위해 애황이 자발적으로 찾아간 곳이라 할 수 있다.

⑤ 애황은 최 어사 집의 서헌에서 희 씨를 만나고 자신의 집에 머물라는 그녀의 청을 수락한 후, 학업에 힘써 공명을 취하라는 희 씨의 말에 따라 서당에서 학업과 병법 공부에 힘쓰게 된다. 따라서 ‘서헌’은 애황이 희 씨의 제안을 수락하는 공간이고, ‘서당’은 애황이 희 씨의 당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03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B]의 ‘네 무도불의를 행하여 깊은 밤에 노복을 보내어 가만히 사대부가의 내정에 돌입하여 규중처자를 납치함’이라는 구절을 통해 난향이 왕희와 그의 노복들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왕희에게 과거의 사건을 환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A]에서는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애황의 과거를 환기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의 ‘소저가 만일 목숨을 함부로 여기시면 부모 제사와 낭군의 원수를 누가 갚으리잇고?’, ‘소저는 급히 남자 옷으로 갈아입으신 후 후원을 넘어 피신하옵소서.’라는 구절을 통해 난향이 가족 간의 인륜을 근거로 애황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에서는 가족 간의 인륜을 근거로 난향이 왕희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A]의 ‘소저는 소비와 의복을 바꾸어 입고 소비가 소저 모양으로 앉았으면 저 사람들이 반드시 소비를 소저로 알지니, 소저는 급히 남자 옷으로 갈아입으신 후 후원을 넘어 피신하옵소서.’라는 구절을 통해 난향이 애황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목숨을 끊으려는 애황을 만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에서는 난향이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B]의 ‘왕희는 나라의 녹을 받는 중신으로 명망이 일국에 으뜸이요, 부귀 천하에 제일이라.’, ‘네 무도불의를 행하여’라는 구절을 통해 난향이 왕희의 신분을 언급하며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에서는 난향이 애황의 신분을 언급하며 그녀의 잘못을 지적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A]의 ‘부모 제사와 낭군의 원수를 누가 갚으리잇고?’라는

구절을 통해 난향이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애황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음을, [B]의 ‘규중처자를 납치함은 무슨 뜻이뇨?’와 ‘어찌 통분치 않으리오?’라는 구절을 통해 난향이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왕희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난향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은 애황 행세를 하며 석연과 왕희를 속였기 때문이지, 애황이 남장을 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난향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모습에서 남장 모티프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애황이 석연과의 혼인을 거절하자 석연은 노복을 대동하여 강제로 애황을 데려가려 하고, 이로 인해 애황은 집을 나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된다. 따라서 왕희의 청혼은 여성 주인공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애황은 남장을 하고 집을 떠나라는 난향의 제안을 수락한 후 집을 떠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남장 모티프가 여성 주인공의 위기 극복에 활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희 씨가 애황에게 학업에 힘써 공명을 취하라고 말한 것은 희 씨가 애황을 남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남장 모티프가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애황은 희 씨의 집에 머무르며 학업에 힘쓰고 병법을 익혀 풍운조화의 재주를 부리고 뛰어난 용력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위기를 극복한 여성 주인공이 영웅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07 고전 산문 본문 143~146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⑤

■ **작자 미상, 「춘향전」**

[해제] 이 작품은 판소리게 고전 소설 「춘향전」의 대표적인 이본(異本)으로서, ‘열녀춘향수절가’라는 표제가 붙은 19세기 후반의 완판이다. 제시된 부분은 이몽룡이 서울로 떠난 후 신관 사또가 부임하여 기생 점고를 시행하며 춘향을 찾아내고 수청을 강요하자 춘향이 저항하는 장면이다. 이 작품은 춘향의 절개를 부각하되 ‘열(烈)’이라는 유교 윤리의 주제 의식을 단순하게 강조하지 않고, 불의에 저항하는 한 인간의 참모습으로 형

상화하여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춘향의 신분인 남원 부사 성 참판의 후생으로 설정된 점, 춘향과 월매, 향단의 인간상이 특색 있게 부각된 점, 판소리의 명창들에 의해 다듬어진 사설을 잘 반영하여 예술성을 높인 점, 흥겨움과 한스러움의 정서가 적절하게 조화된 점 등을 이 판본의 주요 특징으로 꼽는다.

주제 춘향과 몽룡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전체 줄거리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단오에 광한루에서 그녀를 뵈는 춘향을 만나고 그녀와 사랑을 나누게 된다. 남원 부사의 임기가 종료되어 몽룡의 부친이 서울로 올라가게 되자 몽룡도 부친을 따라가게 되면서 몽룡과 춘향은 재회를 기약하며 이별한다. 남원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춘향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춘향은 수청을 거부하다 옥에 갇혀 죽을 지경에 이른다. 그동안 몽룡은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온다. 사또의 생일 잔치날에 몽룡은 암행어사 출두를 외쳐 사또를 파직시키고 춘향을 구출하고, 춘향 모녀를 서울로 데리고 가 춘향을 정실부인으로 맞이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01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이 작품은 판소리의 율문체가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해서 기생 농선이는 ~ 평양 기생 월선이도 충렬문에 들어 있고’와 같은 춘향의 발언과 ‘모반과 대역하는 죄는 ~ 함께 귀양을 보내느니라.’와 같은 사또의 발언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율격이 조성되는 한편 인물의 발화 의도가 강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시된 부분에는 춘향이 자신의 집에서 사또가 머무는 곳으로 이동함에 따라 공간 변화가 나타난다. 하지만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사건의 전환된 분위기를 암시해 주는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제시된 부분에서 춘향과 도령이 인연을 맺은 과거의 사건은 인물들의 대화에서 언급될 뿐 서사 속에 장면으로 삽입되어 역순행적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망측한 환을 당해 놓았으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으리오.’에서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춘향의 처지에 대한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서술자가 사명과 관노의 입장에 동조하고 공감하면서 건네는 말로 볼 수는 없다.
- ⑤ 제시된 부분에는 인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다. 하지만 고사의 인물은 춘향의 대화에 언급되어 춘향의 절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사건 속에 비현실적인 사건 요소로 삽입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도련님 가실 때에 장가든 후에 데려가마 당부하고, 춘향이 도 그렇게 알고 수절하’고 있다는 수노의 말과 ‘이수재 만날 때에 산과 바다를 두고 맹세한 굳은 마음’을 밝히는 춘향의 말에서 춘향은 도령이 자신에게 남긴 약속을 믿고 도령과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회계 나리는 사또가 ‘서울 계실 때부터 ‘춘향 춘향’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또는 기생 접고를 하기 전부터 춘향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이유는 회계 나리가 말한 ‘사또 일생 소원이 천하의 일색이라.’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의 외모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며, 춘향이 지키려는 절개와 같은 그녀의 인격에 대해서는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④ 춘향은 ‘남편을 배반하는 것은 벼슬하는 관장님네 나라를 배반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따라서 절개를 지키는 일과 나라에 충성하는 것 중 어느 하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둘을 같은 위치에 놓고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⑤ 사또는 춘향에게 ‘관장을 조롱하’고 ‘관장을 거역하는’ 큰 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장의 권위를 내세워 춘향을 죄인으로 취급한다.

03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춘향은 고사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적을 거론하여 자신의 신념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명 선생의 고사는 ‘높은 재주로 동남풍은 빌었으되 일편단심 소녀의 마음은 굴복지 못하리라.’라고 하여 자신의 지조를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춘향이 공명 선생의 행적을 본보기로 삼아 자신의 신념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또는 춘향에게 ‘정절을 지키다가 고운 얼굴 늙어 가고 ~ 가련한 게 너 아니면 누구라?’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을 가정하여 춘향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고 있다.
- ② 사또는 춘향이 자신을 섬겨야 한다는 답을 이미 정해 놓고서 ‘네 고을 사또에게 ~ 매인 게 옳으나?’라며 춘향에게 마치 선택을 요구하는 듯한 질문을 하고 있다.
- ③ 회계 나리는 ‘신관 사또 영접함이 법도에 당연하고 사리에도 당연커든’이라고 말하면서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춘향이 자기 의지를 꺾고 사또의 뜻에 순종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④ 춘향은 ‘충효 열녀’에는 상하가 없다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해서 기생 농선이는 ~ 기생 모함 마옵소서.’에서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하여 회계 나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춘향은 자신이 이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윤리적 가치의 근간이 되는 ‘열(烈)’이라는 이념에 기반한 ‘이념적 신분’의 정체성에 따라 ‘사람의 첩’으로서 남편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자 하며, 수청을 거부한다. 한편 사또가 인식하는, 춘향의 ‘인식적 신분’은 기생인데, 이는 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근거가 되며, 두 인물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수노는 ‘춘향은 기생이 아닌 ‘기생의 딸’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춘향에 대한 수노의 신분 인식은, 춘향을 기생으로 생각하고 찾고 있는 사또가 수노에게 화를 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
- ② 이방과 호장은 ‘춘향이 기생도 아닐 뿐 아니오라 전임 사또 자제 도련님과 맹세가 중하’다고 사또에게 의견을 말한다. 그들이 인식하는 춘향의 ‘인식적 신분’은 기생이 아니며, 그들은 사또 자제 도련님과 춘향의 맹세를 중하게 여김으로써 춘향이 추구하는 ‘열(烈)과 관련된 ‘이념적 신분’에 동조하고 있다.
- ③ 회계 나리는 춘향에게 ‘너희 같은 천한 기생 무리’라고 말한다. 그가 인식하는, 춘향의 ‘인식적 신분’은 미천한 기생인데, 이는 이 도령을 향해 정절을 지키려고 애쓰는 춘향의 ‘이념적 신분’과 충돌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④ 사또가 인식하는, 춘향의 ‘인식적 신분’과 회계 나리가 인식하는, 춘향의 ‘인식적 신분’은 천한 기생으로 서로 일치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인식의 충돌도 없고 갈등도 없다.

08 고전 산문

본문 147~151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④

■ 작자 미상, 「서대주전」

〔해제〕 작자 미상의 송사 소설, 우화 소설이다. 이 작품은 서대주의 도둑질로 인해 벌어진 송사가 관리들의 불법적 횡포와 수탈, 부정과 비리, 무능 때문에 부당한 판결로 끝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증거가 명백한 죄를 지어 놓고 사령과 옥졸을 매

수하고, 교활한 말로 무죄 방면을 얻어 내는 서대주는 타락한 지방 토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작품 전체에 조선 후기 서민들의 고달픈 삶과 당시 관리들의 부패한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다.

주제 조선 후기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무능(지방 관리와 결탁하여 재산과 권력을 유지한 토호 세력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농서 지방 소토산 절벽 아래 살던 서대주의 무리는 겨울나기를 위해 남약산에 사는 타남주(다람쥐)의 알밤을 훔쳐 간다. 알밤을 훔쳐 간 것이 서대주 무리임을 알게 된 타남주는 관가에 고소한다. 고소장을 접한 원님은 서대주를 잡아 오게 한다. 서대주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 편의를 제공받는다. 다음 날 원님이 서대주를 국문하자, 서대주는 비논리적이지만 감정적인 호소를 펼쳐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원님의 잘못된 판결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서대주에게 속아 넘어간 원님은 서대주를 석방하고, 타남주를 외딴섬으로 유배 보낸다. 그 뒤 서대주와 타남주의 자손들이 모두 번성했으나 서대주의 자손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타남주의 자손들은 사랑을 받는다.

01 인물의 성격, 유형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무죄임이 증명될 수 있으므로 ‘형리’가 ‘서생’과 ‘타남주’를 모두 잡아들여서 상세히 조사하자고 말한 것은 소송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이 아니다. 이 글에서 ‘형리’는 ‘서대주’에게 뇌물이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서생’에게 유리한 상황을 일부러 유도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령’은 피고인 ‘서대주’를 붙잡아 오는 역할을 하는데, 뇌물을 받은 후 피고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인물로 볼 수 있다.
- ③ ‘옥졸’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옥에 갇힌 ‘서대주’에게 뇌물을 뜯어내거나, 뇌물을 받은 후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한 관리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서대주’는 대질 조사의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수령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 내려는 것이다.
- ⑤ ‘원님’은 ‘서대주’의 말만 믿고 ‘타남주’를 외딴섬으로 유배 보내는데, 이는 재판관으로서 소송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02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 제시된 ‘통영 서랍장’이나 ‘김해 동래의 좋은 담뱃대’

는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고급 물품들로, ‘서대주’의 행렬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웠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서랍장’과 ‘좋은 담뱃대’는 원님께 바치는 뇌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서생’은 다양하고 비싸며 화려한 물건들을 갖추고 행차 길에 오르고 있는데, 이는 영악한 ‘서생’이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며, 훗날 뇌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서생’은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자신은 ‘본시 대대로 부유하’여 남의 재산을 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와 같이 평소 사치스럽고 화려한 행색으로 의젓하게 행동하여 ‘부잣집의 자제와 같’은 모습으로 다녔다는 것을 근거로 들면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진다.
- ③ ‘서생’은 [A]에서 기세당당한 모습을 보였지만, 막상 재판장에서는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장면의 변화는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장에서 직접 송사를 겪게 되면 결국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고 있다.
- ④ [A]에서 ‘서생’은 ‘심부름꾼’과 ‘어린 쥐’를 대동하고 행차에 나서고 있으며, 감옥에 갇혀서도 이들을 몸종처럼 부리고 있는데, 이는 죄를 짓고도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진 자들의 행태를 빗대어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03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서대주가 타남주야말로 ‘행실머리 없’는 인물임을 밝히며 거짓 송사를 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남주의 성격적 문제를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인신공격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도 잘못했지만, 타남주 또한 잘못을 했으므로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식의 논리를 펼친 것이 아니므로, ‘피장파장의 오류’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서대주는 원님 앞에서 자신과 가족이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 내려고 한 것이므로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서대주는 ‘한스러움에 만념이 모두 재처럼 식’었다는 것을 자신이 ‘타인의 물건을 훔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만념이 재처럼 식었다는 사실과 도둑질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서대주는 재판의 논점을 흐리는 ‘논점 이탈의 오류’를 저지른 것

이다.

③ 서대주는 ‘흉년이 극심’한 상황이라 타남주가 ‘알밤’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 단정하고 있는데, 흉년이 극심하다 해도 타남주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알밤을 갈무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적절한 증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서대주는 타남주의 ‘평상시 소행’에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의 주장은 서대주가 도둑질을 했는지의 여부나 타남주가 실제로 무고를 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다. 서대주는 단지 상대방의 인성적 측면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인신공격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4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의 경우 서대주가 심란한 마음을 느끼고 있음을, ㉡의 경우 서대주가 억울하고 원통하며 애달픈 심정임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한 표현이 서대주라는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은 감옥에 갇혀서도 편의를 보장받는 모습, ㉡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억울함을 연기하는 모습에 해당하므로, ㉠과 ㉡을 통해 서대주라는 악한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서대주를 포함하여 서대주의 무리가 한 행동들을 제시하고 있고, ㉡은 재판장에서 서대주가 보여 준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

② ㉠은 피고인 서대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벌어진 일들과 그러한 상황을 인식한 사람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 ㉡은 재판장 안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서대주의 행동과 불안감,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인식한 사람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은 동물을 의인화하여 부유하고 권세 있는 인간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은 의인화된 동물이 해당 동물, 즉 ‘쥐’가 평소 하는 행위, ‘뽀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쪽거리며 두 눈이 깜작거리’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은 판결을 기다리는 인물의 모습을 동물의 행위로 묘사하여 희화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의 ‘보는 자가 ~ 없었다.’와 ㉡의 ‘보는 자가 ~ 것이었다.’는 서대주나 그의 무리의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드러낸 것이다. 둘 다 ‘보는 자’를 활용하여 서대주와 같은 인물을 지켜보는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9 고전 산문

본문 152~155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③

■ 작자 미상, 「정을선전」

【해제】 이 작품은 남자 주인공 정을선과 여자 주인공 유추연이 만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정 내의 불화와 갈등을 주로 다룬 가정 소설이다. 계모 노씨의 흉계로 추연이 죽음을 맞이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앞부분은 계모형 가정 소설의 구조를, 정렬부인 조씨의 질투와 모함으로 인한 위기와 그 극복 과정을 다룬 뒷부분은 쟁쟁형 가정 소설의 구조를 보인다. 악행을 저지르는 정렬부인 조씨를 돕는 보조 인물들과 주인공을 돕는 보조 인물들이 서로 대응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주제】 유추연의 계모 노씨와 정을선의 정렬부인 조씨로 인해 발생한 가정의 위기와 권선징악

【전체 줄거리】 정 승상의 아들 을선은 유 승상의 딸인 추연을 보고 상사병이 든다. 정씨 집안의 청혼으로 두 사람은 혼약을 하게 되는데, 계모 노씨가 추연을 시기하여 사촌 오빠를 시켜 추연을 모함한다. 을선이 떠나고 억울한 나머지 죽음에 이르게 된 추연은 혼령이 되어 배회하고, 추연이 살던 익주는 폐촌이 된다. 을선은 추연의 유모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추연의 혼령을 만나 추연을 화생시킨다. 추연은 총렬부인이 되어 을선의 사랑을 받으니, 을선의 또 다른 부인이자 초왕의 딸인 정렬부인 조씨가 이를 시기한다. 을선이 출정할 사이 정렬부인이 남장한 시비를 보내어 총렬부인을 오해받게 하니 시어머니가 총렬부인을 죽이려 한다. 시비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난 총렬부인은 을선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것을 본 을선이 집에 돌아와 진상을 밝혀내고 정렬부인 조씨를 처벌한다. 을선은 총렬부인과 아들을 구한 후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의 ‘산모’는 총렬부인으로,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여러 날 굶은 상태에 아이까지 낳은 후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B]의 ‘왕비’와 ‘조 씨’는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각각 부끄러움과 애달픔을 드러내고 있다. 승상은 ‘조 씨’가 저지른 죄상을 알고 그를 책망하며 나무라고 있으며, ‘조 씨’는 자신의 잘못이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상공’에게 처벌을 맡기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는 주인공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타나지만, 그것을 견디기 위한 각오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B]의 경우, ‘조 씨’가 애달픔을 드러내고 있지만 누명을 쓰고 위기에 처한 억

올한 상황은 아니다.

② [A]에는 주인공의 참혹하고 고달픈 상황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것이 부군에게 버림받아 일어난 것은 아니다. [B]의 경우, 정렬부인의 죄상이 탄로 나면서 벌을 받는 상황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하늘이 정한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은 아니다.

④ [A]의 경우,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드러나 있지만, [B]의 내용이 윗사람으로서 왕비의 배려심을 부각하거나, 가족을 위해 자신의 잘못을 선뜻 인정하는 ‘조 씨’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⑤ [A]의 경우, 원수를 갚고 싶은 인물의 속내가 드러나지만, [B]의 ‘승상’이 부모를 위해서 사랑하던 여인의 죄상을 밝히기로 결심한 것은 아니다.

02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중략)’ 앞부분에 있었던 유 부인과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을 요약적으로 설명하면서 유 부인의 곤란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은 유 부인의 상황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가련한 마음을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는 유 부인이 처한 상황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는 서술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만, ㉡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의 경우, 서사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서술자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의 경우,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있을 뿐, 앞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의 경우, ‘유 부인’이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유 부인’이나 ‘월매’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 또한 ‘유 부인’의 비참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을 뿐, 이야기의 전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⑤ ㉠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드러낼 뿐, 미래의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의 경우, ‘유 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지, ‘월매’의 행위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조 씨는 국문 끝에 자신의 죄상이 드러나자 모든 처분을 승상에게 맡기고 있다. 조 씨가 ‘조왕의 딸이자 정렬부인인 자신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모습은 나타

나지 않는다. 조 씨는 자신의 죄상을 인정하고 애달픔을 드러내고 있으며, 실제 처벌 과정에서 저항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⑤와 같은 추측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월매는 총렬부인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있다. 월매는 자신의 말에 따라 국문을 연 승상이 모든 진실을 밝혀, 총렬부인의 누명이 벗겨지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② 성복록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밝혀져 벌을 받을까 겁을 먹고 도주를 한다. 국문이 열리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 염려하여 바빠 도망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③ 옥졸들은 국문 과정에서 사실을 고해야 자신들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금련’과 있었던 일을 승상에게 사실대로 고해바치고 있다.

④ 왕비는 국문의 과정을 본 후, 총렬부인에 대한 자신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하고 있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그릇된 판단을 한 것에 대한 민망함을 느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보조 인물인 ‘금섬’과 ‘금련’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금련’의 경우 국문 과정에서 주인의 잘못을 고해바치는 것을 보면 주인을 위해 행동을 하는 인물은 아니다. 또한 노모의 서사촌인 ‘성복록’의 경우 총렬부인을 거짓으로 참소하였음이 확인되지만, 제시된 상황에서 ‘월매’는 죽기를 재촉하며 ‘조 씨’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피하고 있을 뿐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금섬’과 ‘월매’는 총렬부인의 시비로, ‘총렬부인’을 구명하기 위해 애를 쓰다 죽음을 맞이하거나 위기에 처했음이 드러난다.

② ‘금섬’과 ‘월매’는 착한 이의 편에 서서 신의를 지키는 긍정적 인물로 그려지지만, ‘금련’과 ‘성복록’은 악인을 위해 잘못된 행위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인물로 그려진다.

④ 천자의 비답을 보면, 천자가 ‘금섬’과 ‘월매’를 직접 언급하며 칭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렬문을 세워 후세에 이름이 나타나게 하라.’라는 비답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사람은 당시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⑤ ‘월매’는 신의를 지키고 총렬부인을 살렸다는 점에서 승상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게 된다. ‘금섬’의 경우, 이미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총렬문’으로 그 명예를 드높이고, 그 가족이 대신 보상을 얻게 된다. 이러한 결말을 통해 ‘권선징악’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할 수 있다.

10 고전 산문

본문 156~159쪽

01 ①

02 ④

03 ③

04 ①

■ 작자 미상, 「삼선기」

〔해제〕 이 작품에서 주인공 이춘풍의 삶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파격적인 대비를 이룬다. 훗날 자신의 아내가 되는 두 기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고고하고 깨끗한 도학자의 삶을 살았던 이춘풍이 두 기녀에게 속아 그들과 연분을 맺게 된 이후에 삶이 180도 바뀌어 기생의 모가비(우두머리)가 되는 것이다. 겉모습만 보아선 삶이 타락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춘풍이 도학자의 삶을 살 때나 기생 모가비의 삶을 살 때나 고결한 삶의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춘풍은 평양에서 교방(기생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사설 기관)을 운영할 때 기녀들이 재능을 잘 기르고 품위를 지키도록 하여 평양의 교방 문화를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이춘풍의 모습은 전근대적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근대적 시민 의식이 높아져 가던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동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세태 소설로 「이춘풍전」이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춘풍과 「삼선기」의 이춘풍은 아주 다른 인물이다. 「이춘풍전」의 이춘풍이 교만하고 위선적인 인물인 반면, 「삼선기」의 이춘풍은 고결한 정신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주제〕 도학군자 이춘풍의 전략과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

〔전체 줄거리〕 이춘풍은 명문대가의 후손으로 부귀공명에 뜻을 두지 않고, 여색을 멀리하며 학문에만 전념한다. 한편 홍도화, 류지연은 평안도의 유명한 기녀로, 평생의 반려자가 될 이상적 남성을 찾아 한양에 간다. 한양에 도착한 두 여자는, 흥제원 한량들에게 곤욕을 치르는 이춘풍을 길에서 우연히 보게 되고 한 눈에 그의 비범함을 알아본다. 그리하여 두 여자는 남장을 하고 이름도 홍영학, 류봉학으로 바꾼 다음, 이춘풍의 문하생으로 들어간다. 그 후 홍·류 두 여자는 꾸며 낸 이야기로 이춘풍을 속여 평양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선녀로 가장하여 이춘풍을 유혹해 휘절시킨다. 홍·류 두 여자가 이실직고하여 자초지종을 알게 된 이춘풍은 두 여자를 받아들여 인연을 맺는다. 이후 이춘풍은 도학자의 삶을 버리고, 홍·류 두 여자와 함께 평양에서 대규모로 교방을 운영하면서 학식과 덕을 바탕으로 교방 문화의 격을 높인다. 그러던 중 관아의 잡일을 보는 노영철과 기녀 심일청의 모함으로 이춘풍은 귀양을 가고, 교방은 폐쇄된다. 시간이 지나 신임 사도 홍 상서가 이춘풍의 무고함을 알아보고, 그를 귀양에서 풀려나게 한다. 그 후 이춘풍과 홍·류 두 여자는 대성산 아래에 초당을 짓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행복하게 산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홍도화, 류지연 두 기녀는 이생(이춘풍)을 휘절시켜 자신들

의 반려자로 삼기 위해, 그를 속이는 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는 남장을 하여 이생의 문하생이 되는 것이다. 남장을 하고 문하생이 된 두 기녀를, 이생은 홍·류 두 문생(홍도화 → 홍영학 / 류지연 → 류봉학)으로 인지한다. 두 번째는 선녀로 변장하여 이생을 유혹하는 것이다. 선녀로 변장한 두 기녀를, 이생은 선녀인 홍도 낭자, 벽도 낭자(홍도화 → 홍도 낭자 / 류지연 → 벽도 낭자)로 인지한다. 다시 말해 홍도화, 류지연 두 기녀는 홍·류 두 문생이면서 동시에 홍도, 벽도 두 낭자인 것이다. 그리고 ‘허황한 흘개로 선녀를 가탁하여 정대 하오신 군자를 산 위로 유인하여 연분을 맺는다’는 두 낭자의 말에서, 두 낭자가 선녀로 변장한 목적이 이생을 산 위로 유인하여 연분을 맺으려고 했던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홍·류 두 문생으로 변장한 두 낭자는 각각 성천과 안주에 간다고 이생에게 말했지만 이는 이생을 속이기 위해 한 거짓 말이다.

③ 두 낭자가 이생의 총애를 얻기 위해 이생의 다른 문생들과 경쟁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오지 않는다. 두 낭자가 이생에게 ‘두 문생의 온화 정대하움이 저희 두 첩과 어떠하니잇고?’라고 묻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두 문생은 남장을 하여 홍·류 두 문생으로 행세했던 두 낭자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속임을 당하고 있는 이생에게 짐짓 던진 질문일 뿐, 두 낭자가 이생의 다른 문생들에게 경쟁심을 느껴 던진 질문은 아니다.

④ 두 낭자가 남장을 하여 홍·류 두 문생으로 행세했던 까닭은 이생과 ‘백 년을 함께 사는 일’, 즉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이생에게 다가가기 위해 남장을 하고 이생의 문하로 들어갔던 것이다. 따라서 모함을 당한 이생을 돕기 위해 남장을 하고 그의 문생이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두 낭자가 처음 지은 죄는 남장을 하고 이생을 속여 그의 문하생이 되었던 것이다. 그다음 지은 죄는 선녀로 분장해 이생을 유혹했던 것이다. 이 두 차례의 잘못에 대해 두 낭자는 처음 지은 죄는 ‘오히려 용서하심을 바라려니와’, 그다음에 지은 죄는 ‘그 죄상이 만 번 죽어도 아쉽지 않으리라.’라고 말한다. 이 말은 첫 번째 지은 죄가 두 번째 지은 죄에 비해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뜻이지, 첫 번째 지은 죄를 이생에게 이미 용서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이생에게 죄를 짓고 용서받은 적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생이 말한 ‘선비 된 자의 조심하기 어려움’은 그가 평양

에 남아 홍도화, 류지연 두 여자와 함께 살기로 마음먹은 이유와 관련되어 있다. 이생은 선비가 지켜야 할 도리에 비춰 볼 때 선비인 자신이 두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동생들도 곤란해지고 두 여자도 적막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학자의 삶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두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사는 것이 이생에게는 힘든 일, 옳지 않은 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선비 된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생은 평양에 남아 두 여자와 함께 살 생각으로 ‘만일 너희들과 백 년을 함께할 지경에는 너희 생각에 어찌하고자 하는고?’라고 하며 두 여자의 생각을 물었던 것이고, ‘선비 된 자의 조심하기 어려움이 이러한 연고로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홍도화, 류지연이 찾던 이상적인 남성이 아니라고 판단해 선비 된 자의 조심하기 어려움을 언급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생이 두 남자에게 ‘너희들과 백 년을 함께할 지경에는 너희 생각에 어찌하고자 하는고?’라고 의견을 묻자, 두 남자는 자신들의 수천 석 재물을 그와 상의해서 적절히 사용하겠다고 대답한다. 그 이후 이생은 <보기> 중 <뒤의 내용> [1]에 제시된 것처럼 두 남자와 평양에서 교방을 운영하며 살아간다. 이로부터 교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두 남자의 재물에서 나왔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두 남자가 이생에게 ‘중죄를 지었’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허황한 흠계로 선녀를 가탁하여’ 군자를 유인해 연분을 맺었다고 말하는 부분과 <보기> 중 <앞의 내용> [2], [3]을 참고할 때, 두 남자가 이생에게 흠계를 사용한 이유가 이생을 이상적 남성이라 판단해 반려자로 삼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보기> 중 <뒤의 내용> [1]에 제시된 것처럼 이생은 도학자의 삶을 버리고 기생의 모가비가 되지만,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닌 학식과 덕을 바탕으로 교방 문화의 격을 높여 나간다. 그의 학식과 덕이 도학자의 삶을 버리기 이전의 삶에서 비롯한 것임을 감안할 때, 과거에 도학자로서 그가 행했던 독서와 수양이 도학자의 삶을 버린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내 명색이 경학하던 선비로 기생첩을 염렘히 세고 들어가면 우선 아우들의 모양이 어찌 되며, 또 ~ 너희들의 적막함은 고사하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생은 두 남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아우들과 두 남자 모두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이생은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양에 남아 두 남자와 함께 지낸다.

03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㉞은 두 남자가 이생에게 감추고 있던 사실을 들려서 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이생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한 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이생이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에서 벽도 남자는 자신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홍·류 두 문생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비교해 어떤 것이 더 나은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선녀로 변장한 홍도, 벽도 두 남자와 홍·류 두 문생은 사실 홍도화, 류지연 두 기녀가 변장한 것으로 모두 같은 사람들이다. 이생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② ㉡은 ㉠에 대한 대답이다. 여기서 이생은 ㉠의 질문에 맞춰 두 대상을 비교하는 내용의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사실, 즉 벽도 남자, 홍도 남자가 각각 류생, 홍생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올 수 없는 대답이다.

④ ㉢에서 이생은 ‘말씀이 하도 맹랑하여 믿지 못하겠으니’라고 말하며, 상대방이 밝힌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⑤ ㉣ 앞에서 ‘사색을 내’렸다는 것은 어조와 낯빛이 고요해졌다는 말로, 두 남자가 전후 사실을 밝힌 것 때문에 생겨난 이생의 심리적 혼란이 가라앉았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일 너희들과 백 년을 함께할 지경에는 너희 생각에 어찌하고자 하는고?’라는 질문을 하면서, 두 남자와 앞으로 함께 살아갈 삶에 대해 논의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두 남자가 감춰 왔다가 밝힌 사실을 이생이 수용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조롱이 심하도다.’는 이생(속임을 당하는 자)이 실제로 조롱거리가 되어서 한 말이 아니라, 홍도화, 류지연 두 남자(속이는 자)의 말이 믿기지 않아서 한 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홍·류 두 남자는 이생에게 접근할 때, 여화위남, 곧 남장을 하고 자신의 기녀 신분을 감추어서 이생을 속였다.

③ ‘첩들의 백 가지 흠계를 어찌 측량하시리잇고?’라는 홍·류 두 남자의 말은, 자신들의 계략이 워낙 치밀하고 복잡하여 이생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이생의 휘절은 홍·류 두 남자라는 타인의 의도가 작용해 일어난 것이라는 생각이 그 말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④ ‘누구를 원망하리오.’라는 이생의 말에는 자신의 휘절이 결

국 스스로가 부족했던 탓이라는 자책의 뜻이 담겨 있다. 이생은 자신의 휘절이 자신의 취약성(공부가 차지 못한 연고)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⑤ 이생은 휘절의 결과, '내 일(=학문)도 쓸데없는 짓이라.'라며 도학자의 삶을 그만두고, '너희들 편함이 곧 나의 편함이나 좋은 도리로 의논하라'라고 말하며 기생인 두 남자의 뜻에 따라 그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시작하려 한다. 이로부터 그가 휘절을 경험한 결과로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바꾸려고 함을 알 수 있다.

11 고전 산문

본문 160~163쪽

01 ② 02 ④ 03 ① 04 ②

■ 이기발, 「송경운전」

해제 이 작품의 주인공 송경운은 대략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전반까지 음악가로 활동했던 실존 인물이다. 그는 서울에서 비파의 고수로 이름을 날리다가 정묘호란(1627)을 만나 전주로 내려왔다고 전해진다. 이야기는 작중 인물로 등장하는 작가 이기발(1602~1662)의 목소리로 진술된다. 이기발은 송경운과 비슷하게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다가 병자호란의 비극을 겪으면서 고향인 전주로 낙향해 여생을 보낸 인물이다. 이기발은 서울에 있을 때부터 송경운과 친분이 있었는데, 전주로 낙향해 살던 중 자신처럼 전주에 내려와 지내던 송경운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다. 이 만남을 계기로 이기발은 송경운의 생애를 회고하게 되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 송경운의 고매한 예술관에 대해 알게 된다. 이 작품은 한 빼어난 예술가의 생애를 기술하고 있지만, 그의 삶을 관통하는 확고한 예술관을 통해 '참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진지한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진다.

주제 음악가 송경운의 고매한 예술 정신과 빛나는 생애

전체 줄거리 송경운은 본래 서울에 살던 노비였으나 어려서부터 몹시 총명하여 주인의 아감을 받아 일찍이 노비 신분에서 벗어났으며 공공(軍功)으로 벼슬도 한다. 특히 음악에 재능이 있어 열두어 살에 이미 비파 연주자로서 서울과 근방에 명성을 떨쳤으며 궁중 악사로도 크게 활약한다. 나이가 들어 궁중 악사 자리에서 물러난 후 전주로 내려와 살았는데, 그의 영향으로 전주 지역에는 전에 없던 음악 애호의 풍조가 자리 잡게 된다. 송경운은 높은 명성을 지닌 악사였음에도 음악을 듣기 위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심껏 음악을 들려주었다. 그뿐 아니라 음악의 본령은 듣는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주는 데 있다는 예술적 신념에 따라, 음악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잃지 않되 청중의 취향에 대한 존중심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였다. 그는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 때 제자들에게 '나는 음악을 사랑

하는 사람이니 장례식에서 나의 상여를 옮기는 길에 비파를 연주해 달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둔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송경운이 어릴 적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나 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지는 않았다. '옛날에 이 절도사의 노복이었는데'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송경운은 양반가의 노비 출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송경운은 서울 사람이다.'라는 문장에서 그가 본래 서울에서 태어났음을, '경운이 전주에 와서 살고부터'라는 구절에서 그가 삶의 어느 시점에 전주로 이주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비록 별 볼 일 없는 하인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이렇게 응대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라는 문장에서, 송경운이 신분 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자신의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음악을 들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④ '항상 수십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 그래서 그의 명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대해졌다.'라는 구절에서, 제자들의 품행이 훌륭했던 것이 송경운이 나이가 들에 따라 명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⑤ '(중략)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전주는 큰 도회지이다. ~ 그런데 경운이 전주에 와서 살고부터 이곳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듣고 모두들 즐거워하게 되어'라는 구절을 보면, 전주가 원래 음악을 애호하는 분위기와 거리가 있었는데 송경운이 오면 서부터 음악을 애호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음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송경운의 음악 활동이 지역인들의 음악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2 서술자의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주인공이 부른 노래는 서두에 나오는 시조를 말한다. '무심자'는 작품의 작가이자 서술자인데, 무심자가 송경운이 부른 노래의 가사를 인용한 이유는 가사의 내용에 주목해서라기보다는 노래를 부르는 송경운의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는 마음껏 노래하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껏 노래하는 건 어째서 인가?'라는 표현에서 노래를 부르는 송경운의 모습이 무심자의 눈에 매우 즐겁고 행복해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송경운이 수많은 시조 중 해당 시조를 선택한 것은 전혀 이유가 없는 일은 아니다. 작중 송경운이 부른 시조는 조선 중기의 문신 정구가 지은 작품인데, 이 시조는 물러남과 나아감의 조화를

추구한 사대부의 보편적 정서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송경운이 이 노래를 부르고, 또 그 노래가 무심자의 귀에 들어온 것은, 송경운과 무심자 모두 각자 악사와 관리로서 서울에서 열심히 살다가 현재 전주로 내려온 사람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노래의 내용이건 노래를 부른 맥락이건 모두 송경운의 내적 갈등과는 상관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무심자는 송경운의 외양을 ‘체구가 흰칠하게 컸고, 풍채가 좋고 피부가 희었으며, 가느스름한 눈은 별처럼 빛나는 데다, 수염이 아름답고’라고 묘사하면서 ‘참으로 호남자였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므로 외양 묘사를 통해 주인공의 긍정적 면모를 부각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② 무심자는 송경운과 관련한 서울에서의 일화, 전주에서의 일화를 제시하면서 예술가로서 그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송경운이 서울에서 태어나 뺨어난 음악가로 성장해 유명세를 얻기까지의 과정, 그가 전주에 내려와 전주의 지역 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과정 등이 작중 서술자인 무심자의 언술을 통해 요약 제시되고 있다.
- ⑤ 이 글의 후반부에 송경운이 무심자와 함께 음악 이야기를 나누다가 했던 말이 인용되어 있는데, 여기서 송경운은 좋은 음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다. 송경운의 생애를 통해 ‘참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작품의 창작 의도이므로, 해당 대목은 작품의 주제 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03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의 질문이 나오기 전, 무심자의 눈에 비친 송경운의 모습은 ‘허름하고 짙막한 벼웃을 입은’ 초라한 외관과 ‘마음껏 노래하’는 호탕한 기운의 대비로 특징지어진다. ㉠에서 무심자는 송경운에 대한 친근감을 담아 ‘초라한 행색을 하고서 뭐가 좋아 호탕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라는 뜻으로 말을 건넨 것인데, 이 말은 일종의 간접 화행으로 표면적으로는 ‘질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송경운의 자유롭고 호탕한 멋에 대한 무심자의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송경운도 무심자의 말이 자신에 대한 친근감과 우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심자의 질문을 유쾌하게 되받으며, 질의응답을 마치자 ‘마침내 서로 즐겁게 노닐며 한나절을 보냈던 것이다.’ 따라서 무심자의 질문이 송경운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느낀 안타까운 마음에서 건넨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북적거리는 연회석’에서 사람마다 ㉡처럼 말하며 송경운을 찾은 것은, 화려한 잔치에 가면 송경운을 보고 그의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 ③ ㉢은 송경운의 비파 연주 실력이 워낙 뛰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널리 소문이 나서, ‘송경운의 비파 같다.’라는 말이 무언가를 훌륭하게 잘하는 것을 표현하는 일종의 관용구로 쓰이는 상황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송경운의 비파 연주 실력이 훌륭하다는 사람들의 인식에서 ㉢의 표현이 비롯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④ ㉣에서처럼 말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두어 살 아기들조차 송경운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⑤ ㉤과 같이 전주 사람들이 이야기한 까닭은, 송경운처럼 대단한 악사가 ‘별 볼 일 없는 하인 같은 사람들’에게도 일일이 정성을 다해 연주를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대단한 음악 실력에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정성을 다하는 그의 태도가 더해져 전주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이다.

04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보기>의 유우춘은 해금 연주로 ‘3년 만에 재주를 이루’어 ‘유우춘의 해금’이라는 말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높은 예술적 경지에 도달한 인물이다. 그러나 거지가 몇 달 배워 연주하는 해금 소리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기뻐하면서 정작 자신의 연주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유우춘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연주가 아니라 청중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다. 반면 송경운은 ‘음악에서 중요한 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만약 음악을 듣고도 즐겁지 않다면 ~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모름지기 음악가는 청중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음악에 변화를 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경운은 음악이 청중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원인을 청중이 아니라 자신의 연주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의 이러한 관점을 고려할 때, 유우춘이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송경운이 조언을 해 준다면 음악에서 중요한 것은 청중을 기쁘게 하는 데 있으니 청중이 변화하기를 바라기보다 자신이 청중에 맞춰 변화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음악을 하라고 했을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람들이 ‘유우춘의 해금’을 즐겨워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려 하지 말’라는 말은 송경운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송경운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③ “‘유우춘의 해금’을 이해하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맞추어 음악을 변화시키지 말’라는 말은 송경운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청중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면 음

악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송경운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④ ‘음악에서 중요한 것은 음악가 자신의 만족감’이라는 말은 송경운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송경운은 음악에서 중요한 것이 음악가 자신의 만족감보다 청중이 느끼는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우춘의 해금’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을 슬퍼하지 말’라는 말도 <보기>의 내용과 어긋난다. ‘유우춘의 해금’은 온 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하다고 <보기>에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⑤ 송경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음악의 본령으로 생각했고, 그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하인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흡족해지도록 연주를 해 주었다. 이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음악을 중시했다면 하지 못했을 행동이다. 따라서 송경운이 유우춘에게 ‘음악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보상’이고 ‘경제적 이익이 되는 음악을 하기 바’란다고 조 언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1 현대 소설

본문 164~167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②

■ 염상섭, 「만세전」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내면과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고 있는 중편 소설로, 작품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3·1 운동 직전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품의 ‘나’는 동경에서 서울로 향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침탈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전근대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 백성의 모습을 목격하고, 민족이 처한 현실을 희망이 없는 ‘공동묘지’로 규정한다. 한편 ‘나’는 이러한 현실로 고뇌하면서도 냉소적이고 무기력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 작품은 ‘나’가 서울에서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원점 회귀형의 여로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 인식의 심화에 머무르고 미는 주인공의 의식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조선의 현실과 지식인의 내면

〔전체 줄거리〕 동경 유학생인 ‘나’(이인화)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길에 오른다. ‘나’는 귀국 과정에서 일본 형사의 감시를 받고, 조선인을 멸시하는 일본인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식민지 백성들이 처한 현실에 분개한다. 한편 조선 땅에서는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 조선 백성의 모습을 목격하고 답답함을 느낀다. 집에 도착한 ‘나’는 죽음을 맞게 된 아내를 두고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가족들에게서도 괴리감을 느낀다. 결국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도망치듯 무덤 속과도 같은 조선을 떠나 동경으로 향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에서는 서술자가 갓 장수의 언행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으며, [B]에서는 서술자가 정자에게 편지와 함께 백 원을 부친 의도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는 서술자가 갓 장수의 언행을 토대로 갓 장수와 갓 장수로 대표되는 조선 백성의 내면 상태를 추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서술자가 형님이나 정자의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② [A]에서는 서술자가 갓 장수와 만나 대화하는 현재 상황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서술자는 미래에 대한 결심을 드러내고 있을 뿐 미래에 벌어질 상황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③ [B]에서는 서술자가 동경 가는 길에 정자에게 들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가쁜한 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자신이 살아갈 방향에 대한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에서 서술자는 조선 백성의 생활 방식에 대해 설명할 뿐 자신이 살아온 이력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A]에서 서술자는 갓 장수와 조선 백성에 대한 상념을 드러낼 뿐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고백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B]에서 서술자는 정자에게 편지와 함께 돈을 부친 일과 그 의도를 언급할 뿐 과거에 경험했던 혼란한 시대상을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궤자’는 머리를 깎더라도 ‘내지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지 사람을 만나도 말대답 하나 똑똑히 못 하면 관청에 가서 든지 순사를 만나서 든지 더 성이 가신 때가 많’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일인들에게 퍽박을 받는 상황에서 내지어가 쓸모가 없다고 여긴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궤자’는 스스로가 갓 장사를 다니는 장돌뱅이라고 말하며 요새도 갖이 잘 팔리는지를 묻는 ‘나’의 물음에 촌에서는 여전히 갖을 쓴다고 답한다.

② ‘궤자’는 자신처럼 망건을 쓰고 있으면 잘못된 게 있더라도 요보라는 이유로 웬만한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요보라는 말을 들으며 무시당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인다.

③ ‘궤자’는 ‘나’가 갖에 금글자 달린 학생복을 입은 것을 보며

‘일본 갔다 오시는 분은 모두 그런 양복을 입’는다고 말한다.
 ⑤ ‘꼴자’는 촌에서 머리만 깎은 사람의 경우 ‘나’와 같은 일본 유학생들처럼 내지어를 하거나 신식 학문을 갖추지 못했기에, 순사를 만나면 더 성가신 때가 많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의 ‘백주에 횡행하는 이매망량 같은 존재’에서 직유적 표현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현재에 안주하려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조선의 암담한 실상과 이를 답답하게 여기고 있는 ‘나’의 모습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과거 반년간의 쓰라린 체험’과 ‘오늘의 신생’의 대비를 통해 정자가 역경을 극복하고 이룬 성취를 치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의 ‘무덤 속에서 화석 되어 가는 구더기의 몸부림치는 질식’에서 시각적 이미지의 묘사를 통해 ‘나’가 느낄 깊은 절망감을 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의 ‘소학교 선생님이 사벨(환도)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에서 ‘나’가 처한 현실의 폭압성이 드러나며, 정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통해 이러한 폭압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에서 ‘고민하고 오뇌하는 사람을 존경하시고 편을 들어 주신다는’은 정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고, ‘나’는 이 말에 담긴 호의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는 갓 장수에게 식민 지배를 받는 백성으로서 천대받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머리 깎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갓 장수가 경계인으로서 겪는 정서적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를 참고하면 조선 사람이면서 “내지어”도 할 줄 알고 시체 학문도 있는 ‘일본 유학생’인 ‘나’는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의 일원이며 일본에서 근대 문물을 경험한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두 이질적인 사회의 영향을 함께 받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라는 서술에는 갓 장수와 같은 조선 사람들이 당장의 핍박과 모욕을 면하기 위해 취하는 태도를 비꼬는 ‘나’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서술에서

조선 민중의 생활 방식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④ ‘발길과 채찍’에 억눌려 ‘숨이 죽어 었디어 있는’ 존재는 일제의 억압을 받는 조선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기>를 참고하면 지식인인 ‘나’가 자신도 이러한 존재임을 토로하는 모습에서,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의 일원일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고 고뇌하는 경계인의 자의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⑤ ‘나’는 문학도로서 ‘이 나라 백성’과 ‘당신의 동포’의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모색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나’가 문학도라는 정체성, 즉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내적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02 현대 소설

본문 168~170쪽

- 01 ① 02 ④ 03 ⑤ 04 ⑤

■ 김유정, 「만무방」

[해제] 이 작품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농촌 사회의 피폐한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소설이다. 응칠이나 응오는 모두 성실한 농군이었으나 소작료와 빚으로 응칠은 만무방(염치가 없이 막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응오는 자기 논에서 자기 버를 훔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한다. 두 형제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은 개인이 아니라 이들이 처한 식민지 농촌 현실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을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면서 그들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농촌의 피폐한 실상

[전체 줄거리] 응칠은 원래 성실한 농군이었으나 몰락하여 도박과 절도를 일삼으며 살아가는 만무방이 된다. 그 동생 응오는 여전히 성실하게 농사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그가 논에서 버를 도둑질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자신이 의심받을 것을 염려한 응칠은 직접 도둑을 잡으러 나섰다. 새벽에 응오의 논에 숨어든다. 응칠은 도둑질을 하러 온 자를 붙잡고 복면을 벗기는데, 범인이 바로 응오였음을 알게 된다. 응칠은 함께 황소를 훔치자고 제안하려는 자신을 뿌리치는 응오에게 핫김에 몽둥이질을 하고, 쓰러진 동생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며 그를 업고 고개를 내려온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A]에서는 ‘산으로 올라간다’, ‘고개 하나를 넘는다’ 등에

서, [B]에서는 ‘눈에 쌍심지를 올린다’, ‘눈꺼로 내려온다’ 등에서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응철의 행동이 현장감 있게 드러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A], [B]에서 모두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시간적 배경이 사건을 둘러싼 시대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③ [A], [B]에는 모두 역순행적 장면 배치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A], [B]에서 응오의 눈으로 향한 길과 응오의 눈 주변을 시각적 이미지 혹은 청각적 이미지로 묘사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도둑을 잡기 위해 나선 응철의 긴박한 상황이 드러날 뿐, 응철이 절망에 빠지게 된 계기가 부각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⑤ [A], [B]에는 모두 이야기 밖 서술자의 서술만 나타나며, 이야기 속 인물인 서술자의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에서 응철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응오의 눈에서 도둑질을 한 자의 정체가 바로 동생 응오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도둑으로 밝혀진 응오가 손쉽게 제압당한 것에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은 ‘자네들’이 자신에게 도적질을 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운 빛을 보이자, 응철이 그러한 반응을 의식하고 우쭐한 기분을 드러내면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㉒에서 ‘물푸레 몽둥이’는 응철이 응오의 눈에서 ‘벼를 훔쳐 간 놈’에게 분함을 느끼고 그자를 응징하기 위해 가져간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㉓은 응오의 눈에 접근하는 자가 도둑일 것이라 여기고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집중하는 응철의 행동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㉕의 ‘팔자 드센 놈’은 제 눈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들통이 나고도 정작 자신과 공모하기를 꺼리는 응오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응철의 심리가 반영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매질을 당한 아우를 보고 마음 편치 않게 여기며 아우를 등에 업는 모습에서, 응오에 대한 응철의 미안한 감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03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응철은 응오가 훔친 벼가 담긴 붓짐을 ‘가뿐하니 낚 말가우이나 될는지’ 모르겠다고 여기면서 붓짐에 담긴 벼를 눈에 도

로 털어 버린다. 그리고 아우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다가 ‘황소’를 떠올리면서 황소를 훔쳐 판 돈으로 아우를 도와주려고 마음먹는다. 따라서 응철은 응오가 훔친 벼보다 황소가 응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응철이 ㉔를 훔치자고 설득할 심산으로 응오에게 말을 걸지만, 응오는 응철을 뿌리치고 달아나 버렸으므로 함께 ㉔를 훔치기로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
- ② 응철은 응오가 자기 눈에서 벼를 훔쳐야 할 정도의 힘든 상황에 놓인 것을 생각하고는 ㉔를 훔쳐서 응오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㉔를 기르지 않아 응오가 곤경에 처했다고 여겼다고는 볼 수 없다.
- ③ 응철은 응오가 곤궁한 상황에 처했으면서 ㉔를 훔쳐서라도 돈을 해 주려는 자신의 제안을 뿌리치는 것을 답답하게 여겨 화를 내었다고 볼 수 있다. 응오가 ㉔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여 화를 내었다고는 볼 수 없다.
- ④ 응철은 응오를 도와줄 방법으로 ‘시오 리를 남쪽 산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집 바깥뜰에’ 매여 있을 ㉔를 훔칠 것을 떠올리고서 응오에게 자신과 함께 다녀오자는 말을 건넨다. 따라서 응철이 ㉔가 어디에 매여 있을지를 응오가 알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볼 수 없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응오가 ‘일지 못할 만치 매’를 맞은 이유는 도움을 주려는 응철의 권유를 뿌리친 데 대해 응철이 화가 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성실하던 농군이 사회의 질서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는 상황이 드러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응철은 ‘그 누구를 눈에다 거꾸로 박아 놓고 달아나다가 붙들리어 경치던 이야기’ 등의 ‘도적질’하던 일을 장한 일을 한 듯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응철은 사회에서 일탈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농군으로서 일하며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은 도적질을 하며 살아가는 응철에게 오히려 부러운 기색을 보이고 ‘우리 같은 농군에 대면 호강살이’를 한다며 술을 사 주고 담배를 사 주는 등의 행동을 한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와 같이 막되게 살아가는 응철이 배척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아이러니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③ 응철은 응오의 눈에서 벼를 훔쳐 간 범인을 잡기 위해 나선 상황에서 마을 사람 중 하나일 범인 역시 ‘격장에서 같이 굶

는' 처지에 있을 것임을 떠올린다. <보기>를 참고하면 응칠의 이러한 생각을 통해 응칠이나 마을 사람들 모두 일제 강점하의 부조리한 농촌 질서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내 걸 내가 훔쳐야 할 그 운명'은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것 만으로는 생계를 이어 갈 수 없어 자기 논을 훔칠 수밖에 없게 된 응오의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응오의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살고자 하던 사람도 일탈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03 현대 소설 본문 171~174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②

■ 채만식, 「명일」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생활상을 형상화한 중편 소설이다. 특히 지식인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사회 현실과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내면을 풍자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주인공 범수는 고등 교육까지 받았으면서도 생활고를 겪으며 일자리를 구할 희망조차 없이 살아가는데, 이러한 그의 처지에서 당시 교육 제도의 기만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범수는 생활고 끝에 금은상에서 물건을 훔칠까 마음먹다가도 뜻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을 조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지식인이 현실을 대하는 자기기만적 성향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무능력한 지식인의 삶에 대한 풍자

전체 줄거리 범수는 대학을 나오고도 직업을 얻지 못한 채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며,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는 문제를 놓고 아내 영주와 갈등을 겪는다. 이후 외출을 하여 도둑질을 할 마음을 먹기도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자신을 조소한다. 한편 영주는 샅바느질감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저녁을 짓고 식구들을 기다리는데, 자식들이 두부를 훔치다 적발되는 사건을 겪고 충격을 받는다. 집에 돌아온 범수는 그런 자식들이 낮에 도둑질을 하지 못한 자신에 비해 낫다고도 생각한다. 이튿날 영주는 작은아들을 사립 학교에 입학시키려, 범수는 큰아들을 공장에 취직시키려 나선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는 영주와 범수의 대화를 통해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문제를 놓고 벌이는 영주와 범수의 갈등 상황이 드러나 있다. 또한 [B]에는 범수의 내면에 대한 서술을 통해 금비녀를 훔칠지의 여부와 도둑질을 하는 것이 왜 나쁜지에 대해 고민하는

내적 갈등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으며, [B]에는 '금은상'에서 '화신 앞'으로의 공간 이동이 드러나나 이를 통해 사건의 국면이 전환되는 양상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② [A]의 '선불리 공부를 ~ 가르치고 있었다.'를 범수의 과거 행위에 대한 요약적 설명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범수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계기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또한 [B]에는 범수의 현재 행위와 상념에 대한 서술이 나타날 뿐, 범수의 과거 행위에 대한 요약적 설명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③ [A]와 [B]에는 모두 이야기 밖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인물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

④ [B]에는 행동 묘사를 통해 도둑질을 할지 망설이는 인물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에서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일 원밖에 없는데 일 원짜리 지갑을 사'느냐고 하는 영주의 말에서 범수가 유도하는 대로 영주가 대답하게 된 상황이 나타나며, ㉠에서는 이런 상황을 흡족해하는 범수의 심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영주가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아니므로, ㉠에서 아내가 자신의 생각을 따르기로 한 것에 흡족해하는 범수의 심리가 드러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는 저녁거리가 없느냐고 범수가 묻자 그런 사실이 뻔한데 물어서 무엇 하느냐고 책망하는 영주의 말로 볼 수 있다.

② ㉢은 남편의 취직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영주가 '저 양복이라두 잡혀 오'라는 남편의 제안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말로 볼 수 있다.

③ ㉣은 남편은 공부를 해서 잘들 살아간다는 아내의 말을 들은 범수가, 자식들을 공부시켜 보아야 그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면서 아내를 설득하고자 한 말로 볼 수 있다.

⑤ ㉤은 범수가 금비녀를 훔칠 기회를 엿보면서 점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던진 물음으로 볼 수 있다.

03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범수는 자식 교육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헛되다는 생각을 '일 원'과 '지갑'에 비유하여 드러내고 있다. 즉 '일 원'밖에 없고 더 돈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일 원'을 넣

고 다니고자 ‘지갑’을 사는 행위가 어리석은 것처럼, 고등 교육을 받고도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형편에 자식 교육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헛되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범수는 ‘일 원’으로 ‘지갑’을 사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범수에게 있어서 ‘일 원’은 ‘지갑’을 사기에 부족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 ② 범수는 ‘일 원’으로 산 ‘지갑’이 쓸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지갑’의 쓸모가 여러 가지라고 생각했다고는 볼 수 없다.
- ④ 범수는 ‘일 원’으로 ‘지갑’을 사면 그 지갑을 채울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지갑’을 채우기 위하여 ‘일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는 볼 수 없다.
- ⑤ 범수는 ‘지갑’에 넣을 돈이 또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일 원’보다 적은 돈이라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는 볼 수 없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범수는 자식들이 지식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대신에 그들에게 집에서 ‘산술이니 일어니 또 간단한 지리 역사’를 가르친다. 따라서 범수가 ‘산술이니 일어니 또 간단한 지리 역사’를 자식들이 지식인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판단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는 영주의 ‘한심한 기대’는 범수가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의미한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영주의 기대는 범수가 일제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루어지기가 극히 어려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나도 명색 대학을 마쳤’다는 말에서 범수가 고등 교육까지 받았다는 점이 드러나며, ‘임자도 여자 고보를 마쳤’다는 말에서 영주가 범수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들이 일제의 근대적 교육 제도하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남은 제가꿈 공부를 해 가지구 잘들 살어’간다는 말을 하는 영주는 여전히 교육을 통해 자식들이 장래에 잘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영주는 범수와 달리 당대의 교육 제도가 지닌 기만성을 간파하지 못한 인물로 볼 수 있다.
- ⑤ 범수는 지식의 무용함을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명색이 대학까지 마쳐 소위 교양이 있다는 사람’

임을 떠올리면서 ‘도적질을 하려고 한 자기를 나무라’는 모습을 보인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범수는 지식의 무용함을 인식하면서도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윤리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4 현대 소설

본문 175~178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③

■ 이태준, 「해방 전후」

【해제】 이 작품은 제목과 같이 해방을 전후로 한 시기의 작가 ‘현’에 대한 기록으로, ‘현’이 해방 전 일본의 패망을 생각하며 서울을 떠나는 상황, 강원도의 시골에서 세월을 기다리며 은거하는 모습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해방 후에는 문학 단체에 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변화와, 해방 전 그렇게도 존경해 마지않았던 김 직원의 설득에 대해 자신의 방향 전환을 피력하는 문학인의 면모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이태준의 자전적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작품을 통해 해방을 전후한 작가의 구체적 행적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주제 해방을 전후로 한 지식인의 갈등과 변화

전체 줄거리 일제 강점기 시국에 대해 소극적이던 현은 시국의 혼란을 피해 강원도 시골에서 생활하던 중 김 직원을 만나 교우하게 된다. 이후 서울 친구의 전보를 받고 상경하던 현은 일제의 패망과 조선 독립의 소식을 듣는다. 8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한 그는 조선 문화 건설 중앙 협의회를 찾고, 그들의 선언문을 읽은 뒤 발기인으로 서명한다. 현은 신탁 통치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준으로 정세를 판단하고, 일정한 조직의 지도자가 되기도 한다. 이후 서울에서 다시 만나게 된 김 직원과 대화를 나눈 현은 김 직원과 자신이 이념적으로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사이임을 확인하게 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는 중심인물인 ‘현’과 관련된 인물인 공의, 김 직원 등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B]는 낚시터에 가려다 들킨 상황을 중심으로 중심인물인 ‘현’의 행동과 내면 심리를 언급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 [B] 모두 인물들 간의 갈등 상황이 부분적으로 진술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진술을 통해 특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반감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A]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중심인물의 구체적 행동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추후에 사건의 반전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B]에는 상황에 따라 중심인물의 행동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추후에 사건의 반전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A], [B] 모두 대립 관계에 있는 인물들 간의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중심인물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지도 않다.

⑤ [A]에는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이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거나 풍자하는 것과 같은 서술, 즉 희화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B]에는 인물의 행동에 대한 인과적 서술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중심인물의 일관된 태도가 지닌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2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㉔은 혼자 낚시질을 갔다가 도로 돌아온 아버지 현에 대해 의아해하는 아이의 질문이다. 아버지와 동행했다가 아이 자신은 도중에 돌아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은 낚시터로 가다가 갑작스럽게 순사를 보고 낚시 도구를 감추고 난 이후,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순사의 모습 등을 관찰하는 행동이다.

② ㉒은 순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길을 돌아가다 순사 부장을 만난 후, 순사 부장으로부터 나무람을 듣는 것과 같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일 것에 대해 겁먹은 데서 오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④ ㉔은 김 직원을 가까이할수록 현이 느끼게 되는 호감과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커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㉔은 일제의 탄압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부모로서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 즉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노상에서 조카자식을 매질한 행동은 정도가 지나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현은 김 직원으로부터 문인 쫄기 대회에 관련한 충고를 듣기는 하지만 이는 '시국에 태만한 증거물'인 낚시 도구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낚시 도구가 현이 김 직원으로부터 뼈아픈 충고를 듣게 되는 데 직접적 계기를 제공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현이 낚시터로 가며 순사를 피하려는 것이나 낚시 도구를 들고 낚시터로 향하다가 순사 부장을 보고 놀라는 것은 자신의 낚시질이 '시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위로 여겨질 것이라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② 현은 '시국에 태만한 증거물'로 여겨질 수 있는 낚시 도구를 들고 가다 순사와 순사 부장을 마주치게 되고 이후 낚시터로 뿔뿔하게 가지 못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③ 현이 강원도의 한적한 산음을 임시 거주지로 택한 것은, 가까이 임진강 상류가 있어 낚시질을 하며 일제가 패망하기까지 이삼 년 정도의 세월을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국에 태만한 증거물'로 여겨질 수 있는 낚시 도구는 현이 일정한 때를 기다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낚시질이라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시국'은 일본 제국의 흥망이 절박한 당시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현이 사용하는 낚시 도구는 소일거리인 낚시질을 위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다소 태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김 직원이 조카자식을 매질한 것과 관련하여 '부들부들' 떨거나 '분해'하는 것을 볼 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김 직원이 살기 위해 후회할 행동이라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현은 강원도의 한적한 산음을 거주지로 택한 이유 중 하나로 잡곡의 소산지라는 점을 들며 식량 해결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현은 김 직원과 자신이 불행한 족속이며 '간곡한 심정의 촉수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굳게 잡고하고도 남'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상황에 대해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가네무라 순사는 현이 문인 쫄기 대회에 참석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직접 찾아와 묻기까지 한다.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 말의 감시와 압박이 심해진 상황을 알 수 있다.

⑤ 현이 문인 쫄기 대회에 참석하면서 '살고 싶다'와 같은 '비명을 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대회 참석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 그 때문에 현이 괴롭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05 현대 소설 본문 179~182쪽

01 ① 02 ③ 03 ① 04 ⑤

■ 선우휘, 「단독 강화」

[해제] 이 작품은 극한 상황에서 이념의 대립을 초월하는 민족애를 통해 민족의식을 회복해 가는 두 병사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수송기에서 떨어진 보급 식량을 나눠 먹던 두 병사가 대화 중 우연히 서로가 적군임을 알게 되고 적대감을 드러내지만 동굴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둘이 힘을 합쳐 중공군에 대항하는 장면은 이념 대립이 빛은 전쟁 상황을 극복하고 외세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민족이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소설의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특히 죽은 두 사람의 피가 엉기는 마지막 장면은 두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나마 한 민족으로서의 혈연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주제] 민족애를 통한 이념 대립의 극복과 전쟁의 비극성 고발

[전체 줄거리] 무리에서 낙오되어 미군이 떨어뜨리고 간 식량을 나누어 먹던 국군 병사 '양'과 인민군 병사 '장'은 서로가 적군임을 알고는 긴장한다. 서로 적대감을 보이던 둘은 다음 날 아침 각자의 본대를 찾아 떠날 때까지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서로 해치지 않기로 약속한다. 각자의 총을 함께 묶은 뒤 그것을 등지고 잠을 청하던 양은 잠결에 장이 심하게 뒤척인 것을 자신을 죽이려는 행동으로 오해하여 장을 때리고 곧이어 그것이 자신의 오해였음을 알아차리고는 미안해한다. 양은 옛되고 순수한 장의 모습에 연민을 느끼고 장은 양을 형이라 부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 가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둘은 약속했던 대로 아쉽게 작별을 한다. 그러나 그사이 나타난 중공군과 양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장은 돌아와 양을 도와 중공군에게 맞서다 둘은 끝내 죽음을 맞이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A]는 양이 장을 때린 후, 양이 레이손 광 조각에 불을 붙여 장의 얼굴을 확인하고, 불길을 의식한 장이 얼굴을 찡그리며 신음 소리를 내는 장면이다. 이와 같이 [A]는 인물들의 행동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는 '날이 밝자'와 같은 해가 뜬 아침으로의 변화를 언급하는 서술을 통해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A]에는 사건의 인과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인물의 태도가 변화하는 계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B]에는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A]에는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B]에는 시간 설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사건이 벌어진 상황의 시대적 맥락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A]는 인간의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

며, [B]는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사건에 대처하는 인물의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A]에는 장의 외양에 대한 간략한 묘사가 나타나며, 이를 통해 장의 고달픈 현재 처지가 부각된다고 볼 수 있으나 양의 외양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B]에는 짧은 문장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들이 경험한 다양한 사건들을 긴박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2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약물을 끈 것으로 보이는 장의 입장에서 잠을 자는 도중 막닥뜨린 양의 행동과 말을 곧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장이 녀 없는 표정을 지은 것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놀라서이므로 이를 양의 분노가 사그라든 것을 여러 번 확인한 후 안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잠을 자는 도중 양에게 충격을 가한 장의 행동은 양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양은 장의 두 손을 날쌔게 뿌리치는 것으로 보아 갑작스러운 충격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약물을 끈 것으로 보이는 장의 입장에서 잠을 자는 도중에 당하게 된 양의 행동이 갑작스럽고 놀라운 것일 수 있다. 장이 양의 행동과 말에 대해 놀라 어리둥절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것이므로 어리둥절한 장의 눈빛을 흠여진 시선으로, 겨우 정신을 차리는 것을 시선을 모으는(모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양이 잠을 자는 도중 받게 된 갑작스러운 공격은 불시에 벌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매우 놀라고, 감정이 흥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흥분이 가라앉으며 몸이 떨리는 것은 그러한 양의 감정이 진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⑤ 잠을 깨우는 양을 장이 보고 멧쩍은 듯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은 양을 대하며 멧쩍은 듯, 즉 어색하고 쑥스러운 듯 웃음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3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는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하고 장의 잘못을 따지려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며, ㉡는 장에 대한 양의 오해가 풀린 후 장에 대한 양의 호의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 장의 언행을 직접 응징하려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보기 어려우며, ㉡는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해소된 후 장에 대한

양의 호의를 표현하는 말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오해를 보여 준다고 보기 어렵다.

③ ㉓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박았던 장의 잘못을 따지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㉔는 장을 배려하며 호의를 베풀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양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는 목적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㉕는 장에 대한 양의 호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상황에 놓인 상대방을 위로하려는 태도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㉖는 양이 장의 잘못을 따지려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특정한 상황에 놓인 상대방을 위로하려는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⑤ ㉗와 ㉘는 모두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양이 장에게 ‘안 만났던 것만 못하군’과 같이 얘기한 것은 장을 오해하고 때린 것에 대한 미안함과 더불어 장과의 헤어짐이 내심 아쉬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의 말을 통해 처음에 서로를 만나 대립하던 상태를 상기하며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장이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 그에 놀라는 것은 전쟁에 참전한 군인으로서 인물이 느끼는 불안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양이 장의 코피를 닦아 주는 것, 헤어질 때 장이 시무룩해하는 것은 공존의 과정에서 서로를 적군이 아닌,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며 따뜻한 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두 병사 간의 화해와 공존의 상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③ 양이 장의 악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신음 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전쟁을 일으킨 놈들을 죽이고 싶다고 말한 것은 전쟁 상황 속에서 양이 느끼는 괴로움과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양과 장만 있는 고립된 공간인 동굴 속에서 둘은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켰으며 솔직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아침’까지 함께 먹게 된다. 따라서 동굴을 통해 이념의 대립보다는 인간으로서의 공존이 우선시되는 공간이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6 현대 소설 본문 183~186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②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해제 이 작품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일면식도 없던 세 남자가 우연히 만나 하룻밤을 보내면서 벌어지는 일을 서술하고 있다. 이들은 피상적이고 단절된 인간관계, 고독과 소외 등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형상화하고 있다. 아울러 1964년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당대 지식인들의 무력감과 시대 현실에 대한 회개가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주제 의식 외에도 도시와 도시인을 바라보는 ‘나’의 감각적인 시선과 문체 또한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다.

주제 현대 도시인들의 심리적 방향과 인간적 연대감의 상실

전체 줄거리 ‘나’는 ‘안’이라는 대학원생을 우연히 포장마차에서 만나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신다. 그런 둘에게 낯선 사내가 다가와 함께하기를 부탁하는데, 사내는 오늘 아내가 죽어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다고 한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다. 세 사람은 소방차를 따라가 불구경을 하는데, 사내는 아내의 시체를 팔고 받은 돈을 불 속으로 던지고 ‘나’와 안에게 오늘 밤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한다. 세 사람은 여관으로 가고, 안의 제안으로 각자의 방에 들어가 밤을 보낸다. 다음 날 아침, 사내가 자살한 것을 확인한 안은 ‘나’를 깨우고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여관을 나와서 헤어진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서는 밤의 선술집에서 찬 기운에 발이 얼어 가는 인물의 상황을 통해 공간에서 느끼는 인물의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 [B]에서는 중국집에서 나온 후 거리의 풍경과 인물들의 행동 등을 짧은 문장들을 연결하여 다양하게 보여 줌으로써 상황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는 대체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이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B]는 공간의 상황을 연속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인과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고 있지는 않다.

② [A]의 서술자는 등장인물인 ‘나’이므로 인물의 심리가 서술자의 서술로 드러나는 것은 맞는다. 하지만 서술자와 인물이 동일하므로, 인물의 심리 상태를 서술자가 추측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B]의 경우 ‘한쪽 눈으로는 울고 다른 쪽 눈으로는 웃고 있는’ 사내의 모습에 대한 묘사나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다 지쳐 버렸다’고 ‘나’에게 말하는 안의 행동을 통해 각각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A]에서는 밤의 선술집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그 선술집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소통과 연대의 부재라는 사건의 방향을 암시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B]에는 특별한 인물 사이의 갈등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④ [A]에 ‘나’의 내면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B]에는 요약적 진술을 통한 인물의 과거 행적을 나타내는 서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시골 출신에 대학을 가지 못한 채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는 ‘나’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이자 ‘부잣집 장남’인 안을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대학 구경을 해 보지 못한 나로서는’,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 사관 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한 번 걸려 본 적이 있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했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③ ‘아내와 나는 참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든지 같이 다니면서 재미있게 지냈습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아내의 시체를 팔고 나서 한동안 병원 주위를 떠나지 못했던 사실과,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말한 것,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하룻밤에 다 써 버리려고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내는 죽은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3 배경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선술집에서 ‘나’와 안과 사내는 처음 만나게 되었고, 중국집에서는 사내가 ‘나’와 안에게 자신의 아내가 죽은 사실과 그 시체를 팔아 돈을 번 일과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선술집에서 ‘나’와 안이 사내와 갈등하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나’와 안이 사내와 특별히 갈등 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집에서 ‘나’와 안이 사내와 화해를 하고 있지도 않다.
- ② 선술집에서 ‘나’와 안은 파리가 날 수 있으면서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견 일치점을 보여 주고 있지만, 중국집에서 ‘나’와 안이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나’와 안과 사내가 선술집에서 외로움을 느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중국집에서 ‘나’와 안이 사내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는 있지만 ‘안이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찌르며 우리는 끼지는 게 어떻겠느냐는 눈짓을 보냈다. 나 역시 동감이었지만’을 보면 두 사람이 사내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을 보면 선술집에서 ‘나’가 사내에게 인간적 유대를 느끼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고, 중국집에서 사내가 ‘나’와 안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고 있으므로 두 사람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사내가 ‘나’와 안을 억압하고 있는 존재는 아니므로, 사내의 말 때문에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눌러앉아 있는 ‘나’와 안의 모습이 억압받는 당대 민주 인사들의 모습을 환기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누군가의 정체를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은 타인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 ③ 아내를 잃었다는 슬픔과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돈을 받고 팔았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내가 ‘나’와 안에게 함께 있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을 통해 내면적 교감과 연대라는 당대의 시대적 요구를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다.
- ④ 현실을 바꾸거나 현실에서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사내가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대 사람들의 내면적인 무력감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술을 먹고 나선 거리의 풍경을 ‘식민지의 거리’로 인식하는 것은 정부의 굴욕 외교와 그를 바탕으로 한 당대 사람들의 시대 현실에 대한 짙은 회의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7 현대 소설 본문 187~190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③

■ 윤희길, 「날개 뜨는 수갑」

[해제] 이 작품은 한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제복 제도를 도입하면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1970년대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주의를 앞세워 국민을 통제하던 국가 권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준비 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결국 사원들의 의견을 묵살하여 제복 제도를 실시하는 회사 운영진의 모습은 절차적 정당성을 형식적으로만 갖춘 채 국가의 통제를 합리화하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제복 착용에 반발하던 사원들이 결국은 모두 흩어져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지시를

따르는 모습은 현실의 부당함에 대한 비판 의식은 있으나 이를 실천으로 옮겨 저항 행동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소시민의 면모를 풍자하고 있다.

주제 구성원을 획일화하고자 하는 전체주의 문화 비판

전체 줄거리 동림 산업 운영진은 어느 날 갑자기 사원들이 모두 제복을 입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달하고, 민도식, 장상태, 우기환 등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부서의 부장은 직원들의 불만을 묵살하며 준비 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준비 위원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 태도로 제복 제도를 통과시킨다. 민도식, 장상태, 우기환 등은 다방에 모여 불만스러운 의견을 나누는데, 이때 그들 사무직과는 달리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권 씨가 그들에게 옷과 같이 사소한 일에 불만을 표하는 것에 이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한다. 결국 일은 운영진의 뜻대로 진행되어 회사 창업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은 제복을 맞추지만 민도식과 우기환은 이를 거부한다. 사장과 면담을 거치지만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우기환은 제복 도입에 불복하여 회사를 그만둔다. 회사 창업 기념일, 민도식은 녹장을 피우다가 행사 장소에 뒤늦게 도착하는데 전 사원이 제복 차림으로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있는 모습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에서는 준비 위원회에서 사원들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던 상황을 제시한 후 그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준비 위원회 참석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질책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에서는 [A]에서 설명한 준비 위원회의 논의 상황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여 설명한 후, 지금 사원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담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는 준비 위원회에서 사원들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던 개인적 처지를 위원회 불참자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다. 반면 [B]는 사안의 진행 과정을 분석하며 제복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자고 말하고 있다.

② [A]에서는 실장의 행동을 비판적 어조로 묘사하고 있으나 이 묘사는 회의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변명에 가깝고, 이것이 타인을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B]는 ‘우릴 비롯’ 있는 사람에 대해 묘사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것은 다른 화제를 제시하는 것에 가깝고, 타인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A]는 자신이 참여한 회의에서 취한 태도를 변호하기 위해 지나간 일에서 자신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

고 있어, 윤리적 정당성을 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B]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분석한 후 모두 함께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상황적 판단이 앞선 것일 뿐 윤리적 정당성을 논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A]는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을 뿐, 일의 책임 소재를 제시하며 분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B]는 앞으로 의논할 새로운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체면 유지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강요하는 어투라고 보기도 어렵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㉔은 인물의 체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외모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장상태와 권 씨와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암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장상태가 ‘사내’를 보며 보인 반응을 ‘화를 벌컬 내면서 큰 소리로’라고 묘사하였다. 이것은 ‘사내’에 대한 불편한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민도식이 ‘사내’를 보고 내린 판단을 언급하며 사원들과의 대화 중에 새롭게 등장한 ‘사내’와 ‘장상태’ 간의 갈등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④ 민도식의 아내는 민도식의 입장을 이해해 주거나 공감해 주지 않고 그를 의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민도식은 결국 억지 출근을 선택하게 된다.

⑤ ‘재촉에 이렇게 큰소리로 대거리는 했’다고 하고 있는 것은 타인에게 보인 반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내와의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민도식의 태도를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사무직들의 논쟁에 왜 관심을 갖느냐는 추궁에 ‘권 씨’는 생산직 공원으로서 산업 재해를 입은 동료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처지와 사무직 직원들의 의복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처지를 대비하며 지켜보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권 씨’가 ‘자진해서 먼저 일어’선 것은 장상태의 말이 자신을 두고 한 말임을 먼저 간파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거부감을 간파하고 상대방에게 그 거부감을 확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권 씨’는 사무직 직원들의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고 모두가 듣도록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를 이어 가고 있으나, 이를 두고 적대적 감정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제복 논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지며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비굴한 태도에 대한 판단은 ‘권 씨’가 내리는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

⑤ ‘권 씨’가 면담을 요구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사장을 협박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민도식은 뒤늦게 도착한 창업 기념식에서 제복을 입고 도열한 직원들을 보며 자신이 야유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것은 회사의 문화가 점차 전체주의적 문화로 경직될 것을 두려워한 결과이며, 반발심을 느낀 심리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결정에 반발심을 지닌 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이므로, 기념식에서 품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복을 입고 일사불란하게 도열해 있는 사람들은 전체주의적 문화를 시각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보고 숨이 막힌다고 표현한 것은 그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직원들은 제복 착용 결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이 묘사되어 있으나, 결국 모두 제복을 착용한 결과로 드러난 것은 결국 그들이 복종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④ 민도식은 직원들과 제복 착용 결정에 대한 불만을 함께 나누는 바 있다. 하지만 결국은 사원 체육 대회가 모두 제복을 입은 채로 진행되는 것을 눈앞에서 확인하며 외로움을 느낀다.

⑤ 직원들이 제복에 대해 가졌던 불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저항 없이 제복을 착용한 체육 대회가 개최된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민도식의 모습을 묘사한 것은 개인의 저항에 대한 무력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찰이 비유적이고 효과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주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의한 시대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한때 특종을 여러 개 터뜨릴 만큼 유능한 기자였던 박영하는 최근 들어 어쩐지 사회 현실에 흥미를 잃어 취재도 기사 쓰기도 시큰둥하다. 변두리 동네로 이사 온 박 기자는 동네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해 대는 동네 어르신들을 보고 그들과 엮이지 않으려 피해 다닌다. 그러던 차에 동네 어르신들이 박 기자를 불러 동네의 불효자의 악행을 신문에 내 줄 것을 부탁하고, 이야기 중 당사자가 나와 어르신들과 말다툼이 일어난다. 박영하는 끝내 동네 어르신들의 기사화 요구를 거절했지만 집에 와서 이내 그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다. 하지만 신문사 편집실에서 어느 기사를 거절당한 선배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써 놓은 기사를 버려 버린다. 그날 밤 박영하는 술에 취해 동네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 순경의 도움을 받아 집에 돌아온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 글의 서술자는 이야기 밖 서술자이지만 ‘저 오동나무는 통새암거리 노인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작중 인물인 영하의 시각에서 사건을 관찰하고 사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의 서술자가 이야기 밖의 서술자이기는 하지만 ‘영감 말이 옳다는 소리 같았다.’와 같이 서술자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관찰하고 서술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글의 서술자가 이야기 밖의 서술자이기는 하지만 이야기 속 인물인 영하의 시선에서 관찰하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물의 내면을 인지하고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④, ⑤ 이 글의 서술자는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라 이야기 밖의 서술자이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영하는 사내와 영감들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 박 기자, 어땠소. 이런 사람을 신문에 안 내면 똥을 신문에 낸단 말이요?’, ‘털보 영감이 이번에는 영하를 몰고 들어갔다.’를 보면 털보 영감이 사내와의 갈등에 영하를 끌어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잡것’, ‘배매기’를 보면 사내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신문에 내지 않도록 영하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현대 소설

본문 191~194쪽

01 ③

02 ⑤

03 ③

04 ④

■ 송기숙, 「개는 왜 짖는가」

해제 이 작품은 언론 통폐합이라는 시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 어두운 시대 현실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분위기가 가볍고 유쾌한 것은 해학과 풍자의 방식으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냈기 때문이다. 동네 어르신들의 거침없는 언사와 의기는 과장되어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의한 시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담고 있어 풍자적이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언론의 무기력함과 그에 대한 성

③ 좁쌀영감은 개에게 사내의 이름을 지어 부름으로써 사내를 조롱하고 있다.

④ ‘~ 도대체 이런 법도 있습니까?’, ‘사내는 순경을 돌아보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를 보면 사내가 순경에게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을 보고 영하는 오동나무에 비길 수 있는 통새암거리 노인들에 비해 자신의 존재가 분재와 같지는 않은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고, ㉡의 소리를 듣고는 그것이 절실한 삶의 표출인 것처럼 느끼고 ‘그 기사’를 써야겠다는 의욕을 느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인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도 않고, ㉡이 인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게 하지도 않는다.
- ② ㉠은 영하가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매개일 뿐 선망의 대상이 아니고, ㉡은 영하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는 대상이지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 ④ ㉠은 갈등이 일어난 공간의 분위기와 관계없는 소재이고, ㉡은 갈등이 일어난 시간이 여름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재이다.
- ⑤ ㉠은 영하의 자기 성찰을 불러일으킬 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지 않고, ㉡은 영하의 행동을 자극할 뿐 이전에 일어난 사건 이해에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사내의 이름을 개한테 지어 부른 것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내의 이와 같은 항변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정적 현실과 연결 짓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내는 불효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판하는 노인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다는 점에서 불의한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신문 기자인 자신에게 기사를 쓰지 말라고 사내가 협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저 험하게 웃고만 있는 영하의 모습은 무기력한 당대 언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꼭 짓을 놔만 찾아 짓’는 것은 비판해야 할 부분에 소리 내어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언론의 책무를 상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통새암거리 노인들의 요구는 불의한 일을 언론에서 다루어

바로잡아 달라는 것으로, 이는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9 현대 소설 본문 195~198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③

■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해제 이 작품은 광복절 휴일 하루 동안 한 가족이 겪는 일을 통해 중산층 서민들의 오만과 불신을 꼬집는 소설이다. 어렵게 소도시에 마련한 연립 주택에서 이어지는 집수리 공사로 형편이 쪼들려 마음에 여유를 갖지 못하고 타인을 믿지 못하는 부부 두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한 하층민 노동자 임 씨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과정을 담았다. 이를 통해 작가는 1980년대의 경제 성장과 풍요 속에서 소외되어 있던 평범한 사람들의 아픔을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주제 도시 중산층의 소시민성과 타자 이해를 통한 자기반성

전체 줄거리 주인공 ‘그’의 가족인 은혜네 가족은 셋방살이를 전전하던 서울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부천 원미동 연립 주택에 정착하기로 한다. 하지만 서울에 지리 잡지 못했다는 아쉬움, 한 달이 멀다 하고 이어지는 집수리로 겪는 경제적 곤란 탓에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욕탕 하수관에 문제가 생겨 광복절 휴일 아침부터 인부들을 불러 공사를 하게 된다. 목욕탕 공사를 위해 급하게 연탄장수 임 씨를 소개받았지만, 임 씨와 그가 데려온 젊은 인부가 영 마땅찮아 보인 ‘그’와 ‘그’의 아내는 임 씨가 일한 값보다 부풀린 값을 비용으로 청구하려고 한다고 의심한다. 임 씨가 농촌을 떠나와 도시로 와서 기나긴 고생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들으면서도 은혜네 부부는 자신들이 거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그’는 임 씨의 일손을 도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 점차 임 씨의 정직함과 일 솜씨를 인정하게 되고, 결국 공사가 마무리되고 임 씨가 어려운 자신의 경제적 처지에도 불구하고 손해에 가까운 정직한 비용을 청구하자 은혜네 부부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계산 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임 씨는 연탄값 80만 원을 떼여 비가 올 때마다 가리봉동에 가서 떼인 돈을 받으려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그 돈을 받으면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임 씨를 도시에서 몰아내는 사람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여긴다.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B]에서 ‘그’가 스웨터 공장 사장의 외모를 부정적 이미지

로 상상하는 모습이 서술되어 있는 것은, 임 씨와 스웨터 공장 사장 간의 내력을 듣고 임 씨의 분노에 공감하는 ‘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A]에서 임 씨에게 공감하는 ‘그’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는 ‘그’가 임 씨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모습, 임 씨의 과거 행적을 들으며 의구심을 품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임 씨가 ‘그’와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립 관계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B]에는 ‘그’의 행동이 묘사되어 있거나, 대립 관계가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A]의 임 씨의 말 속에는 그가 처한 경제적 형편에 대한 정보들이 드러나 있으나, ‘그’를 의심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는 임 씨를 부도덕한 인물일 것이라고 예단하고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B]에서도 ‘그’에 대한 의심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A]의 임 씨의 말 속에 가치관이 드러나 있으나 ‘그’와의 가치관의 대비가 드러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는 자신이 품고 있는 임 씨의 도덕성에 대한 선입견으로 임 씨의 발화 내용을 의심하고 있어 ‘그’가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B]에도 두 사람의 가치관이 대비되어 드러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B]에서 ‘그’가 하는 말은 임 씨의 처지가 어려운 이유와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고 임 씨의 마음에 공감하여 가리봉동 공장 사장에게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02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그’가 임 씨의 가리봉동행에 의심을 품었던 것은 아니며, 의문을 품기 시작한 시점도 ㉔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밥 먹는 모습과 일하는 모습을 비교하여 받은 인상을 ‘밥그릇 비우는 솜씨도 일솜씨 못지않다’고 말하고 있다.
- ②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언급한 것은 임 씨의 처지에 대해, ‘견적에서 돈 남기고 공사에서 또 돈 남기는 재주’는 임 씨의 성격에 대해 추측한 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 ④ 임 씨에게로 잔을 돌려 건네지 못한 이유를 ‘술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 ⑤ 말을 맺지 못한 이유를 ‘임 씨의 기세에 놀려’라고 밝히고 있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의 집에 짐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실제로 발생했음을 말하려 한 것이다. 임 씨

는 이번 목욕탕 수리에 관여했을 뿐이고, 임 씨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는 자신의 집을 ‘저런 것’은 ‘집 속에 끼지 않는다고 말하려 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소유한 집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임 씨는 ‘보증금 백오십만 원에 월세 삼만 원짜리 지하실방’으로 자신의 집을 설명하며 그곳에서 자신의 식구가 어렵게 함께 살고 있는 처지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공장 사장이 부유할 것이라고 추측하며 임 씨는 ‘곧 죽어도 맨션아파트’라고 말하고 있다. 임 씨의 이 발화는 자신의 연탄값을 떼어먹은 부도덕한 공장 사장의 처지가 임 씨의 처지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⑤ 임 씨는 ‘그’에게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고, 곧 이어 ‘난 말요.’라고 하며 자신의 처지를 ‘그’의 것과 비교하여 말하고 있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임 씨가 주먹을 흔들며 맨션아파트를 외치는 것을 보고 ‘그’가 ‘맨손’을 떠올리는 것은 비도덕적 선택과 연결 짓기 어렵다. 임 씨는 비도덕적 선택을 한 인물이 아니며, 오히려 ‘그’는 이 장면에서 임 씨의 삶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임 씨는 농사꾼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부를 기대하고 도시로 왔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임 씨는 자신에게 지불해야 할 연탄값을 주지 않은 채 도망친 인물인 ‘스웨터 공장 사장’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그는 도망친 후 더 크게 공장을 세우고 이윤을 도모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임 씨에게 연탄값을 주지 않아 임 씨는 그에게서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처지이다. 이를 두고 스웨터 공장장과 같은 인물들의 윤리적 마비로 인한 사회 문제를 그려 낸 것이라고 연결 지을 수 있다.
- ④ 아무리 참아도 ‘두터운 벽’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빈부 격차라는 사회 문제를 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 ⑤ ‘그’는 임 씨의 계산서를 받기 전까지 공사 비용을 과하게 지불하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데, 이는 임 씨의 의도에 대한 억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스스로의 쪼들리는 사정 때문에 타인을 쉽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소시민의 모습을 그려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

현대 소설

본문 199~202쪽

- 01 ⑤ 02 ① 03 ③ 04 ③

■ 김원일, 「마당 깊은 집」

【해제】 이 작품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로 6·25 전쟁 직후의 세태를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마당 깊은 집’은 주인집을 포함해서 6·25 전쟁으로 피란해 온 가족들이 세 들어 함께 살고 있는 공간으로 당시 우리 사회를 축소해 놓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린아이인 ‘나’의 시선으로 그림으로써 6·25 전쟁 직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섬세하게 보여 준다. 또한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함께 어른이 된 ‘나’의 시점을 교차하여 성장 소설적 성격도 드러내고 있다.

주제 6·25 전쟁 이후, 서민들의 힘겨웠던 삶의 모습

전체 줄거리 ‘나’는 시골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중노미로 살면서 초등학교를 마친 후에, 대구 장관동의 ‘마당 깊은 집’에서 세 들어 살고 있던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 이 집에는 ‘나’의 가족 외에 6·25 전쟁으로 피란 온 두 가족과, 상이군인 가족이 세 들어 살고 있다. 어머니는 ‘나’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엄하게 기르는 한편, 중학교 입학이 미뤄진 ‘나’에게 신문팔이를 시킨다. 늦가을 주인집은 세를 든 가족들 중 한 가족을 내보내기로 하는데 ‘나’의 가족이 예비뽑기에서 뽑힌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한겨울에 이사 가기가 어려운 어머니는 새로 들어오기로 한 정 기사와의 계약으로 ‘마당 깊은 집’에서 계속 살게 된다. 3월 말에 집주인은 세를 주었던 곳을 허물고 집을 새로 짓겠다고 하여 세 들어 살던 가족들은 모두 흩어지게 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이 글의 서술자는 1인칭 주인공 서술자인 ‘나’인데, 사건에 대한 서술은 주로 주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인 과거의 시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에서처럼 현재의 시점에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④ 이 글의 서술자는 이야기 속 인물인 ‘나’로 설정되어 있다.
- ② 이 글의 서술자는 ‘나’ 한 사람으로, 복수의 서술자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 ③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주관을 바탕으로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서술자이다.

02 인물의 성격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어머니는 ‘나’에게 엄격하고 냉정하게 대하셨으나 이는 결국 ‘나’를 ‘사람 구실’ 하고 살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자 한 것이고, 안 씨는 ‘나’의 잘못된 행동을 혼내는 대신 따뜻하게 타이름으로써 ‘나’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⑥가 남의 부엌에서 음식을 훔쳐 먹는 ‘나’의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나, ④가 ‘나’에게 돈을 벌여 오라는 요구를 한 것은 한 집안의 장자로서 ‘나’를 강하게 키우고자 한 것이지 ‘나’가 잘못을 뉘우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려는 이유 때문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⑧가 자식으로서 ‘나’를 신뢰하고는 있었으나 교육을 위해 엄격하게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의 생활 태도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고, ⑥는 ‘나’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의 행동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⑩가 ‘나’에게 장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나’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지 자신을 부양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⑥는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말도록 타이르고는 있지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지는 않다.
- ⑤ ⑨는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하고 있지 않고, ‘내 아무한테도 이 말 안 하꾸마.’를 보면 ⑥는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㉔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먹고살기 위해 부지런하게 생활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에 ‘나’가 동조하기를 바라는 질문이지 상대의 말에 자신이 동조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㉓은 가뭄 심한 농사철에 농사꾼이 하늘만 쳐다본다고 양식이 그저 생기지 않는 것처럼 가진 것 없는 처지인 자신들은 부잣집인 위체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자신들의 처지와 유사한 사례를 들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㉔은 어머니의 외양이 많이 늙었다는 의미로, 서너 해 사이에 일어난 변화라는 점에서 외양의 변화를 통해 어머니가 처

한 고단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④ ㉔은 ‘술집 중노미’나 ‘장돌뱅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 되는 미래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어머니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⑤ ㉔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냉정한 어머니의 평소 성격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예측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지만 열심히 공부하모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겠제.’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만 힘쓰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전후의 부조리한 실태와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에게 아버지가 없는 상황은 곧 가족의 상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전후에 나타난 가족의 상실과 가족 관계의 왜곡과 같은 사회 문제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상이 야박하게 대한다는 것은 전후의 각박한 시대에 대한 현실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나’가 주인집 남은 밥을 뒤져 먹은 것은 배가 고팠기 때문이긴 하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이는 궁핍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타락한 전후의 인간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배고프지만 참아야 하는 이유는 ‘사나이 대장부’가 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큰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11 현대 소설

본문 203~207쪽

01 ①

02 ③

03 ②

04 ④

■ 최윤, 「속삭임, 속삭임」

[해제] 이 소설은 민족 분단과 이념 갈등을 소재로 두 속삭임, 즉 “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과 ‘아버지와 아재비가 나누는 속삭임’이 대립을 초월하는 화해와 공존의 방식이 될 수 있음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나’는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지인의 과수원에서 휴가를 보내게 되는데, 가족이 과수원을 운영하던 어린 시절에 자신을 아껴 주던 어른인 ‘아재비’와의 일을 떠올리며 아재비를 가족으로 보살펴 준 자신의 부모의 선택이 가치 있는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주제 대화 통한 분단의 상처 회복 가능성

전체 줄거리 ‘나’는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남편, 어린 딸과 함께 지인의 과수원에서 지내게 된다. 어린 시절 과수원을 하던 가족이 떠올라 흔쾌히 그곳을 선택하게 된 ‘나’는 휴가 동안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고, 가족과 함께 지냈던 ‘아재비’와의 일을 소개한다. 아재비는 남로당 간부였던 인물로, 검거되어 호송되던 중 우연히 ‘나’의 가족의 집으로 도피하여 내내 그곳에서 머물게 된 인물이다. 나이가 어려 자세한 사정을 모르던 ‘나’는 그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지내다가 차차 그의 사연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아재비를 다시 떠올리며 그가 자신을 아껴 주던 마음의 소중함, 아재비를 가족 안으로 받아들였던 부모의 두터운 정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딸을 바라보며 그 모든 사연을 언젠가는 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A]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과수원의 이야기’, ‘아재비의 이야기’가 드러나 있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루는 내용을 최대한 숨기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A]에서 ‘나’는 과거를 떠올리게 될 때 ‘울먹거림’이 마음속에서 올라온다고 말하고 있다. [B]에서는 이야기를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과 ‘너’로 인해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를 말하고 있지만 떠오르는 이야기가 불러일으킨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B]는 [A]와 달리 ‘이해’라고 대상을 부르며 상념을 털어놓고 있는 부분으로, ‘자꾸 수다를 떨고 싶’다고 하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④ [A]에서는 ‘커튼의 미동’, ‘화초의 그림자’ 등이 과거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단초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고, [B]에서는 ‘너의 양미간’을 보며 호수를 떠올리게 되어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A]에서 ‘나’는 ‘어떤 어조로 말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말하고 있고 [B]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해 주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야기 전달의 적절한 방법을 알 수 없어 어려움을 느끼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아재비는 월북하려다가 검거된 상태에서 도망하였고 ‘나’의 아버지는 그를 자신의 과수원지기로 일하게 하고 신원 보증을 하며 보호해 주었다. 아재비는 죽기 전까지 ‘나’의 집에

서 지낸 것으로 진술되어 있으므로 ‘나’의 아버지가 평생 보듬고 지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과정에 대해 성장 후에 전말을 알고 놀라움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옳지 않은 일이라고 여기거나 회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재비는 ‘나’의 어린 시절의 중요한 추억과 관련된 인물이다. ‘나’는 아재비가 주었던 사랑을 느끼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것에 보답하지 못했음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 ② ‘나’는 아재비와 시간을 보냈던 때 어린아이였던 터라 그의 자세한 사정을 모른 채로 함께 지낸다. 또, 앞뒤 정황을 잘 모른 채로 아재비의 부탁을 들어주기도 한다. 아재비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 ‘나’는 어머니로부터 아재비의 사연을 자세히 듣고 나서 미움의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 ④ 아재비는 도망자로서 신분을 숨기고 살아갔으므로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비밀스럽게 살아간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남편에게 아재비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아재비의 삶을 잘 설명할 방법이 찾지 난감하다고 생각한다.
- ⑤ 아재비는 ‘나’의 가족이 운영하던 과수원지기로 지낸다. ‘나’는 그 과수원이 팔리자 뒤처리를 하기 위해 과수원에 갔다가 아재비와 아버지의 일을 떠올린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 ‘과수원’은 아버지와 아재비의 끈끈한 관계를 ‘나’가 여러 번 목격했던 곳이고, ㉡ ‘채송화 화분’은 ‘나’에 대한 아재비의 애정을 표현했던 사물로, 인물과의 유대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과수원’은 아버지와 아재비의 대화가 곳곳에 깃들어 있다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두 인물의 소통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채송화 화분’은 아재비가 ‘나’에게 정표로 선물한 것인데 이를 두고 인물의 행적을 표현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 ‘과수원’은 아버지와 아재비가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두 사람 사이의 갈등 관계를 드러낼 만한 내용은 서술되어 있지는 않다. ㉡ ‘채송화 화분’은 정표로 주고받은 것이므로 이해관계와는 관련이 없다.
- ④ ㉠ ‘과수원’은 아버지와 아재비가 대화를 나누는 기억을 불러 일으키는 공간이지만 두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채송화 화분’은 아재비에 대한 서술자의 그리움과 관련이 있다.

⑤ ㉠ ‘과수원’은 서술자 ‘나’가 아재비와 어린 시절을 보낸 기억이 담긴 공간이지만, ㉡ ‘채송화 화분’과 서술자의 오해를 연관 짓기는 어렵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해 줄 속삭임이 이다지도 많’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가 많다고 언급한 것으로, 이를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책임이 더 막중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아버지가 아재비를 보듬어 돌보아 준 것, 아버지와 아재비가 늘 대화가 많았던 것을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아재비의 공책을 통해 ‘나’는 아재비가 과수원에서 아버지와 지내면서도 자신의 사상을 바꾸지 않은 채로 여생을 보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이는 대화로 서로를 이해한 두 사람을 통해 이념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이라고 연결 지을 수 있다.
- ③ 딸과 자신의 연결을 언급하며 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모습은 다음 세대와의 대화를 통해 역사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기성세대가 이념 갈등으로 얼룩진 상처 입은 세대라면, 이상치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지 고민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01 극·수필 본문 208~211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⑤

■ **오영진,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

(해제) 이 작품은 해방 직후의 혼란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기회주의적 인물, 풍자적으로 형상화한 희곡이다. 주인공 이중생은 친일 행위를 통해 얻은 기득권을 해방 이후에도 유지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친일 세력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가장하기까지 하는 기상천외한 일을 벌이다가 결국 자신의 궤에 넘어가 몰락하고

마는데, 그 과정에서 주변 인물인 사위 송달지와 아들 하식을 주인공에게 동조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 작가는 이러한 극적 전개를 통해 당대의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한편, 일제 잔재의 청산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해방 직후 기회주의적인 인물에 대한 풍자

전체 줄거리 이중생은 일제 강점기에 외아들 하식을 징용에 보내면서까지 친일 행위를 하여 막대한 재물을 모은 인물이다. 그는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에 빌붙어 권세를 이어 가려 하지만, 비리 혐의로 체포되어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한다. 특별 보석으로 풀려나온 그는 최 변호사와 모의하여 죽음을 위장하고, 거짓 유서를 통해 재산 관리인으로 세운 사위 송달지로 행세하며 살아갈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이중생의 초상이 치러 지던 중 특별 조사 위원인 김 의원이 찾아와 상속받을 재산으로 무료 병원을 설립할 것을 권하고, 송달지는 이를 수락해 버린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이중생은 최 변호사와 송달지를 원망하다가 그들에게 외면받고, 징용에서 돌아온 하식에게마저 비판을 받는다. 자포자기한 이중생은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최 변호사는 ‘또 좋은 방법이’ 설 것이라며 이중생을 위로 하였으나, 이중생이 화를 내며 계획이 실패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자 태도를 바꾸어 맞대응을 한다. 그리고 그의 죄가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며 이중생을 협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처벌받게 하고자 이중생을 속였다고 밝히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중생이 최 변호사를 향해 ‘저 사람에게 책잡힐 유서는 왜 쓰랬’느냐고 따지는 대목을 고려하면, 이중생이 최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서 유서를 작성한 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이중생이 ‘네 남편 놈이 내 돈으로 종합 병원을 세우고 싶 다구 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송달지가 무료 병원 설립에 돈을 쓰려 한다는 사실을 이중생이 하주에게 알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최 변호사가 ‘영감, 왜 노망이슈. 누가 당신 서사구 머슴인 줄 아슈. 누구에게 욕설이구 누구에게 패답이야!’, ‘영감 사위께 내 수수료를 청구하리까?’라고 말하며 ‘내일 사무원 해서 청구서를 보내 드릴 테니 잘 생각’하라고 하는 대목에서, 모멸감을 드러내며 이중생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수수료를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하식이 ‘일본 놈에게 끌려가’ ‘화태에서 십 년이나 고역을 치르고 돌아’왔다고 하는 대목, ‘아버지의 의상을 보고’ 놀라는 대목, 그런 아버지에게 ‘구차스러운 수의를 벗으’라고 하는

대목 등을 고려하면, 그가 일제에 끌려가 고역을 치르다가 집에 돌아와 수의를 입은 아버지를 만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2 대사의 특성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에는 이중생이 집 재산을 보전하려고 죽음을 위장하다가 ‘소송할 데두 없구 말 한마디 할 수도 없게’ 된 억울한 처지에 놓였음을 하식에게 장황하게 토로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 대사가 연출하는 상황을 통해 이중생의 혼란스러운 심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는 이중생이 재산을 모두 잃어버림으로써 잘못된 대가를 치르게 된 상황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이중생이 회심하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
- ② [A]에서 이중생이 궁지에 몰리자 송달지를 탓하는 말을 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통해 이중생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비록 실패했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모습으로 보아, 이중생이 우유부단한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A]에는 몰락한 상태에 있는 이중생이 하식을 상대로 말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그러나 하식이 이중생의 조력자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 ⑤ [A]에서 이중생이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위장했음을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통해 이중생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03 연극 연출의 방법과 효과 추리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무대에는 ‘이중생 혼자 낫 잃은 사람처럼 서 있’으므로, 아범이 이중생 곁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중간’ 역할을 맡은 배우도 단지 ‘후원’으로 설정된 곳에서 목소리만을 내는 것이 적절하며, 무대에 등장했다가 퇴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이중생이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함께 일을 꾸민 최 변호사에게 원망을 쏟아 내면서 취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이중생’ 역할을 맡은 배우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감과 분노가 드러나도록 행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은 이중생이 계획이 좌절된 데 따른 분노를 쏟아 내자,

주변 인물들이 침묵을 지키는 상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이중생’과 ‘최 변호사’ 둘을 제외한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눈치를 보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은 일제에 끌려갔다가 고역을 치르고 돌아온 하식을 송달지가 마중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 따라서 ‘송달지’ 역할을 맡은 배우는 하식을 향해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달려가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은 재산을 잃고 자식에게마저 외면을 받은 이중생이 홀로 남겨졌다가 퇴장한 상황에서 환기되는 무대의 분위기를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무대 연출을 맡은 사람은 이중생의 쓸쓸한 처지가 부각되도록 음향과 조명을 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박 씨는 하식이 ‘자기 아버지 장사 전에’ 돌아온 일을 가리켜 ‘천우신조로 하느님이 인도하였’다며 다행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형님은 참 유복두 허시’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님은 참 유복두 허시’라는 말에서 이중생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이 막대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중생은 최 변호사에게 그의 권유에 따라 ‘목 따는 시늉까지 하구 나홀 닻새를’ 고생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위장한 일을 나타낸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이중생의 행위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운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하식은 일제에 끌려가 고생을 하다 돌아와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떠밀다시피 보낸 젊은이’가 아직도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하식의 말은 이중생과 같은 친일 인사들이 일제 강점기에 저지른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폭로로 이해할 수 있다.

③ 하주는 송달지 때문에 재산을 지키려는 계획이 틀어졌다는 이중생의 말을 듣고, 이중생의 편에서 서서 송달지에게 ‘당신은 뭘이 잘났다구 챙겼했’느냐고 따져 묻는다. 이를 고려하면 하주는 <보기>에 제시된 ‘주인공에게 동조하지 않는 인물들’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④ 송달지는 이중생의 뜻에 따르지 않고 그가 지키려던 재산을 타인에게 ‘털꺼덕 내주’어 ‘무료 병원’ 설립에 쓰게 하였다. 그리고 이중생과 하주가 그런 행동을 탓하자 자신은 ‘의견두 없구 생각두 없는 천치 짐승이란 말이’냐며 반발한다. <보기>

를 참고하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송달지는 주인공에게 동조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지킴으로써 주인공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02 극·수필

본문 212~216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④

■ 황석영 원작, 김석만·오인두 각색, 「한씨 연대기」

【해제】 황석영의 「한씨 연대기」라는 동명의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영덕의 개인사 사이사이에, 사회 정치적 상황을 보여 주는 막간극(다큐멘터리)을 삽입하여 한국 현대사의 소용돌이에서 몰락해 가는 한 개인의 삶을 생동감 있게 풀어내고 있다. 한영덕의 일대기는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그대로 상징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비극에서 더 나아가 정치 이데올로기가 빚어낸 사회적 비극으로 그려져 있다.

【주제】 분단의 상황에서 겪게 되는 개인과 민족의 비극

【전체 줄거리】 북한 대학 병원의 산부인과 교수인 한영덕은 6·25 전쟁 당시 특별 병동 담당 의사이지만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일반 병동 환자를 치료하는 데 더 몰두한다. 이로 인해 반동 분자로 낙인찍혀 사형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사형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가족을 북에 남겨 둔 채 혼자 월남한다. 이후 생계를 위해 자신의 의사 면허를 박가에게 빌려준 후 낙태 수술 문제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등 박가와도 갈등을 겪는다. 무면허 의사인 박가는 한영덕을 배신하고 그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 정보대에 고발한다. 한영덕은 기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겪은 후 어렵게 간첩 누명을 벗지만, 불법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결국 실형을 살게 된다. 형을 살던 중 월남 후 재혼한 아내인 윤미경으로부터 휴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한다. 만기 출소한 한영덕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집을 나가 떠돌다가 지방 소도시에서 장의사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 한영덕의 딸인 한혜지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찾아오지만 아버지의 매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빈소를 떠난다.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강 노인이 한영덕에게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시기는 한영덕이 강 노인의 장의사를 처음 찾아왔을 때부터이다. 따라서 한영덕이 장의사를 찾아오기 전부터 강 노인이 한영덕의 사연에 대해 짐작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한영덕을 면회하며 한영숙이 ‘박가, 이놈의 새끼.’라고 말하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한영숙이 한영덕의 수감을 박가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한영덕은 수감된 상태에서 자신을 면회 온 윤미경을 통해 휴전 사실을 알게 되었다.
- ③ 장의사에서 한영덕은 시신에 수의를 입힌 다음, 베나 이불 따위로 싸는 일인 엮하는 일을 하고, 전직 목수였던 강 노인은 관을 만드는 일을 한다.
- ④ 한혜자는 한영덕이 집을 나가 지방 대학 기숙사 관리인 노릇을 하던 중 한영덕을 고모와 함께, 그 이후에는 자기 혼자, 총 두 번을 만났다.

02 대사의 특성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A]에서 한영숙은 면회를 통해 한영덕을 대면한 후 울분을 터트리고 있으나 이는 한영덕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속상함으로 인한 것이다. 면회를 통해 보게 된 한영덕의 행동이 과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영숙이 그에 대해 한영덕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한영숙은 발화 상황에서의 상대방인 한영덕에게 ‘오라바니, 저야요, 영숙이야요,’ ‘나 영숙이야요.’와 같이 말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려 하고 있다.
- ② 한영덕은 발화 상황에서의 상대방인 한영숙을 자신의 동생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존재로 착각하여 몸을 사리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
- ③ 한영숙은 면회를 통해 한영덕의 처지를 알게 된 후 ‘오라바니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 모양입네까’와 같이 말하며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한영덕은 한영숙과의 만남에서 한영숙을 알아보지 못한 채 한영숙의 발언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난 피난민이요,’ ‘난 피난민일 따름이요.’ 등과 같은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03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첫 번째 ‘망치 소리’는 한영덕에 대한 판결을 확정 짓는 것으로 인물의 안타까운 운명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망치 소리’는 나이가 든 한영덕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들려오는 것으로 이를 인물이 미래에 대해 품고 있는 희망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소리’는 한영덕에 대한 판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건 전개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한 역할에 따라 사건 전개에 참여하는 인물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② 윤미경의 면회, 한영덕에 대한 판결 내용이 제시되고 난 후 ‘조명’이 암전되는 것, 이후 라디오 뉴스가 나오며 장면이 끝나는 것 등으로 보아 ‘조명’의 암전을 통해 해당 장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라디오 뉴스’는 한영덕과 윤미경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휴전에 대한 내용으로, 효과음과 같이 기능하며 인물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 등을 현실성 있게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차트 14’에 적힌 내용은 ‘1972년 서울’이다. 따라서 ‘차트 14’를 통해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을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관객들이 이를 뚜렷하게 인식하도록 돕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그럼, 내 관은 누가 짜 줘내까?’라는 한영덕의 말은, ‘갈라면 이 늙은이가 먼저 가야지.’라고 말하며 자신이 죽고 난 이후 염을 해 주고 뒤따라와도 늦지 않는다는 강 노인의 말에 대한 반응이다. 강 노인과 한영덕이 나누는 대화로 보아 한영덕이 예전에 강 노인에게 염과 관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영덕의 말을 통해 약속을 상대방인 강 노인에게 상기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신이 ‘피난민’이며, ‘간첩이 아니’라는 말을 맥락 없이 하는 한영덕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체제에 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오열하는 한영숙을 앞에 두고 더욱 겁에 질린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영덕의 모습에서 한영덕이 받은 정신적 상처와 충격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 ③ 감옥에 갇힌 한영덕의 상황을 마주한 채 자신들이 남으로 내려온 점을 언급하면서, ‘우린 누굴 믿고 어드메로 가서 살란’ 것이냐고 말하는 한영숙을 통해 집단 내에 소속되지 못하고 쉽게 뿌리내리지 못한 채 심리적 유민의 상태에 놓인 인물들의 처지를 알 수 있다.
- 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를 새롭게 실감’했다는 한혜자의 말을 고려할 때, 전쟁, 이념의 갈등과 같은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대의 불행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물인 한영덕의 삶을 통해 독자들이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03 극·수필 본문 217~220쪽

01 ② 02 ⑤ 03 ⑤

■ 이강백, 「복어 대가리」

해제 이 작품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두 명의 창고지기 자양과 기임을 통해, 분업화하고 획일화한 노동의 인간 소외를 비롯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룬 희곡이다. 대량 생산과 유통을 위한 산업 시스템의 대규모 조직 속에서 하나의 부품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창고라는 상징적 공간에서의 삶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주제 인간적 관계와 존엄이 사라진 현대인의 삶과 인간 소외

전체 줄거리 창고지기 자양은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 온 상자를 내리고 분류해서 쌓고 다시 실어 보내는 일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처리한다. 반면 그의 동료인 기임은 창고 속에서의 생활에 염증을 느끼며 아무렇게나 상자를 처리하고 놀러 다니기에 바쁘다. 트럭 운전수의 딸 미스 다링을 만난 기임은 술에 취해 그녀의 부축을 받아 창고로 돌아오고, 다링은 자양을 유혹하지만 자양은 넘어가지 않는다. 이후 자양은 기임에게 잔소리를 하면서도 복어로 해장국을 끓여 준다. 기임은 상자 하나를 고의로 바꿔 트럭에 실어 보내고 나서 이를 자양에게 이야기한다. 자양은 상자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기임은 창고를 떠날 생각만 한다. 트럭 운전수는 딸인 다링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기임과 다링의 결혼을 서두르면서 기임에게 함께 떠날 것을 권한다. 자양은 상자 주인에게 쓴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운전수에게 부탁하지만, 운전수는 소용없는 일이라며 편지를 찢는다. 기임은 운전수, 다링과 함께 떠나고, 혼자 남은 자양은 복어 대가리를 바라보며 성실한 삶을 지속할 것을 새롭게 다짐한다.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자양이 기임의 바지를 다려 주면서 그에게 ‘사람이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구. 네 바지는 너무 더러워. 아무렇게나 상자를 다루듯이, 옷을 함부로 입기 때문이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자양은 기임의 차림새가 단정하지 못한 것은 그가 조심성 없는 생활 태도를 지닌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양은 자신이 쓴 편지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상자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다.
- ③ 운전수가 아내의 죽음을 오랫동안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가 그로 인해 자책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운전수는 자신이 아내의 사망 신고를 안 했기에 서류 상으로는 아직 아내가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는 서류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 ④ 다링은 떠나려는 기임에게 ‘무조건 다 가져가요.’라고 말하며 ‘둘이서 함께 쓰던 물건’은 ‘반절로 나눌 수도 없’으니 두고 갈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⑤ 기임은 자신이 ‘여자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늙기 전에 결혼해서 이 창고 속을 빠져나가고 싶은 거’라고 자양에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은 채 창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토로한 것은 아니다.

02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자양을 설득하려던 노력이 소용없게 된 상황에서 실망한 마음을 드러낸 말이 아니라, 바뀐 상자 속 물건들로 잘못 만들어질까 걱정하는 것이 ‘굉장한 기계’라고 했다가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라고 했다가 하는 다링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여자의 이름이 다링인 이유가 ‘모두들 그 여자를 보면 마이 다링’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라는 기임의 대답을 들은 자양은 ‘다링’이 본명이 맞는지 미심쩍어서 ㉠과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다.
- ② 자신이 만나기로 한 여자에 대해 캐묻는 자양의 질문에 알 것 없다고 대답하던 기임이 이름을 얘기해 주었지만 자양은 그 말에 의심을 표한다. 이는 기임이 불쾌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므로 ㉠은 짜증 섞인 억양으로 연기하면 적절할 것이다.
- ③ 잔소리가 심해진 게 나이 탓이라는 자양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 기임은 ㉡과 같이 말하는 것이므로 부정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억양으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맥락으로 보아 운전수는 자신이 운반하는 상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그것이 바뀐 일 때문에 뭔가가 잘못 만들어질 수 있다는 자양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 의아해하며 ㉢ 같은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운전수가 자양에게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

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소외된 노동이 의도와 무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자가 바뀐 정도의 일에 '배짱이 약'하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하는 말이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노동과 생산 수단 소유 간의 분리 상태를 인정하는 일의 무용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작품 속의 창고는 <보기>에서 설명한 소외된 노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양이 이 창고가 '조그만 창고 속에 들어 있는 수많은 창고 중에 하나의 아주 작은 창고'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현대 사회 전체가 모두 그런 공간이라는 뜻이고, '완전하게 창고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은 것처럼 노동의 인간 소외 문제를 지닌 현대 자본주의 산업 체제로부터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설명한 대로 현대 자본주의 산업 체제에서 노동자는 분업화, 단순화한 자신의 작업이 전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알지 못한다. 이 작품에서 운전수가 자신의 노동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싣어 가는 거'라서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이 작품에서 운전수와 동료들은 서로를 '딸기코', '외눈깔', '노름꾼' 같은 호칭으로 부르는데, <보기> 내용을 참고할 때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산업 체제의 대규모 조직 안에서 개인이 본래의 이름을 잃고 익명화되어 별명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운전수의 말에 따르면 '딸기코와 외눈깔' 두 사람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는 노동자이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다. 이는 마치 직장 동료와도 같은 관계인 두 사람이 서로 어떠한 유대도 맺지 않는 것이므로, 노동 현장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또 상자들이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뉘'진다는 것은 공정이 분업화, 단순화한 노동의 양상을 환기하므로, 개별 노동자가 자신의 일이 전체와 맺는 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송혜진·박홍식, 「인어 공주」

〔해제〕 이 작품은 2004년 개봉한 영화 「인어 공주」의 시나리오이다. 시간 여행이라는 환상적 요소를 통해 젊은 날의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게 된 딸의 이야기로, 딸은 이 과정을 통해 현실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삶을 연민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주제 모녀간의 갈등과 이해

전체 줄거리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는 나영은 쪼들리는 생활 속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어머니(연순)와 생계를 어렵게 만들었던 무능한 아버지(진국)와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여기며 연인 도현과의 관계에서도 미래를 설계하기 두려워한다. 아버지의 병이 깊어진 것을 알면서도 동정하지 않는 어머니, 가족들로부터 멀어지고자 사라져 버린 아버지를 외면한 채 해외 여행을 떠나려던 나영은 결국 아버지를 찾아 고향인 제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젊은 시절의 어머니를 만나 함께 생활한다. 주워 온 아이로 자라 배우지 못하고 해녀가 된 채 어린 나이에 동생을 혼자 돌보며 살아가는 어머니 연순의 앓되고 씩씩한 모습, 젊은 우체부 진국과 사랑을 키워 가는 풋풋한 모습을 보며 나영은 현실에서의 부모의 모습을 이해하고 연민을 느끼게 된다. 결국 현실로 돌아온 나영은 아버지를 만나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고, 세월이 흘러 자신도 어머니가 되어 또 하나의 기정을 꾸려 살아가게 된다.

01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버려진 서랍장을 집 안으로 가져오는 일을 두고 나영과 연순이 갈등하고 있고, 우체부 진국을 만나고 싶어 하는 연순을 돕기 위해 나영은 전보 부치는 일을 연순이 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㉓는 두 인물이 운반 여부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소재이고, ㉔는 나영이 우체부 진국과 연순을 연결하기 위해 나서서 전달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㉕는 현재 운반 여부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해소의 노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S# 53에서의 일을 연순과 나영의 갈등으로 볼 경우 ㉖는 그 갈등의 원인을 연순의 짝사랑으로 인한 내적 갈등이라고 파악한 나영이 연순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순이 S# 53에서의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두 소재 모두 내적 갈등을 직면하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⑤ ㉗를 운반하기 위해 발맞추어 움직이는 장면은 협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㉘를 전하려고 하는 것은 우체부 진국을

04 극·수필

본문 221~224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④

만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연순이 나영을 도우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02 지시문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서는 연순의 구령에 따라 두 사람이 협력하여 서랍장을 옮기기 시작한다. 다음 장면에서는 서랍장을 나영의 방에 두는 일을 놓고 대립하는데, ㉡이 이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어머니하고 똑같’다는 말을 들은 것에 나영이 불쾌감을 느껴 사진을 그만 보게 하도록 행동할 것을 표현하는 지시문이다.
- ② 연순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통화가 갑작스레 끊겼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영이 표정이나 행동으로 그것을 인지한 반응을 표현하여야 한다. 함께 통화를 하던 나영이 일방적으로 끊긴 통화에 당황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지시문이다.
- ④ 나영이 질문을 했음에도 대답하지 않고 돌아눕는 행동을 지시한 것은 대화를 이어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도록 한 것이다.
- ⑤ 우체부 진국과 연순이 만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라다가 우체부 자전거를 찾는 해녀를 만나 연순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 반가움을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03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S# 8에서 발이 맞지 않는 모습은 서랍장을 둘러싼 갈등과 불화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S# 9에서 연순은 나영이 집에 늦게 귀가한 것과 ‘남의 방’이라고 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데, 그것이 서랍장을 두고 나영이 보인 반응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S# 8에서 나영은 연순을 만나자마자 연순의 행동에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S# 7의 통화 내용이 서랍장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나영은 연순이 우체부 진국에 대한 짝사랑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순이 짓던 한숨의 의미를 느끼고 그녀를 도와 진국과 연순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국에게 말을 걸고 있다.
- ④ 나영이 우체국 용무를 자원하고 나서 연순을 찾는 이유는 연순이 우체부 진국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기 위해서이므

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영이 연순을 부르는 모습은 전날 밤 연순의 한숨을 지켜보고 연순을 염려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젊은 진국과 연순이 인연을 맺기 시작하는 과정을 나영이 곁에서 지켜보도록 한 설정은 시간 여행 전 현실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부모에 대한 애뜻함과 연민을 느끼게 하는 설정이다. 잠적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환상성 요소 없이 부모의 젊은 날을 곁에서 지켜보며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한데, 시간 여행 모티프를 통해 이를 가능하도록 하여 연순의 삶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 ② S# 7에서 도현이 나영과 연순의 외모가 많이 닮았음을 언급하였기에 나영과 연순이 1인 2역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 개연성이 확보되고 있다.
- ③ 나영이 엄마 연순에게 통명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짜증스러운 태도를 표현하도록 한 것은 모녀 관계의 갈등 때문에 인물이 느끼는 어려움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젊은 날의 연순과 딸 나영을 맡은 배우의 역할을 1인 2역으로 맡긴 것은 연순에게도 나영과 같은 청춘 시절이 있었음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설정이다.

05 극·수필

본문 225~229쪽

01 ⑤

02 ④

03 ①

04 ①

장진, 「웰컴 투 동막골」

【해제】 이 작품은 6·25 전쟁 당시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인 동막골에 국군과 인민군, 그리고 미군 조종사가 함께 오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서로 적대하던 군인들이 동막골 사람들의 순수하고 인정 넘치는 삶에 감화되어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통해 전쟁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허구성을 깨우쳐 준다. 또한 동막골을 폭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을 통해 인간애와 평화가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주제】 이념 대립을 넘어선 순수한 인간애와 희생정신

【전체 줄거리】 강원도 산골 마을 동막골에 미군 조종사 스미스가 추락하게 된다. 곧이어 국군과 인민군 일행도 동막골로 들

어와 이들은 서로 대립한다. 이렇게 모인 군인들은,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동막골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서로 친밀하게 지내게 된다. 그러나 동막골에 추락한 미군기가 적군에 의해 폭격됐다고 오인한 연합군이 마을을 집중 폭격하기로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군과 인민군 일행은 동막골을 지키기 위해 동막골과는 다른 위치에 가짜 적군 기지를 만들어 연합군의 폭격을 유도하고, 자신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01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이 글의 전반은 현실에 기반한 장면들이지만 수류탄이 터져 '곡간'에 있던 옥수수가 팝콘 비가 되어 떨어지는 장면은 신비한 음악 소리와 함께 환각에 휩싸인 인물들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동막골이라는 공간이 지닌 신비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장면이 배열되어 있다.
 ② 장면 곳곳에 해학적인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정적 인물로 볼 만한 대상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 글에서의 사건은 6·25 전쟁 중 강원도의 동막골이라는 공간에서만 일어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대비하여 현실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강원도 방언, 북한 말, 서울말 등이 사용되어 다양한 지역 방언이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2 대사의 특성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그보다 짐 난리 났어요!'는 감자밭에 밧돼지가 길을 낸 사실에 대한 말인데, 이는 현재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인민군과 국군의 대치로 자신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지, 그 상황에 대한 긴장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을 보면 치성(상위 동지)이 이곳에 군대가 없다며 그들을 데려왔으나 인민군의 입장에서 적군인 국군과 대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정하는 것마다 와 이럽네까?'라는 말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치성을 원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뒤에 이어지는 '죄 없는 부락 사람들 피해 주지 말고 일단 나가자...!'라는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③ 앞선 석용의 말은 대치 중인 인민군과 국군을 배려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둘 사이의 긴장 완화, 혹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마을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촌장은 '석용'의 이름을 '지긋이' 부르며 석용을 제지하고 있는 것이다.

⑤ 마당에 송장 길이 생긴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므로, 자극적인 말을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을 위협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보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국군과 인민군을 중재하려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A]에서는 처음에 총을 들고 대치를 하다 수류탄을 빼 들지만 <보기>에서는 첫 등장부터 동치성과 서택기의 손에 수류탄이 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에서는 '작가'라는 인물이 마치 소설의 서술자처럼 장면 속의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A]에서는 그와 같은 인물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④ [A]의 '영희와 백기도 눈치챘다... ~ 그저 수군거리고만 있다.'라는 부분과 <보기>의 첫 부분의 '곧... 그 뒤에 나타난 동치성과 장영희, ~ 표현철과 문상상 곧 총을 겨누며 대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마을에 모인 인물들의 행동과 심리를 지시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⑤ [A]에서 영희가 '상위 동지 ~ 와 이럽네까?'와 같이 말하는 부분과 <보기>에서 영희가 '국방군도 있구만...'.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면 두 글 모두 국군이 인민군보다 먼저 마을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평상'이 갈등하고 있는 인물들인 국군과 인민군을 공간적으로 분리해 주는 것은 맞는다. 하지만 그것을 가운데 두고 국군과 인민군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으므로, '평상'이 둘 사이의 긴장을 해소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은 서로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총이 인물들 사이의 갈등 상황을 부각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총'을 '수류탄'으로 바꿔 줌으로써 갈등의 상대뿐만 아니라 국군과 인민군 사이에 놓인 마을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빠

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수류탄은 장면의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는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④ ‘멧돼지’는 마을 밖 존재로, 마을 사람들의 감자밭을 망쳐 그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국군과 인민군과 같이 외부인이 마을 사람들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⑤ ‘팝콘 비’가 내리고 나서 대치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같은 행동, 즉 잠에 빠지게 된다. 잠에 빠지는 것은 긴장의 이완을 의미하므로, 팝콘 비는 긴장 상태에서 대치하고 있던 이들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변화하게 하는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06 극·수필

본문 230~232쪽

01 ①

02 ⑤

03 ⑤

■ 조위, 「규정기」

해제 이 글은 글쓴이가 의주로 유배를 가서 정자를 짓고 이름을 ‘규정’이라고 붙인 이유를 밝힌 한문 수필이다. 글쓴이는 ‘손님’이 정자 이름에 해바라기를 뜻하는 ‘규(葵)’를 붙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해바라기와 닮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자신이 해바라기처럼 보잘것없다고 멸시당하지만, 충성과 지혜가 있는 존재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유배지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정이 변치 않음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주제 정자의 이름을 ‘규정’이라고 한 이유

구성

- 기: 정자의 이름을 ‘규정’이라고 지음.
- 서: 정자의 이름에 대한 손님의 질문과 글쓴이의 답변
- 결: 글쓴이의 답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손님

01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내가 소나무나 ~ 되지 않겠습니까?’에서 설의법을 사용해 소나무나 대나무와 같은 것으로 이름을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지금 내가 ~ 근거도 없다 하겠습니까?’에서 설의법을 사용해 해바라기로 이름을 지은 것이 근거 있다는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과거 자신이 의주로 귀양을 간 일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회한의 정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심휴문’과 ‘사마군실’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나오지만 이는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글쓴이의 낙천적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글에서 ‘세 든 집이 낮고 좁아서 덥고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처럼 공간적 배경을 통해 글쓴이의 처지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옛사람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지는 않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가 유배지에서 정자를 지은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배지의 세 든 집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물이 한결같지 않은 것은 그리 타고나서 그런 것입니다.’는 사물의 품성이 태생적임을 드러낸 것이다.
- ② ‘사람들은 천히 여겨 사람대접을 하지 않고, 식물도 나를 서먹서먹하게 내치는 형편’이라는 말을 통해 그가 유배지에서 멸시를 당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천하에 버릴 물건도 없고 버릴 재주도 없다’는 세상 모든 존재가 제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 ④ 손님은 옛사람들이 식물을 볼 때 풍치와 향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혜초는 식물 가운데 굳고도 세어서 특별한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닌 것들입니다.’라는 글쓴이의 말을 통해 그가 옛사람들의 식물 평가 기준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그대 정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더할 것이 없어졌다’는 손님의 말은, 유배지에서 정자를 짓고 해바라기와 관련한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글쓴이의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지 해바라기와 관련하여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손님은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해바라기를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이나 혜초’ 등에 비해 하찮게 여기는 일반인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② ‘당신은 해바라기에서 무엇을 높이 사신 것입니까?’라는 손님의 말은 정자의 이름에 궁금증을 표현한 것이고, 이에 글쓴이가 답하는 방식을 통해 정자 이름을 ‘규정’이라고 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③ ‘지금 황량하고 떠나면 적막한 바닷가로 쫓겨’난 글쓴이의 신세는 유배를 당한 자신의 신세를 나타낸 것으로, ‘천한 식물로 짝하겠다’는 것은 이런 자신이 해바라기와 같은 처지임을 나타낸 것이다.

④ ‘충성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이고 ‘지혜라고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것은 해바라기의 덕성을 나타낸 것인데, 이는 글쓴이가 비록 유배지에 있지만 여전히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신하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07 극·수필

본문 233~235쪽

01 ③

02 ①

03 ①

■ 윤오영, 「참새」

[해제] 이 작품은 한국 전통의 정서를 회고적인 필치로 그려내고 있는 수필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농촌 마을에서는 매우 흔한 새였으나 지금은 씨가 저서 보호 대책이 시급해진 참새에 대한 상념이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고 보잘것없는 자연물일지라도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태도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참새와 관련하여, 참새를 대하는 우리 민족의 후덕한 정서와 풍요로운 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것에 대한 글쓴이의 관심, 사라져 가는 옛것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삭막해져 버린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 등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주제]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참새에 대한 상념

[구성]

- 처음: 잠결에 들은 듯한 참새 소리에 잠에서 깨어남.
- 중간: 참새에 대한 상념을 떠올리며, 참새가 사라져 가는 세상에 대해 비판함.
- 끝: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해 준 참새 소리를 생각하며 상념에 잠김.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첫 번째 문단에서는 글쓴이가 잠결에 참새 소리를 들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으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참새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의 중심 소재인 참새를 부각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 길이가 짧은 문장이 사용되고 있으나 과거형보다 현재형 진술이 대부분이며, 과거형의 문장을 통해 상황을 속도감 있게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② [A]에는 특정 대상과 말을 주고받는 방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대상과의 교감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④ [A]에서 대상들 간의 공통점들을 다양하게 나열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교훈적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지 않다.

⑤ [A]에서 상황의 문제점으로 제기될 만한 내용을 의문형의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잠결에 참새 소리를 듣고 난 이후 참새가 흔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되므로, 참새 소리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참새 소리가 과거에 꿈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던 소리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 글의 환상적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글쓴이가 참새 소리와 관련하여 특정 인물인 목단이를 회상하고는 있으나 목단이가 일정한 사건을 후회하고 있지 않으며, 참새 소리가 그 사건과 관련 있는 소재라고도 보기 어렵다.

④ 참새 소리는 글쓴이로 하여금 사라져 가는 옛것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삭막해진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 등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노년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⑤ 참새 소리를 통해 글쓴이가 느끼는 안타까움은 옛것이 사라져 가는 오늘날에 대한 감정이므로, 학문에 힘쓰지 못했던 자신의 과오에 대한 안타까움을 참새 소리를 통해 환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미물들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가 않다.’는, 부엉새나 까마귀와 달리 제비, 까치, 참새 등이 인간의 삶과 가까웠으며, 이에 따라 달리 느낄 수 있었던 친밀감의 정도를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자연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의 규칙이나 작동 원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저녁때는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저녁이 되어 귀가하는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다 같이’라는 표현을 통해 참새와 같은 자연과 인간의 거리를 매우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꽃가지를 꺾어 방 안에서 시들리’게 하거나 ‘돌을 방구석에 옮겨 놓고 먼지를 얹혀 이끼를 말리’는 행위는 다른 생명체인 자연물을 함부로 다룰 수 있다는 발상을 내포한 행동이다. 이는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체인 자연물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글쓴이는 그러한 행동이 지닌 위험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다른 생명체인 자연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을 두고 ‘악취미’, ‘살풍경’이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따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보다 도덕적인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인간의 행복’이 참새와 같은 자연물과도 관련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에는 모든 생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08 **극·수필** 본문 236~238쪽

01 ② **02** ② **03** ②

■ **유경환, 「두물머리」**

해제 이 작품은 글쓰이가 두물머리를 볼 수 있는 운길산을 여행하고서 여행의 감상을 담아 쓴 기행 수필이다. 글쓴이는 두물머리에서 두 물줄기가 만나는 모습에 주목하고 만남의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우주 만물이 만남의 이치를 따름을 인식하고서 그러한 이치가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떠올리고, 인간에게 비추어 볼 때 물이 얼마나 큰 미덕을 지녔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또한 이러한 깨달음의 결과 두물머리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다가온다는 미적 체험의 내용을 진솔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두물머리를 바라보며 떠올린 삶의 이치

구성

- 처음: 두물머리라는 지명이 주는 느낌과 두물머리를 잘 볼 수 있는 장소
- 중간: 두물머리를 바라보며 떠올린 만남의 의미와 물이 지닌 미덕
- 끝: 두물머리를 바라보며 느끼는 황홀함.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B]에서 두물머리를 바라보면서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다산 선생의 유적지’, ‘수종사’, ‘세미원’, ‘종합 영화 촬영소’ 등과 같은 두물머리 주위의 구체적인 장소를 열거하여 두물머리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C]의 ‘두 물줄기가 서로 껴안듯 만나’, ‘서로가 서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서술에서, 두 물줄기에 인격을 부여하여 그것이 주는 조화로운 인상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D]의 ‘사람이 그 어떤 ~ 다물어야 옳다.’에서 당위성을 드러내는 표현을 통해 물이 숭고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E]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지닌 인품의 향기’에 빗대어 물이 지닌 유연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글쓴이는 ㉠을 견디면서 참아 내느라 반성과 성찰, 사색을 하게 되고, 계속된 사색의 과정을 통해 ‘자기와의 만남이 가져오는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쓴이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만나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지 못하면’ 외로울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만나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지 못하면’ 외로울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인간은 반성과 성찰, 명상을 통해 ‘자기와의 만남’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을 견디면서 참아 내는 과정에서 반성과 성찰의 기회가 오며 명상도 따르게 마련이라고 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물은 인간과 달리 ‘개체라는 것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물이 아닌 인간이 다른 하나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에서 비롯된 물음의 ‘해답을 찾는 노력의 사색’으로서 명상을 한다고 하고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계절의 틀을 벗어날 능력이 사람에겐’ 있다는 말은 사람의 경우 ‘서로 만나서 하나 되는 기간’이 일반적인 우주 만물에 비해 길고, 그래서 외로움을 겪으며 사색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도 사색 끝에 ‘자기와의 만남’을 경험하며, 사람보다 더 긴 시간을 거쳐 ‘큰 하나’를 이루는 ‘물’도 순환하는 만물의 이치를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글쓴이가 인간의 삶이 순환하는 만물의 이치에서 벗어나 있다고 여긴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두물머리를 시원스럽게 보기 위해 ‘물가가 아닌 산 중턱’ 즉 ‘운길산에 이르는 산길’을 여행했음을 밝히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 장소는 글쓴이가 두물머리에 대한 개성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글쓴이는 사람이 사색을 통해 성숙에 이를 수 있지만, 아무리 길고 긴 사색을 한다 해도 ‘물이 바다에 이르기까지 맞고 또 겪는 것에 비하면’ 물의 경지에까지는 이르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물이 ‘상선약수의 본’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물의 가치는 인간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글쓴이가 떠올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글쓴이는 물이 지닌 속성에 비추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이끌어 낸다. 그리고 ‘오늘 보니 두물머리는 그 이상이’라고 하면서, 두물머리에서 숲에서 느끼는 아름다움보다도 더 큰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글쓴이가 두물머리라는 자연물을 매개로 사색을 한 결과, 그 자연물에서 이러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⑤ 글쓴이는 물의 ‘편안한 흐름’이 ‘그 위의 모든 것 다 받아 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열고 있다고 하면서, 물의 ‘이런 수용이 얼마나 황홀한지’를 다 전하기 어렵다고 표현한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표현에서 만물을 끌어안는 물의 형상을 보며 글쓴이가 느낀 감동의 깊이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01 갈래 복합

본문 239~243쪽

01 ③ 02 ① 03 ④ 04 ③ 05 ② 06 ④

(가) 신현조, 「벌의 줄 잡은 것을 ~」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강원 감사로 있을 때, 선정을 다짐하고 지은 시조이다. 백성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선정을 베풀 수 있는데, 이전들의 고압적인 자세에 백성이 위축되어 할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주제 백성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 비판

구성

- 초장: 전할 뜻이 있어 공사문에 와 있는 초라한 백성의 모습
- 중장: 형방과 나졸들이 억박질러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 종장: 도달민정을 위한 평이근민의 태도의 중요성

(나) 김창협, 「착빙행」

해제 이 작품은 엄동설한에 얼음을 채취하는 노동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모습과 무더위 속에서 얼음을 즐기는 양반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이를 통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주제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실 고발

구성

- 1~12행: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는 부역에 시달리는 백성들
- 13~20행: 무더위 속에서 얼음을 즐기는 양반들

(다) 이옥, 「유광역전」

해제 이 작품은 유광역이라는 인물을 통해 과시를 파는 행위가 만연한 사회의 타락상을 비판하고 있다. 작가는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주인공이 남의 과거 시험 답안을 대리로 작성해 살아가는 처지를 드러내면서 이 세상에 팔지 못할 물건이 없게 된 상황을 풍자하고 있다. 작가의 별호인 ‘외사씨’와 ‘매화외사’를 등장시켜 과거에 부정행위가 만연한 당시 세태와 유광역에 대한 논평을 덧붙이고 있다.

주제 과거 시험의 부정과 타락한 사회상 비판

전체 줄거리 유광역은 일찍이 영남 향시에 급제하여 서울로 시험을 치르러 올라가다가 은밀하게 어느 부잣집으로 인도된다. 유광역은 부잣집 주인의 아들을 위해 과거 시험의 답안을 대신 작성해 주는데, 이로 인해 주인의 아들이 진사가 되자 유광역은 후한 대가를 받게 된다. 유광역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과거 시험 답안을 대리로 작성해 이익을 취한다. 그러던 중 경상 감사와 경시관이 유광역의 글을 찾아내는 것으로서 글에 대한 안목이 있음을 입증하는 내기를 하는데, 경시관이 과장에서 뽑은 시험 답안들에는 유광역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경시관이 몰래 알아보니, 시험 답안들은 모두 유광역이 돈을 받은 액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어 준 것이었다. 경시관은 감사와 내기를 한 터였으므로 죄를 범한 사실을 증거로 얻기 위해 유광역을 잡아 오게 한다. 유광역은 지레 겁을 먹고 잡혀가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술을 마신 뒤 강물에 빠져 죽는다.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B]는 백성들이 노동을 하는 시간적 배경을 ‘낮은 짧고 밤은 길어 밤에도 쉬지 않고’라고 제시하여 겨울밤에도 고된 노동을 하는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A]에

는 공간적 배경만 언급되었을 뿐,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는 백성이 소지를 들고 공사문을 지나 형방과 나졸을 만나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B]에는 백성들이 짧은 옷과 맨발 차림으로 일을 하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매서운 강바람을 맞으며 손가락이 얼 정도로 고생스럽게 노동하는 모습이 촉각적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다.
- ② [A]는 형방을 ‘쥐’에 비유하고 나졸을 ‘범’에 비유하여 간사하고 무서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B]가 아니라 [A]에서 대상의 성격을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A]에는 ‘아뢰어라’고 한 나졸과 형방의 발화가 인용되어 있으나, [B]에서는 발화를 인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⑤ [A]와 [B]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나열하고 있지 않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㉔는 고당 위에서 얼음을 꺼내 오는 미인의 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노동을 하지 않은 고운 손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㉕는 얼음을 깨는 과정에서 훑날리는 얼음 부스러기를 가리킨다. 따라서 ㉔와 ㉕는 모두 무더위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과 대비되는 상황을 부각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㉔와 ㉕는 현실 상황인 고당 위의 모습과 관련 있는 이미지이다. 따라서 현실과는 다른 이상적 세계의 몽환적 분위기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㉔는 무더위와 관계없이 즐거움으로 가득한 고당 위에서 얼음을 내어 오는 미인의 손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미인의 정갈함을 상징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㉕는 차가운 얼음과 관련된 표현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㉔는 고당 위에서 얼음을 내어 오는 미인의 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맑은 얼음의 속성을 강조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㉕는 차가운 얼음을 깨면서 나오는 얼음 부스러기를 의미하므로 대낮의 밝음을 강조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㉔는 무더위와 관계없이 즐거움으로 가득 찬 고당 위에서 얼음을 내어 오는 미인의 손의 이미지이다. 따라서 ㉔를 생기를 잃은 백성들의 모습을 시각화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㉕는 얼음을 깨는 과정에서 나오는 얼음 부스러기와 관련된 표현일 뿐, 유흥에 취한 관리들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경시관은 감사와 유광역의 글을 알아내느냐 못 하느냐로 내기를 한 사람이다. 심지어 유광역이 다른 사람들의 글을 대신 써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사가 자신의 글 보는 안목을 믿지 않을 것을 먼저 걱정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경시관은 능력 있는 자가 쓴 글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인 것이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유광역은 ‘나는 과적이라 가더라도 역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죄가 큼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유광역은 과거의 글에 득의해 늙었는데도 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로, 장원부터 삼등까지 차등을 두고 답안을 써 줄 수 있을 정도로 과체에 능하였다.
- ③ 감사는 경시관이 시제를 내기 전부터 유광역이 글을 잘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남의 인재 중 누가 제일이라는 경시관의 질문에, 유광역이라고 답을 한 것이다.
- ⑤ 주인은 아들을 진사에 합격시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 대신에 글을 써 주는 유광역을 부모 모시듯 하며 매일 다섯 번의 진수성찬을 바치고, 공경히 대하였다.

04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광역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군자의 말을 인용하여, 팔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매매의 수단으로 여기는 유광역의 태도를 비판하며 그의 죽음이 마땅한 것이라는 당대의 논평을 소개하고 있다. 돈에 따라 글의 수준에 차등을 둔 것에 대해 공평하지 않은 유광역의 태도를 비판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서 「유광역전」이 인물의 내력을 기록하는 일반적인 인물전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유광역의 내력을 먼저 기술하기 이전에 이곳을 추구하는 행위를 경계하는 말로 글을 시작하고 있는 점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 ② <보기>에서 「유광역전」이 인물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과거 시험 답안을 대신 써 주며 이익을 챙긴 유광역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술되고 있다는 점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 ④ <보기>는 「유광역전」이 ‘매화외사’의 말이라고 하여 저자의 평결을 신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매화외사가 유광역을 마음까지 판 자라며 비판하는 부분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⑤ <보기>는 「유광역전」이 인물을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대 사회를 향한 비판도 함께 제시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범전의 내용을 제시하며 글을 파는 것과 사는 것이 죄가 같다고 하면서 글을 팔고 사는 것이 만연한 사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부분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05 작품 간 비교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화자는 백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려면 편만한 통치로 백성을 가까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가)의 화자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하면, 통치자가 ‘얼음을 깎아 내’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백성을 혼비백산하게 하는 주체를 ‘쥐 같은 형방 놈과 범 같은 나졸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에서 한겨울 강가에 나온 ‘천 사람 만 사람’은 뒤이어지는 ‘쨍쨍 도끼 휘두르며 얼음을 깎아 내’는 모습과 연결 지어 볼 때, 얼음을 깎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화자는 통치자가 평이근민해야, 즉 백성을 가까이해야 백성의 뜻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에서 광역의 글을 알아내는 것을 두고 경시관과 감사가 ‘내기’를 하는 것은 글을 보는 경시관의 안목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므로 이를 백성을 가까이하는 태도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화자는 형방과 나졸들이 억울한 백성을 혼비백산하게 하여 그들의 뜻이 통치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다)에서 광역의 재능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광역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면서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에서 화자는 통치자에게 제대로 백성의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중간 관리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다)에서 군자는 광역의 죽음에 대해 ‘광역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한 인물로, 글을 파는 행동이 매우 잘못되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군자의 평을 백성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는 백성의 목소리가 형방과 나졸 등 중간 관리들로

답 ②

답 ④

인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현실을 풍자하며 도달민정이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통치자의 ‘평이근민’의 자세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백성 스스로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폭로하고 있는 것은 형방과 나졸이 제대로 된 송사를 막고 있는 현실이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폭로하는 것은 추운 겨울 힘들게 얼음을 깨던 백성들이 정작 무더위 속에서는 더위에 죽어 가는 현실이므로 적절하다.

③ (다)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폭로하고 있는 것은 과거 글을 사고파는 현실이므로 적절하다.

⑤ (다)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당위적 현실은 마음만큼은 사고파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현실이므로 적절하다.

02 갈래 복합

본문 244~248쪽

01 ③ 02 ⑤ 03 ② 04 ③ 05 ① 06 ④

(가) 이광사, 「늙은 소의 탄식」

【해제】 이 작품은 늙은 소의 행태에 대한 묘사를 통해 평생 동안 고난을 겪은 화자가 느끼는 인생무상을 표현한 한시이다. 이광사는 대대로 고관대작을 지낸 명문가 출신으로서 서화에도 이름이 높았으나, 영조 대에 이르러 당쟁의 여파로 집안도 몰락하고 본인도 유배를 당하였고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화자가 늙은 소를 보면서 자신을 투사하여 옳은 작품일 수도 있고, 늙은 소를 화자로 내세워 자신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일 수도 있다.

【주제】 늙은 소와 같은 신세가 된 삶에 대한 탄식

【구성】

- 1, 2행: 늙어서 힘이 빠진 소의 고난
- 3, 4행: 일이 없는 늙은 소의 소외
- 5, 6행: 수척해진 현재와 건강했던 과거의 대비
- 7, 8행: 무기력한 현재의 삶에 대한 한탄

(나) 유몽인, 「노비 반석평」

【해제】 이 작품은 유몽인이 편찬한 『어우야담』에 실린 이야기로서 재능이 뛰어난 노비의 삶을 통해 그 재능을 알아보는 재상의 안목과 끝까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노비의 진실한 마음을 이울러 보여 준다. 이 지문에서는 유몽인의 논평을 생략하였는데, 원문에서는 이 논평을 통해 유몽인은 신분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인제 등용 제도에 대해 비판도 하면서 재상과 노비의 아름다운 마음을 고평하였다.

주제 능력 있는 노비의 성취와 진실한 처신

구성

- 도입: 재상의 배려로 배움에 힘쓴 반석평
- 전개: 사회적으로 성공한 반석평
- 절정: 몰락한 재상가의 후손들을 깎듯하게 예우한 반석평
- 결말: 과거를 자백하고 국가의 인정을 받은 반석평

(다) 김용준, 「계」

해제 이 작품은 계를 그림의 소재로 즐겨 선택하는 까닭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번잡한 세상사에 대한 글쓴이의 은근한 비판을 드러낸 수필이다. 글쓴이 김용준은 화가이자 미술 평론가, 미술사학자로서 해방 전후에는 특정 이념 중심의 당대 문화 예술계와 비판적인 거리를 두면서 활동해 왔다. 이 작품은 그의 예술관을 드러내면서 계의 생태적 속성을 인간사에 비추어 보는 발상을 바탕으로 당시의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과 이에 대응하는 인간들의 다양한 면모를 함축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주제 그림을 그릴 때 계를 화제로 삼는 이유

구성

- 처음: 작가의 청고한 심경이 담긴 예술의 가치
- 중간: 계를 화제로 즐겨 선택하는 이유
- 끝: 계의 생태적 특성과 그에 대한 복합적 감회

01 사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제5행에서 갈까마귀가 소가 수척한 것을 슬퍼한다고 한 것은, 갈까마귀가 소의 등에 붙은 등애를 쪼아 먹다가 오히려 소를 측은히 여긴다는 뜻으로, 그 정도로 소가 야위었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다. 제6행에서는 강한 힘을 발휘했던 젊은 시절과 대비되는 현재의 수척해진 처지를 보여 준다. 여기에서 화자가 소를 측은하게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시의 화자가 늙은 소라면 자기 연민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1, 2행은 고된 노동을 감당해 낼 수 없을 정도로 늙어 버린 소의 고난을 묘사한 것이다. 소의 가치에 대한 시선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가 천대받고 있다는 비판적 시선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제4행에서는 배꼽으며 밤을 보내는 소의 모습이 나온다. 따라서 이는 소의 평온한 안식으로 보기 어렵다. 이를 이상적인 것으로 보는 인식도 확인할 수 없다.
- ④ 제7, 8행에는 늙어서 쓸모가 없어지면 버림받는다라는 이치를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이에 대한 회한이 표현된다. 화자와 소의 연인이 파탄 난다는 뜻을 담은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제2행에서는 무거운 짐을 끄는 소의 모습이, 제6행에는 쟁기를 달고 밭을 가는 소의 모습이 나오지만, 이에 대해 고마워

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이 가능했던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제시된 소의 형상이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조정에서 재상의 아들에게 관직을 내린 것은 반석평이 예전의 벼슬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조치의 근거는 재상과 반석평의 의로움이었다. 그러므로 재상의 아들에게 관직을 내린 것은 재상의 의로움을 높이 산 결과라 할 수 있다. 조정이 재상 아들의 타고난 능력을 감지했음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어디에도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조종을 감추고’라는 말을 볼 때, 재상이 반석평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주인집과 통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인연을 끊기 위해서였고, 이는 반석평이 자신과 인연을 이어 가는 한 노비 신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② 하필 아들 없는 사람을 택하여 반석평을 내어 준 것은 그가 아들이 이미 있는 사람에 비해 반석평을 아들로 받아들이기 쉬운 조건임을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③ 법적으로 노비에게 금지된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석평은 반드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시골의 아들 없는 사람은 양반으로 추정되고 그가 반석평을 가족으로 받아들였기에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를 고려하면 이는 더욱 합리적인 추론이 된다.
- ④ 늙은 벼슬에 있었던 반석평이 재상의 자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굳이 스스로 노출하면서 예의를 갖춘 것은, 재상에게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03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이 작품은 노비 반석평과 그의 주인인 재상의 아름다운 마음을 그려 내고 있지만,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신분 차별로 인한 인재 손실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는 작품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인재 등용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 구체적으로는 인재 등용에서 신분과 개인의 능력 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기준인가 하는 질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사실을 자백한 반석평을 위해 국법을 파기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법을 달리 해석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질문으로 보

기 어렵다.

③ 재상이 노비인 반석평의 신분을 은폐하는 데 기여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 그 자손들이 몰락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④ 반석평이 신분 상승의 욕구를 바탕으로 국법을 어기고 벼슬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동체의 피해를 낳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질문은 재상과 반석평의 의로운 행동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작품의 주제 의식과도 모순된다.

⑤ 이 글에서는 이타적인 행동은 나타나지만 이로 인해 어떤 그릇된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 없다.

0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뿌리의 일부가 흙 밖에 있을 수는 있지만 뿌리가 아예 흙 속에 묻히지 않은 난초가 있을 리가 없다. 그런데도 글쓴이가 이 그림에 가치를 부여한 것은 우선 '사물의 형용을 방불하게 하는 것만으로 장기로 치는 데 그치지 않고'에서 확인되듯이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관점의 소산으로 보인다. 그리고 작가의 청고한 심경을 중요시하고 있는 관점에서 조국이 이민족에 짓밟힌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정소남의 기개에 찬 의지를 예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글쓴이는 정소남이 사실과 다르게 난초를 그림으로써 오히려 작가의 현실 인식을 더욱 잘 드러내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해당 구절의 다음 문단에서 '사물의 형용을 방불하게 하는 것만으로 장기로 치는 데 그치지 않고'라고 하여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② 난초의 형상을 실제와 다르게 그렸다는 점에서 왜곡이라 할 수 있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 누구나 겪는 생존 경쟁을 상징화했다는 평가는 사실에 어긋난다.

④ 흙에 묻히지 않은 난초 뿌리를 그린 것을 미화라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 아름다움을 과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난초의 잎과 뿌리가 지닌 가치의 우열을 드러낸 것으로 볼 근거가 없고, 따라서 난초에 대한 통념을 전복했다고 볼 수도 없다.

05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환과 예술을 가르는 기준 또한 작품이 작가의 청고한 심경을 담아내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했다. 따라서 예술 작품은 작가의 심경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글쓴

답 ③

이의 예술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술관에 따라 글쓴이는 계의 생태적 특성 때문에 글쓴이 자신의 심경을 다양한 의미로 담아내기에 적절하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계가 글쓴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중의 많은 인사를 닮은 모습을 보인다고 한 데서 자신과 우리 민족에 대한 어느 정도 자조적인 태도가 나타나지만, 역사적 애환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③ 글쓴이가 낚시를 하러 가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것이 계가 좋은 화제가 되는 이유는 아니다.

④ 창자가 없는 계의 생태적 특성 때문에 계를 화제로 선택한다고 했지만, 단장의 비애는 비유적 표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피하려 하는 것을 삶의 이치로 보는 관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뻘뻘스럽고 염치없는 친구에게도 그려 보낼 수 있는' 좋은 화제라고 했지만, 받는 이를 비웃고자 하는 의도를 감추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드러내어 전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 반석평이 주인집 아들과 조카들에게 관직을 줄 것을 청한 것은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재상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개인적 보은의 의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만일 반석평이 충성스러운 신하의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주인집의 아들과 조카들만을 특정해서 관직을 내려 달라는 요청을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② 무거운 짐을 끌 만한 힘이 없어진 늙은 소는 화자이자 작가 자신을 우의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불우했던 인생사를 가진 작가는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처지를 늙은 소가 한탄하는 목소리를 빌려 표현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명성만 남았다는 것은 젊은 시절 얻었던 명성을 염두에 둔 것이고, 실속도 없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 권력을 온전히 행사해 보지도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③ 반석평이 노비가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분을 숨기고 과거에 응시한 것은, 노비의 신분으로서 느끼는 위화감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입증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글쓴이는 계와 자신의 모습과 닮은 점을 발견하고 있는데, 이는 계를 화제로 즐겨 선택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약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른 채 사회적 권력으

답 ①

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가 나타난다.

03 갈래 복합 본문 249~254쪽

01 ② 02 ① 03 ② 04 ③ 05 ④ 06 ④

(가) 김상용, 「훈계자손가」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중기 때의 문신인 김상용이 지은 총 9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작가는 병자호란 때에 왕족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했다가 강화 산성이 함락되자 자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대의명분을 중시한 유학자인 작가가 유교의 도덕적 가치관과 규범에 기반하여 후손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 것을 권고할 목적으로 지은 것이다.

주제 바람직한 삶에 대한 가르침

구성

- 제1수: 아버지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할 것을 권고함.
- 제2수: 남을 험담하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볼 것을 권고함.
- 제3수: 바른 언행을 할 것을 권고함.
- 제5수: 남과 싸움하지 말 것을 권고함.
- 제6수: 허물을 고쳐 어진 사람이 될 것을 권고함.
- 제8수: 욕심을 버리고 악행을 금할 것을 권고함.
- 제9수: 부모를 잘 섬기고 학업에 충실할 것을 권고함.

(나) 이정작, 「옥린몽」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문인 이정작이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글본과 한문본이 모두 전해지고 있는 고전 소설이다. 이 소설은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범(范) 공자와 그의 두 처인 유(柳) 부인과 여(呂) 부인 사이의 갈등과 화해가 주요 내용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사씨남정기」와 같은 쟁쟁형 가정 소설로 구분되기도 하며, 일련의 사건들이 가문 간의 관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가문 소설의 앞선 형태로 보기도 한다. 이 작품의 서사는 중국적으로 유원(柳原)의 입신양명과 가정의 화평을 강조하는데, 이는 작가가 유교 이념에 기반한 덕목의 실천을 철저히 구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주제 혼인에 의한 인물의 갈등 극복과 가정의 화평 추구

전체 줄거리 범경문과 유 소저는 양가 부모들의 악속에 의해 정혼을 맺었으나, 부마 여 씨가 황제를 동원하여 범경문을 자신의 딸과 먼저 혼인시킨 후에 유 소저와 혼인하게 한다. 범경문이 여 부인보다 유 부인을 편애하자 여 부인은 질투심을 못 이겨 유 부인을 제거하려고 한다. 한편, 유 부인의 동생 유원은 높은 벼슬에 오르고, 범경문은 호국(胡國)과 화의를 맺기 위해 사절로 간 곳에서 정변이 일어나 구금된다. 경문이 부재한 틈

에 여 부인은 일을 꾸며 유 부인을 집에서 떠나게 한다. 유원도 여 부인이 보낸 자객의 습격을 받아 죽게 될 위기를 겪지만, 모 부인의 간호로 회복한 후, 호국이 침범해 오자 대원수가 되어 호군을 격파하고 구금되었던 범경문을 구하여 돌아온다. 유 부인의 시비인 윤희의 역할로 여 부인의 죄악이 밝혀지자 유 부인은 유배지에서 돌아오고 여 부인은 귀양을 가게 된다. 이에 여 부인의 악행으로 흠어졌던 유원의 가족들이 모두 모이게 되고, 여 부인도 잘못을 뉘우쳐 유 부인의 탄원으로 죄를 용서받고 풀려남으로써 양가 모두 영화와 화평을 누린다.

01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제2수>에서는 ‘남의 말’을 하는 행위를, <제5수>에서는 ‘남과 싸우’는 행위를 하지 않게 권하고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가져다줄 수 있는 이점과 해악을 대조하여 그 행위의 실질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1수>에서는 ‘아이들’이라는 칭자를 명시하고, ‘~ 배위 스라’, ‘~ 얻어라’와 같은 칭자에게 명령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교훈의 대상과 내용인 ‘아버지 효도’, ‘어른을 공경’, ‘효제(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를 닦’는 일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③ <제3수>에서는 ‘내 몸이 착하지 않으면’과 같은, <제6수>에서는 ‘그른 일’을 ‘알고도 또 하면’과 같은 화자의 바람에 반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가정하여 그러한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④ <제8수>에서는 ‘몹쓸 일’을 하여 ‘한 번 악명을 얻으면’ 어떤 물로도 씻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욕심으로 몹쓸 일을 하는 행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환기하며 악행을 경계하고 있다.

⑤ <제9수>에서는 <제1수>의 주제인 부모에 대한 효도라는 내용을 공유하되 칭자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문안’, ‘공경하여 섬기기’, ‘글 배워 읽’기와 일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나열하고 있다.

02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소저가 입으로 말하지는 아니하나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 하더라.’, ‘정 부인이 쓸쓸하게 얼굴빛을 바꾸고 눈썹을 찡그리며’와 같이 인물의 표정을 묘사하여 해당 인물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나)에서는 자연물의 특성을 활용하여 인물들 간에 친밀하

거나 소원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③ (나)에서는 장소의 변화는 나타나지만, 사건을 평면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병치하여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조정, 범생의 집, 유가의 집 등으로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만, 그 공간에 대한 배경 묘사를 통해 갈등 진행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대화에서 범생과 유 씨의 정혼에 대해 언급될 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장면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03 인물의 성격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황제가 경완의 아우와 공주의 딸의 혼인을 추진하려고 하자 경완은 거듭 사양하지만 황제는 '짐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다시 물리쳐서 내치지 말라.'라고 말한다. 이에 경완은 '마지못하여' 황제의 뜻을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경완이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자신의 아우와 여 씨의 혼례를 추진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공주는 황제에게 나아가 '항상께서 권고하지 않으시면 일이 진실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다. 이로부터 공주는 황제의 권력에 의지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딸과 범생의 혼인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③ 황제는 범생이 '뛰어난 재주가 있는데 어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할까 근심하겠는가?'라고 말한다. 이로부터 황제는 범생이 과거 시험을 통과할 만한 학문적 재능을 갖추었다고 추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유가의 정 부인은 여 씨가 '현명한 사람을 시기하여 상대방을 재해에 빠지게 한다면 어찌 너의 일생이 가련할 뿐이겠는가?'라고 말한다. 이는 딸이 혼인한 후 여 씨의 질투로 인해 겪게 될 수 있는 고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유 씨는 '이것은 모두 팔자에 있는 앞날의 운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유 씨가 자신과 범생의 혼례에 앞서 여 씨와 범생의 혼례가 먼저 추진되는 것을 운명으로 간주하여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04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남들이 항상 보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맥락에서의 '내 모습'이다. 따라서 청자가 타인들로부터 자신의 언행을 평가받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화자가 청자에게 인용하여 전하는 타인의 말이 아니라, 남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② ㉢은 화자가 현재 자신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리켜 청자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그 자신을 뜻하는 표현이다.

④ ㉣은 대화의 상대방인 경완의 말은 맞지만, 그 말이 발화자인 황제 자신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반하는 것이다.

⑤ ㉤은 발화자인 황제가 자신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대방의 걱정에 대한 발화자의 공감이나 상대방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볼 수는 없다.

0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황제가 제안한 혼인을 경완이 사양한 것은 아버지가 맺은 정혼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경완의 모습은 사대부 가문과 황실 사이의 신분 차이에 따른 상하 명분을 엄격히 지키려는 모습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시할 만큼 사대부 가문 간의 약속을 중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범생과 유 씨가 부모들이 약속한 정혼을 실행하지 못한 것은 황족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사대부 가문의 남녀가 혼인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공주가 딸의 혼례를 추진하기 위해 '예의에서 금하는 것을 어기'면서까지 황상의 개입을 청원하는 것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는 일부 황족이 도덕적 결함을 가진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조정의 모든 관리들이 황제에게 '소년의 문장이 당대에 제일인가 합니다.'라고 범생의 문장 능력에 대해 칭찬한다. 이 말은 범생이 <보기>에 설명된 학문적 교양이나 글재주와 같은, 사대부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⑤ 태 부인은 혼례일에 여 씨를 맞으면서 남편의 유언인 정혼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며느리를 맞는 것으로 인해 불평한 마음을 가지고 근심한다. 그리고 '황제의 은혜가 도리어 좋은 일에 방해가' 된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태 부인의 태도는 늑훈, 즉 강제적 혼인을 이행한 황족에 대한 사대부 가문의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 유 씨는 여 씨가 ‘좋은 가문에서 성장하였’다는 가정 환경을 근거로 하여 그 성품의 수준을 가늠해서 말하고 있다. 이때 유 씨는 여 씨의 몸가짐과 어른 섬기는 법도가 자기보다 뛰어난 것이라고 칭찬하며 긍정적으로 말한다. 따라서 (가)의 기준에서 ‘남의 말’, 즉 남의 허물(흥)을 들추어내면서 ‘내 몸을 살’피지 않고 말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이 아닌 것을 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범생은 유 씨와 정혼하였으므로, 범가에서는 공주의 구혼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딸의 모습을 안쓰러워하여 범생을 사위로 맞으려고 황제의 권력에 기대어서 수를 쓰는 공주의 모습은, (가)의 기준에서 볼 때 ‘욕심이 난다고 몸쓸 일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선이 아닌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임금의 명령으로써 아버지의 명령을 어그러지게 할 수 있겠’냐고 말하기까지 한 황제가 결국에는 공주가 청한 여 씨의 중매를 추진한다. 이는 (가)의 기준에서 볼 때 황제가 ‘그른 일’을 ‘알고도’ 감행한 것이므로 선이 아닌 행위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경완은 아우의 ‘재주와 학문이 얇고 짧’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긴 말씀에 따라 과거 급제를 하기 위해서는 학문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가)의 <제9수>에 나타난 ‘글 배워 읽어 못 미칠 듯하여’ 효를 실천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가)를 기준으로 볼 때 선행을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유 씨는 정혼을 못 이루게 된 자신의 처지는 미워두고, 어머니가 딸에 대한 걱정으로 몸을 상하는 일을 막기 위해 여 씨의 성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며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유 씨는 (가)의 기준에서 볼 때 어버이에게 효도함으로써 ‘어진 이름 얻’을 만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행을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4 갈래 복합

본문 255~259쪽

- 01 ① 02 ④ 03 ③ 04 ⑤ 05 ④ 06 ③

(가) 백광홍, 「관서별곡」

〔해제〕 이 작품은 1555년에 작가가 평안도 평사가 되어 관서 지방을 순찰하면서 그곳의 경치를 노래한 기행 가사이다. 평안

도 평사가 되어 부임지로 가는 심정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관서 지방을 순찰하면서 본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과 흥취를 읊은 후,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경치를 임금에게 전하고 싶은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기 위해 지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기행 가사의 효시로 알려진 작품으로, 정철의 「관동별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제 관서 지방의 아름다운 경치 소개와 임금에 대한 충절

구성

- 서사: 부임지인 관서 지방으로 떠나는 심정
- 본사 1: 부임하는 도중 마주한 자연 경물에 대한 감탄
- 본사 2: 부임지를 순시하면서 바라본 풍경에 대한 소개와 감회
- 결사: 아름다운 풍경을 임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나) 정비석, 「산정무한」

〔해제〕 이 작품은 금강산 기행 과정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아름다움과 그에 따른 여정을 다채로운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나타낸 현대 수필이다. 금강산의 등정 과정에서 마주한 금강산 계곡의 풍경과 정상에서 바라본 모습, 그리고 마의 태자에 얽힌 이야기 등을 다양한 비유적 표현과 설의적, 영탄적 표현 등을 통해 감각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절묘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마의 태자에 대한 추모를 통해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수필 문학의 성찰적 기능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주제 금강산 기행에서 접한 자연의 풍경과 그에 따른 감회

구성

- 처음: 은제와 금제에서 바라본 절경
- 중간 1: 비로봉 절정의 찻집에서 바라본 풍경
- 중간 2: 비로봉 최고점에서 바라본 운해
- 끝: 비로봉 동쪽의 자작나무 숲과 마의 태자의 무덤에 대한 상념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는 왕명을 받고 임지로 가는 과정에서 화자가 마주하는 자연의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며 자연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비로봉 중허리에서 비로봉 최고봉, 그리고 다시 마의 태자의 무덤에 이르는 과정에서 글쓴이가 마주하는 자연의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며 자연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와 (나) 모두 인간의 삶과 자연의 이치를 연결 짓고 있지 않으며, 삶의 목표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에서 ‘황주는 전쟁터라 가시덤불 우거졌도다’는 과거의 황주의 모습과 현재의 황주의 모습을 대비하며 삶의 무상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과거의 자연과 현재의 자연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나) 모두 정적인 자연의 속성과 동적인 인간의 속성을 대비하고 있지 않으며,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⑤ (가)는 ‘백두산 내린 물이 향로봉 감돌아’ 흘러가는 모습을 ‘굽이굽이 늙은 용이 꼬리 치’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나)는 ‘은제와 단풍’을 ‘짜 놓은 비단결’에, ‘찾집에서 바라본’ ‘밖에서는 몰아치는 빗발’을 ‘용호가 싸우는 것’과 ‘산신령이 대로하신 것’에, ‘자작나무’를 ‘수중 공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 모두 인간과 자연이 서로에게 미친 영향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02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B]에서는 ‘삼각산 제일봉이 웬만하면 보이겠네’라는 구절을 통해 화자가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에서는 ‘임지로 가고픈 마음에 고향을 생각하라’라는 구절을 통해 화자가 임지로 가고 싶은 기대감에 고향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의 고향 생각이 [B]에서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교체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의 ‘관서’와 [B]에서의 ‘관동 팔백 리’는 모두 화자가 임금의 명을 받고 부임하는 지역에 해당하는데, [B]에서는 임금의 명을 받기 전 ‘강호에 병이 깊어 대숲에 누웠’다는 화자의 행적이 추가되었다.

② [A]에서의 ‘연조문’, ‘모화 고개’, ‘벽제’와 ‘천수원’, [B]에서의 ‘평구역’, ‘혹수’, ‘치악산’ 등은 모두 화자가 부임하는 지역으로 가면서 들렀던 곳이다. 그런데 [B]에서는 ‘연추문 달려들어 경회 남문 바라보며 / 하직하고 물러나니’와 같이 화자가 부임지로 출발할 때 임금을 향해 하직하는 모습이 추가되었다.

③ [A]에서의 ‘벽제에 말 갈아 입진에 배 건너 천수원 돌아드니’와 [B]에서의 ‘평구역 말을 갈아 혹수로 돌아드니’는 모두 부임지로 떠나는 과정을 속도감 있게 제시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B]에서는 ‘서울 떠난 외로운 신하 백발도 많고 많다’와 같이 늦은 나이에 부임하는 화자의 외양적 특징이 추가되었다.

⑤ [A]에서의 ‘개성은 망국이라 ~ 가시덤불 우거졌도다’와 [B]에서의 ‘궁예왕 대궐터에 까막까지 지저귀니’는 모두 화자가 방문한 지역의 모습을 제시한 부분에 해당하며, 두 부분은

각각 ‘가시덤불’과 ‘까막까치’라는 자연물을 통해 방문한 지역의 현재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03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오를수록 우세는 맹렬했으나’라는 구절을 통해 비로봉에 가까워질수록 기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광풍이 안개를 헤칠 때마다 농무 속에서 훌쩍훌쩍하는 영봉을 영송하는 것도 가히 장관이었다.’라는 구절을 통해 글쓴이가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꾸 깊은 산속으로만 들어가기에, 어느 세월에 이 골을 다시 헤어나 볼까 두렵다. 이대로 친지와 처자를 버리고 중이 되는 수밖에 없나 보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이키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글쓴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 자신의 가족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② ‘우장 없이 떠난 몸이기에 그냥 비를 맞으며 올라가노라니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글쓴이는 비로봉 등반 과정에서 기상 상황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있을 뿐, 이에 대해 대비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지는 않다.

④ ‘별장계 타고온 장독 같은 난로를 에워싸고 둘러앉았던 선착객들이 자리를 사양해 준다. 인정이 다사롭기 온실 같은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글쓴이는 자신에게 난로 옆의 자리를 양보한 사람들을 보며 따뜻한 인정을 느끼고 있을 뿐, 낙오한 이들에게 난로 옆의 자리를 양보하고 있지는 않다.

⑤ ‘설 자리를 삼가 구중심치가 아니면 살지 않는 자작나무는 무슨 수중 공주이던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글쓴이는 산속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자작나무를 높이 평가하고 있을 뿐, 자작나무가 비로봉 동쪽에 수해를 이루듯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의아해하고 있지는 않다.

04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소복한 백화는 한결같이 슬프게 서 있고’와 ‘눈물 머금은 초저녁 달이 중천에 서럽다.’를 통해 글쓴이가 백화와 초승달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감정 이입이 글쓴이의 감정 변화나 공간을 이동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화자는 ‘붉은 입술’과 ‘흰 이’라는 색채어와 ‘신선이

연잎 배 타고 옥빛 강으로 내려오는 듯'이라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동강 위에 화선이 떠 있는 풍경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에서 화자는 '풀'과 '꽃'이 '봄빛을 자랑한다'와 같이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봄날 풍경의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있다.

③ ㉡에서 글쓴이는 '이랑이랑으로 엇바꾸어 가며', '골짜기로 퍼덕이며 흘러내리는 듯'과 같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은제와 단풍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④ ㉢에서 글쓴이는 '~ 싸우는 것일까?', '~ 대로하신 것일까?'라는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몰아치는 빗발이 우박으로 변하는 기상 현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출하고 있다.

05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화자는 구름 낀 하늘이 끝없이 펼쳐진 풍경을 보며 감탄하고 있다는 점에서, ③는 '약산동대'에 올라온 화자가 자연의 장엄함을 느끼는 풍경이라 할 수 있다. (나)의 글쓴이는 뭉게이는 운해로 인해 삼금강을 굽어 살필 수 없는 점을 안타까워하였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만학천봉을 발밑에 꿰어 엮드리게 했다는 점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점에서 비로봉 정상에 오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⑥는 '비로봉 최고점'에 올라온 글쓴이가 금강산 등정의 의미를 자신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⑥는 글쓴이가 비로봉 최고점의 경치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풍경으로, '비로봉 최고점'에서 볼 수 있는 뛰어난 풍경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는 화자가 '약산동대'에 올라온 후 바라본 풍경으로, 화자가 '진영'에서 '약산동대'로 이동하는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

③ ㉡는 화자가 '약산동대'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풍경으로, 화자로 하여금 '약산동대'를 찾아온 이유를 탐색하게 하는 풍경과는 관련이 없다.

⑤ ㉢는 화자가 '약산동대'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풍경으로, '약산동대'에서 바라본 경치들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는 풍경과는 관련이 없다. ⑥는 글쓴이가 비로봉 최고점의 경치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풍경으로, 글쓴이가 '비로봉 최고점'에서 바라본 경치와 다른 곳에서 바라본 경치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는 풍경과는 관련이 없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화자는 백 리에 벌여 있는 '구름에 닿은 성곽'과 사

면에 뻗은 '여러 겹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팔도에 으뜸'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화자가 높고 길게 뻗은 성곽과 사면으로 뻗은 산등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작가의 기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인지 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대동강에 떠 있는 화선을 바라보며 임금의 명을 받아 관서 지방으로 부임해야 하는 자신의 직분을 떠올리며 슬프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동강'이 왕명을 수행해야 하는 작가의 직분과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싶은 바람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약산동대' 앞을 지나가는 물이 백두산에서 내려 향로봉을 감돌아 천리를 비껴 왔다고 말하며, 그 모습이 '높은 용이 꼬리 치며 바다로 흐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산동대'는 작가가 멋진 풍경으로 인해 특별한 인상을 받게 된 장소라 할 수 있다.

④ (나)의 글쓴이는 붉은 진달래 단풍이 연무 사이로 나타난 풍경을 바라보며 '진달래는 꽃보다 단풍이 배송함을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붉은 진달래 단풍'을 바라보는 곳은 작가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⑤ (나)의 글쓴이는 철책도 상석도 없고, 풍림에 시달려 비문조차 읽을 수 없는 화강암 비석이 오히려 처량하다며 마의 태자의 무덤은 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의 태자의 무덤'은 작가가 마의 태자에 대한 처량함과 슬픔을 느끼는 장소라 할 수 있다.

05 갈래 복합 본문 260~264쪽

01 ② 02 ② 03 ⑤ 04 ⑤ 05 ④ 06 ⑤

(가) 정몽주, 「흥무 정사년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지음」

해제 이 작품은 사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국을 떠나 일본으로 간 정몽주가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한시이다. 화자는 봄을 맞이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절절하게 느끼는데, 하늘에 떠 있는 달이 고향을 비출 것이라 생각하고, 매화 핀 창가에서 판잣집에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주제 타지에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구성

- 제3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대장부의 큰 뜻
- 제4수: 사신으로서의 괴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 이수복, 「봄비」

해제 이 작품은 곧 다가올 아름다운 봄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사별한 임에 대한 애잔한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1연에서 화자는 풀빛이 서럽다고 말하는데, 4연에서 그 이유가 나타난다. 봄이 오면 따뜻한 날씨와 함께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터이지만, 그 아지랑이는 ‘임 앞에 타오르는’ 향불의 연기와도 같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주제 봄비가 내리는 날에 느끼는 애상감

구성

- 1연: 서러운 풀빛이 질어 올 강 언덕
- 2연: 종달새 지껄일 보리밭길
- 3연: 처녀애들 짝하여 설 고운 꽃밭
- 4연: 아지랑이 타오를 땅

(다) 강은교, 「다락」

해제 이 작품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라져 가고 있는 다락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담고 있다. 글쓰이는 다락에 얽힌 다양한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그리고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다락의 모습과 특징들을 감각적 표현과 비유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끝부분에서는 한옥의 다락과 아파트의 다용도실을 비교함으로써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다락의 의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사라져 가는 다락에 대한 추억과 안타까움

구성

- 처음: 우리의 삶을 품어 주는 공간인 다락
- 중간: 다락에 얽혀 있는 유년 시절의 추억
- 끝: 다락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는 ‘봄빛’, ‘풀’, ‘매화’와 같은 소재를 통해 봄이라는 계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고 있으며, (나)에서도 ‘풀빛’, ‘푸르른 보리밭길’ 등의 소재를 통해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라는 계절에 이 세상을 떠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계절감을 환기하는 소재가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와 (나)에서는 자연의 변화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가)의 화자는 ‘달’을 보고 ‘달’은 현재 자신이 있는 곳과 자신이 떠나온 고향 모두를 밝게 비추고 있다는 속성을 파악한 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심화하고 있으나, 화자가 이를 자신의 삶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나)의 화자

는 ‘봄비’를 보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비’가 내리면 ‘아지랑이’가 땅에서 피어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아지랑이’처럼 타오를 ‘향연’을 떠올리며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심화하고 있으나, 이를 자신의 삶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의 화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는 고향이므로 이를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화자 역시 임과 함께 있지 못한 현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이상과 현실을 대비하여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시적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적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화자는 판잣집에 내리는 ‘빗소리’가 크게 난다고 하면서 집 생각의 괴로움을 어떻게 견디겠느냐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빗소리가 화자의 괴로운 심경을 반영하는 자연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나)에서 싱그러운 봄을 배경으로 지저귀고 있는 종달새의 소리는 임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화자와 대비되고 있으므로 ‘종달새’는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는 자연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빗소리’를 들으며 화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므로, ‘빗소리’는 화자의 내면의 갈등을 심화하는 자연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화자가 ‘종달새’의 울음을 들으면서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가)의 화자가 ‘빗소리’를 들으면서 과거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화자가 ‘종달새’의 울음을 들으면서 미래의 삶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지도 않다.
- ④ ‘빗소리’와 ‘종달새’ 모두 교감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나 (나)의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자연물도 아니다.
- ⑤ ‘종달새’는 화자가 위치한 공간의 평화로운 정경을 부각하는 자연물로 볼 수 있으나, ‘빗소리’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자연물로 볼 수 없다.

03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글쓰이는 아파트의 집들을 방문할 때 집의 내부를 한꺼번에 노출하는 아파트의 구조를 보면 그 집의 나신과 만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집의 내부를 드러내어 보여 주는 것은 한옥이 아니라 아파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쓴이는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껴서 몰래 다락에 숨어들어 갔지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다락을 내려올 때 버려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다.
- ② 글쓴이는 다락에서 몰래 감춰 둔 수밀도 캔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복숭아 깡통이 준 거부적 경험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돈으로 맨 처음 실컷 사 먹은 것이 수밀도 캔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다락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찍은 사진첩을 보며 뒤통수라도 한 대 맞은 듯 놀랐던 기억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방치된 다락에서 풍기는 향내가 악취가 아니라 아무 데서도 맡을 수 없는 향내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04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서 글쓴이는 다락에 기어 올라가 많은 것들을 찾아내곤 했는데, 그중에는 아버지의 새 모자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찍은 사진첩 등이 있었다. 이는 글쓴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한 장소로서의 다락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에서 글쓴이는 가족들로부터 소외감을 느껴 다락에 숨게 된다. 따라서 다락은 힘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글쓴이에게 도피처가 되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중절모를 발견하고 한 번도 쓰지 못한 것이라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다락은 가족 간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소의 성격을 지닌다. 이를 가족 간의 갈등이 사랑으로 승화되는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B]에서 화자는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다락에 숨었지만 어머니로부터 이끌려 내려오면서 안도감을 느꼈으므로, 다락은 유년 시절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 ② [A]에서 다락에 아버지의 중절모, 수밀도 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첩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삶과 친밀한 것들로 볼 수 있다. [B]에서 글쓴이는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껴 다락에 숨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다락을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⑤

③ [A]에서 발견한 물건들이 남들에게 보여 줄 수 없는 것들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B]에서 글쓴이는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꼈을 때 다락에 숨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다락을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글쓴이가 찾았던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A]에서 글쓴이가 다락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B]에서는 글쓴이 가족의 궁핍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05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화자는 입을 잃고 서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강나루 긴 언덕에 / 서러운 풀빛이 짙어오’는 것으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강나루’는 실제 존재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관념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강나루’는 전통적으로 이별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입과의 사별을 경험한 화자의 심적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적절한 공간이다. 작품에서 화자는 입과의 사별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강나루’를 화자가 봄을 맞이하여 생명력을 발현하는 만물을 보며 이별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게 되는 공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풀은 천리 잇달아 푸르러’에서 (가)의 화자는 자신이 있는 일본에서 ‘천리’나 떨어져 있는 고향에도 마찬가지로 풀빛이 푸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서 ‘천리’는 화자가 위치한 곳과 고향 사이의 공간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유세에 황금 죄다 써 없어지고 / 고향이 그리워서 흰머리 나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흰머리’는 화자가 일본 땅에서 사신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을 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자 화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생긴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나)의 화자는 봄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생동하는 자연과 대비되는 서러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비’는 시상을 촉발하는 자연물로 볼 수 있으며, 화자가 느끼는 서러움이나 슬픔의 정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연물로 볼 수 있다.
- ⑤ (다)의 글쓴이는 다락을 ‘자궁’에 비유하고 있는데, 3문단에서 ‘그 안온함은 마치 생명이 품어지는 자궁과도 같다고나 할는지.’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다락을 ‘자궁’에 비유한 까닭은 다락이 누군가로부터 보호받는 듯한 안온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다)의 글쓴이는 아파트에도 다락과 같은 역할을 일정 부분 하는 공간인 다용도실이 있지만 온몸을 일시에 노출하기 마련인 아파트의 다용도실과 다락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다용도실이 다락이 없는 아파트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용도실을 통해 다락이라는 공간의 부재에 대한 결핍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작품의 맥락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사신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일시적으로 고향을 떠난 상황이다. (가)의 화자는 달을 보며 화자가 바라보는 달을 고향에서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으므로, '달'은 화자로 하여금 일시적 부재의 대상인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로 볼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고향을 떠나 사신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외로운 배'에 빗대고 있으므로, 이는 화자의 처지가 투영된 사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화자는 봄에 땅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향연'에 빗대고 있다. 향연은 향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의미하는데, 향불은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연'은 임의 부재로 인한 슬픔이 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부재의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보여 주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④ (다)의 글쓴이는 다락이 단지 집 안의 잠동사니들을 보관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숨기고 홀로 충만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구석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정서적 측면에서 다락이라는 공간에 부여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6 갈래 복합

본문 265~269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⑤ 05 ④ 06 ②

(가) 이이, 「낙지가」

해제 이 작품은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표방하는 은일가사로, 작가가 1523년(중종 18) 전후인 42세 무렵, 14년간의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서울로 돌아오지 않고 전남 담양에 은거하며 지은 것이다. 화자는 세속적 욕망을 초탈한 내면 의식과 속세를 버리고 자연에 은거하여 신선과 같은 정신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소망 등을 드러내면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

하며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내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주제 자연 속에 은거하며 누리는 삶의 즐거움

구성

- 1~3행: 물을 통해 드러나는 평안한 마음
- 4~11행: 탐욕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속의 삶을 되돌아봄.
- 12~19행: 세속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감.
- 20~23행: 세속을 떠나 살아가는 삶의 한가로움과 만족감

(나) 이기철, 「청산행」

해제 이 작품은 속세를 떠나 '청산'에 들어온 화자가 점점 청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 시이다. 화자는 속세를 떠난 이후 자신이 버린 세속의 가치에 미련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속세에서의 삶의 모습을 반추하며 번잡한 심정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결국 화자는 속세의 고뇌와 갈등을 떨쳐 버리고 자연에 동화되어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소망

구성

- 1~3행: 속세를 떠나 청산으로 옴.
- 4, 5행: 속세에 대한 미련
- 6~14행: 청산에서 내려다본 속세의 풍경과 지난날에 대한 반추
- 15~18행: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소망

(다) 최일남, 「서울 사람들」

해제 이 작품은 문명화된 사회에 편입되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인들의 허위 의식을 개성적 문체, 사실적 배경과 인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나'와 친구들은 모두 시골 출신으로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에 정착해 각박한 삶을 살아가며 시골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시골에서 마음의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하고자 여행을 떠나게 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다른 시골의 모습과 익숙해져 버린 도시의 생활 습관을 그리워하며 계획보다 일찍 상경하게 된다. 이러한 여행의 경험은, 마음의 고향마저 상실하게 된 도시인들의 비극적 현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도시의 생활 습관에 젖어 있으면서도 시골(고향)을 막연히 아름답고 여유로운 공간으로 동경하지만 정착 그 곳의 생활을 며칠도 견디어 내지 못하는 도시인의 허위 의식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제 문명화된 사회의 각박함과 도시인들의 허위 의식

전체 줄거리 '나'와 국영 기업 비서실장 김성달, 고교 교사 윤경수, TV 가게를 하는 최진철은 모두 시골 출신으로 서울에 정착해 살고 있는 친구들이다. 그들은 각박하고 험기증이 나는 서울에서 벗어나 시골로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이윽고 나와 친구들은 여행을 떠나 버스를 타고 강원도에 있는 읍

으로 향하게 되고, 흥이 난 일행들은 종착지에서 백 리나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간다. 나와 친구들은 자신들을 수상히 여기는 이장 집에서 머물기로 하고, 처음에는 김치와 우거짓국뿐인 밥상에 흥겨워하지만 그들의 흥은 곧 깨지기 시작한다. 커피를 먹고 싶어 하는 김성달, 맥주 타령을 하는 최진철, TV 쇼를 보고 싶어 하는 윤경수 등, 일행은 떠나온 서울의 삶을 그리워하며 조기에 상경하기로 한다. 상경하는 차를 놓친 일행은 산행을 하게 되는데, 산 중턱의 초가집에서 술 취한 작부들과 마주치게 된다. 이로 인해 일행은 모두 씁쓸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숨이 막힐 듯 답답한 시골을 떠나 서울로 돌아와 커피와 생맥주를 마시며 안도감을 느낀다.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사시의 내 즐거움이 어느 때 없을런가.’, ‘남은 생이 얼마런고 이 아니 즐거운가.’에서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자연 속에서 느끼고 있는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의문형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맑고 깨끗이 흘러가는 ‘연못’의 ‘잔물결’이 지닌 속성을 드러내는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나)의 ‘청산’, ‘저녁 연기’ 등에서 감각적 이미지가 활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상이 지닌 속성이 드러나고 있다.
- ③ (가)의 ‘납가의 한 꿈’, ‘황량’, ‘누항’, ‘단표’ 등은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나)의 ‘청산에 와 발을 푸니’ 역시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가)의 ‘속인’과 ‘신선’은 대조적 속성을 지닌 시어이며, 이를 통해 주제 의식이 부각되고 있다. 또 (나)에서도 ‘청산’, ‘인가’와 같이 대조적 속성을 지닌 시어가 사용됨으로써 주제 의식의 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에서 음성 상징어가 사용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문맥상 ㉠의 ‘관습들’은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으로, 과거 여러 차례 결심했다가도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는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화자의 정서를 좌절시켰던 과거의 반복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 화자가 자연에 귀의하는 것을 주저하게 했던 것들을 의미할 뿐, 화자가 가지고 있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맑고 깨끗이 흘러가는 ‘연못’의 ‘잔물결’은 속세를 뜻하는 ‘고해’에서 나타나는 ‘욕심’의 ‘거센 물결’과 ‘탐욕’의 ‘샘물’과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 번잡한 속세를 떠나 화자가 느끼고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투영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평생을 살아도 백 년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허망한 일임을 밝히고 자연을 즐기는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평생을 살아도 백 년이 되지 못한다는 화자의 인식은 화자가 자연을 즐기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태도를 갖게 된 이유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세속이 가까이 있지만 그러한 지척이 ‘천리’와 같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에는 복잡한 세상살이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와 세속을 바라보는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청산에 있는 동안에도 속세의 삶을 완전히 잊지 못하며 청산의 삶에 온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에게 청산은 아직 익숙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남방으로 가는 길을 놓친 것은 화자가 청산이라는 공간에 익숙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가)의 화자가 공명과 명성을 좇는 세속의 세계를 돌아보자 탐욕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구체화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는 (나)의 화자가 청산에서 직접 마주하며 경험한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로부터 역동적 이미지가 느껴지는 것은 맞지만, ㉠은 ‘허우적거리는’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고요한 상태를 부각하는 자연물은 아니다.
- ② ㉠은 세속적 욕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가 살아가는 자연 속의 소박한 삶과는 관련이 없다. 또 ㉡는 화자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과는 관련이 없다.
- ④ ㉡에서 화자의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화자의 심리 상태가 전환되는 양상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과 ㉡를 통해 화자가 인간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있지는 않다.

04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다)에 따르면, ‘나’와 친구들은 서울에서 도망치듯 빠져나

온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간 시골에서 도망치듯 조기에 상경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나’와 친구들 모두 이처럼 조기 상경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을 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와 친구들 사이의 대화 내용 중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면서도 한 번도 여행을 해 본 적이 없군그래.’라고 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와 친구들은 여행과 관계없이 모임을 갖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와 친구들이 나는 대화 중 ‘서울 바다에서 비비적거리고 살다 보니까 고단해 죽겠어.’라고 말한 부분과 ‘우리들 냇기 모두 산골 촌놈들 아니니.’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나’와 친구들은 모두 산골에서 성장하였으며 서울로 이주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최진철’은 ‘언제 날을 잡아서 우리끼리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라고 말하며, 친구들에게 여행을 함께 떠나자고 제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와 친구들은 여행을 위한 모임에서 여행의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버스 터미널에 모여 가장 멀리 가는 버스를 집어타고 가자는 원칙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05 작품 간 비교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다)의 ‘나’는 여행 전에 시골의 삶에 대해 ‘배부른 여담’을 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가, 인가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연기를 보고 먹고사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속세의 삶에 대해 생각한 것은 맞지만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자연에 온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다)에서 ‘나’와 친구들은 각박한 서울 생활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자연의 품을 느껴 보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나)의 화자도 ‘청산’, 즉 자연 속에서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의 ‘나’와 친구들은 여행지였던 시골의 삶을 경험하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반면, 조기 상경하여 커피와 생맥주를 마시며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나’와 친구들은 서울로 돌아와 커피와 생맥주를 마시며 ‘안도감’을 느꼈던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의 화자는 세속이 아닌 ‘청산’에 와 머무르며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산길이 잘 보’이는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③ (다)의 ‘우리’는 서울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로서 며칠이라도 고향과 유사한 시골로 내려가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의 화자는 ‘청산’, 즉 자연에 머무르며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나’와 친구들은 그들이 동경했던 시골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조기 상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와 친구들은 도시 문명으로부터 일시적이거나 벗어나고 싶다는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 역시 속세에 대해 ‘미련은 없’으며 ‘청산’에 머무르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만, ‘인가를 내려다보’는 등 두고 온 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세상 길에 발을 끊어’라는 시구는 화자가 번잡한 세속과 단절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지’는 주체는 화자가 아니라 때까치이다. 그러므로 이 시구는 화자가 탈속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누향에 안거하고 단표에 시름이 없는 안빈낙도의 삶을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의 ‘나’와 친구들은 조기 상경하여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들이 얼마나 세속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③ (가)에서 ‘뜰구름이 시비 없고 날아다니는 새가 한가하다.’는 자연을 즐기며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투영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나)의 ‘맨살 비비는 돌들’은 자연 속에서 화자가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는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화자는 세속과 완전히 단절하지는 못했지만, 번잡한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청산에 머무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가 ‘청산에 와 발을 푸’는 행위에는 경쟁적이고 복잡한 세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번잡한 세속인 도시에서 벗어나 며칠이라도 자연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에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화자는 청산에 있으면서도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하며 세속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다)의 ‘우리’는 세속을 뜻하는 서울로 돌아와 안도감을 느끼며 ‘커피’와 ‘생맥주’를 마시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화자와 (다)의 ‘우리’가 보인 이러한 행위들은 화자와 ‘우리’가 세속과의 단절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07 갈래 복합 본문 270~274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③ 05 ⑤

(가) 문정희, 「찔레」

해제 이 작품은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찔레에 빚대어 사랑의 아픔과 그것을 극복하는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찔레의 가시는 사랑의 아픔을 상징하며, 가시가 있음에도 봄날 흰 꽃을 피우는 찔레는 사랑의 아픔을 아름답게 승화하려는 화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라는 구절에는 지난날의 아픈 사랑을 아름답게 승화시키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집약되어 있다.

주제 이별의 아픔을 승화시킨 성숙한 사랑

구성

- 1연: 찔레로 서 있고 싶은 소망
- 2연: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아픔을 담고 있는 찔레꽃
- 3연: 아팠던 사랑의 추억을 털어 내고 싶은 마음
- 4, 5연: 사랑의 아픔 속에서 살았던 날들
- 6연: 사랑의 아픔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하려는 의지
- 7연: 아픔을 승화시킨 성숙한 사랑의 태도

(나) 김선우, 「낙화, 첫사랑」

해제 이 작품은 떨어지는 꽃에 빚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 얻게 된 정신적 성숙을 형상화하고 있다. 첫사랑에 실패한 화자는 그러한 상황을 담담히 수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별의 고통마저 가까이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떨어지는 ‘나’를 온몸으로 받겠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부터 먼저 구원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첫사랑의 실패를 통해 깨달은 사랑의 본질

구성

- 1연: 이별의 수용과 사랑의 완성에 대한 의지
- 2연: 이별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과 정신적 성숙

(다) 심노승, 「아내의 무덤에 나무를 심으며」

해제 이 작품의 원제는 ‘신산종수기(新山種樹記)’로, 1792년 아내를 사별한 슬픔과 이를 이겨 내려는 의지를 그린 한문 수필이다. 글쓴이는 아내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파주로 돌아가 집을 짓고 꽃나무를 가꾸는 일을 꿈꾸어 왔는데, 정작 집이 완성되었을 때는 아내가 죽어 꿈을 이루지 못한다. 글쓴이는 아내의 무덤이 있는 파주의 산에 나무를 심어 꿈을 이루려 한다. 둘 사이에 살아온 삶은 짧지만 자기가 죽어 아내와 무덤 속에서 누릴 시간은 영원하다는 믿음으로 나무를 가꾸었던 것이다.

주제 사별한 아내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

구성

- 기: 파주로 돌아가 살겠다는 글쓴이의 생각에 동조하는 아내
- 서: 아내의 죽음과 아내의 무덤 근처에 나무를 심는 글쓴이
- 결: 글쓴이가 아내의 무덤 근처에 나무를 심는 이유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는 서술어 ‘서 있고 싶다’를 반복하여 사랑의 아픔을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 (나)는 서술어 ‘않겠습니다’를 반복하여 이별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와 (나) 모두 이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지만, 의성어를 사용하여 이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가)에는 ‘초록’과 ‘흰 찔레꽃’의 색채 대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랑의 아픔을 승화하려는 모습을 부각할 뿐, 화자의 비극적 처지를 부각하지는 않는다. (나)에는 색채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가)와 (나) 모두 담담한 어조로 정서를 표현할 뿐,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⑤ (가)에는 과거에 이별로 절망했던 적도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지 않다. (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애상적 정서가 고조되고 있지 않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아내는 파주로 이사하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에 병들었고, 공사가 끝날 무렵 위독해지자 자신이 죽게 되면 파주에 묻어 달라고 부탁한다. 이 글에서 아내가 ‘나’에게 자신의 병을 치료한 후에 파주로 이사 가자고 부탁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남원에 살 때 게으르기도 했지만, 집이 낡아서 손봐야 할 것이 많은데, 하물며 꽃나무까지 가꾸는 것까지는 할 여력이 없다고 여겼다.
- ② ‘나’는 아내에게 함께 고향에 돌아가 집을 짓고 꽃나무를 심어 꽃을 구경하며 여생을 보내자고 하였다.
- ③ 아내는 ‘나’가 남원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인 파주에 새집을 짓는 계획을 말하자 즐거워했고, 실제 새집을 짓기 시작하자 기뻐하였다.
- ⑤ ‘나’는 아내의 무덤 옆에 나무를 심는 것이 자신의 꿈을 보상받고 아내와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달래는 일임을 나의 자손과 후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랐다.

0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화자는 '예쁘고 뽀족한 가시'를 단 '찔레'처럼 서 있겠다고 하였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한 아픔을 극복하겠다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다)의 글쓴이는 아내의 무덤 옆에 봄가을로 계속 '나무'를 심겠다고 하였다. 이 행위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실어 보내'기 위한 것, 즉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겠다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과거에 했던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이지만, 이를 통해 이루지 못한 사랑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태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 ② ㉡는 아내에 대한 글쓴이의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한 상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에는 사랑의 아픔을 이겨 내려는 태도가 담겨 있을 뿐,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담겨 있지 않다. 또 ㉤에는 아내와의 사랑을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을 뿐,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담겨 있지 않다.
- ⑤ ㉠은 이별의 아픔을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낼 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말았으며 허무해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 '내 사랑의 몫'이므로 '그대의 뒷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은 이별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맞지만, 언젠가 떠난 이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까지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내겐 우는 날이 많았'고, '아픔이 출렁거려 / 늘 말을 잃어 갔다'는 것은 가시에 찔린 것처럼 사랑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실의에 빠져 있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회상한 것이다.
- ② (가)에서 '슬퍼하지 말고' 이제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는 것은 아픈 사랑을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시키겠다는 다짐을 드러낸 것이다.
- ④ (나)에서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알았'다는 것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희생보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 ⑤ (다)에서 '죽어서는 영원히 파주의 산에서 서로 살 수 있기

에 그 즐거움이 그지없다'는 것은 이승에서 아내와 나는 사랑의 시간은 짧았지만, 저승에서도 아내와 사랑하겠다는 마음, 즉 영원한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05 작품 간 비교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글쓴이가 지금 살아갈 방도를 생각하지 않고 죽은 아내를 위해 매년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누군가가 비판하자 이에 대해 글쓴이 자신이 반박한 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추억을 털며'처럼 관념을 사물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랑의 아픔으로 인한 방황을 끝내겠다는 태도를 나타낸 것일 뿐, 사랑의 유한성에 대한 서글픔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 ② ㉡는 사랑의 아픔마저 아름답게 여기겠다는 태도를 드러낼 뿐, 사랑으로 인한 내적 갈등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또 방어적 표현도 쓰이지 않았다.
- ③ ㉢은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은 후에 보인 반응으로, '아기를 받듯'의 직유법을 사용하여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자신부터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왜 꽃나무를 가꾸지 않는냐는 아내에게 변명하는 말로, 설의법이 쓰인 것은 맞지만, 문제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다.

08 갈래 복합

본문 275~280쪽

01 ④ 02 ⑤ 03 ① 04 ③ 05 ⑤ 06 ②

(가) 함세덕, 「무의도 기행」

【해제】 이 작품은 1941년에 발표된 2막의 희곡으로, 무의도라는 가난한 섬마을을 배경으로 일제 강점기 어부들의 빈곤한 삶을 소학교 교사인 '나'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전하고 있다. 이 작품의 중심에는 고기잡이배를 타지 않으려는 천명과 그를 바다로 내보내려는 부모와의 갈등이 있다. 천명은 배를 타지 않기 위해 마을을 떠나지만, 천명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그도 다른 어부들의 운명처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고,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는다. 어른들의 욕망에 희생당하는 천명의 삶을 통해 작가는 자연이나 운명의 절대적인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극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무의도 어민들의 처참한 현실과 천명의 비극적인 삶

【전체 줄거리】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다가 여의찮게 무의도로 옮겨 와서 바다에 삶의 터전을 잡은 공 씨는 두 아들을 모두 바다

에서 잃었다. 공 씨의 셋째 아들인 천명은 형들의 죽음으로 인해 바다를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하며 배를 타는 것을 피한다. 천명의 부모는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명에게 공주학의 배에 탈 것을 강권하고, 천명은 어부의 삶을 살기보다 기술을 배워 물에 정착하기를 갈망한다. 결국 천명은 부모의 강권과 애원을 이기지 못하고 배를 타게 되고,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파선하여 죽게 된다.

(나)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해제 이 작품은 1966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1943년 이후 한동안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던 작가의 복귀작이다. 작품은 조마이섬을 배경으로 하여 격동의 근현대사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지키려는 하층민의 연대와 저항의 의지를 담은 소설이다. 조마이섬의 사람들은 선조에게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부 권력에 의해, 광복 후에는 유력자에 의해 빼앗기는 수난을 당한다. 섬사람들은 발을 붙이고 살아오던 자신들과는 무관하게 소유자가 뒤바뀌는 이러한 모순적 현실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힘을 모아 저항한다. 작품은 저항에 앞장선 갈발새 영감이 투옥되고 건우의 행방도 묘연해지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이러한 결말을 통해 모순된 현실의 문제와 억압받는 사람들의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주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섬사람들의 시련과 저항 의지

전체 줄거리 ‘나’는 K 중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나룻배 통학생인 건우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가정 방문차 그의 집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나’는 윤춘삼과 건우 할아버지인 갈발새 영감을 만나고 그들이 들려주는 조마이섬 사람들의 비참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느낀다. 어느 날, 폭풍우로 인해 홍수가 나면서 조마이섬 주민들은 고립되어 죽음의 위기에 빠진다. 그때 갈발새 영감은 섬사람들과 함께, 힘 있는 자들이 섬 매립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둑을 허물려 하는데, 그것을 막는 사람들과 마찰을 빚다가 한 사람을 물속에 집어 던진다. 그리고 이 일로 갈발새 영감은 경찰에게 붙들려 간다. 폭풍우가 끝났으나 갈발새 영감은 기약 없이 감옥에 갇히고, 새 학기가 되어도 건우는 학교에 오지 않는다. 그리고 군대가 조마이섬의 땅을 반반하고 고르게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젊은 어부가 ‘어지간히 손등이 또 터질걸요.’라고 말한 것은 절이는 양이 상당할 정도로 물고기 떼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를 물고기 떼를 잡는 과정에서 부상당할까 봐 걱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공 씨, 말은 모질게 하나, 눈에서는 눈물이 펄펄 쏟아진다.’라는 지시문을 통해 공 씨는 천명에게 연민을 느껴 눈물을

흘리지만 그가 바다로 가도록 일부러 모진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우리가 그 밥값 장만하느라구 얼마나 애쓴 줄 아우? 내년 봄에 팔라든 새우젓을 모두 미리 팔아서 변통을 했었소.’라는 대사를 통해 공주학과 공주학의 아내는 천명의 밥값을 위해 새우젓을 미리 팔아 돈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노틀 할아범 외 여러 동사들은 모두 행방불명이었다고 한다.’라는 낭독을 통해 노틀 할아범이 다른 어부들과 바다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고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어렸을 때부터 일하면서 한 번이라두, 투정한 적 있었어요?’라는 대사를 통해 천명이 어린 시절부터 힘든 일들을 했으나 부모에게 투정하지 않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천명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공 씨가 올린 ‘물’로, 운명에 순응하고 바다에서 일하는 천명의 안위를 걱정하는 공 씨의 마음을 상징하는 소재라는 점에서 이를 운명과 대립한 천명의 순수한 내면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천명이 항구로 갈 때 챙긴 ‘보통이’로, 섬을 떠나기 위한 행장이라는 점에서 운명에서 벗어나려는 천명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은 천명의 누나가 천진으로 떠날 때 한 말로, 사공이 되지 말라는 당부는 뱃사람의 운명에서 벗어나려는 천명의 의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은 ‘나갈 테니?’ 하고 묻는 공주학의 물음에 ‘꺼질 듯한 소리로’ ‘나가요.’라고 답하는 천명의 말로, 뱃사람의 길을 거부하던 천명이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운명에 순응하는 천명의 체념을 엿볼 수 있다.

④ ㉠은 공주학이 신던 ‘헌 고무장화’로, 천명이 뱃사람인 공주학이 신던 신을 물려받았다는 점에서 뱃사람이 된 천명의 처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와 처음부터 없기짜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와 ‘다시 국회 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이라는 부분을 통해 ‘조마이섬 이야기’가 조마이섬의 소유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설명하고 그 부당성을 고발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조마이섬 이야기’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조상으로부터 듣거나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건우에게 들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들던 것은 ‘나’가 경험한 것으로, 이를 섬사람들이 겪은 ‘조마이섬 이야기’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기막힌 일화’를 ‘조마이섬 이야기’와 ‘섬 얘기’의 공통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을사 보호 조약, 한일 신협약 등 역사적 사건의 내용은 ‘나’가 ‘조마이섬 이야기’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라는 점에서 이를 ‘조마이섬 이야기’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상대방은 ‘아이고’ 소리도 못 해 보고 탁류에 휘말려 가고, 지레 달아난 녀석의 고자질에 의해서지’라는 부분을 통해 ‘청년 두 명’ 중 탁류로 휘말린 사람은 한 명이며 다른 한 명은 달아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갈발새 영감이 설두를 해서 미리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라는 부분을 통해 ‘갈발새 영감’이 독을 무너뜨린 것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 ② ‘정말 우리 조마이섬을 지키다시피 해 온 영감인데…… 살인죄라니 우짜문 좋겠는기요?’라는 말을 통해 ‘윤춘삼’은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될 갈발새 영감의 앞날을 걱정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음을 알 수 있다.
- ④ ‘섬사람들의 애절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넘는 갈발새 영감은 결국 기약 없는 감옥살이로 넘어갔다.’라는 부분을 통해 ‘섬사람들’은 갈발새 영감의 감옥살이를 막기 위해 하소연하는 등 진심으로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이라는 부분을 통해 ‘나’는 어제 있었던 일에서 선량한 섬사람들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은 유력자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05 작품 간 비교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A]에서는 ‘이 섬을 찾았을 때’, ‘천명의 집을 찾아가니’ 처

럼 앞서 다른 사건 이후에 있었던 ‘나’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으나, [B]에서는 ‘나’의 행적에 대한 구체적 서술을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이 섬을 찾았을 때, 도민들은 여전히 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동리에는 부녀자와 노인들만 있었다.’와 같이 무의도에 대한 정보를 들려주고 있으며, [B]에서는 ‘조마이섬을 군대가 정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와 같이 조마이섬에 대한 정보를 들려주고 있다.
- ② [A]에서는 ‘나’와 사제 관계에 있는 천명을, [B]에서는 ‘나’와 사제 관계에 있는 건우를 언급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동아 때를 잡기 위해 섬사람들이 출항한 이후의 일을, [B]에서는 폭풍우가 쏟아진 ‘어제 있던 일’ 이후의 일을 들려주고 있다.
- ④ [A]에서는 배가 파선되면서 천명이 당한 비극적 죽음을, [B]에서는 갈발새 영감이 결국 긴 감옥살이를 하게 된 일을 요약하여 들려주고 있다.

06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⑥는 천명의 형들이 겪은 불행이 많은 섬사람이 경험한 것임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는 공주학의 아내가 바다를 향한 천명의 거부감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④는 천명이 바다에서 죽은 형들에 대해 언급하는 말로, 이를 통해 바다에 대한 천명의 거부감과 두려움이 형들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③ ③는 긴긴 겨울의 생계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공 씨의 말로, 이를 통해 공 씨가 천명과 달리 바다를 생계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천명의 입장과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④는 빼앗겨 자기 땅이 없는 조마이섬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 개탄하는 건우 할아버지의 말로, 이를 통해 그는 조마이섬을 ‘권력자들에게 죄다 뺏기고 마는’ 수탈의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⑤는 건우 할아버지가 끌려간 사연에 대해 설명하는 윤춘삼 씨의 말로, ‘영터리 독을 막아 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소위 유력자’, ‘눈이 약간 치찌진 친구가 되레 갈발새 영감의 팽이를 와락 뺏더니 물속으로 핑 집어 던졌다’ 등을 통해 유력자가 섬을 소유의 공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를 대변하는 인물이 조마이섬의 사람들을 위협에 빠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9 갈래 복합 본문 281~285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④ 05 ③ 06 ⑤

(가) 안수길, 「제3 인간형」

【해제】 이 작품은 1953년에 발표된 전후 소설로, 6·25 전쟁을 겪으며 삶의 궤적이 변화한 세 인물의 삶을 그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한때 세속적 가치에 초연한 작가였으나 운수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공하면서 정신적 가치를 잊고 타락한 조운, 그를 따르던 명랑한 문학소녀였으나 전쟁으로 집안이 몰락한 이후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미이, 그리고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에 종사하며 작가로서의 삶을 포기한 채 미련만 갖고 있는 석 등 세 인물이 등장한다. 작가는 이 세 가지 삶의 유형을 통해, 인간성이 황폐해지고 생존 자체가 지상 과제가 되는 전쟁의 비극적 상황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독자에게 묻고 있다.

주제 사명과 생활 사이에서 방황하며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지식인의 고뇌

전체 줄거리 6·25 전쟁 전에 작가였던 석은 피란지인 부산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 석은 교직을 통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안정감을 느끼지만, 곧 생활에 치여 잡문 하나 쓸 수 없다는 사실에 초조함과 공허함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작가였다가 전쟁 때 소식이 끊기고 온갖 소문만 무성하던 친구 조운이 그를 찾아온다. 석은 조운이 타고 온 고급 차에 동승하고, 술을 마시며 궁금했던 것들을 물었으나, 조운은 종이 꾸러미를 꺼내며 미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이는 부유하게 자란 명랑한 성격의 문학소녀로, 세속적 가치에 초연했던 조운을 따르던 사람이다. 전쟁의 외중에 자동차 운수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공한 조운은 전쟁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미이를 부산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녀를 돕고자 한다. 조운은 미이에게 다방을 차려 주겠다고 제의하지만, 미이는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한다. 며칠 후 조운을 만나기로 한 날 미이는 간호장교에 지원하여 시험을 보러 간다는 내용의 편지와 검정 넥타이를 담은 종이 꾸러미를 다방에 남겨 두고 떠난다. 이를 계기로 조운은 자신의 정신적 타락을 뼈저리게 느끼며 석을 찾은 것이다. 석은 조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이에게 강한 인상을 받게 되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나)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해제】 1979년에 발간한 작가의 첫 시집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에 실린 시로, 기성세대가 된 중년의 화자가 18년 전의 순수했던 청년 시절을 회상하고 현재의 소시민적 삶을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젊은 시절의 화자와 친구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꿈을 품고 노래를 목청껏 불렀지만, 18년이 흐른

후의 그들은 세속적 가치를 좇으며 현실 순응적인 소시민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4·19가 불러일으킨 이상과 열정, 순수함을 의미하는 ‘옛사랑’은 이제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아 화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주제 젊은 날의 순수와 열정을 잃고 소시민의 삶을 영위하는 4·19 세대의 자기 성찰

구성

- 1~19행: 4·19를 겪은 젊은 시절의 순수한 이상과 열정
- 20~37행: 이상과 열정을 잃고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중년의 세속적인 모습
- 38~49행: 변함없는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바라보며 느끼는 소시민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에서 서술자는 등장인물이 아닌 이야기 밖의 존재로, ‘석’의 내면을 드러내면서 ‘조운’의 과거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의 서술자는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닌 존재라는 점에서 여러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웠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A]에서 인물 간 대화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화상반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③ [A]의 서술자는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닌 존재라는 점에서 특정한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A]는 인물의 과거를 요약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걸 이야기와 속 이야기로 짜인 액자식 구성과는 거리가 있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미이의 행동은 대화의 맥락이나 그녀의 말을 고려할 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으려는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㉞을 조운에 대한 미이의 불신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기적’은 석이 본 조운의 모습이 사변 전의 ‘초라한 물골’과 비교할 때 ‘풍부하고 기름이 흐르’게 변한 것임을 부각한 표현이다.
- ② ㉡에서 ‘신음하면서 찾아 얻으려는 사람’은 문장이 어렵더라도 그 뜻을 이해하려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을 자신의 독자로 인정하려는 조운의 신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③ ㉔은 ‘선생님은 살아가는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세요?’라는 미이의 말에 대해 조운이 뜨끔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기분을 꾸며 말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⑤ ㉔에서 ‘천아만야한 낭떠러지를 굴러떨어지는 듯’하다는 것은 간호 장교가 되겠다는 미이의 편지와 감정 벡타이를 보고 조운이 자신의 삶을 직시하면서 그가 느낀 충격을 표현한 것이다.

03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화자는 ‘부끄럽지 않은가’와 같은 의문형 표현을 통해 현재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는 화자의 상실감을 강조하기 위해 가정의 상황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수미상관의 구조는 첫 번째 연이나 행을 마지막 연이나 행에 다시 반복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나)의 구조와는 관련이 없다.

④ (나)는 ‘과거-현재’의 순으로 시상을 전개하며 화자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으며, 여로형 구조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⑤ (나)는 ‘과거-현재’의 순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화자의 상황에 관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역순행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04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돌돌 말은 달력’은 매년 회사나 은행 등에서 배포하는 새해의 달력으로, 세속적인 가치와 관련이 있는 일상의 생활용품이라는 점에서 이 소재를 순수했던 과거의 가치나 이를 계승하려는 의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의 ‘차가운 방’은 젊은 시절의 ‘우리’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불도 없이 있어야 했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 공간을 젊은 시절의 열악하고 가난했던 처지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나)의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노래’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하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라는 점에서 이 소재를 기성세대가 따라 할 수 없는 젊은 시절의 순수한 열정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나)의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는 젊은 시절의 ‘우리’가 마신 대포와 대비되는 풍족하고 값비싼 먹거리라는 점에서 이 소재를 경제적으로 안정된 현재의 삶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나)의 ‘눈’은 바람의 속삭임을 외면하는 ‘우리’가 향하는 곳이라는 점,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단어라는 점에서 이 공간을 현실에 순응하는 삶과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05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감정 벡타이는 조운이 미이에게 받은 것으로, 이 소재는 조운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현재의 삶이 타락한 삶임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현재의 삶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나)의 벡타이는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된 ‘우리’가 착용한 것으로, 이 소재는 ‘우리’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직장인이 되면서 과거의 이상이 아닌 현재의 생활에 구속된 현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감정 벡타이는 조운이 정신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던 과거에 착용했던 것이라는 점에서 소유자의 순수했던 과거와 관련이 있다. (나)의 벡타이는 18년이 지난 우리가 매는 것이라는 점에서 순수했던 과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감정 벡타이는 조운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고, (나)의 벡타이는 직장인으로서 생활에 속박된 현실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를 자신의 성취에 대한 소유자의 자부심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조운이 궁핍한 처지가 된 미이를 돕고자 하나 감정 벡타이는 그러한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나)에서 벡타이는 경제적 안정을 좇으며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감정 벡타이는 고인에 대한 애도의 상징으로서 착용되지만 (가)에서 감정 벡타이가 고인에 대한 애도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나)에서 벡타이는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매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래 세대의 등장을 희망하는 바람과는 거리가 있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에 따르면, 두 작품은 신념의 지향과 생활의 순응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성찰적 내면을 그린다든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에서 ‘조운’이 자기 삶의 변화를 규정하는 ‘타락’은 소시민적 생활에 대한 ‘조운’의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 ‘개탄’은 진지함과는 무관하게 세상을 즐겁게 개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속물화된 사회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성찰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 따르면, 두 작품은 우리 역사의 중요 사건을 배경으로 삼아 소시민의 삶을 재현하는 공통점이 있다. (가)에서는 6·25 전쟁에 해당하는 ‘사변’을, (나)에서는 4·19 혁명에 해당하는 ‘4·19’를 작품의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 ② <보기>에 따르면, (가)는 역사적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삶의 태도를 바꾼 인물들을 대조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가)에서 ‘사명’을 포기하고 부유해진 ‘조운’의 삶과 가난해졌으나 ‘사명’을 찾은 ‘미이’의 삶이 대조되는 것을 가리킨다.
- ③ <보기>에 따르면, (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과거와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를 대조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나)에서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던 4·19 시기의 ‘우리’와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는, 18년이 지난 현재의 ‘우리’가 대조되는 것을 가리킨다.
- ④ <보기>에 따르면, 두 작품은 신념의 지향과 생활의 순용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성찰적 내면을 그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에서 ‘조운’이 ‘미이’의 말을 회상하며 느끼는 ‘부끄러움’과 (나)에서 ‘우리’가 동승동 길을 걸으며 느끼는 ‘부끄러움’은 모두 현재의 소시민적 생활을 반성하며 느끼는 감정으로 볼 수 있다.

10 갈래 복합 본문 286~290쪽

01 ② 02 ③ 03 ③ 04 ③ 05 ② 06 ②

(가) 김남조, 「설일」

해제 이 작품은 대상에 대한 관찰과 사색을 통해 너그러운 삶의 태도를 다짐하며 새해를 맞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시이다. 화자는 외로이 서 있는 겨울나무를 보고 있다가 그 나무도 바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어서 화자는 이러한 인식을 확장·심화하여, 어떤 존재도 혼자인 것은 아니며 황송한 마음과 너그러운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하늘 아래 홀로 서 있을 때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준다는 생각과, 삶과 사랑이 은총과 섭리라는 진솔에는 경건한 종교적 관점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주제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영위하려는 다짐

구성

- 1연: 겨울나무와 바람이 함께라는 인식
- 2연: 어느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
- 3연: 삶과 사랑을 은총과 섭리로 여기는 생각

- 4연: 너그러운 삶에 대한 다짐
- 5연: 새해를 맞는 순수한 마음

(나)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해제 이 작품은 시련에 굴하지 않고 강인한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삶의 태도를 노래한 시이다. 화자는 ‘상한 갈대’, ‘부평초 잎’ 등이 그러하듯, 얼핏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삶의 고난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면 그 고통과 설움을 이겨 낼 수 있으며 암담한 현실에서도 연대할 동반자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을 상징적인 시어들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주제 고통을 대면하고 수용하는 성숙한 삶의 태도

구성

- 1연: 고통을 직시하려는 각오
- 2연: 고통에 맞서 현실을 수용하는 자세
- 3연: 성숙한 삶의 태도와, 자신이 연대할 존재에 대한 기대

(다) 이청준, 「아름다운 흉터」

해제 이 작품은 어린 시절 손에 생긴 흉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올바른 태도에 관한 생각을 드러낸 수필이다. 글쓴이는 자기 손의 흉터를 부끄럽게 여기던 사춘기를 지나, 청년 시절에 직장 선배의 말을 들으며 흉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 글쓴이는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겪기 마련이며, 흉터는 그 극복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진 삶을 보여주는 흔적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주제 시련과 고통을 성실히 극복해 가는 삶의 가치

구성

- 처음: 어린 시절 손에 생긴 세 군데 흉터와 그로 인한 열등감
- 중간: 청년기에 직장 선배의 손을 보고 갖게 된, 자기 흉터에 대한 자부심
- 끝: 고난을 극복하는 참된 삶의 가치에 대한 예찬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에는 ‘상한 영혼이여’, ‘고통이여’처럼 청자를 호명하여 소통의 대상을 드러낸 부분이 있지만, (가)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삶은 언제나 /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 사랑도 매양 /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에서 대구를 활용하여, (나)는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 가기로 작정하면 지는 해가 문제랴’,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 영

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에서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가)는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는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나)는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 가기로 작정하면 지는 해가 문제라'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서는 태도와 관련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④ (가)는 '혼자는 아니다 /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에서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어떤 존재도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한편 (나)는 '충분히 흔들리자 ~ /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에서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흔들리는 상태를 수용하고 고통스러운 현실과 맞서자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⑤ (가)는 '~ 이 생명을 살자'와 '~ 한세상을 누리자'에서, (나)는 '~ 고통에게로 가자'와 '~ 살 맞대고 가자'에서 청유문을 통해 삶에 대한 다짐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삶의 고통이나 슬픔도 하늘로 올라가 신의 은총을 얻은 뒤에 깨끗하고 순수한 백설이 되어 내려오는 것에 대한 진술이므로, 슬픔을 잊어 보려는 노력의 덧없음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바람을 빨래에 빗댄 직유이며,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마치 가지에 매달린 빨래인 것처럼 보는 것으로 표현한 시구이다.

② 뒤에 '은총'이나 '섭리' 같은 시어들이 등장하는 맥락을 고려할 때, ㉢의 '하늘'은 절대자, 즉 초월적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개울'이 '이 세상 어디서나' 흐른다는 ㉣은 '물 고이면 꽃은 피'는 '부평초 잎'에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 있음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은 '고통과 설움의 땅'을 지닌다는 내용이므로 시련에 찬 현실을 넘어서는 상태에 대한 희망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03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다)의 앞부분에 나오는 회상에 따르면, 세 종류의 흉터는 각기 첫 소풍을 앞두고 누렁이 이빨에 물린 상처, 남의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입은 상처,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 농사를 거들며 낫질을 하다 생긴 상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

들이 무모한 용기를 드러내려다가 생겼다는 것은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골에서 광주로 중학교 진학을 나오면서부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의 두 손등과 손가락들에는 세 종류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에서 말한 그 흉터들이 바로 어린 시절에 생겨 어른이 된 후까지 남아 있는 흉터이다.

④ '세월이 흘러 직장 일을 다니는 청년기가 되었을 때 그 흉터들과 불품없는 손끝이 거꾸로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과 은근한 자랑거리로 변해 갔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요즘 사람들 가운데엔 작은 상처나 흉터 하나 지니지 않으려 함은 물론, 남의 아픈 상처 또한 거기 숨은 뜻이나 값을 한 대목도 읽어 주지 못하는 이들이 흔해 빠진 현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 '상한 갈대'가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는 모습을 화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설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뿌리 없이 흔들리는'이라는 시구는 비록 것처럼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부평초라고 할지라도 조건만 충족되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희망적인 진술을 하기 위해 사용된 것일 뿐, 그 자체로 화자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는 바람직한 행동의 준거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풍경을 관찰하던 (가)의 화자는 외로워 보이는 겨울나무도 실상은 바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를 확대·심화하여 외톨이로 서 있는 인간도 하늘과 함께 있는 것이며 나아가 모든 존재는 혼자가 아니라는 보편적인 진술을 도출하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삶이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고 사랑이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라는 인식을 심화함으로써 삶이란 '황송한 축연'이기에 더 너그러운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상한 갈대'가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는다는 사실을 인간의 삶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깜깜한 밤'이 상징하는 암담한 현실에서도 '마주 잡은 손', 즉 연대할 동반자가 존재하기에 선불리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다)의 글쓴이는 자기 손의 흉터에 대해 직장 선배가 해 준 이야기를 듣고 과거의 시련을 이겨 낸 자기 삶에 대해 자부심

을 갖게 된다. 이는 비단 손의 흉터처럼 눈에 보이는 외형상의 흉터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든 안 보이게든 삶의 쓰라린 상처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05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㉔는 ‘캄캄한 밤’이 상징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마주 잡을’ 대상이므로, 화자가 고통을 견디기 위해 연대할 수 있는 대상이다. ㉕는 글쓴이의 손에 있는 흉터를 보고 그것이 생긴 이유를 안다며 보여 준 선배의 손이므로, 글쓴이가 ‘많은 상처 자국들이 수놓여 있’다는 점에서 동질감을 느낄 만한 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에 대해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㉕에 대해 글쓴이가 자신의 회한, 즉 뉘우침이나 한탄을 토로하는 것도 아니다.
- ③ ㉔는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㉕는 글쓴이가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다.
- ④ ㉔를 통해 글쓴이는 삶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㉔에 대해 화자가 의구심, 즉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
- ⑤ ㉔는 화자가 연대할 대상이므로 소유하기를 욕망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없고, ㉕는 애초에 글쓴이에게 용서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대상이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 말없이 삭이고’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는 살면서 느낀 불평과 불만, 남에 대한 원망 등을 말로 내뱉었지만, 앞으로는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관용적인 태도로 살겠다는 다짐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외로움 때문에 절망한 독자가 이 시구를 읽고 사회관계의 적극적인 확대를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으로 삼을 것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사랑도 매양 /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를 <보기>에 적용하여 해석해 보면, 사랑에 관한 일들도 자갈밭을 걷듯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것 역시 신이 마련한 섭리의 일환이기에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구를 통해, 사랑으로 인한 상처를 입은 독자가 그 아픔 또한 삶의 본질 중 일부라고 이해하게 되리라는 추론은 적절하다.
- ③ (나)의 ‘가기로 작정하면 지는 해가 문제랴’는 아무리 먼 길

답 ②

이라도 기어이 가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해가 지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악조건으로 인해 고난을 겪는 독자가 이 시구를 읽고 암울한 현실을 극복할 의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적절하다.

④ (나)의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에서 ‘비탄’은 몹시 슬퍼하면서 하는 탄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이 시구는 어떤 슬픔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 시구를 읽은 독자가 자신의 슬픔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미래를 낙관하게 되는 계기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⑤ (다)의 글쓴이는 직장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 손의 흉터가 ‘떴떳하고 자랑스런 내 삶의 한 기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어린 시절 가난에서 비롯된 고통의 흔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환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독자는 이러한 긍정적 수용 태도를 본받을 수 있으리라는 추론은 적절하다.

11 갈래 복합 본문 291~296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② 05 ④ 06 ③

(가) 구상, 「초토의 시·8 - 적군 묘지 앞에서」

해제 이 작품은 1956년에 발간된 시집 『초토의 시』에 실린 15편의 연작시 중 여덟 번째 시로, 시인이 6·25 전쟁의 휴전 직후에 친구가 지휘하는 포병 부대를 방문했다가 목격한 장면에서 얻은 감동을 시로 창작한 것이다. 이 작품은 6·25 전쟁으로 황폐해진 분단의 현실을 초토로 표현하면서 전쟁의 상처를 인간성의 회복으로 치유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시이다. 전사자의 묘지는 전쟁의 참상을 환기하는 곳이다. 화자는 이 장소에서 적개심과 미움이 어린, 적군과 아군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적군 전사자의 원한을 자신의 바람에 담고 그들의 넋을 추모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연민과 사랑으로 전쟁의 비극을 넘어서려는 화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주제 적군 묘지 앞에서 느낀 전쟁의 아픔과 치유의 의지

구성

- 1연: 눈을 감지 못한 적군 묘지의 넋들
- 2연: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는 적군의 묘지
- 3연: 분단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나와 너희’
- 4연: 분단된 현실에 대한 답답함
- 5연: 적군의 풀지 못한 원한에 대한 연민과 이해
- 6연: 분단의 아픔과 대비되는 자연의 풍경
- 7연: 추모와 애도를 통한 현실 극복의 의지

(나) 임철우, 「아버지의 땅」

해제 이 작품은 1984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전후로 우리 민족에게 생긴 상처와 그 치유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은 아영 훈련 중인 부대가 야전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참호를 파다 유골을 발견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와 그를 기다리는 어머니와 관련한 '나'의 기억과 생각을 겹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유골 수습을 계기로 어린 시절부터 막연히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증오에서 점차 벗어나 이해와 연민에 이르게 되는 인물의 심리 변화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 그리고 민족사의 양극으로 남아 여전히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전쟁의 상흔을 해소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 전쟁과 분단의 상처와 이해와 연민을 통한 치유

전체 줄거리 '나'는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 군인으로, 공산주의자였던 아버지로 인해 피해 의식을 갖고 살아온 인물이다. '나'와 오 일병은 야전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참호를 파는 과정에서 이름 모를 유골을 발굴하고, 유골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근 마을을 방문한다. 그 마을에서 '나'와 오 일병을 따라온 노인은 유골이 묻힌 곳과 그 인근이 6·25 전쟁의 막바지에 술한 시신이 묻혔던 곳임을 알려 준다. 노인은 군인들과 함께 유골을 수습하고 술과 안주로 간단한 제사를 지낸다. '나'는 노인을 집으로 모셔다드리게 되고 노인으로부터 전쟁의 와중에 실종된 그의 형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나'는 첫눈을 맞으면서,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렸던 어머니를 회상하며 그녀의 슬픔을 이해하고, 얼어붙은 땅 밑에 웅크리고 누운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의 고통과 죽음에 연민을 느낀다.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거리와 관련된 '삼십 리'라는 시어는 화자와 적군이 돌아가고 싶으나 그럴 수 없게 하는 휴전선과의 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대상과 다시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오호'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줄지어 누웠는 냇들'을 향한 화자의 슬픔을 부각한다.
- ② '너희'라는 이인칭 대명사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화자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듯한 어조를 취한다.
- ④ 은혜와 원한이 결합된 '은원(恩怨)'이라는 시어를 활용하여 무덤에 묻힌 적군에 대한 화자의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2연에서 상대의 목숨을 빼앗은 '방아쇠를 당기'는 행위와 시신을 추려 수습하는 행위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대상과의

적대적 관계를 넘어서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인 '구름'은 아무 장애 없이 북쪽으로 갈 수 있지만, ㉡인 '나'는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서로 대비를 이루어 ㉢는 ㉠가 처한 분단의 문제를 부각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인 '구름'은 ㉡인 '나'의 처지와 대비된다는 점에서 ㉢가 ㉠가 겪은 사건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인 '구름'이 북으로 간다는 점에 주목하면 ㉡인 '나'의 염원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를 ㉠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인 '구름'이 북으로 간다는 점에 주목하면 ㉡인 '나'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러한 암시가 ㉠의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 ⑤ ㉠인 '구름'은 ㉡인 '나'의 처지와 대비되나 대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과 ㉢를 갈등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예전에 여기서 무슨 유명한 전투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한 것 같은데.'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소대장은 노인의 말을 듣고 '여기'에 어떤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느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소대장이 노인의 말에서 육이오의 유명한 전투를 회상하고 애통함을 느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노인은 밤새 총소리가 어지럽던 다음 날엔 들녘이며 산기슭에 허영게 널린 시체를 모아다 묻는 일을 해야 했다는 것'이라는 부분을 통해 과거에 노인은 치열한 전투로 죽게 된 사람들을 매장하는 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그걸 누가 압니까. 그때야 워낙 피차에 서로 죽고 죽이던 판인데…….'라는 말을 통해 인사제가 유해의 정체를 '빨갱이'라고 생각한 소대장의 추론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오 일병이 노파가 준 북어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었다.'라는 부분을 통해 오 일병이 노파에게 받은 북어를 내놓으며 음복하는 노인의 행위를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노인의 음성은 낮았지만 강하고 무거웠다. 그러면서도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뺏조각에 묻은 흙을 정성스레 닦아 내고 있었다. 무슨 귀한 물건마냥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신중히 손질하고 있는 노인의 자그마한 체구를 우리는 둘러서서 지켜보았다. 모두들 한동안 입을 다물었고’라는 부분을 통해 군인들은 노인의 질책 이후에 대화를 멈추고 노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장면은 ‘나’가 환영으로 본 장면으로, 아버지는 ‘나’가 태어나기 전 떠나 다시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장면을 어린 시절의 회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과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를 통해 ‘나’는 줄 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모습에서 남편의 귀환을 기다리는 어머니를 떠올렸음을 알 수 있다.

③ ‘나’가 음복에 참여하며 떠올린 어머니의 말은 ‘저것 봐라 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인데, 이 말에는 때가 되면 돌아오는 날짐승처럼 자신의 남편도 가족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어머니의 그리움이 깃들여 있다.

④ ‘나’는 유해를 수습한 후 ‘헹하니 열려 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이러한 상상은 최후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두려움과 고통에 ‘나’가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⑤ ‘나’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아버지를 떠올리며 탄식하는데, 이는 유해를 여전히 찾을 수 없는 아버지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나’가 연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0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는 ‘벼랑’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고 묘사하는데, 이는 전쟁 중 그런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낯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마을 사람들이 불행을 겪게 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전쟁의 결과인 분단된 국토를 상징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적군 묘지’는 전쟁을 통해 죽게 된 많은 사람들

답 ②

답 ④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전쟁의 참상을 환기한다.

② (가)에서는 ‘무인공산의 적막’이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천만근’이라는 무게감을 나타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전쟁으로 인해 고착화된 분단의 현실에 대한 화자의 답답함을 드러낸다.

③ (나)에서는 노인이 이 마을에서 ‘사람 죽는 꼴을 지겹도록 지켜본’ 일에 대해 증언하는데, 이는 전쟁의 폭력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된 사건을 고발하는 성격을 지닌다.

⑤ (나)에서는 시신들을 묻은 ‘밭’에 한동안 감자나 무 따위를 심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의 행위를 서술하면서 전쟁에서 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암시한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보기>에 따르면 (가)에서는 적군의 마음을 연민하는 모습이 제시된다. ㉠에서 포성을 울리는 것은 남북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포성을 전자자를 추모하거나 적군의 고통에 연민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 따르면 (가)에서는 적군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이 제시된다. ㉠은 ‘줄지어 누웠은 닛들은 / 눈도 감지 못’할 것이라며 그들의 원통함을 이해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보기>의 설명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가)에서는 적군을 애도하는 모습이 제시된다. ㉡은 적군의 무덤을 정성을 들여 경건하게 조성하는 모습으로, 이는 적군을 전쟁의 희생자로서 애도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보기>의 설명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나)에서는 적군과 아군이라는 전쟁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은 유해의 정체가 ‘이 쪽과 저쪽’ 중 어디인지를 따지는 군인들의 행위를 나무라면서 전쟁의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보기>의 설명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나)에서는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을 통해 훼손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모습이 제시된다. ㉣은 유해를 수습하는 행위를 산 사람들의 도리로 간주하는데, 이는 전쟁으로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의 닛을 기리는 행위를 통해 전쟁의 폭력으로 훼손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보기>의 설명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3부 실전 학습

실전 학습 1회

본문 298~313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④	05 ②
06 ④	07 ④	08 ②	09 ④	10 ④
11 ⑤	12 ⑤	13 ⑤	14 ③	15 ③
16 ②	17 ⑤			

[01~06] 갈래 복합

(가) 정민, 「그림과 시」

해제 한시의 감상 방법을 소개하는 예술 이론으로 현대 수필의 일종이다. 시와 그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화적 성질에 주목하여 경물의 묘사를 통한 정의를 포착을 중시하는 한시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객관적 물상에 지나지 않는 경물에 자신의 마음을 얹어 표현해 내는 것이 시와 그림의 공통적 수법임을 밝히고 있다.

주제 시와 그림이 지닌 유사성

구성

- 처음: 경물의 묘사를 통해 정의를 포착하는 방법
- 중간 1: 입상진의의 구체적인 예 ①
- 중간 2: 입상진의의 구체적인 예 ② (종략)
- 끝: 말하지 않고 말하는 그림과 시의 수법

(나) 이달, 「불일인 안운 스님에게」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선조 때 이달이 지은 한시로 오언 절구에 해당한다. 속세와 떨어져 있는 절에 묻혀 살아가는 스님을 중심으로 탈속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다. 구름 속에 묻혀 길도 쓸 필요가 없는 고요하고 한적한 절에서 수양을 하던 스님이 손이 오고 난 후에야 계절의 변화를 깨달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회화적 풍경 속에 속세를 벗어난 스님의 삶을 투영하고 있다.

주제 자연 속에 묻혀 수양하는 스님과 탈속의 세계

구성

- 기: 속세와 떨어진 깊은 산속의 절
- 승: 흰 구름을 쓸지 않는 스님
- 전: 손님이 온 후에야 문을 열어 보는 스님
- 결: 시간의 흐름에 얽매이지 않는 탈속의 경지

(다) 정철, 「재 너머 성 권농 집에～」

해제 조선 시대 유명한 작가인 정철이 지은 시조로, 성 권농

집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경쾌하게 서술하고 있다. 시적 화자인 '정 좌수'는 정철의 분신과 같은 존재로 '술 익단 말'을 듣고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술과 벗을 좋아하는 작가의 풍류와 멋스러움을 생동감 있게 드러낸 작품이다.

주제 전원생활의 풍류와 술을 즐기는 삶

구성

- 초장: 성 권농의 집에 술이 익었다는 소식을 들음.
- 중장: 소를 발로 박차 일으켜 허둥지둥 성 권농의 집을 찾아가.
- 종장: 친구 집에 도착하여 아이에게 자신이 성 권농을 찾아 왔음을 알림.

(라) 김수장, 「서방님 병들어 두고～」

해제 이 작품은 김수장이 지은 사설시조로, 병든 남편을 위해 화채를 만들어 주려는 여성을 화자로 삼고 있다. 여인은 자신이 가진 '다리'를 팔아 화채의 재료를 구입하는데, 오화당을 잊은 것을 깨닫고 한숨을 짓는다. 병든 남편을 위한 여인의 정성과 사랑을, 맛있는 화채를 만들려고 준비하다가 빠진 재료를 떠올리며 안타까워하는 상황과 관련지어 효과적으로 구현해 낸 것이 특징이다.

주제 병든 남편을 위한 아내의 정성과 사랑

구성

- 초장: 병이 든 서방님을 위해 해 줄 것을 고민함.
- 중장: 저자에 나가 다리를 팔아 화채를 만들 재료를 사 왔으나, 오화당을 잊어버린 것을 깨달음.
- 종장: 수박에 손가락을 꽂은 채로 한숨을 지으며 안타까워함.

01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글쓴이는 송나라 휘종 황제의 화제와 『형설총설』의 이야기를 '상세한 설명 대신 형상을 세워 뜻을 전달'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을 그릴 때 '경물'이 직접 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을 드러내려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글쓴이는 시와 그림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모두 '경물의 묘사를 통한 정의의 포착을 중시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 ② (가)의 글쓴이는 시는 곧 '소리 있는 그림'이라고 말하며, '사의전신'이나 '입상진의'가 두 예술 갈래의 공통적 특징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러한 표현 방법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④ (가)의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화가가 그리지 않고 그리는 방법’과 ‘시인이 말하지 않고 말하는 수법’ 사이의 공통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글쓴이는 시가 객관적 상관물의 원리로서 독자와 훌륭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원리나 방식이 그림을 그릴 때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⑤ (가)의 글쓴이는 시와 그림이 ‘대상 속에 응축시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시를 읽거나 그림을 감상할 때 응축시키고 감추어 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02 문학 이론 및 비평의 이해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 ㉠ ‘손님’은 스님이 문을 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스님은 ‘온 골짜기의 송화꽃’이 ‘벌써 쇠었’음을 깨닫게 된다. ‘손님’이 ‘스님’이 기다리던 인물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송화꽃’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스님의 염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손님’은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탈속’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스님이 더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원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치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물동이를 지고 올라가는’ (가)의 ㉡ ‘중’을 통해 감상자는 그림에 등장하지 않은 ‘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절’을 그리지 않고 ‘절’을 그려 낸 사례라 할 수 있다.

② (가)의 ㉢ ‘나비 떼’가 말을 따라가는 그림을 본 감상자는 말의 어딘가에서 꽃향기가 나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된다. 화제에 제시된 ‘향내 나네’라는 후각적 이미지를 ‘나비 떼’의 모습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낸 것이다.

④ (다)의 ㉣ ‘소’는 화자인 ‘정 좌수’가 ‘성 권농’의 집에 가기 위해 탄 운송 수단이다. 화자가 누워 있는 소를 발로 걷어차 일으키는 행위를 드러냄으로써 한시라도 빨리 ‘성 권농’의 집에 가고 싶은 속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라)의 ㉤ ‘오화당’은 화자가 ‘종루 저자’에서 깜빡하고 사지 못한 물건으로, 화채의 단맛을 돋우는 데 필요한 재료를 넣지 못하는 화자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소재이다.

03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다)의 경우 화자가 지내는 곳에서 ‘재 너머 성 권농’의 집

까지 화자가 이동하는 상황이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고, (라)의 경우 화자가 ‘종루 저자’를 다녀온 후 집에서 ‘화채’를 준비하는 상황이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다. 두 작품 모두 과감한 생략을 통해 화자의 이동과 공간적 배경의 변화가 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나)의 경우 시간의 단절과 변화는 느껴지지만, 화자의 이동이나 공간적 배경의 변화는 강조되지 않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다)에는 ‘아이야’와 같이 부르는 말이 사용되었지만, 감탄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에는 감탄사가 보이지 않는다.

② (나)에는 스님이 지내는 ‘절’이라는 공간이, (라)에는 ‘종루 저자’라는 공간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라)에서 화자의 집이라는 공간을 연상할 수 있지만, 해당 공간이 가진 상징적 의미가 부각되지 않는다.

③ (나)에는 절에서 지내는 ‘스님’과 절을 찾아온 ‘손님’이, (다)에는 재 너머 사는 ‘성 권농’과 ‘정 좌수’가, (라)에는 ‘서방님’과 시적 화자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하지만, 두 인물이 처한 상황을 대비적으로 드러내어 해학적 분위기를 연출하지는 않았다.

④ (나)의 경우 화자가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라)의 경우 화자의 행위에 대한 인물의 대응 방식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나)와 (라) 모두 화자의 행위에 대한 인물의 대응 방식을 통해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작품은 아니다.

04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스님’은 ‘온 골짜기의 송화꽃’이 ‘벌써 쇠었’다는 것을 알고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를 확인하게 된다. 이는 ‘문’을 닫고 수행한 시간이 오래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시간 동안 속세와 무관하게 살아왔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구의 ‘문이 열리니’에서 스님이 마주한 것은 시비로 가득 찬 속세의 모습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골짜기의 모습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②, ③ 기구에서 ‘절’은 ‘흰 구름 속에 묻혀’ 찾기 힘든 곳으로 묘사되고 있고, 승구의 ‘쓸지도 않네’를 통해 ‘스님’이 바깥의 상황, 즉 속세의 번뇌와 잡념에 관심이 없고 크게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님이 와서야 비로소 문이 열리’는 상황을 볼 때 ‘스님’은 ‘절’에서 오랜 시간 지내며 수양을 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기구부터 전구까지는 구도자로서 스님의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⑤ 결구에 제시된 ‘송화꽃’의 변화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있음을 드러낸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송화꽃 벌써 쇠었네’는 ‘스님’이 보낸 구도의 시간이 길고도 깊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05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다)에서 화자는 ‘술 익단 말 어제’ 들은 후 ‘성 권농’ 집에 급하게 찾아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성 권농’과 함께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라)의 화자는 ‘병’이 든 ‘서방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다가 재료를 다 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결국 ‘서방님’에 대한 애뜻한 사랑의 마음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다)의 화자가 ‘성 권농’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시적 상황을 통해 잘 드러나지만, 그것이 ‘오해를 풀어야’ 해서 그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라)의 시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단지 ‘음식을 만들 때에 재료를 잘 챙기’라는 것은 아니다.

③ (다)의 화자가 친구인 ‘성 권농’을 바로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는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화자의 아쉬움’을 표현한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라)의 시인이 진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오화당’이라는 재료를 빼고 음식을 만들었을 때의 결과나 그에 대한 아쉬움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④ (다)의 경우, ‘성 권농’과 ‘정 좌수’의 친분 관계가 어떻게 깊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시적 상황을 통해 화자가 ‘성 권농’에게 ‘술’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이다. (라)의 경우 ‘오화당’을 사지 못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시상의 전개 과정을 고려할 때 ‘오화당’을 일부러 사지 않은 것이라 볼 수는 없다.

⑤ (다)에서 화자가 ‘누운 소 발로 박차’ 일으킨 것은 ‘성 권농’ 집에 가서 술을 먹기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까닭을 굳이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라)에서 여성 화자는 ‘다리’를 팔아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부유한 형편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시인은 ‘다리’를 파는 행위를 언급해 화자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 드러내고 있지만, 그로 인해 재료를 구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06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라)는 작가인 김수장이 여성 화자를 활용하여 서방님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중장에 제시된 ‘아차아차 ~ 잊어버렸구나’는 화자의 혼잣말로 볼 수 있으며, 특정한 청자를 등장시켜 말을 거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에는 ‘스님’과 ‘손님’이라는 인물이 언급되어 있지만, 시적 화자나 시적 청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스님’과 ‘손님’은 시인이 지켜보는 시적 대상에 가깝다. <보기>에 따르면 (나)는 작품 표면에 시적 화자를 등장시키지 않고 시적 상황이나 분위기만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보기>에 따르면 ‘정 좌수’와 ‘성 권농’은 작가인 정철과 그의 친구를 대변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 좌수’는 (다)의 시적 화자이자 작가의 분신으로서, 바람이나 기대를 드러내며 ‘아이’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③ (다)에는 ‘성 권농’이 언급되지만, 작품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화자인 ‘정 좌수’는 종장에서 ‘성 권농’의 하인으로 짐작되는 ‘아이’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따라서 작품 속에서 청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이’이다.

⑤ (라)의 ‘아차아차 ~ 잊어버렸구나’는 시적 화자의 혼잣말로 볼 수 있는데, 이 화자는 ‘병’이 든 ‘서방님’을 위해 자신의 ‘다리’를 팔아 음식의 재료를 구하고 있다. ‘다리’는 여자들이 쓰던 가체를 이르는 말이므로, (라)의 시적 화자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

[07~10] 고전 산문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해제] 이 작품은 김시습의 『금오신화』 5편 중 한 편이다. 한문으로 지어졌으며 내용상 명혼(冥婚) 소설, 애정 전기 소설로 구분된다. 양생이 한스럽게 죽은 여인의 원혼을 만나 생사를 초월하여 사랑을 나누다가 운명으로 인해 이별하게 된다는 것이 주요 서사를 이룬다. 이 소설은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남녀의 강렬한 사랑이 세계의 횡포 앞에 좌절되는 비극을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소설사에 서 그 의미가 매우 큰 작품으로 평가된다.

[주제] 삶과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전체 줄거리 전라도 남원에서 외롭게 살던 양생은 짝이 없어 슬퍼하다가 만복사의 불상과 저포 놀이를 하며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잠시 후 아름다운 한 여인이 나타나 자신의 한스러운 사연과 운명적 인연과의 만남을 위한 기원을 담은 축원문을 불상 앞에 바친다. 양생과 여인은 인연을 맺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며칠 후 여인은 양생에게 은그릇을 주며 재화를 기약하고 헤어진다. 다음 날 양생은 여인이 말한 대로 딸의 대상을 치르기 위해 보련사로 가는 여인의 부모를 만나게 된다. 양생은 여인의 부모로부터 여인이 왜구의 침입 때 죽은 원귀임을 알게 되고, 양생과 여인은 절에서 재회한 뒤 운명에 따라 이별한다. 그 후 양생은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지냈는데, 이후 양생이 어떻게 생을 마쳤는지 아무도 모른다.

07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여인의 부모는 여인과 양생이 이별할 때, 시 읊는 ‘소리가 차츰 잦아’든 뒤에야 ‘그동안의 일이 사실임을 깨닫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인의 부모가 양생과 여인이 식사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죽은 딸이 귀신으로 나타나 일어나게 된 일을 사실로 믿고 의심을 거두게 되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양생은 여인의 말에 따라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여인의 장례 행렬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은그릇을 지닌 경위에 대한 물음에 전날 여인과 약속한 그대로 여인의 부모에게 대답하였다. 이를 통해 양생은 여인이 사전에 언급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알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에게는 오직 딸아이 하나만이 있었’다는 여인의 부모가 한 말과 여인이 ‘어려서 『시경』과 『서경』을 읽었으므로 예의가 무언지 조금이나마’ 안다고 한 것으로부터 여인이 귀족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 경전을 통해 예법을 익히면서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보련사에서 여인이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인의 친척들과 절의 승려들은 모두 그것을 믿지 않았다. 오직 양생만이 혼자 볼 수 있을 뿐이었’으므로 양생은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양생은 여인과 이별한 후 ‘여인에 대한 애정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장가들지 않고 혼자 지내다가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양생은 여인에 대한 그리움과 실연으로 인한 슬픔에 사무쳐 살았으며, 결혼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종적을 감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8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여인의 부모는 양생으로부터, 여인이 양생에게 알려 준 ‘은그릇을 지니게 된 경위’를 듣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여인이 은그릇을, 자신과 양생이 맺은 인연을 여인의 부모가 인식하게 만드는 매개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여인의 부모가 은그릇 때문에 양생이 여인의 배필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하지는 않았다.

③ 여인의 부모는 양생이 은그릇을 가지게 된 경위를 듣고 난 뒤 놀랍고 의아하게 생각했을 뿐이며, 나중에는 은그릇을 양생이 갖게 해 주었다. 따라서 은그릇이 그 소유권을 두고 양생과 여인의 부모 사이에 갈등을 심화하는 장치로 작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그릇은 양생과 인연을 맺은 여인이 양생에게 준 것이다. 따라서 여인의 부모가 양생과 여인에게 인연을 맺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여인의 부모는 양생이 가지고 있던 은그릇이 여인의 것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여인의 도움을 받아 양생이 여인의 부모에게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은그릇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여인은 ‘업보는 피할 수가 없’으며, ‘저승길이 기한 있어’ 이 별한다고 했다. 이로부터 양생과의 이별은 여인의 운명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여인이 ‘작별을 당’하여 저승길이 기한이 있다며 양생과의 이별을 수용하는 이유를 시간의 한계성 속에서 밝히고 있을 뿐 이별을 거부하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여인은 자신이 저승으로 가게 되어 양생과 ‘훗날 다시 만나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을 ‘저승길’로 가야 하는 기한 때문이라고 했을 뿐, 부모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다.

③ ‘우리 임께 바라오니, 저를 멀리 마옵소서.’에서 여인은 양생과 ‘멀리’하고 싶지 않은 소망을, 신이 아니라 양생을 청자로 하여 양생에게 직접 기원하는 어조로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여인은 이별을 앞두고 ‘정신이 아득하기만’ 하였으며 이별 후 겪게 될 심리 상태를 ‘아득한 저승에서, 마음에 한 맺히리.’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 인격을 부여한 자연물에 의탁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 여인은 귀신이 되어서라도 사랑하는 낭군의 아낙으로 절개를 바치고, 한평생 지어미로서의 도리를 닦아 즐거움을 다 누리므로써 원한을 풀려고 했었다. 하지만 여인은 '한스럽게도 업보는 피할 수가 없'다고 하였고, '즐거움을 다 누리지도 못했는데 슬픈 이별이 갑작스레 닥쳐왔'다고 했다. 이는 자신이 소원하던 바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고 한스럽게 저승길로 떠나게 되었음을 뜻하므로, ④의 진술은 '원한 해소의 과정과 결과'가 들어가야 할 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 '지난번에 절에 가서 ~ 인연을 만나게 되었지요.'에서 여인은 귀신의 모습으로 양생과 인연을 맺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혼이 양생에게 나타난 것으로 '원혼의 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㉑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② ㉒: 여인은 왜구가 침입했을 때 적에게 해를 입어 죽게 되었으며 장례도 없이 그 신신이 묻혔다. 이러한 비극을 겪은 일로 인해 여성은 원한을 품은 귀신, 즉 원혼이 되었다. 이는 '원한 형성의 배경'과 관련된 것이므로 ㉒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③ ㉓: 여인은 가매장되어, 오랫동안 쑥 덩불 우거진 곳에서 외롭게 지냈다. 그리하여 여인은 사랑하는 남성과 인연을 맺어 보지도 못한 채 자신의 일생 운수가 박복하다는 것으로 인해 원한을 품게 되었다. 이 역시 선지 ②의 내용과 중첩을 이루며 원한 형성의 배경과 관련된 것이므로 ㉓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⑤ ㉕: 여인은 삼세의 인연으로 생각한 남자, 즉 양생을 만나 사랑을 나누었다. 이별 후에도 양생은 여인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밭과 집을 모두 팔아 계속 재를 올렸으며, 그런 지성을 드린 결과적 혜택으로 여인은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는 '원한 해소의 과정과 결과'와 관련된 것이므로 ㉕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11~13] 현대시

(가)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

[해제] 이 작품은 꽃을 통하여 존재의 본질을 탐색한 시이다. 여기에서 '꽃'이란 화자가 그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지만 쉽게 그 본질에 가닿을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것은 마지막 행의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라는 이미지로 집약된다. 화자는 '꽃'의 내면적 의미의 실상을 파악해 보려고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한밤내' 치열한 노력을 계속한다. 하지만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에서처럼 이러한 노력은 끝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어떤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란 이처럼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하지만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은 존재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역설적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

주제 존재의 본질 탐색에 대한 염원

구성

- 1연: 존재의 본질 탐색에서 마주하는 한계
- 2연: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한 노력과 고통
- 3연: 존재의 본질 탐색을 위한 간절한 염원과 기대
- 4연: 미지의 존재에 대한 설렘

(나) 오세영, 「등산」

[해제] 이 작품은 산을 오르며 느끼고 깨달은 바를, 진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확장하고 있는 시이다. 화자는 무명을 더듬는 별레로 비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빛, 즉 진리를 탐구하는 진지한 열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등산을 하며 좀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인생의 믿음조차 심하게 흔들릴 수 있음을 느낀 화자는 인생이란 쉽 없이 빛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된다. 또한 화자는 등산을 하며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과 행복과 불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임을 깨닫고 있다.

주제 빛(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

구성

- 1연: 흔들리는 삶의 무게
- 2연: 쉽 없이 빛을 찾으려는 노력
- 3연: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깨달음
- 4연: 임박을 오르는 바람직한 자세
- 5연: 목표를 향해 가까이 가려는 노력

1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에는 '된다', '피었다 진다', '운다'와 같은 현재형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화자의 긴장감이 드러나고 있다. 또 (나)에는 '흔들린다', '더듬는다', '않는다'와 같은 현재형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가 산을 오르는 긴장감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4연에서 영탄적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나)에서는 담담한 독백적 어조가 사용되고 있을 뿐 영탄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② (가)에서는 화자가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의인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근감을 표현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③ (나)에서는 정상을 향해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에서는 화자가 공간의 이동을 통해 변화하는 심리를 드러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④ (가), (나) 모두에서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1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화자가 규명하고자 하는 존재의 본질을 밝히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는 ㉠ 속에서 ‘한밤내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 ㉡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는 화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곳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 빛이 없는 현재의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화자가 존재의 본질을 밝히지 못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므로, ㉡을 현실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은 화자가 빛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을 현실에 대해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은 화자가 규명하고자 하는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로, 화자가 마주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 화자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또 ㉡은 빛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화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므로, ㉡이 화자의 본질적인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암울한 현실을 나타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화자가 본질을 규명하지 못한 부정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는 ㉠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화자가 느끼는 불안함을 나타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 ㉡은 빛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화자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므로, ㉡이 화자가 느끼고 있는 좌절감을 나타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화자가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며, 언젠가는 화자의 노력으로 인해 존재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화자가

깨닫게 된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 ㉡은 빛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화자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므로, ㉡이 화자가 느끼게 된 심리적 모멸감을 나타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는 화자가 그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상이자, 아직까지 그 본질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구를, 화자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장담할 수 없는 일임을 나타내는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나의 울음’은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과 고통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둘개바람이 되어’ ‘금이 될 것이’라는 표현에는 언젠가는 자신의 이러한 소망과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의 화자는 등산의 과정 속에서 그가 지향하고 있는 정상을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으며 그가 지향하는 곳과 정반대 방향인 아래를 ‘내려다보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화자의 행위는 화자가 자신의 지향을 향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로 정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울음’을 울며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또 (나)의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바에 가까이 가기 위해 휴식 없이 정진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감내하고 있다.

④ (가)의 화자가 ‘한밤내’ 오는 행위는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자 고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 (나)의 화자가 ‘암벽을 더듬는’ 행위 역시 자신이 지향하는 바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14~17] 현대 소설

■ 최인호, 「모범 동화」

【해제】 최인호의 초기 단편에 속하는 작품으로 순수한 아이들의 세계만큼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전제로 깔고 있다. 결코 모범적이지 않은, 다소 사기성이 농후한 행동을 일삼는 어른과 이를 추종하는 아이들, 어른들 세계의 위선과 타락 등을 간파하고 폭로를 서슴지 않는 소년의 모습을 통해 1970년대

산업화 시대의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인 생기와 발랄함, 순수함과는 달리 늘 피곤한 표정으로 어른들에게 냉소를 드러내는 아이 같지 않은 아이, 애어른과 같은 소년의 모습을 통해 현실의 부조리함과 모순을 보여 준다.

주제 아이답지 않은 아이를 통해 드러나는 현실의 부조리

전체 줄거리 피란민 출신으로 D 국민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강 씨는 아이들을 잘 닦인 동전과 같이 물질적 대상, 돈을 벌게 해 주는 대상쯤으로 생각한다. 학교 앞 장사를 독점하다시피 했던 강 씨는 다른 장사치들을 얼씬도 못하게 막았고, D 국민학교 아이들 역시 강 씨 이외의 장사꾼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강 씨가 D 국민학교 아이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처세와 교묘한 그의 연기력 때문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학교 앞을 손수 비로 쓸거나 수세 의연금을 내는 등의 연기를 펼쳐 아이들의 신뢰를 얻는다. 강 씨는 그런 점을 이용하여 온갖 사행성 짙은 놀이를 통해 아이들을 상대로 돈을 벌어나간다. 그러던 중 전학을 온, 아이답지 않은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는 학교 선생님, 마술 쇼의 마술사 등을 조롱하며 어른들 세계의 위신과 거짓을 폭로한다. 강 씨 역시 전학생 소년에게 자신이 돈벌이로 활용하던 사행성 짙은 놀이를 통해 농락 아닌 농락을 당하는 등의 큰 상처를 입고 좌절을 겪게 된다.

14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요술의 원리를 설명하며 속아서는 안 된다는 전학생의 발언 이후 아이들은 큰 소리로 기침을 하는 행동, 수군거리는 행동, 휘파람을 날리는 행동 등을 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인물들의 행동을 서술함으로써 요술에 대한 아이들의 부정적 분위기가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대상의 외양 묘사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인물이 처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 ② 전학생의 발언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발화 주체인 전학생을 희화화하고 있지 않다.
- ④ 아이들이 기침을 하는 것이나 휘파람을 날리는 것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요술을 진행하던 여인에 대한 조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물들의 호의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서술자가 이야기 속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야기 속 인물인 서술자의 관찰자적 시선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를 통해 인물의 행동과 사건 정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15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원판 경기에서 소년이 이긴 것은 급우의 도움 덕분이 아니라 소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원판 경기에서 이긴 것을 두고 급우에게 고마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아이들이 요술은 속임수이며 어릿광대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다섯 배의 꿈은 이상으로, 사탕 두 알은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아이들이 꾸었던 다섯 배의 꿈, 즉 원판 경기를 통해 사탕 열 개를 얻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소년이 두 개의 동전으로 스무 개의 사탕을 획득했다는 것을 통해 소년이 한 개의 동전으로 얻을 수 있는 사탕 개수의 다섯 배에 해당하는 사탕, 즉 보상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모조리 나누어 주는 행동은 소년이 사탕에 집착하여 그것을 반드시 얻고자 원판 경기에 참여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6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동전’은 아이들이 원판 경기에서의 승리를 기대하며 손에 쥐고 있다가 내어놓게 되는 사물로, 열 개의 사탕을 얻는 것과 같은 요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비명’은 강 씨가 악몽에서 깨어나며 지르는 것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했던 강 씨가 원판 경기를 통해 접하게 된 소년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느끼는 불쾌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동전’은 아이들이 원판 경기에서의 승리를 기대하며 내어놓는 사물로, 열 개의 사탕을 얻는 것과 같은 목적 달성에 대한 열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비명’은 소년으로 인해 악몽을 꾸던 강 씨가 깨어나며 지르는 것으로, 소년에 대한 강 씨의 불쾌감을 내포하고 있다. 소년이 원판 경기를 휩쓸고 간 후 경기를 접고 가게 문을 닫은 강 씨가 원판 경기로 돈을 벌려고 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명’이 목적 달성 이후의 허망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아이들이 요행을 기대하며 내어놓는 ‘동전’이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불안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년으로 인해 악몽을 꾸던 강 씨가 깨어나며 지르는 ‘비명’이 통제 가능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동전’은 요행에 대한 아이들의 열망이나 기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계획한 바를 이루기 어렵다는 절망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비명’은 소년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강 씨가 악몽에서 깨어나며 지르는 것으로, 계획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⑤ ‘동전’은 아이들이 요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혹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혹을 물리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비명’은 원판 경기를 손쉽게 이긴 소년의 행동과 태도로 인한 강 씨의 불쾌감을 내포한 것이므로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을 보여 준다고 보기 어렵다.

1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강 씨가 소년의 ‘힐책하는 눈초리’를 떠올리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강 씨의 내면을 통해 순수함을 간직하기 어려운 세계의 부조리함을 강 씨가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세계의 부조리함을 개선하려 애쓰기로 강 씨가 결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소년이 요술을 관람하던 중 ‘저것보다 신기한 요술일지라도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가 지닌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두 가지 이유를 강 씨 자신도 미리 계산에 넣지 못한 바’가 아니라는 것은 아이들이 원판 경기 자리를 뜨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즉 가능성의 유혹에 말려드는 것과 이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강 씨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강 씨가 아이들의 선부른 욕망을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강 씨가 ‘어딘가 겁먹은 말투로 대답’하는 것은 원판 경기에서 이긴 후 ‘한 번 더 하겠’다며 ‘이번에도 맞으면 열 개 주는 거죠?’와 같은 소년의 당당한 물음 이후의 반응이다. 이를 통해 강 씨가 소년에 대해 내심 놀라워하면서 당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원판 경기에서 두 번이나 승리한 후 스무 개의 사탕을 얻었음에도 얼굴이 ‘매우 피로하고 지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일반적으로 어린이에게 부여하는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소년이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전 학습 2회

본문 314~328쪽

- | | | | | |
|------|------|------|------|------|
| 01 ③ | 02 ⑤ | 03 ① | 04 ② | 05 ④ |
| 06 ② | 07 ⑤ | 08 ② | 09 ③ | 10 ③ |
| 11 ① | 12 ⑤ | 13 ④ | 14 ⑤ | 15 ③ |
| 16 ③ | 17 ③ | | | |

[01~04] 고전 산문

■ **작자 미상, 「설홍전」**

〔해제〕 이 작품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주인공 설홍의 고난과 영웅적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영웅 소설이다. 국문으로 쓰인 이 소설은 ‘군담’, ‘변신’, ‘환혼’, ‘연애’, ‘계모와의 갈등’, ‘주인과 노비의 갈등’ 등, 조선 후기 통속 소설의 다양한 성공 전략을 두루 적용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는 18세기 이래 세책점(도서 대여점)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독서 문화가 형성되고, 상업적 목적의 방각본 소설이 출현함에 따라 독자의 통속적 취향에 적극적으로 영합하려 했던, 당시 고전 소설의 경향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이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부는 주인공 설홍이 고난을 극복하고 영웅적 능력을 갖추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다. 후반부는 영웅적 능력을 지닌 설홍이 그 능력을 세상에 펼쳐 부귀공명을 얻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다. 제시된 부분은 설홍이 고난을 겪는 장면에서 시작해 운담 도사를 만나 영웅적 능력을 갖게 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담고 있다.

주제 설홍이 겪은 고난과 영웅적 일대기

전체 줄거리 덕망 높은 처사 설희문과 그의 아내 맹 씨는 부처님의 점지로 늦은 나이에 아들 설홍을 얻는다. 그러나 맹 씨가 병을 얻어 죽고, 아내 잃은 슬픔에 설희문도 세상을 떠나자 설홍은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설희문의 첩 진 숙인에게 맡겨진다. 그러나 악인인 진 숙인은 시비 윤선을 시켜 설홍을 산중에 내다 버린다. 버려진 설홍은 저승으로 가, 그곳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는 모습을 본다. 염라왕의 명으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지만 다시 진 숙인의 핍박을 받아 그가 준 독약을 먹고 꿈으로 변한다. 진 숙인은 꿈처럼 변한 설홍을 ‘인곰’이라 부르며 학대하다가 강물에 버린다. 이후 설홍은 북산도의 응백에게 구조되지만, 탐욕스러운 명선에게 납치되어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명선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된다. 소주 땅의 왕 승상이 우연히 인곰이 된 설홍을 보고 측은히 여겨 구해 주고, 설홍은 꿈에서 만난 노승에게 악을 받아먹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다시 인간이 된 설홍은 운담 도사에게 병법과 도술을 배워 영웅의 능력을 갖춘다. 그사이 왕 승상은 강포한 하인 돌쇠에게 피살되고, 그의 딸 윤선은 위기에 빠지지만 설홍이 나타나 돌쇠를 죽이고 윤선을 구한 뒤 혼인을 약속하고 헤어진다. 한편 진 숙인은 설홍을 핍박한 죄

로 천벌을 받아 거지 신세가 된다. 설홍과 윤선은 각자 여러 차례의 험난한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재회한다. 이후 설홍은 대원수가 되어 가달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위기에 빠진 천자를 구한다. 그 공으로 강동왕이 되고,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 태평성대를 이룬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에서 서술자는 설홍을 괴롭히고 해치려고 하는 진 숙인의 모습을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진 숙인의 악랄하고 잔인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 숙인이 시비 운섬에게 한 말을 보면, 어린 설홍을 ‘산중에 버려 죽게 하였’던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사건에 대한 인물의 반성적 인식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A]에서 서술자는 진 숙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그러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되레 ‘포악하고 잔학한 자라’라는 직설적 표현을 통해 진 숙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배경이 감각적으로 묘사된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진 숙인의 간계로 설홍이 곱처럼 변하고 이로부터 진 숙인에게 모진 괴롭힘을 당하게 된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요약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홍과 주변 인물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결말을 짐작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건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명선은 왕 승상의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꿈이 된 설홍을 은전 백 냥을 받고 왕 승상에게 바친다. ‘명선이 생각하니 은전 백 냥도 적지 아니하거니와 승상의 말씀을 어찌 거역하리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명선이 왕 승상의 요청을 수락한 까닭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든 면도 있지만 승상이 값으로 치르기로 한 은전 백 냥이 또한 만족할 만한 금전적 보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전 백 냥의 이익을 포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 숙인은 점쟁이의 말을 듣고 나서 ‘몸이 노곤하여 피골이 상접하고 몸에 살 한 점이 없’게 된 자신의 변화가 설홍의 원혼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자신이 산중에 버렸던 어린 설홍이 목숨을 잃고, 원혼이 되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것

이다. 그렇게 생각한 이후 진 숙인은 설홍의 유골을 수습해 제부친의 묘 아래 묻어 주기로 결정하는데 이는 설홍의 원혼을 풀어 주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처럼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병적인 변화의 원인을 설홍의 원혼에서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혼을 풀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진 숙인의 내면 심리가 ‘설홍의 원귀로구나’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

② 시비 운섬은 진 숙인의 명령을 받아 설홍의 유골을 찾기 위해 흑운산 당월굴 아래로 가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이에 속으로 ‘설홍은 어린아이라 필연 무슨 짐승이 잡아먹었으리라’라고 생각하며 유골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를 추측하고 있다.

③ 시비 운섬은 설홍에게 ‘저는 공자 댁의 시비 운섬’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설홍과 관련이 있는 사람임을 밝힌다. 그리고 나서 ‘부인께서 공자를 데려오라 하옵기로 왔나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흑운산으로 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운섬이 흑운산으로 오게 된 애초의 이유가 아니다. 운섬은 진 숙인의 명령을 받아 설홍의 유골을 찾으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존해 있는 설홍의 모습을 본 운섬은 이 사실을 감춘다.

④ 시비 운섬은 자신의 주인인 진 숙인의 명령에 따라 설홍의 유골을 수습해 오려고 했지만 애초의 목적과 달리 살아 있는 설홍을 데리고 오게 되었다. 이는 설홍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진 숙인의 예상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섬은 예상 밖의 상황이 전개된 까닭을 진 숙인에서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흑운산에 갔다가 생존해 있는 설홍을 만나 그를 데리고 오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요약해 언급하고 있다.

03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명선과 이별하고 그곳에 와 있으니, 즐겁기는 측량없’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설홍은 악당 명선에게서 벗어나 북산도에 버려진 것을 기쁘게 여긴다. 따라서 북산도에 버려진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B]에 나오는 ‘슬프다’는 표현은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으로, 설홍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설홍이 배고픔을 겪는 상황에 대해 서술자가 보인 정서적 반응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설홍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풀로 머리를 고이고 수목 사이에 누웠으니 홀연 몸이 노곤하여’라는 표현에서, 설홍이 잠들기 직전에 허기와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잠이 들기 전까지 설홍은 아직 짐승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꿈속에서 설홍은 아직 사람으로 되돌아오기 전임에도 노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④ ‘문득 뒷동산의 삐죽새가 울음을 운다. 삐죽삐죽 우는 소리에 깨어나니 남가일몽이라.’라는 표현에서 삐꾸기의 울음소리가 각몽(覺夢)을 제시하는 서사적 장치로 쓰임을 알 수 있다.
- ⑤ 꿈에서 깬 후 설홍은 자신이 꿈에서 다시 인간의 형상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을 알게 된다. 설홍이 변신을 통해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까닭은 꿈속에서 노승이 준 약을 먹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에서 설홍이 겪은 일(노승이 준 약을 먹음.)과 [마]에서 설홍에게 일어난 변화(사람으로 되돌아옴.)가 각각 원인과 결과로 대응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4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는 진 숙인이 먹인 ‘독약’으로 설홍이 인간에서 꿈으로 변신하게 만든다. ㉡는 노승이 준 ‘약’으로 설홍이 꿈에서 인간으로 변신하게 만든다. ㉢를 통해 설홍의 변신을 실현시킨 인물은 진 숙인으로, 그는 노승과 달리 속세의 인간일 뿐 초현실적 존재는 아니다. 따라서 진 숙인과 노승이 둘 다 초현실적 존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설홍이 인간에서 꿈으로, 꿈에서 다시 인간으로 변신한 것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 숙인의 적의(敵意), 노승의 선의(善意)에 따라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설홍이 겪은 두 번의 변신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③ 설홍은 독약을 먹고 꿈이 되어 수난을 당한다. 독약을 먹게 된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일들이 설홍에게는 모두 가혹한 시련이다. 반면 설홍은 노승에게 약을 받아 먹고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노승과의 만남, 노승에게 약을 얻게 된 일 모두 설홍이 조력자를 만나 구조되는 일에 해당한다.
- ④ 설홍이 독약을 먹고 꿈으로 변한 것은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반면 설홍이 약을 먹고 사람으로 돌아온 것은 꿈속에서 겪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⑤ 독약을 먹은 설홍은 꿈의 모습으로 변해 사람의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설홍을 ‘세상에 보지 못하던 짐승’으로만 여긴다. 이는 주인공이 인간 세계에서 소외된 것이다. 그러나 설홍은 노승이 준 약을 먹은 뒤에 본래의 인간 형상을 되찾고, 사람의 말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인간 세계로의 회귀를 뜻한다.

[05~07] 고전 시가

■ **조존성, 「호아곡」**

【해제】 이 작품은 초장의 첫 구가 ‘아이야’로 시작하기 때문에 ‘호아곡(아이를 부르는 노래)’이라고 불린다. 작가인 조존성은 광해군이 자신의 생모인 공빈 김씨를 왕비로 추존하는 것에 반대하다 파직당한 후 은거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그 당시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각 수에 등장하는 ‘서산’과 ‘동쪽 골짜기’, ‘남쪽 논밭’, ‘북쪽 마을’에서 화자가 하는 행위는 작가의 은자적 삶의 모습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작품에 활용된 고사를 통해 농사를 지으며 은거하면서도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던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 전원에서 즐기는 은거 생활의 즐거움

【구성】

- 제1수: 서산에서 고사리를 캐며 즐기는 삶
- 제2수: 동쪽 골짜기에서 낚시를 하며 즐기는 삶
- 제3수: 남쪽 논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즐기는 삶
- 제4수: 북쪽 마을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는 삶

05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제2수>에서는 ‘내 흥 겨워 하노라’라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에서의 삶을 즐기는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 <제4수>에서는 ‘어즈버 희황상인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라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술을 마시며 삶을 즐기는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1수>에서는 ‘서산에 날 늦겠다’라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며 ‘구력 망태’를 찾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2수>에서는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제1수>의 ‘벌써 아니 자랐으랴’, ‘끼니 어이 이르랴’에서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제3수>에서도 ‘누구와 마주 잡을꼬’에서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드러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③ <제2수>의 ‘저 고기 놀라지 마라’는 ‘고기’를 감정 표현이 가능한 칭자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기’와 화자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제3수>에서는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있지 않으며, 자연물과 화자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 ⑤ <제4수>에서는 ‘희황상인’이라는 중국 고사와 관련된 인물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과거와 달라진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제3수>에서는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

고 있지 않다.

06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제1수>에서 화자는 밤이 지났기에 서산의 고사리가 자랐을 것이라며 구력과 망태를 어서 준비하자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서산의 고사리를 얼른 뜯으러 가자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제3수>에서 화자는 남쪽 밭에 할 일이 많은데 ‘따비’를 다루는 것이 서툰 자신이 누구와 마주 잡고 따비를 다룰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다. 따라서 ㉡은 따비를 다루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1수>에서 고사리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평가는 드러나지 않으며, <제3수>에서 화자의 모습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가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③ <제1수>에서 고사리는 화자가 캐고자 하는 대상일 뿐, 화자가 소외감을 느끼는 대상과는 관련이 없다. <제3수>에서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제1수>에서 화자는 서산에 해가 지고 있으므로 고사리를 캐기 위해 구력과 망태를 챙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 대상과 관련된 화자의 현실 인식과 관련된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수>에서 화자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제1수>에서 화자는 고사리가 자랐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고사리의 외양이 변한 것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제3수>에서 화자가 자신의 주변 환경이 변한 것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낸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에서 공자가 장자와 결낙의 권유에 대해 사람의 무리와 함께 살지 않고 누구와 함께 살겠느냐고 말했다는 고사가 이 작품과 관련 있다고 한 것과 <제3수>에서 화자가 태평한 세월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 역시 임금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는 현실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4수>에서 화자는 달빛 아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모습을 태평하게 숨어 사는 사람인 ‘희황상인’에 비유하고 있을 뿐,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서 백이와 숙제가 지조를 지키기 위해 고사리만 뜯어 먹다가 굶어 죽었다는 고사와 연관 지어 볼 때, <제1수>에서 화자가 고사리를 캐는 행위는 자신의 지조를 지키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여상이 자신의 능력을 알아줄 군주를 기다리며 미끼를 끼우지 않은 곶은 낚싯바늘을 물에 드리웠다는 고사와 연관 지어 볼 때, <제2수>에서 화자가 ‘미늘 없는 낚시’를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펼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장자와 결낙이 자연에 은거하며 한가롭게 밭을 갈았다는 고사와 연관 지어 볼 때, <제3수>에서 화자가 남쪽 논밭에서 하는 일은 은거한 화자가 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화자는 이러한 삶도 ‘역군은이시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는 힘겨운 농사일마저도 임금의 은혜라 여기며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작가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화자의 행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4수>에서 화자는 ‘북쪽 마을’에서 술을 마신 뒤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 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는 은거적 삶을 살면서도 자연과 조응하며 유유자적하게 지낸다고 볼 수 있다.

[08~13] 갈래 복합

(가) 신석정, 「들길에 서서」

[해제] 이 작품의 화자는 저문 들길에 서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삶에 대한 밝고 건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작품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두 세계를 대립시키고 있는데, 하나는 ‘시적 자아가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곳은 이미 어두워진 공간이고, 뼈에 저리도록 생활이 슬픈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속의 ‘나’는 결코 연약하지 않아 푸른 산과 같이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살고 있다. 두 번째 세계는 ‘푸른 하늘과 푸른 별이 있는 세계’이다. 이 세계는 미래에 다가올 것이기에 고달픈 현재가 결코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주제] 굳센 삶의 의지와 이상 추구

[구성]

- 1, 2연: 푸른 하늘을 우러르며 사는 송고한 삶
- 3, 4연: 지구를 디디고 사는 기쁜 삶
- 5, 6연: 푸른 별을 바라보며 사는 거룩한 삶

(나) 송수권, 「등꽃 아래서」

[해제] 이 작품은 등나무 아래에서 등꽃을 바라보며 느낀 화자의 정서와 화자가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엉쿨진 ‘등꽃송이’의 모습을 통해 화자는 삶의 슬픔과 기쁨의 복합적인 정서를 느끼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주제] 등꽃을 통해 발견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

구성

- 1연: 등꽃을 보며 삶의 슬픔과 기쁨의 복합적 정서를 느낌.
- 2연: 등꽃을 통해 조화로운 삶의 의미를 깨달음.
- 3연: 화자가 발견한 '등꽃송이'의 아름다움

(다) 정여울,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해제] 이 작품은 꿈을 포기하는 습관을 가졌던 자신의 아픈 경험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과 함께 꿈을 찾는 젊은이들에 대한 당부를 전하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어린 시절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꿈을 포기한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꿈을 포기하는 버릇을 습관화해 왔다. 하지만 소중한 벗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치명적인 허점을 아프게 확인하며, 꿈을 찾는 젊은이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다.

주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자세의 중요성

구성

- 처음: 어린 시절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하게 된 사연
- 중간 1: 꿈을 쉽게 포기하는 습관이 형성된 과정
- 중간 2: 소중한 벗과의 대화를 통해 깨닫게 된 치명적인 허점
- 끝: 꿈을 찾는 젊은이들에 대한 당부

08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는 '푸른 산', '흰 구름', '푸른 하늘', '푸른 별'과 같은 자연물을 활용하여 꿈과 희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노래하고 있다. 또 (나)는 '등나무'의 줄기, 동치, 꽃송이와 같은 자연물을 바탕으로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지향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와 (나)에서 화자가 자신의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가)에는 '얼마나 ~ 일이나'와 같은 유사한 시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나)에는 유사한 시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 ④ (가)에는 화자의 인식과 사고의 흐름이 드러나 있을 뿐, 공간 이동에 따라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 (나)에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가)와 (나)에는 모두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가)와 (나)의 화자가,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9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㉔에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꿈과 희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태도를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를 읽고 공감하는 독자들이 함께 지향하며 살아갈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㉔에, 타인의 삶을 위한 화자의 자기희생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화자는 비록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마치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㉑에는 꿈과 희망을 지닌 채 살아가자는 화자의 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자연물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㉒에서 화자는 비록 연약한 두 다리이지만 이를 젊은 산맥으로 삼으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가자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 ④ ㉓은 등나무 아래에서 등나무 줄기가 꼬여 널쿨져 뻗는 모습을 본 후, 화자가 보인 주관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㉔은 화자가 경험하고 있던 슬픔이 기쁨과 희석되어 함께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㉔은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 이미지의 특징과 효과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다)의 '사금파리'는 '사기그릇의 깨어진 작은 조각'을 지칭하는 것이다. '사금파리'는 글쓴이가, 오래도록 자신과 함께해 온 소중한 벗으로부터 받은 질문이 자신의 허점을 정확하게 건드림으로써 느끼게 된 심리적 고통을 표현하는 어휘이다. 그리고 '사금파리'는 날카로운 외형과 이로부터 연상되는 섬뜩한 촉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며 글쓴이가 느낀 심리적 고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3연에서는, '부절히 움직'이는 '둥근 지구'를 젊은 산맥과 같은 두 다리로 밟고 서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둥근 지구'를 '부절히 움직'이는 이미지와 연결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나)의 '구슬 같은 소리'와 '은은한 소리'는 모두 화자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 심리 상태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슬 같은 소리’가 ‘은은한 소리’로 이어지며 화자의 내면세계가 외부 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반영된 것일 뿐 화자가 지닌 인고의 정신과는 관련이 없다. 또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의 주체는 화자를 비롯해 이 시를 읽고 공감하는 독자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와 독자의 강인한 이미지가 환기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편 (나)에서 ‘튼튼한 줄기가 꼬여’의 주체는 등나무로 이러한 시구가 등나무의 강인한 이미지를 환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화자가 지닌 인고의 정신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나)에서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는 것은 화자의 심리가 과거의 상태에서 변화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 화자의 심리가 고조되는 양상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다)에서 글쓴이는 ‘꿈의 불꽃’이 언제 타올랐는지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그러한 불꽃이 사그라지던 순간만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꿈의 불꽃’은 글쓴이의 심리가 고조되는 양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1 작품 간 비교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다)의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질투와 존경을 느낀다고 하였다. 즉 ‘나’는 실패와 관계없이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도전을 승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에서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실패와 관계없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승고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의 화자는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를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견디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의 ‘나’는 이모와 수다를 떨고 나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하고 연습을 게을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때 피아노를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의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가 (다)의 ‘나’가 ‘피아노’를 ‘뜨겁게 사랑했’던 것에 대응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다)에서 ‘나’는 꿈을 너무 쉽고 빨리 포기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오히려 ‘꿈을 향해 도전하며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들을 동경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가 ‘꿈을 향해 도전하며 처절하게 실패’하는 것을 보며 슬픔을 느끼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화자는 ‘가닥가닥 꼬여 널쿨져 뻗는’ 등나무 줄기의 모습을 보며 슬픔으로 가득했던 심리 상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가 ‘등나무’가 ‘가닥가닥 꼬여 널쿨져 뻗는 것’을 경계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다)의 ‘나’가 언급하고 있는 ‘녹’은 자신의 꿈을 쉽게 포기하는 내면화된 습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밑뿌리’는 화자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중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화자의 원래 모습조차 알 수 없게 하는 ‘녹’과 같은 대상은 아니다.

12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다)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글을 읽는 젊은이들은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하며,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을 전혀 고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말았으면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자신의 꿈에 도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 꿈을 위해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오래도록 간직했던 꿈을 쉽게 포기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글쓴이는 꿈을 이루는 데 실패하더라도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자신이 꿈을 쉽게 포기하는 버릇을 내면화하였으며, 이러한 버릇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라 쉽게 고칠 수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여 꿈을 포기했던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1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화자는 ‘등꽃송이’를 본 이후부터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느끼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의 글쓴이가 이모와 수다를 떨었던 경험은 글쓴이가 꿈을 포기하게 된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의 ‘이모와 수다를 떨’었던 경험을, 글쓴이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삶의 태도를 지향하게 된 계기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화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푸른 하늘’과 ‘푸른 별’을 생각하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나)의 화자 역시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지향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이처럼 슬픔이 극복되는 상황을 ‘파란 옥빛 구슬’을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가)의 ‘저문 들길’은 푸른 하늘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부정적 상황이나 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나)의 ‘슬픔’은 화자가 등꽃과 등나무 넝쿨을 보며 인식을 전환하기 이전에, 삶의 과정에서 경험했던 고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서도 꿈과 희망을 간직한 채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쁜 일이나’는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을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바라보자’ 역시 꿈과 희망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 (다)의 ‘말았으면 한다’는, 글쓴이가 이 글을 읽는 젊은이들에게 실현 가능성이나 직업, 생활의 안정 등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므로, 독자들이 꿈과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글쓴이의 마음이 드러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나)의 화자는 등나무 줄기가 꼬이며, 슬픔과 같은 부정적 요소들이 녹아내린 후 ‘좋은 꽃들’이 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다)의 글쓴이는 ‘무언가에 몰두해 본’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자 자신의 진정한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꽃들’과 ‘무언가에 몰두해’ 보는 것은 꿈과 희망을 지향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고양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14~17] 현대 소설

■ 이문구, 「장곡리 고욤나무」

[해제] 이 소설은 한 농촌 노인이 세상을 등지며 일어난 사건들과 그의 생전의 모습을 통해 정부의 농촌 정책 실패를 꼬집고 있는 작품이다. 농산물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강대국의 압력에 수입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던 1990년대, 도시화, 산업화의 물결 속에 개발에 소외되었던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 갈 수밖에 없었다. 농지 보호라는 허울 좋은 명분 속에 농민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땅의 가치조차 하락하게 되자, 농촌에서 희망을 포기하게 된 젊은이들은 농촌을 점차 떠나고, 이 과정에서 농촌은 세대 갈등까지 겪게 되어 공동체는 와해되고 파편화되어 간다. 소설 속에서 아버지의 장례에서

자 유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자녀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씁쓸하면서도 정부의 농촌 정책 실패를 방증하는 것이며, ‘수고도 뭣지도 모르는 것이 수단은 워디서 나와서’라고 일갈하는 주인공 기철의 모습은 세상의 근본인 노동과 농업의 가치를 무시한 채 물질만을 추구하는 현 세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다.

주제 개발에 소외된 농촌의 황폐한 현실

전체 줄거리 이봉출은 사촌 형인 기철이 스스로 세상을 하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에 오른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기철의 죽음에 의아함을 느끼며 두런거리고, 봉출은 며칠 전에 정부의 농업 정책을 투덜거리는 기철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던 일, 기철이 자신의 생일에 자식들과 다투었던 일 등을 떠올린다. 장례가 치러지는 기철의 집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기철의 아내인 형수가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도 자녀들은 유산을 둘러싼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며 한탄을 한다. 봉출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농지를 팔아 사업 자금을 달라는 큰아들과 기철이 입씨름하던 모습과 고욤나무의 쓸모를 개탄하던 그의 말을 겹쳐 회상한다. 여기까지 떠올려 본 봉출은 기철이 세상을 떠난 것은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선거용 농지 정책마저 그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4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㉔에서 경찰관을 친 것을 두고 법을 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철의 언급은 앞에서 경찰관이 ‘내가 아저씨를 민 게 아니라 법이 민 거예요.’라고 한 표현을 흉내 낸 것으로, 경찰관들이 스스로 ‘법’임을 자처한 것을 빈정대면서 동시에 자신의 행동이 농촌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담은 정당한 행동임을 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㉗과 ㉔는 모두 풍자적 성격을 띤 어조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을 풍자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찰을 유도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 ② ㉗과 ㉔ 모두 상대방인 경찰관의 말에 응수하고 있는 것이나 논지에 대한 반박이 아닌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핑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③ ㉗과 ㉔에 두 대상을 대비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㉗의 ‘억’은 돈의 액수를 뜻하는 ‘억(億)’과 비명을 뜻하는 ‘억’이 동음이의어임에 착안한 것이나, ㉔는 앞서 경찰관이 자신의 등을 밀어 놓고 ‘법이 민 거’라고 말한 것을 되받아 한 말로 동음이의어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 ㉗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농촌이 점차 빈곤해지는 현실을 비판하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㉗과 ㉔ 둘 다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15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봉출은 기출과의 마지막 만남을 회상하면서 평소와 달랐던 기출의 행동이 심상치 않아 당시 느꼈던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출과 봉출이 함께 겪었던 과거의 일을 봉출의 입장에서 묘사하고 있고, 상대방인 '두 사람'에 대해 짐작하는 바를 밝히고 있으나 기출이 이후에 트집을 잡는 행동을 하는 것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경찰관과 기출이 갈등했던 일을 봉출의 입장에서 회상하고 있으나 봉출이 기출의 행동을 저지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해당 부분은 자녀들과의 갈등 중 중요한 사건인 큰아들과의 언쟁을 봉출이 떠올리는 부분이다. 다음 부분에 인용된 고욤나무를 보며 한탄하는 기출의 말은 정부로부터 외면받아 쓸모없어진 농민들의 신세 또는 자녀들로부터 팔시받는 자신의 처지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무의 가격 하락을 걱정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⑤ 기출이 본인의 생일 아침에 아들과 언쟁을 벌인 것을 봉출이 기억하고 이를 회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생일에 땅 거래가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16 인물의 성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 장면은 기출이 자녀들과 겪었던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 것으로, 자녀들에게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기출은 땅이 팔리더라도 그 돈을 '너 같은 늙헌티는 못' 준다고 했으나 그것이 다른 아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출은 효근이 평소 일을 무서워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그에게 사업 자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 ② 효근은 자신이 '예비 상속자'임을 밝히면서 아버지 사후(死後) 어차피 받을 돈이라면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좋다고 피력하고 있다.
- ④ 기출의 '논 팔구 밭 팔아서 나간 늪은 넘덜 되듯이 되는 것 두 못 봤'다는 말은 땅을 팔고도 실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땅을 판 값으로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 ⑤ 기출은 효근이 과거 '개같이 벌어들 정승같이 쓰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 것을 다시 언급하며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불만이 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17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아버지의 부고를 받은 자녀들이 재산의 권리부터 주장하는 것은 물질 중심주의적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보여 준다. 봉출과 기출의 아내가 한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녀들의 변화한 모습에 대한 한탄이라고 보아야 한다. 농촌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한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출은 농지 매매 증명제와 토지 거래 허가제로 농토의 가치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된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농촌 정책에 대한 불만이자 불신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기출이 촌에서 억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것은 농지 매매 증명제와 토지 거래 허가제 등의 정책으로 농토의 값이 떨어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더 빈곤한 상황에 놓이게 된 농민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도시로 부(富)가 집중되고 있던 현실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땅은 농민들의 중요한 생산 수단으로 기출에게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나, 더 이상 농업을 자신의 미래로 생각하지 않는 기출의 아들에게 땅은 어서 팔아 자신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것은 도시에서의 미래를 설계하던 당시 젊은이들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기출은 아들을 향하여 수고의 가치를 모른다며 비난한다. 이것은 기출이 농사일이 지닌 본질적 가치를 외면한 아들에게 실망감을 느꼈음을 보여 주며, 이 가치에 공감하지 못하고 땅을 자금 마련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아들과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눈에 보는 정답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1강	01 (1)○(2)×(3)○(4)○ 02 @: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03 ②
2강	01 ㉠: (가)×(나)×, ㉡: (가)×(나)○, ㉢: (가)○(나)○, ㉣: (가)○(나)× 02 ② 03 ②
3강	01 ⑤ 02 (1)×(2)×(3)○ 03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4강	01 ① 02 ㉠: 해진 잠신, ㉡: 사랑, 애정 03 ㉠: 비난, ㉡: 두려운, 두려워하는, 미안한
5강	01 ③ 02 (1)○(2)×(3)○ 03 '만선'은 어부 곰치의 소망과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오히려 가족의 비극과 파멸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강	01 (1)×(2)○(3)○(4)○(5)× 02 ③ 03 비판 없이 남의 것만을 새롭고 곱게 보려는 풍조
7강	01 ⑤ 02 ⑤ 03 위태로운 상황(상태)
8강	01 (1)○(2)○(3)× 02 ② 03 @: 온달과 공주의 아름답지만 슬픈 사랑, ㉠: 공주가 궁에서 보낸 병사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장면
9강	01 (1)×(2)○(3)×(4)○ 02 ② 03 @: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 ㉠: 50원짜리 갈비

2부 적용 학습

고전 시가	01	01 ④ 02 ③ 03 ⑤	현대 시	01	01 ④ 02 ④ 03 ⑤	고전 산문	01	01 ③ 02 ④ 03 ④ 04 ④
	02	01 ④ 02 ⑤ 03 ①		02	01 ⑤ 02 ② 03 ③		02	01 ③ 02 ② 03 ④ 04 ⑤
	03	01 ② 02 ⑤ 03 ④		03	01 ③ 02 ② 03 ③ 04 ⑤		03	01 ③ 02 ③ 03 ④ 04 ①
	04	01 ④ 02 ① 03 ③		04	01 ② 02 ④ 03 ④		04	01 ④ 02 ③ 03 ③ 04 ①
	05	01 ④ 02 ④ 03 ②		05	01 ② 02 ⑤ 03 ⑤ 04 ①		05	01 ③ 02 ⑤ 03 ② 04 ⑤
	06	01 ② 02 ⑤ 03 ② 04 ⑤		06	01 ⑤ 02 ① 03 ④ 04 ③		06	01 ④ 02 ③ 03 ⑤ 04 ③
	07	01 ① 02 ③ 03 ⑤		07	01 ① 02 ④ 03 ② 04 ②		07	01 ② 02 ③ 03 ⑤ 04 ⑤
	08	01 ⑤ 02 ⑤ 03 ④		08	01 ③ 02 ⑤ 03 ①		08	01 ② 02 ⑤ 03 ⑤ 04 ④
	09	01 ⑤ 02 ⑤ 03 ③		09	01 ③ 02 ③ 03 ③		09	01 ③ 02 ② 03 ⑤ 04 ③
	10	01 ⑤ 02 ④ 03 ①		10	01 ⑤ 02 ① 03 ②		10	01 ① 02 ④ 03 ③ 04 ①
	11	01 ⑤ 02 ④ 03 ⑤ 04 ⑤		11	01 ① 02 ④ 03 ③ 04 ③		11	01 ② 02 ④ 03 ① 04 ②
현대 소설	01	01 ④ 02 ④ 03 ② 04 ②	극·수필	01	01 ② 02 ④ 03 ④ 04 ⑤	갈래 복합	01	01 ③ 02 ① 03 ④ 04 ③ 05 ② 06 ④
	02	01 ① 02 ④ 03 ⑤ 04 ⑤		02	01 ⑤ 02 ⑤ 03 ⑤ 04 ④		02	01 ③ 02 ⑤ 03 ② 04 ③ 05 ① 06 ④
	03	01 ⑤ 02 ④ 03 ③ 04 ②		03	01 ② 02 ⑤ 03 ⑤		03	01 ② 02 ① 03 ② 04 ③ 05 ④ 06 ④
	04	01 ④ 02 ③ 03 ⑤ 04 ③		04	01 ④ 02 ③ 03 ② 04 ④		04	01 ① 02 ④ 03 ③ 04 ⑤ 05 ④ 06 ③
	05	01 ① 02 ③ 03 ① 04 ⑤		05	01 ⑤ 02 ④ 03 ① 04 ①		05	01 ② 02 ② 03 ⑤ 04 ⑤ 05 ④ 06 ⑤
	06	01 ⑤ 02 ⑤ 03 ④ 04 ②		06	01 ① 02 ⑤ 03 ⑤		06	01 ② 02 ⑤ 03 ③ 04 ⑤ 05 ④ 06 ②
	07	01 ④ 02 ③ 03 ④ 04 ③		07	01 ③ 02 ① 03 ①		07	01 ④ 02 ④ 03 ③ 04 ③ 05 ⑤
	08	01 ③ 02 ⑤ 03 ③ 04 ④		08	01 ② 02 ② 03 ②		08	01 ④ 02 ⑤ 03 ① 04 ③ 05 ⑤ 06 ②
	09	01 ④ 02 ③ 03 ② 04 ③					09	01 ④ 02 ④ 03 ② 04 ④ 05 ③ 06 ⑤
	10	01 ⑤ 02 ① 03 ③ 04 ③					10	01 ② 02 ③ 03 ③ 04 ③ 05 ② 06 ②
	11	01 ① 02 ③ 03 ② 04 ④					11	01 ③ 02 ④ 03 ⑤ 04 ② 05 ④ 06 ③

3부 실전 학습

1회	01 ③ 02 ③ 03 ⑤ 04 ④ 05 ② 06 ④ 07 ④ 08 ② 09 ④ 10 ④ 11 ⑤ 12 ⑤ 13 ⑤ 14 ③ 15 ③ 16 ② 17 ⑤
2회	01 ③ 02 ⑤ 03 ① 04 ② 05 ④ 06 ② 07 ⑤ 08 ② 09 ③ 10 ③ 11 ① 12 ⑤ 13 ④ 14 ⑤ 15 ③ 16 ③ 17 ③